

최 종
연구보고서

새로운 어촌지도사업 도입 및 운영효율화 방안

Study on Introduction of New Guidance Project for Fishing
Village and Effective Operation Method

2004. 6

주관연구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위탁연구기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

제 출 문

해양수산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새로운 어촌 지도사업 도입 및 운영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4년 6월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총괄연구책임자 : 이 승 우

연 구 원 : 윤 상 호

연 구 원 : 이 종 훈

연 구 원 : 한 광 석

연 구 원 : 홍 장 원

연 구 원 : 박 상 우

위탁연구기관명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위탁연구책임자 : 노 한 철

요 약 문

I. 제 목

새로운 어촌 지도사업 도입 및 운영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수산업의 부가가치는 바다의 수산자원을 이용하여 창출되기 때문에 바다의 인근에 위치한 어촌 주민을 중심으로 수산업이 영위되고 있다. 따라서 수산업의 발전은 어촌 주민의 생산행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수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중앙 정부는 수산정책의 목표와 정책을 수립하고, 이러한 수산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도적 수단과 경제적 수단을 수행한다.

수산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의 전달과 집행을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수산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어촌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국가기관 중의 하나가 해양수산사무소이다. 해양수산사무소의 주요한 업무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수산기술을 지도·보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양수산사무소는 양식어업의 도입기에 어업인에게 양식기술의 지도 및 보급에 앞장 서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였다. 1960년대의 해조류 양식업, 1970년대의 패류양식어업 및 1980년대의 어류 양식어업의 도입과 육성을 위하여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즉, 양식어업의 육성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라는 수산목표를 달성하는데 어촌지도기관인 해양수산사무소는 어업인과 접촉하는 최하부의 국가기관으로서 그 역할이 지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양식어업이 도입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어 따라 어업인의 양식기술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어 해양수산사무소의 양식기술의 보급 및 지도에 대한 어업인의 수요가 많이 감소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7년 7월에 수산물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지고, 한국·일본·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선포에 따른 근해어장의 축소로 어업인의 소득 감소와 불안정은 어촌의 유지·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수산업의 여건변화는 새로운 수산정책의 목표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즉 종래의 생산자 중심의 수산정책에서 생산자 및 소비자 지향의 수산정책의 수립이 필요하고 바다의 수산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먹거리 생산정책뿐만 아니라 바다와 어촌의 다양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따른 어촌의 활성화가 수산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수산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수산정책 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어업인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해양수산사무소의 새로운 어촌지도사업의 도입이 필요하다. 수산여건의 변화에 따라 발생되고 있는 지도사업의 비효율성과 구조적 문제를 조사·분석하여 어촌지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수산정책의 효율성과 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제고시켜야 한다.

어촌지도 사업은 1963년 국립수산물진흥원에 지도과가 생긴 이후에 어업인의 기술지도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수행되고 있다. 1980년대 이전까지 어촌지도 사업의 내용은 생산기술 지도, 주산단지 집중지도, 소득개발기술지도, 기술홍보활동과 어촌지도 효율성 제고 등이었다. 그리고 1980년대 전반에는 젊은 어업인의 탈어촌으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과 노동생산성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후계자 사업의 지도 업무가 추가되었고, 1980년대 후반에는 어장환경 보전 및 지속적 어업 발전을 위한 양식어장 관리 지도업무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에 어업인의 경영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어업경영지도업무가 추가되었으며, 최근에 수산통계 업무가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어촌지도 사업은 수산여건과 수산정책의 변화에 따라 업무의 내용이 증가하여 왔다. 따라서 어촌지도 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할 뿐만 아니라 추가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어촌지도 공무원의 채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양식어업의 기술지도와 홍보가 중심인 어촌지도 사업은 어업인의 양식기술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여 어촌지도 공무원의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어업인이 어촌지도 공무원으로부터 원하는 어촌지도 업무와 수산여건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어촌지도 업무를 발굴하여 어업인과 어촌지도 공무원이 동시에 만족하는 어촌지도 사업의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 수행중인 어촌지도 사업의 종합적인 조사·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어촌지도 사업을 발굴하고, 비효율적인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어촌지도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Ⅲ.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해양수산사무소의 업무와 조직이다. 즉 해양수산사무소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해양수산사무소의 연혁을 중심으로 해양수산사무소의 변천, 해양수산사무소의 구성과 특성 등의 해양수산사무소의 현황과 해양수산사무소의 역할 등을 조사·분석한다.

둘째, 해양수산사무소의 업무를 조사·분석한 후 해양수산사무소의 업무와 조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문문을 작성하여 어업인, 수산직 공무원 및 어촌지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문제점을 도출한다.

셋째, 최근 수산업의 여건 변화와 어촌의 여건 변화에 따른 해양수산사무소의 기능변화를 살펴보고, 해양수산사무소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새롭게 도입하여야 할 업무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사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적자원 관리방안 및 조직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최근의 급격한 국내외 수산여건의 변화와 어촌의 노령화와 어촌 소득의 감소 등에 의한 어촌여건의 악화에 따른 어촌 경제 침체를 벗어나는데 해양수산 사무소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사무소의 새로운 역할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어촌지도 사업에 관한 선행 연구의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나은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 어촌지도 사업뿐만 아니라 농촌지도 사업에 관한 연구를 검토한다. 특히 수산여건의 변화에 따른 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사업을 수산기술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어촌경제가 활성화된 국내외 사례를 문헌을 통하여 조사하여 새로운 어촌사업을 발굴한다.

어업인의 어촌지도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촌지도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한다. 또한 어촌지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촌지도 공무원의 어촌지도 사업 수행에 대한 만족도와 지도업무의 개선 필요성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한다.

수산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촌지도 사업을 파악하여 단기 수행 업무와 어촌지도 조직의 장기적 개편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관련 해양수산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한다.

이상의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어촌지도 사업의 발굴과 어촌지도 조직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도출한다.

IV. 연구개발결과

1. 새로운 해양수산사무소 사업의 도입방안

1) 수산업과 어촌여건의 변화

(1) 국제적 여건의 변화

UN해양법 협약이 1994년에 발효됨에 따라 동북아시아 3국인 한국, 중국과 일본은 1996년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여 우리나라의 원양어업과 근해어업의 어장이 축소되었다. 즉, 세계 주요어장의 90%가 연안국의 관할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은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이 허용한 어획량만 어획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과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근해어업 조업구역이 축소되어 어업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WTO의 DDA 협상과 FTA 협상에 따라 시장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외국수산물과의 무한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수산물의 위생·안전관리 체계 강화는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출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외국 수산물 안전관리제도 동향을 긴밀히 파악함과 동시에 국내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국내 수산업 여건 변화

2002년 국내 수산물 총생산량은 2,476천 톤으로 1980년 대비 2.7% 증가하였지만, 전년 대비 7.1% 감소하였다. 이는 생산수준이 가장 높았던 1994년에 비해 28.8% 감소한 결과로 1990년 중반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산물 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는 자급률의 하락을 재촉하고 있다. 그 동안 수산물 자급률은 1980년 138%, 1990년 127%, 2001년 82%로 계속 하락하여 왔다. 반면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건강식품으로 인식된 수산물의 소비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특히 수산물은 항암물질을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EPA(eicosapentaenoic acid), 머리가 좋아지는 DHA(docosahexaenoic acid) 성분을 다량 함유한 고단백·저칼로리 식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건강식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산물을 통한 단백질 섭취량도 증가하고 있는데, 1970년도 수산물을 통한 1인 1일당 단백질 섭취량은 7.7g으로 전체 단백질 섭취량에 10.42%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도에 약 17.67g의 단백질을 섭취하여 전체 단백질 18.5%를 수산물을 통해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수산물에 대한 영양학적 인식이 점차 높아지면서 수산물을 통한 단백질 섭취량도 증가하고 있다.

(3) 어촌을 둘러싼 여건 변화

어가소득의 정체 및 정주여건의 악화로 어촌의 자생력과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어왔다. 어촌의 생산성 저하와 정주환경의 악화는 어가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를 가속화시켰다.

어가인구는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0년 496천명에서 2001년 234천명으로 53% 감소하였다. 그리고 어가소득의 증가폭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1991년 11,309천원에서 2001년 22,252천원으로 96.7% 증가율을 보였으나, 같은 기간의 도시근로자 소득은 126.6% 증가하였다.

2001년 어가소득은 농가소득의 93.1%, 도시근로자소득의 70.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더욱이 가구당 어가부채는 '90년 5,925천원에서 2001년 15,466천원으로 2.6배가 증가하여 어가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 어촌경제가 낙후성을 보이는데 반하여 어촌의 가치는 국민 관광욕구의 증가로 인한 어촌의 기회 증대, 고도의 정보화 시대의 도래를 통한 도시와 교류 증대가능성 대두, 지속 가능한 개발의 추진 등으로 그 가치가 점차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도시민들에게 어촌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더욱이 노동시간의 감소, 인간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으로 여가활동을 중시함에 따라 도시인이 도시 밖에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상을 어촌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민들이 어촌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향후 어촌에서 1차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2차 산업과 3차산업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어촌에서 산업의 다원화현상은 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여 어촌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이와 같이 정보화와 신기술 등에 의한 개선된 생활환경과 쾌적하고 풍요로운 자연환경, 문화와 역사를 지닌 어촌은 양호한 생활공간의 역할을 할 것이며 점차 도시민들에 의해 관심이 증대될 것임에 틀림없다.

2) 새로운 업무의 도입방안

(1) 필요성

해양수산부의 조직 중에 해양수산사무소는 어업인과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많은 조직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어촌지도조직인 해양수산사무소는 어촌이 직면하는 환경변화를 인지하여 어업인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경우에 조직의 효율성은 커질 것이다.

어촌지도관리 업무의 변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3년 국립수산과학원의 지도과 업무 내용은 ①수산에 관한 기술 보급 ② 어촌청소년, 부녀자 지도를 위한 조직 육성 ③ 협동조합의 육성 ④ 어촌부업지도 ⑤ 자연자원 보존·이용 ⑥ 홍보교양 ⑦ 어촌지도자 육성 및 훈련 ⑧ 수산기술자 양성과 수산관계공무원 훈련 등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업무의 근간은 1990년대까지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와서 1990년대 이후 급격한 대내외 수산환경 변화로 인하여 자원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총 허용어획량(TAC)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어업생산통계 조사 등을 새로운 업무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수산업과 어촌의 환경변화에 어업인이 대응할 수 있는 지도업무의 도입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어촌지도직 공무원이 다양한 바다와 어촌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어업인에게 지도하고, 또한 수산물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수산물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지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업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업무의 중요도 평가

해양수산사무소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업무 조정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식기술개발업무는 예산을 수반하는 지역특화사업 중심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이 수반되는 수탁사업 수행의 중요도가 “상”으로 평가됨과 동시에 자체 사업인 지역특화시험사업이 “中上”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을 살린 지역특화시험사업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자긍심과 지역 사랑의 마음을 토대로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양식어장 관리 및 예방업무는 양식어업 경영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어병과 적조 등에 대한 예찰업무는 강화하고, 동시에 어업인의 의식변화를 통하여 성공할 수 있는 자율관리어업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역할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어업질서확립대책과 관련된 업무는 사법권이 있는 해양경찰서가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안정지관측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셋째, 어업인 교육 업무 중 어촌후계인력 육성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는 교육을 담당하는 해양수산사무소가 통합관리하고, 어업인의 발상의 전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연찬회는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촌 미래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선진지 견학을 하게 함으로써 어업인이 어촌지역의 혁신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어업인 교육은 자체 강사보다 각 분야의 외부 강사를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어촌지역의 혁신은 수산 관련 시설 투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어업인이 비전을 갖고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인식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넷째, 어촌과 도시의 정보격차 해소는 어촌지역 혁신과 국토균형발전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어업인 정보화 교육은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촌지도직 공무원이 직접 정보화 교육을 하기 보다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원격영상 정보화 교육 인프라 구축은 정보화 담당관실이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식적인 경영일지 기록지도보다 수산양식업의 표준소득조사를 통한 경영개선 방향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수산기술 홍보업무 중 이달의 수산소식지의 발간은 지방해양수산청이 주관하고, 그 내용도 어촌의 기술홍보는 물론이고 어촌의 전반적 홍보를 포함하여 어업인에게 정보원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식적인 어업인 상담실 운영에서 탈피하여 정보화를 통한 상담운영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여섯째, 해양수산사무소의 업무로 최근에 도입된 업무 중에 타 기관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업무로서 단지 타기관의 인원부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업무는 해양수산사무소의 업무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새로운 업무의 도입

조직 업무는 조직의 목표에 의하여 결정된다. 조직 목표란 조직이 실현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이다. 조직 목표에는 외부로 표방하는 공언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제 추구하는 운영목표가 있다. 그러나 공언목표가 반드시 운영목표와 일치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특히 조직내 여러 목표가 동시에 있을 경우에 더욱 갈등관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명확한 목표 설정은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조직 목표를 조직 업무의 영향변수로 보는 이유는 조직목표가 조직의 존재 및 조직 정당성의 표현이면서 구성원의 행동제약 및 지침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며 의사결정의 지침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조직 목표에 따라 조직 업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직 업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수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1960년대 어촌지도 업무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해양수산사무소의 업무인 기술지도의 중요성이 낮아졌다. 따라서 수산기술지도 업무의 비중이 낮아짐에 따라 어업인이 해양수산사무소를 찾는 빈도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자긍심이 예전보다 훨씬 떨어졌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사무소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지도업무 위주의 해양수산사무소 업무에 수산행정 업무를 추가하여 종합수산행정 조직으로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해양수산사무소를 종합수산행정기관으로 전환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산행정업무와 중복성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해양수산사무소는 해양수산부의 산하기관이지만, 지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한 수산행정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산행정업무와 중복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와 해양수산사무소 사이에 업무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업무갈등이 발생할 경우에 수산행정의 중복성으로 해양수산사무소의 지방이전에 불을 붙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산행정의 업무추가는 해양수산사무소의 명확한 목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해양수산사무소의 지도업무는 어촌과 어업인에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이다.

어촌과 바다 자원은 지역별 특성을 살린 상품화가 매우 중요하다. 수산자원, 어촌문화자원과 자연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촌과 바다 자원의 특성은 지역의 큰 자산이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활용방법을 어업인이 인지하여 상품화할 경우에 어촌의 가치는 커질 것이다. 특히 각 자원의 특성을 조합하여 상품화할 경우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잠재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 어촌지도직 공무원은 자원간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실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사무소의 목표를 '다양한 어촌과 바다 자원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라는 해양수산사무소의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다양한 어촌과 바다자원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는 어촌지도 업무와 수산행정 업무로 크게 분류된다. 어촌지도 분야는 자원의 성격과 부가가치 창출과정에 따라 생산지도, 경영지도, 어촌관광지도 등으로 나뉘고, 수산행정 분야는 어촌과 바다 자원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무로 구성되어야 한다.

생산지도 업무를 생산기술지도에 국한하지 않고, 안심·안전한 수산물의 생산지도, 얼굴 있는 수산물을 만들기 위한 지역 또는 생산자 구분 지도 등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그리고 생산비용과 매출액의 장부기장에 한정된 경영지도는 투자지도, 유통·가공 지도 및 마케팅 지도를 포함한 명실상부한 경영지도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어촌관광의 수요 증가는 어촌을 새로운 모습으로 바꿀 것이다. 어촌관광의 수요 증가를 어업인의 소득 증가의 원동력으로 전환시킴에 있어서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업인 어촌을 찾는 관광객에게 무엇을, 왜, 어떻게, 언제 제공하여야 하는지 거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촌관광이 외지인의 부의 창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어촌관광지도 업무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지도업무의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수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도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수단의 개발과 운용을 위한 수산행정업무의 발굴 및 수행 또한 필요하다.

2. 해양수산사무소의 효율적 운영방안

1) 효율적 인적 자원관리

(1) 개념

인적자원관리는 “인적자원의 확보·개발·활용·평가·보상·유지 등에 관련된 계획적인 의사결정 및 관행의 체계로서,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적자원관리는 인적자원의 확보·개발·활용·평가·보상·유지 등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양한 의사결정과 관행의 체계이고,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인적자원관리는 인사관리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에도 두 개념은 호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적자원관리라고 할 때에는 인사관리라고 할 때 보다 인적자원의 전략적 중요성과 인적자원의 개발가능성을 강조하며, 인적자원관리 기능을 실무관리자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기능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인적자원관리라는 개념은 보다 현대적인 인사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그러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원인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조직의 구성원들이며 인적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조직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인식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활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조직이 생존·번영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유입하여 활용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수요건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같이 인적자원관리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리요소이다. 해양수산사무소의 구성원인 어촌지도직 공무원은 인적자원으로서 해양수산사무소의 목표달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수산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어촌지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해양수산사무소의 효율적 인적자원관리프로그램의 운영은 어촌의 지도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매우 필요하다.

(2) 조직 목표 수행에 부응한 인적 구성

인적자원관리에 있어서 첫 단계가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구성원의 확보이다. 해양수산사무소의 인적자원의 확보와 운용은 일반 기업보다 경직되어 있다. 즉 해양수산사무소의 정원과 모집 등은 국가 공무원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의 증원과 자격조건의 변경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편이지만, 기술직 공무원과 행정직 공무원보다 전문적 지식의 활용 기회가 많이 주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직 목표를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해양수산사무소는 기술중심의 지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도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할 경우에 인적자원의 확보가 가능하다.

결원으로 인한 인원 충원은 수산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지도분야의 선정은 어촌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양수산사무소의 역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어류질병에 의한 양식 어류의 집단 폐사가 문제가 되었을 때 어류질병학을 전공한 지도사를 확보하여 양식어업인에게 호응을 받았다.

이와 같이 해양수산사무소는 어촌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현장에 투입할 경우에 해양수산사무소의 존재 의의는 커질 것이다. 따라서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감소된 시점에서 어촌이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지도분야를 발굴하여 인적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어촌의 당면 문제는 어장환경 악화와 자원감소로 인한 어획량 감소, 수입 수산물 증가로 인한 어가하락, 유류비 등 어업비용의 증가, 어촌의 노령화 등이다. 이러한 당면 문제를 요약하면 어촌소득의 감소이다. 해양수산사무소가 어촌소득의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면, 해양수산사무소의 존재 의의는 더욱 커질 것이다.

어촌소득은 어업소득과 어업외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수산사무소의 기술지도는 어업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수산물의 생산에만 집중되어 있다. 어촌과 바다에는 수산자원인 수산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원이 있기 때문에 수산물의 생산에만 집중된 기술지도는 이러한 자원의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를 일부만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촌지도를 생산 이외의 가공·유통, 마케팅과 어촌의 문화체험 및 어업체험 등의 지도로 확산하면 어업소득은 물론이고 어업외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촌지도직 공무원 임용에 대한 규정 중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의 전공자로 확대시켜, 인원 충원시 마케팅학 전공자 및 관광학 전공자 등을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3)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

변화에 대한 일반적 관심에 앞서서 오래 전부터 기업들은 급변하는 시장과 국제정세 속에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에 비하면 공공부문 특히 정부가 변화를 인식하고 적응하려는 노력을 시작한 것은 매우 뒤늦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 혁신이라는 주제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변화를 무시하려는 사람들-스펜스 존슨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에서 원망만 할 뿐 새로운 치즈를 찾으러 떠나지 않는 ‘햄’과 같은 유형의 조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조직이 변화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조직 구성원의 신념과 행동이 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양수산사무소는 기술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업무의 조정이 필요하다. 단순히 기술지도의 기회가 적다는 이유로 대체업무를 부여하는 것만으로 해양수산사무소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 해양수산사무소의 변화는 조직의 목표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져야 조직 구성원의 변화에 대한 신념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효과적인 교육·훈련방법을 선택하고, 그에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국립수산물과학원의 연수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1주일 단위의 교육 프로그램은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변화 대응에 있어서 신념을 이끌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산환경의 변화에 어업인이 대응할 수 있는 어촌지도활동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기술지도 중심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어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한다. 수산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어촌지도직 공무원에게 전문교육기관에서 어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지도 이외의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을 기회를 줄 경우에 어촌지도직 공무원은 변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교육을 국립수산물과학원의 연수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한정시키지 않고, 전문 교육기관에서 장기 연수가 가능하게 하여 기술지도 이외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도업무의 영역을 확대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2) 조직 활성화 방안

(1) 명확한 어촌지도 목표의 정립

1970년대와 1980년대에도 어촌지도사업의 목표와 수산정책의 목표가 일치하여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기술지도에 대한 어업인의 수요가 많았다.

그러나 어업인의 생산기술 습득과 새로운 품종개발의 부진으로 인하여 어촌지도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었다.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기술지도업무의 비중이 낮아지게 됨에 따라 새로운 업무의 개발이 매우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업무개발은 수산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어촌지도직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영역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할 때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수산업의 경쟁력은 수산업의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때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수산업의 환경변화 요인이 너무 많아 예측하기가 쉽지 않지만 수산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어촌지도사업이 기여할 수 있는 방향과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정립해야 할 것이다.

(2) 어촌지도와 수산행정의 전문화

어촌지도 공무원의 정원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지만, 업무는 증가하였다. 즉 업무분장에서 어촌지도업무는 변화하지 않은 반면에 수산행정에 필요한 업무가 업무분장에 추가되거나 지침으로 규정되어 업무의 수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업무의 증가는 실제 업무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어촌지도직 공무원에게 업무의 증가에 따른 보상 없이 업무가 증가된 것으로 인식되어 불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어촌여건과 수산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지도업무 중 불필요한 업무는 업무분장에서 제

외시키고,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부여되지 않는 업무를 추가시키지 않음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해양수산사무소의 업무 중 지도업무는 전문화가 이루어질 때 효과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직위와 직급이 상응하는 과단위 혹은 계단위로 어촌 지도와 수산행정을 분리하여 어촌지도직 공무원이 지도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어촌지도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어촌지도 공무원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촌지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 어촌지도의 수준에 따라 어업인의 만족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지도의 성공여부가 어업인의 경영성과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전공에 따라 어촌지도 공무원을 임용하지만, 수산여건과 어촌여건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식의 습득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어촌지도직 공무원이 새로운 지식의 습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도 현재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충분한 성과를 얻을 수 없는 실정이다.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 어촌지도 공무원의 전문성은 떨어지고, 백화점식 지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어촌지도는 어업인에게 외면 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어촌지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혁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즉 하향식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서 벗어나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수요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재교육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수부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 습득에 적절한 교육기관 혹은 연수기관의 선택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산 및 어촌여건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의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교육기관과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어촌지도 범위의 확장

어촌지도의 성공은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어촌지도직 공무원과 어업인 사이의 교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즉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지도업무가 어업인의 요구사항과 일치할 경우에 어촌지도직 공무원과 어업인의 교류는 활발하여 어촌지도의 효과는 커질 것이다.

최근 어촌지도직 공무원과 어업인의 교류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교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데 이것은 어촌지도 업무의 중심인 기술지도의 수준이 어업인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업인의 기술수준이 향상된 반면에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수산기술 수준이 향상되지 않아 어업인이 어촌지도직 공무원으로부터 기술지도를 요청하는 경우가 줄어든 것이다.

이와 같이 어촌지도의 범위를 기술지도 및 보급에 한정하는 것은 어촌과 바다의 다양한 자원의 활용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어촌과 바다의 자원은 인간의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다. 그러나 기술지도는 먹는 즐거움의 일부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산물의 증산이 중요한 목적이었다. 수산물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수산물의 증산만으로 어업인의 소득을 증가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어업인이 어촌과 바다의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자원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어촌지도의 범위를 확장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어업인 중 일부는 어촌으로 몰려드는 도시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면 어촌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5) 어촌지도 방법의 전환

기술지도는 대부분 개별 접촉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술지도의 요청이 있거나 장래의 기술수요에 대한 예측을 통하여 어업인이 거주하는 어촌을 관할하는 해양수산사무소의 지도직 공무원에 의하여 대부분의 기술지도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지도시스템은 전문적인 지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지도업무에 필요한 지식 습득에 대한 동기부여가 크지 않다.

어촌의 부가가치 창출에 필요한 부문별 전문지도회를 구성하여 이를 통하여 새로운 지도분야와 지도방법을 발굴하고 전문지식의 습득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도업무에 활용한다. 즉 생산지도부문, 가공·유통부문, 어촌관광부문, 지역 특산품부문과 어촌생활개선부문 등으로 전문연구회를 구성하고, 구성원은 어촌지도 공무원,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연구기관의 연구원, 교육기관 연구원 및 교수, 관련 수산직 공무원과 어업인 등으로 구성하여 분기별 모임을 통한 현안문제의 해결방안과 장래의 지도분야 발굴 등으로 어촌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다.

(6) 승진과 보수체계의 수정

기술지도의 전문성이 있는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약 75%가 수산직으로 전환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종의 전문적인 어촌지도직 공무원이 수산직으로 전환을 원하고 있는 원인은 기술지도 수요의 감소, 장기 근속자의 상대적 보수 열위, 열악한 승진기회 등이다. 어촌지도직의 13.5%가 지도관이고, 나머지 86.5%가 지도사이기 때문에 연구직의 연구관 비율인 31.2%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승진기회가 적다. 어촌지도직의 경우에 지도관으로 승진을 하지 못할 경우에 장기근속자의 대부분은 보수가 수산직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 직급이 낮아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어촌지도직과 유사한 단일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연구직의 직급세분화를 참고로 하여 어촌지도직도 근무경력과 능력에 따라 직급세분화를 시행하여 현행 승진과 보수체제로 인한 사기저하를 개선하여 전문직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3) 어촌지도 사업의 장기적 운영방향

우리나라의 어촌지도사업 여건은 1960년대에 도입될 때의 어촌과 수산업의 여러 가지 환경과 지식기반사회인 21세기의 어촌과 수산업의 환경은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 가장 큰 변화는 1997년 이전에는 수산물이 닫힌 시장체제에서 거래되었으나 지금은 열린 시장체제 하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수산물에 대한 선택의 폭이 커져 우리나라 수산물의 생산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산물의 뚜렷한 가격의 상승이 없고, 수산자원의 감소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량이 줄어들어 어업소득은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업인의 양식기술은 해양수산사무소의 지도 덕분에 크게 향상되어 유전자 등 특정분야를 제외하고 보편화되어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어업기술지도에 대한 어업인의 수요가 많이 줄었다.

반면에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어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어촌은 도시주민과 어촌주민의 교류공간으로의 역할이 증가하고, 소득증가에 따른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인 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어촌지도 사업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지도사업의 수요자인 어업인이 컨설팅 비용을 전문 컨설팅회사에 지급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도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어촌 현실상 현재 지도사업을 정부가 포기하고 민간 컨설팅회사를 통한 어촌지도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박사와 석사가 전체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37.6%를 차지하고 있는 해양수산사무소가 어촌지도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어촌지도직 공무원은 수산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대한 새로운 지도업무 습득에 있어서 긴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교육을 통한 어촌지도사업의 효과를 창출할 때 어촌지도에 대한 어업인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어업인이 찾아오게 하는 어촌지도사업이 될 경우에 어업인은 어촌지도에 대한 비용을 지출할 용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어촌지도사업을 민간컨설팅회사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어업인의 다양한 지도업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미래에 어촌지도가 민간 컨설팅회사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해양수산사무소가 종합수산행정기관으로 변화되는 시점에 정부가 일정 부분의 예산을 보조하는 법인형태의 어촌지도 컨설팅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어업인이 자신의 컨설팅에 대한 비용을 흔쾌히 지출할 수 있는 시점에서 민간 경영컨설팅회사가 어촌지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4) 해양수산사무소의 효율적 운영방향

(1) 해양수산사무소 중장기 발전방안 검토

해양수산부는 어촌기술지도 수요의 감소에 따른 수산기술관리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03년 7월에 수산기술관리소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한 내용은 수산업의 현 위치와 여건변화, 수산기술관리소 평가와 반성, 추진목표와 세부과제별 추진목표 등이다.

어촌지도분야 중장기발전방안에서 수산기술관리소의 지도업무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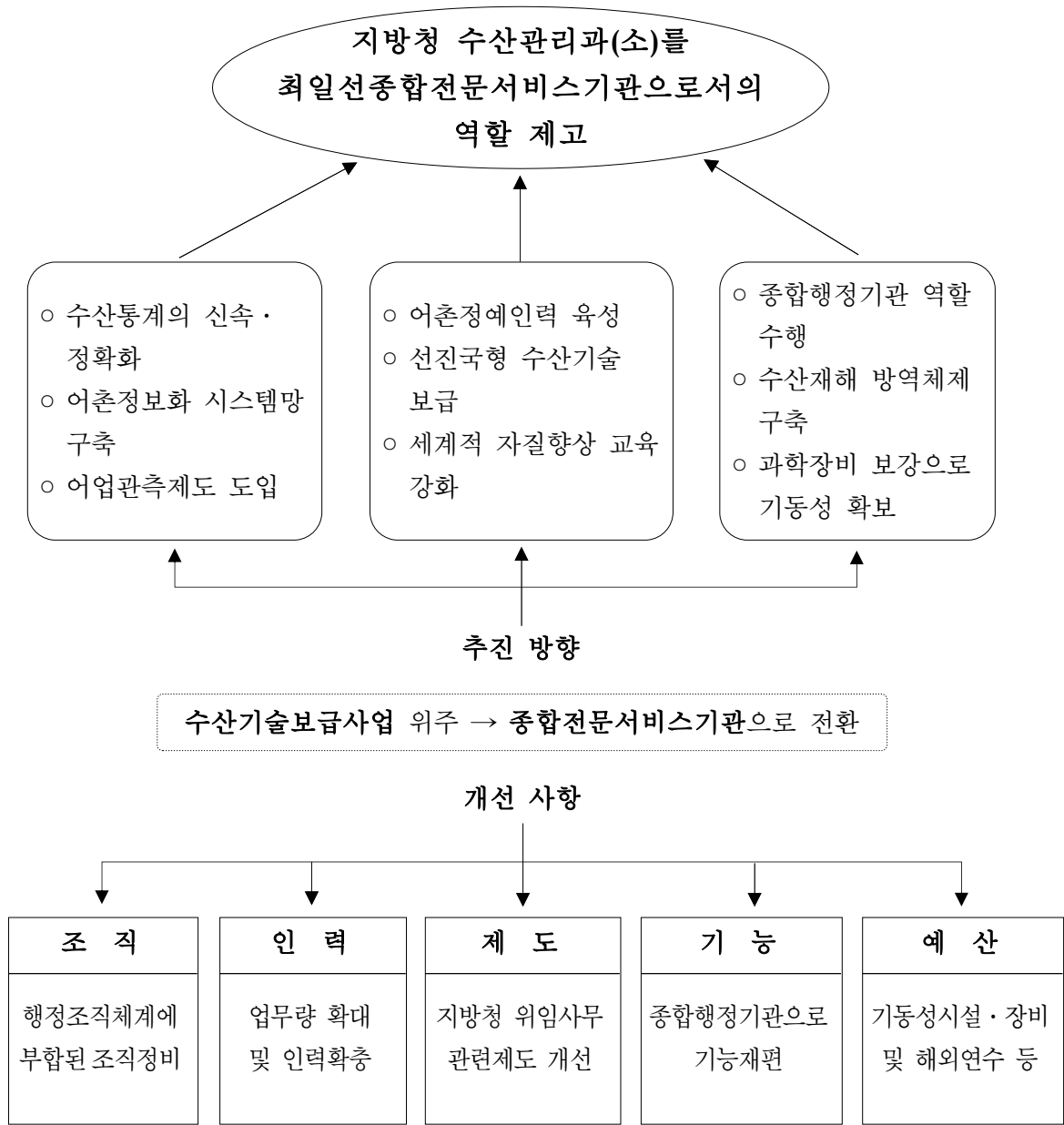
첫째, 불특정 다수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 주도의 일방적인 사업시행으로 시대변화에 대응한 지도체제가 미흡하다. 지도체제 미흡의 구체적 내용은 실시간으로 다변화한 국제사회 구제에 대처할 수 있는 수산기술행정과 정책사업 지원시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 미흡, 수산기술 보급사업의 발전방향 등 행정수요에 부응한 어업인들의 의견수렴 등 자문기구 운영 미흡, 국제적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현실에 부합된 기술수요에 적절한 어촌지도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화·특기화 등이다.

둘째, 유통, 가공과 어선어업 분야의 전문 지도사 미배치로 수산물 소비문화에 적절한 브랜드 개발이 미흡하다. 즉 어선어업 분야의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도인력 미배치로 어선어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소비자의 수요에 적절한 포장단위로 규격화된 지역브랜드 개발의 지도가 미흡하고, 어업인들의 영어기반 영세화로 생산된 수산물의 대부분이 유통업자에 의존하고 있어 수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수산기술 보급기반의 전반적인 취약으로 효율적인 대 어업인 기술지도 행정서비스의 수행이 곤란하다. 신제품을 개발한 경우에 불특정 다수 어업인에게 기술을 이전하고 홍보함으로써 공급초과 현상을 초래하고, 대부분의 정책사업이 어업인들의 요구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요구사업에 대한 경제성 등 과학적인 검토과정이 부실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이 큰 실정이다.

다음의 그림은 이상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산기술관리소의 추진목표와 추진방향, 그리고 개선사항을 요약하여 나타낸 것이다.

수산기술관리소의 추진목표는 '지방청 수산관리과(소)를 최일선 종합행정기관으로서 역할 제고'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방향은 수산통계의 신속·정확화, 어촌정보화 시스템망 구축, 어업관측제도 도입, 어촌 정예인력 육성, 선진국형 수산기술 보급, 세계적 자질향상 교육 강화, 종합행정기관 역할 수행, 수산재해 방역체제 구축과 과학장비 보강으로 기동성 확보 등이다. 이와 같은 추진방향은 정보화, 과학화와 어업인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자질 향상, 그리고 수산행정기관 역할 수행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개선사항은 조직, 인력, 제도, 기능과 예산 분야의 개선사항의 주요 내용은 행정조직체계에 부합한 조직 정비, 업무량 확대 및 인력확충, 지방청 위임사무 관련제도 개선, 종합행정기관으로 기능 재편, 기동성 시설·장비 및 해외 연수 등이다.



<그림 1> 해양수산사무소의 중장기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조직을 개선하기 위한 향후계획은 수산세력과 업무량 등을 감안한 수산관리과(소)의 정원조정,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출장소와 수산기술관리소 등을 연차적으로 통합 또는 개편과 어촌지도직 공무원 승진기회 확대 등이다. 즉 지역별 업무량을 기초로 수산기술관리소의 정원을 조정하고, 항만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소와 수산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수산기술관리소를 통합 또는 개편 등이 조직의 개선사항이다.

인력분야의 향후 계획은 4급 상당 어촌지도관이 배치된 부산해양수산청과 인천해양수산청의 관리과 및 고흥 수산기술관리소와 완도 수산기술관리소에 5급 상당 어촌지도관을 배치하는 것과 수산기술관리과(소) 정원조정 및 적정 인력 재배치 등의 인적자원 확보와 중·장기 전문기관 교육기회 부여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제도분야의 향후 계획은 지방해양수산청 위임사무와 수산기술보급 사업과 관련한 제도 개선에 관한 것이다. 즉 지방해양수산청을 최일선 종합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위임사무 근거 마련, 국가보조사업 중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와 관련한 관리·감독 등 의무 부여를 위한 근거 마련, 국가보조 중요 사업을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하여 지역 개발에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제도 마련과 신규 개발사업 및 수산업협동조합 등 산하단체 위임사업 집행 및 관리·감독 등 주요한 사업의 주체로서 지방해양수산청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제도분야 개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해양수산청 및 수산기술관리소별 해역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수산기술보급사업 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향을 설정하도록 하며, 우수 어업인 발굴 및 지원 등으로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수산기술보급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또한 제도분야에 있어서 향후 개선할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일선 종합행정기관으로서 기능 개편을 위한 새로운 수산행정 업무이양 및 지역수산의 중심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 HACCP 이행시설 등록·관리업무 등 수산행정업무를 수산기술관리소로 이관, 어촌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및 어업인 정보화 교육 추진, 어업생산 통계업무 추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보급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진목표는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인식되어 온 수산기술관리소를 종합행정기관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방향은 '수산기술보급 사업 위주'에서 종합행정기관으로 전환이며, 그 세부사항에 종합행정기관 역할 수행이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수산기술관리소의 장기적 발전방안인 수산기술관리소의 추진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한 위의 <그림 1>에는 추진목표, 추진방향 및 추진방향의 세부사항, 그리고 개선사항에 종합행정기관으로 전환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2) 해양수산사무소의 당면과제

어촌과 바다 등과 관련이 있는 국내외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어촌지도 업무도 수명주기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촌지도 업무의 변천에서 본 바와 같이 어촌지도업무는 확대되어 왔다. 따라서 어촌지도 업무 중 중요한 업무와 폐지하여야 할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밖에 없는 어촌지도직 공무원은 새로운 업무개발에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고, 기존 업무의 수행에 열중하여 어업인이 원하고, 어업소득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는 업무를 개발·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해양수산사무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당면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식적 조직은 물론이고 비공식 조직도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직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수산기술관리소의 추진목표는 '최일선 행정종합기관으로서 역할'이다. 그러나 수산기술관리소의 추진목표가 명확하지 않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추진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없다.

둘째, 해양수산사무소의 업무인 양식기술개발, 양식어장 관리 및 예방, 어업인 교육, 정보화 교육, 수산기술 홍보 및 관리기반 조성과 신규도입 업무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업무를 조정하여야 한다. 해양수산사무소 업무의 다양화는 당 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영역의 확대를 의미하지만, 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의 전문화를 수반하지 못할 경우에 업무 부실화를 초래하여 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해양수산사무소 업무를 평가한 결과를 통하여 조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업무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조직의 효율성은 조직의 특성에 따른 조직 형태에 따라 상이하다. 예를 들면 조직 구성원의 상하가 명확한 경우에는 라인조직(line organization)이 효율적인 반면에 최고 경영자에게 조언하는 조직의 경우에는 스태프조직(staff organization)이 효율적이다. 이와 같이 계절에 따라 의복이 상이하듯이 조직도 그 특성에 따라 적합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사무소의 업무조정을 통하여 업무가 설정되면 업무의 특성에 따라 해양수산사무소의 조직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조직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이다. 즉 조직의 형태가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인적자원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어렵다. 인적자원관리는 채용, 교육과 보상 등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인적자원관리의 구성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인적자원 가치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성장하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인적자원관리를 위하여 우수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채용후 일정기간이 흐른 후에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적자원의 가치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해양수산사무소의 업무에 적합한 직원의 채용은 기본이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수산사무소 구성원의 사기를 돋울 수 있는 보상시스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즉 국가 공무원이지만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방에 근무한다는 이유 혹은 승진시스템의 부적합 등으로 인하여 승진할 가능성이 적을 경우에 사기가 떨어져 업무성과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승진과 보수 등 보상시스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3) 해양수산사무소의 효율적 운영방향

① 목표 및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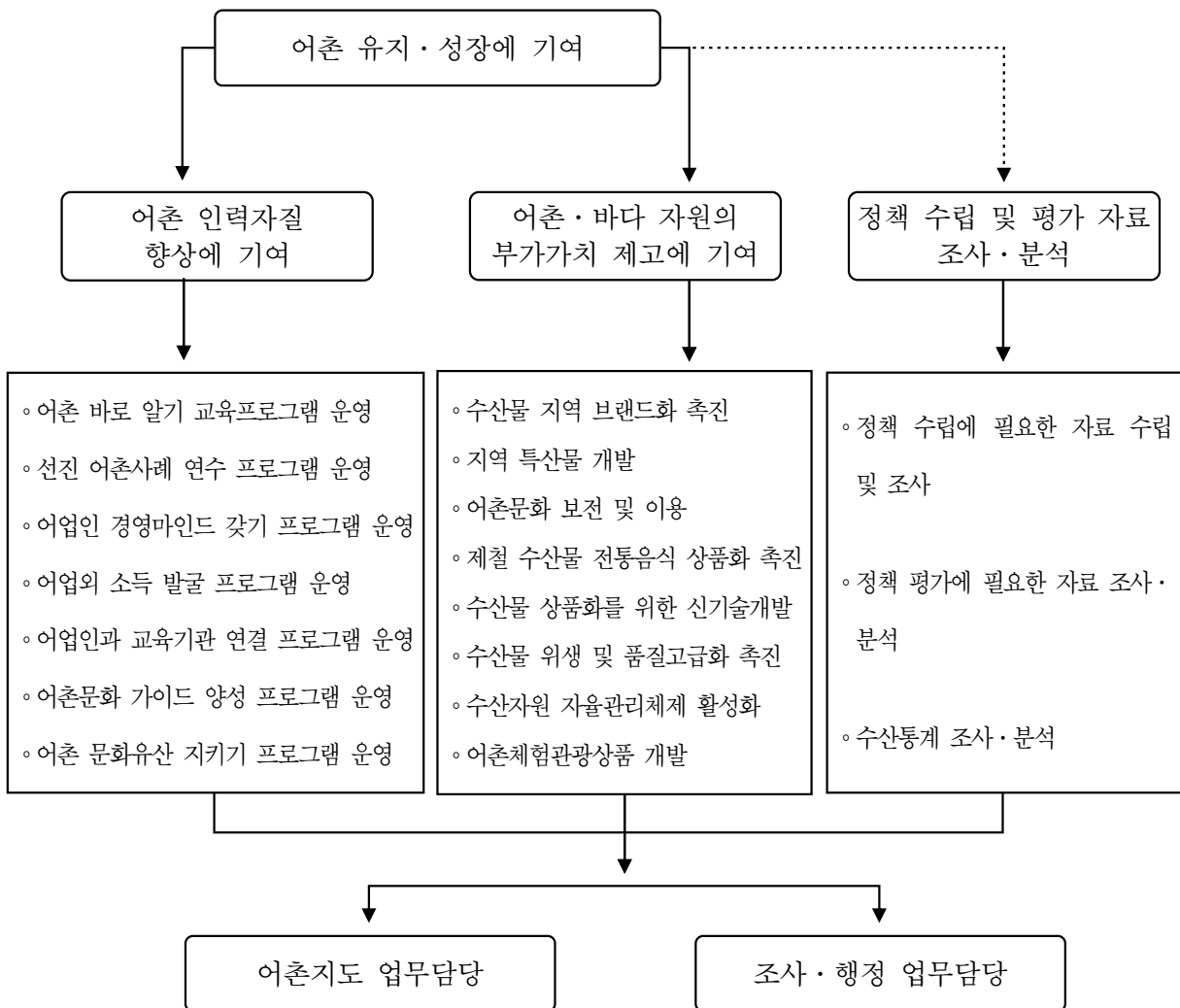
어촌소득의 감소, 수산자원의 감소 및 어촌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국토의 중요한 일부분인 어촌은 성장은커녕 유지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뿐만 아니라 어촌에서 자자손손 거주하고 있는 어촌 주민이 어촌 비전을 가지게 함에 있어서 해양수산사무소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양수산사무소의 목표를 「어촌의 유지·성장에 기여」라고 설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해양수산부는 바다, 어촌과 어항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사무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바다, 어촌과 어항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해양수산사무소의 조직 구성원의 특성, 조직의 연혁과 인력규모 등을 고려할 때 바다, 어촌과 어항과 관련된 업무 중에 어촌소득 증대와 어촌생활 수준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국토의 일부분인 어촌의 부가가치치를 증가시켜 어촌을 유지시키고 나아가 성장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양수산사무소가 조직목표인 「어촌의 유지·성장에 기여」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추진 방향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첫째, 해양사무소가 어촌 리더에게 직접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선진 사례 혹은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어촌 리더가 어촌 주민에게 전달할 때 어촌인적자원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어촌 인적자원 향상에 기여」를 통하여 어촌의 유지·성장에 해양수산사무소가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어촌과 바다에 부존한 다양한 자원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의한 일원화된 부가가치 창출 방안보다 지방에 위치한 기관별로 부가가치 창출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으로 전환시키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양수산사무소는 「어촌과 바다 자원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셋째, 해양수산사무소가 어촌의 유지·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앞에 설명한 두 가지-어촌인력 자질 향상에 기여와 어촌·바다 자원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 외에도 수산 및 어촌과 관련된 정확한 자료의 수집과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현실을 반영한 정책의 수립에 기여함과 동시에 수립·집행된 정책의 피이드 백에 의한 정책의 수정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조사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해양수산사무소의 목표 및 추진방향

② 효율적 운영방향

어촌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해양수산사무소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사무소가 운영되어야 한다. 어촌주민이 어촌의 무한한 잠재력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어촌 바로 알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어업인과 전문교육기관 연결 프로그램 운영'과 '선진 어촌 사례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다. 어촌주민 스스로 다양한 소득원을 발굴하고, 경영체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업인 경영마인드 갖기 프로그램 운영'과 '어업외 소득 발굴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어촌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촌주민이 어촌을 자랑하고 안내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도록 '어촌문화 가이드 양성 프로그램 운영'과 '어촌 문화유산 지키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어촌이 어촌주민과 도시주민의 교류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어촌과 바다에 산재하는 자원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 그것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어촌주민은 눈뜨면 항상 접하는 어촌과 바다 자원은 그들에게 자원 자체로서 인식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어촌과 바다에 있는 다양한 자원을 보배로 만들기 위한 사람 혹은 기관이 필요하다.

국가간의 벽은 허물어짐에 따라 '국제화'란 용어 보다 '세계화'란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무역자유화로 대표되는 세계화는 비교우위에 있는 유형상품 또는 무형상품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아 상품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즉 다른 상품이 가지지 않은 품질과 고유성이 없는 상품은 상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어촌과 바다의 다양한 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유의 특성을 가진 유형 또는 무형상품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지역적 특성을 가진 유형 또는 무형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형상품과 무형상품의 재료를 보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양수산사무소는 '어촌문화 및 경관의 보전·이용'과 '수산자원 자율관리체제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어촌지역의 다양한 자원 중 단지 '구슬'수준에 머물고 있는 자원을 '보배'로 만드는 일에 해양수산사무소가 앞장서야 한다. 즉 해양수산사무소는 '수산물 고유 브랜드화 촉진', '지역 특산물 개발', '수산물 위생 및 품질 고급화 촉진', '제철 수산물 전통 음식화와 민박 연계 사업 추진' 및 '어촌체험상품 개발'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 어촌과 바다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분야로 구성된 추진 세부사항에 따른 업무의 특성에 따라 해양수산사무소의 조직을 크게 '어촌지도 업무담당'과 '조사·행정 업무'로 나누어 업무를 전문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결과

수산기술관리소는 양식어업의 도입기에 어업인에게 양식기술의 지도 및 보급에 앞장서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였다. 1960년대의 해조류 양식업, 1970년대의 패류양식어업 및 1980년대의 어류 양식어업의 도입과 육성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양식어업이 도입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어 따라 어업인의 양식기술이 높은 수준

에 도달하게 되어 수산기술관리소의 양식기술의 보급 및 지도에 대한 어업인의 수요가 많이 감소하게 되었다.

국내외 수산업의 여건변화는 새로운 수산정책의 목표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즉 종래의 생산자 중심의 수산정책에서 생산자 및 소비자 지향의 수산정책의 수립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바다의 수산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먹거리 생산정책뿐만 아니라 바다와 어촌의 다양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따른 어촌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수산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수산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수산정책 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은 정부의 경제적 수단 및 제도적 수단도 중요하지만, 어업인이 수산여건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어업인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국가기관이면서 지도 업무 및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수산기술관리소의 변화가 필요하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는 해양수산사무소가 수행하고 있는 어촌지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산여건과 어촌여건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어촌지도사업을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따라서 해양수산사무소의 업무변화와 조직 및 조직 구성원의 연계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어촌지도직 공무원,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수산 관련 공무원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해양수산사무소의 직무평가와 사업평가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에서 놓칠 수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어촌지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양수산사무소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면담조사도 수행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사무소 새로운 업무방안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업무의 중요도 평가를 통하여 새로운 업무를 도입할 경우에 기존 해양수산사무소 업무중에 제외시킬 수 있는 업무를 선정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해양수산사무소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인적자원관리와 조직활성화 방안, 그리고 어촌지도 사업의 장기적 운영방향 등을 제시함으로써 해양수산사무소의 활성화 정책수단을 검토할 때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사무소의 역할에 대한 과소평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양수산사무소가 당면한 어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푸는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SUMMARY

Study on Introduction of New Guidance Project for Fishing Village and Effective Operation Method

Maritime & Fisheries Offices has contributed to the increase of fishermen's income by teaching and spreading fishery techniques since the period of introduction of fishery-culture. MFO made a large contribution toward introduction and fostering of sea-plants culture in 1960s, shellfish culture in 1970s, and fish culture in 1980s. However, demand for fishery-culture techniques has greatly reduced as fishermen's techniques reached a high level and overall fishery-culture became mature.

Meanwhile, changes in local fisheries environment requires to set up a new fisheries policy. That is, it is necessary to set up producer- and consumer-oriented fisheries policy from the past producer-centered fisheries policy, and changes in fisheries policy to vitalize fishing villages is required.

Thus, for an effective attainment of new fishing policy that actively meets the changing fisheries environment, the government's economic and institutional means are important, while fishermen's active efforts to respond to the change of fishing conditions are needed as well. Consequently, Maritime & Fisheries Office carrying out guiding and educational jobs as national institution nearest to fishermen is needed to change.

Accordingly, the researcher made a questionnaire survey of fishermen, fishing-related officials and fishing village guidance officials in conjunction with fishing village guidance job. As the result, fishing village guidance officials' satisfaction in their job was not so high. It turned out the reason for their unsatisfaction was that they did not see future vision of their job. As a plan to elevate their morale, the necessity for solution of accumulated promotion, technique instruction as well as advanced education acquirement and reeducation for the execution of new jobs was raised.

On the other hand, regarding the unification of fisheries position and guidance position, those agreeing to it were more than those opposing to it, while regarding multi-serialization, many responded that it will help enhance guidance officials' morale through personnel exchange and extension of position.

In research on fisheries official and fishermen, role and necessity of Maritime & Fisheries Office was relatively strongly raised, and fishermen's satisfaction through technique guidance turned out medium, which means necessity of reeducation toward guidance officials is urgent to meet new technique demands.

On the other hand, fisheries officials opposing to the unification of fisheries position and guidance position were a little more than those agreeing to it, showing their opinions conflict with each other. Regarding multi-serialization, they responded there will be no practical exchange of personnel with the opinion that it will help enhance their morale. Given the opinion that solution of guidance officials' accumulated promotion is needed, it is assumed that promotion problem for guidance officials is relatively severe.

It is judged from the analysis of fishing technique spreading job that necessity of job realignment is high since relatively many jobs need to be integrated or realign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age.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new jobs, there were the opinion that it serves the simplific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indication that it causes excessive works and just simple job execution.

The change of overseas fisheries conditions such as the arrival of new fishery order, marine products market opening and strengthening of hygiene management system for marine products, and the change of domestic fisheries conditions such as drop in self-support rate in accordance with decrease of marine products production and fall in marine products price mak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fisheries difficult. In addition, slump in fishing villages in accordance with aging and income decrease of fishermen decreases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various resources in seas and fishing villages.

However, increase of desire to go sight-seeing to fishing village, possibility of growing exchange with cities through the arrival of advanced information age, promo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crease of interest in the role of fishing villages, etc. enhance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s. Thus, guidance function of Maritime & Fisheries Office closely related with fishing villages and fishermen is very important in vitalizing fishing villages.

Thus, we could present new visions to fishing villages and make fishermen have belief in vitalizing fishing village by providing instruction and education programs to fishing village guidance officials. Escaping from technique guidance-centered attitude,

we could increase fishermen's income to vitalize fishing villages through enhancement of added value by extension to processing, distribution, commercialization and marketing of marine products, and fishing village sight-seeing.

It is closely related is closely to morale elevation of its members to vitalize Maritime & Fishery Office. That is, it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vitalizing the nation's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to create such conditions as fishing village guidance officials could execute successfully their guidance job with pride through establishment of concrete guidance goals for fishing village, separation of fishing village guidance and fisheries administration, elevation of expertise of public officials for fishing village guidance, change of fishing village guidance method, reform of promotion and pay system, and so on.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1
section 1. Necessity & Objective of study	3
section 2. Scope & Methodology of study	5
Chapter 2. Current Status and Functions of Maritime & Fisheries Office	7
section 1. Transition process of Maritime & Fisheries Office	9
section 2. System and staff of Maritime & Fisheries Office	12
section 3. Role of Maritime & Fisheries Office	17
section 4. Job evaluation of Maritime & Fisheries Office	20
Chapter 3. Evaluation on Maritime & Fisheries Office's Project	57
section 1. Details of project and its basic direction	59
section 2. Evaluation of project	63
section 3. Analysis of results of interview examination	100
Chapter 4. Plan for Introduction of New Project by Maritime & Fisheries Office	103
section 1. Change of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 environment	105
section 2. Plan for introduction of new tasks	117
Chapter 5. Plan for Effective Operation of Maritime & Fisheries Office	125
section 1. Effective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127
section 2. Plan for vitalizing the system	130
section 3. Direction of long term operation of guidance project for fishing village	133
section 4. Direction of effective operation of maritime & fisheries office	136
Chapter 6. Conclusion	147
Literature	151
Appendix	153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제2장 해양수산사무소의 현황 및 기능	7
제1절 해양수산사무소의 변천과정	9
제2절 해양수산사무소의 조직 및 인원	12
제3절 해양수산사무소의 역할	17
제4절 해양수산사무소 직무평가	20
제3장 해양수산사무소 사업의 평가	57
제1절 사업 내용과 기본방향	59
제2절 사업 평가	63
제3절 면담조사 결과분석	100
제4장 새로운 해양수산사무소	103
제1절 수산업과 어촌여건의 변화	105
제2절 새로운 업무의 도입방안	117
제5장 해양수산사무소의 효율적 운영방안	125
제1절 효율적 인적 자원관리	127
제2절 조직 활성화 방안	130
제3절 어촌지도 사업의 장기적 운영방향	133
제4절 해양수산사무소의 효율적 운영방향	136
제6장 요약 및 결론	147
참고문헌	151
부 록	153

표 목 차

<표 2-1> 해양수산사무소의 변천과정	9
<표 2-2> 어촌지도관리 업무의 변천	11
<표 2-3> 해양수산사무소의 기관별 업무	12
<표 2-4> 어촌지도직 공무원 현황	14
<표 2-5> 어촌지도관 연령 분포	15
<표 2-6> 어촌지도관 전공 현황	15
<표 2-7> 어촌지도사 연령 분포	15
<표 2-8> 어촌지도사 전공 현황	16
<표 2-9> 어촌지도사 자격증 소지 현황	16
<표 2-10> 어촌지도관 및 어촌지도사 학력 및 학위 현황	16
<표 2-11> 해양수산사무소의 시대별 중점 양식 기술 개발 분야	18
<표 2-12> 어촌지도직 근무기간별 직무만족도	22
<표 2-13> 어촌지도직 근무기간별 수산직·지도직 단일화 의견차이	30
<표 2-14>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 및 직무평가에 대한 조사결과	39
<표 2-15> 수산직 공무원과 어업인의 어촌지도사업평가	56
<표 3-1> 해양수산사무소의 사업내용	60
<표 3-2> 주요 사업의 기본방향	62
<표 3-3> 설문조사 종합분석	96
<표 3-4> 면담조사 결과	101
<표 4-1> 제5차 WTO 각료회의 내용	108
<표 4-2> 한국과 기타국과의 FTA 추진현황과 파급효과	109
<표 4-3> 주요 국가의 수산물 위생 안전관리 정책 동향(2003년)	110
<표 4-4> 어업별 생산량	111
<표 4-5> 품목별 생산량	112
<표 4-6> 수산물 자급률 변화	112
<표 4-7> 1인당 수산물 소비량 및 단백질 섭취량	113
<표 4-8> 어가소득 추이	114
<표 4-9> 해양수산사무소 업무의 중요도	120

그림목차

<그림 2-1> 어촌지도 담당업무 조직의 위치도	13
<그림 2-2> 해양수산사무소의 주요 사업	17
<그림 2-3> 지도직 공무원 복무기간	20
<그림 2-4> 지도직공무원 학력분포	21
<그림 2-5> 어촌지도직 공무원 근무 만족도	21
<그림 2-6> 어촌지도직 근무 불만족 사유	22
<그림 2-7> 해양수산사무소의 업무개선	23
<그림 2-8> 수산관리소 업무 개선사유	23
<그림 2-9> 해양수산사무소의 역할	24
<그림 2-10> 해양수산사무소 기술지도사업의 필요성	24
<그림 2-11> 기술지도업무의 성과	25
<그림 2-12> 최근 1년간 기술지도 횟수	25
<그림 2-13> 최근 1년간 어업경영지도 횟수	26
<그림 2-14> 기술지도 시기	26
<그림 2-15> 기술지도 수단	27
<그림 2-16> 효과적 기술지도 수단	27
<그림 2-17> 기술지도 업무의 어업인 요구만족도	28
<그림 2-18> 기술지도 업무의 불만족사유	28
<그림 2-19> 어촌지도업무의 전문성	29
<그림 2-20> 어촌지도 업무관련 정보습득 방법	29
<그림 2-21> 수산직·지도직의 단일화	30
<그림 2-22> 수산직·지도직간 복수직렬화에 대한 의견	31
<그림 2-23> 종합행정기관 전환 후 새로운 지도업무	31
<그림 2-24> 장기교육·연수교육에 포함되길 바라는 과정	32
<그림 2-25> 기술지도업무의 비중	32
<그림 2-26> 어촌지도사들의 지방청간 인사이동	33
<그림 2-27> 지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방안	33
<그림 2-28> 업무 수행시 장애요인	34
<그림 2-29> 상주사무소 제도에 대한 의견	34
<그림 2-30> 월액 여비제도에 대한 의견	35

<그림 2-31> 월간 현지 출장횟수	35
<그림 2-32> 해양수산사무소의 업무구성	36
<그림 2-33> 해양수산사무소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충원범위	36
<그림 2-34> 지도업무 수행태도	37
<그림 2-35> 기술지도장비 활용실태	37
<그림 2-36> 해양수산사무소 조직체계의 변경	38
<그림 2-37> 해양수산사무소와 지도직공무원의 존속여부	38
<그림 2-38> 공무원 응답자 지역분포	41
<그림 2-39> 어업인 응답자 지역분포	41
<그림 2-40> 해양수산사무소의 중요 역할	42
<그림 2-41> 해양수산사무소 기술지도사업의 필요성	42
<그림 2-42> 기술지도업무의 실효성	43
<그림 2-43> 해양수산사무소의 업무개선	43
<그림 2-44> 기술지도업무의 어업인 만족도	44
<그림 2-45> 어촌지도업무의 전문성 평가	44
<그림 2-46> 새로운 지도업무 수요	45
<그림 2-47> 어촌지도사들의 지방청간 인사이동	45
<그림 2-48>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연수과정	46
<그림 2-49> 어업인에게 효과적인 기술지도수단	46
<그림 2-50> 수산직·지도직의 단일화	47
<그림 2-51> 수산직·지도직간 복수직렬화	47
<그림 2-52> 어촌지도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	48
<그림 2-53> 어촌지도시 기술지도장비 이용실태	49
<그림 2-54> 산기술관리소의 조직체계 개편방안(공무원)	49
<그림 2-55> 어업종사기간	50
<그림 2-56> 참여 어업형태	50
<그림 2-57> 향후 참여하고 싶은 어업활동 형태	51
<그림 2-58> 어업생활 만족도	51
<그림 2-59> 어업활동 불만족 사유	52
<그림 2-60> 어업경영여건 악화 원인	52
<그림 2-61> 기술지도 전수여부	53
<그림 2-62> 어업경영지도 여부	53

<그림 2-63> 연간 어촌지도직공무원 면담횟수	54
<그림 2-64> 해양수산사무소 존속여부	54
<그림 2-65> 어업인 응답자 성별분포	55
<그림 2-66> 어업인응답자 연령분포	55
<그림 3-1> 연구교습어장의 운영실태	63
<그림 3-2> 연구교습어장의 운영효과	64
<그림 3-3> 연구교습어장 운영상의 애로사항	64
<그림 3-4> 해양수산사무소의 과제 참여 방안	65
<그림 3-5> 지역특산품 개발사업의 추진방향	65
<그림 3-6> 자연채묘 어장개발	66
<그림 3-7> 양식기술개발업무의 관련 통합·축소 방향	67
<그림 3-8> 양식기술 보편화 품종의 적기기술지원	67
<그림 3-9> 연안정지 관측	68
<그림 3-10> 양식어장 예찰 및 평가	68
<그림 3-11> 양식어장 환경개선 지도	69
<그림 3-12> 적조예찰업무	70
<그림 3-13> 적조예찰 업무추진의 애로사항	70
<그림 3-14> 어병예찰 진단반 운영	71
<그림 3-15> 패류독소 어병예찰/재해예방 독립반 편성	71
<그림 3-16> 어업질서 확립대책 추진	72
<그림 3-17> 자율관리어업 추진	72
<그림 3-18> 양식어장 관리 및 예방업무 관련 통합축소대상 업무	73
<그림 3-19> 어촌순회기술교육 및 합동교육	74
<그림 3-20> 지역연찬회	74
<그림 3-21> 청소년 수산교실 운영	75
<그림 3-22> 어촌후계인력 양성	75
<그림 3-23> 어업인 교육관련 통합 축소대상 업무	76
<그림 3-24> 정보화 교육 인프라 구축운영	77
<그림 3-25> 어업인 정보화 교육훈련	77
<그림 3-26> 어촌정보사랑방 운영	78
<그림 3-27> 수산양식업 표준소득 조사	78
<그림 3-28> 시장유통정보제공 및 경영일지 기록지도	79

<그림 3-29> 정보화교육관련 통합축소 대상업무	79
<그림 3-30> 수산소식지 발간	80
<그림 3-31> 어업인 상담실 운영	81
<그림 3-32> 기술지도선 운영	81
<그림 3-33> 기술지도장비 확보 및 활용	82
<그림 3-34> 선진지 견학	82
<그림 3-35> 선진지 견학시 필요사항	83
<그림 3-36> 명예 어촌지도자 운영	84
<그림 3-37> 어업생산통계 업무현황	84
<그림 3-38> 어업생산통계의 업무비중	85
<그림 3-39> 어업생산통계 조사방법	85
<그림 3-40> 수산기술홍보/관리기반조성 중 통합 또는 축소대상 업무	86
<그림 3-41> 어촌지도업무 비중축소	87
<그림 3-42> 해양수산사무소의 최일선 행정기관 전환	87
<그림 3-43> 어업용 면세유류 관리업무	88
<그림 3-44> 원산지 표지 조사·확인사업	88
<그림 3-45> 양식어업관측제 도입운영	89
<그림 3-46> 수산물 직매장 사업	89
<그림 3-47> 생산단계 HACCP 관리업무	90
<그림 3-48> 수산통계 전환업무 확대	91
<그림 3-49> 어업인 기술개발 과제	91
<그림 3-50> 전문지도연구회	92
<그림 3-51> 해운·항만관련 민원업무 이관	92
<그림 3-52> 해양수산분야 위상 강화를 위한 주요업무	93
<그림 3-53> 새로운 사업으로 검토되는 업무	94
<그림 3-54> 신규도입 업무중 성과가 큰 대상	94
<그림 3-55> 해양수산사무소 업무 중 중요성이 높은 업무	95
<그림 5-1> 해양수산사무소의 중장기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138
<그림 5-2> 해양수산사무소의 목표 및 추진방향	143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수산업의 부가가치는 바다의 수산자원을 이용하여 창출되기 때문에 바다의 인근에 위치한 어촌 주민을 중심으로 수산업이 영위되고 있다. 따라서 수산업의 발전은 어촌 주민의 생산행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수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중앙 정부는 수산정책의 목표와 정책을 수립하고, 이러한 수산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도적 수단과 경제적 수단을 수행한다.

수산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의 전달과 집행을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수산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어촌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국가기관 중의 하나가 해양수산사무소이다. 해양수산사무소의 주요한 업무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수산기술을 지도·보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양수산사무소는 양식어업의 도입기에 어업인에게 양식기술의 지도 및 보급에 앞장 서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였다. 1960년대의 해조류 양식업, 1970년대의 패류양식어업 및 1980년대의 어류 양식어업의 도입과 육성을 위하여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즉, 양식어업의 육성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라는 수산목표를 달성하는데 어촌지도기관인 해양수산사무소는 어업인과 접촉하는 최하부의 국가기관으로서 그 역할이 지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양식어업이 도입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어 따라 어업인의 양식기술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어 해양수산사무소의 양식기술의 보급 및 지도에 대한 어업인의 수요가 많이 감소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7년 7월에 수산물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지고, 한국·일본·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선포에 따른 근해어장의 축소로 어업인의 소득 감소와 불안정은 어촌의 유지·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수산업의 여건변화는 새로운 수산정책의 목표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즉 종래의 생산자 중심의 수산정책에서 생산자 및 소비자 지향의 수산정책의 수립이 필요하고 바다의 수산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먹거리 생산정책뿐만 아니라 바다와 어촌의 다양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따른 어촌의 활성화가 수산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수산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수산정책 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어업인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해양수산사무소의 새로운 어촌지도사업의 도입이 필요하다. 수산여건의 변화에 따라 발생되고 있는 지도사업의 비효율성과 구조적 문제를 조사·분석하여 어촌지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수산정책의 효율성과 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제고시켜야 한다.

2. 연구의 목적

어촌지도 사업은 1963년 국립수산진흥원에 지도과가 생긴 이후에 어업인의 기술지도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수행되고 있다. 1980년대 이전까지 어촌지도 사업의 내용은 생산기술 지도, 주산단지 집중지도, 소득개발기술지도, 기술홍보활동과 어촌지도 효율성 제고 등이었다. 그리고 1980년대 전반에는 젊은 어업인의 탈어촌으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과 노동생산성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후계자 사업의 지도 업무가 추가되었고, 1980년대 후반에는 어장환경 보전 및 지속적 어업 발전을 위한 양식어장 관리 지도업무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에 어업인의 경영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어업경영지도업무가 추가되었으며, 최근에 수산통계 업무가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어촌지도 사업은 수산여건과 수산정책의 변화에 따라 업무의 내용이 증가하여 왔다. 따라서 어촌지도 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할 뿐만 아니라 추가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어촌지도 공무원의 채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양식어업의 기술지도와 홍보가 중심인 어촌지도 사업은 어업인의 양식기술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여 어촌지도 공무원의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어업인이 어촌지도 공무원으로부터 원하는 어촌지도 업무와 수산여건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어촌지도 업무를 발굴하여 어업인과 어촌지도 공무원이 동시에 만족하는 어촌지도 사업의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 수행중인 어촌지도 사업의 종합적인 조사·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어촌지도 사업을 발굴하고, 비효율적인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어촌지도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해양수산사무소의 업무와 조직이다. 즉 해양수산사무소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해양수산사무소의 연혁을 중심으로 해양수산사무소의 변천, 해양수산사무소의 구성과 특성 등의 해양수산사무소의 현황과 해양수산사무소의 역할 등을 조사·분석한다.

둘째, 해양수산사무소의 업무를 조사·분석한 후 해양수산사무소의 업무와 조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문문을 작성하여 어업인, 수산직 공무원 및 어촌지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문제점을 도출한다.

셋째, 최근 수산업의 여건 변화와 어촌의 여건 변화에 따른 해양수산사무소의 기능변화를 살펴보고, 해양수산사무소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새롭게 도입하여야 할 업무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사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적자원 관리방안 및 조직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최근의 급격한 국내외 수산여건의 변화와 어촌의 노령화와 어촌소득의 감소 등에 의한 어촌여건의 악화에 따른 어촌 경제 침체를 벗어나는데 해양수산사무소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사무소의 새로운 역할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어촌지도 사업에 관한 선행 연구의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나은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 어촌지도 사업뿐만 아니라 농촌지도 사업에 관한 연구를 검토한다. 특히 수산여건의 변화에 따른 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사업을 수산기술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어촌경제가 활성화된 국내외 사례를 문헌을 통하여 조사하여 새로운 어촌사업을 발굴한다.

어업인의 어촌지도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촌지도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한다. 또한 어촌지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촌지도 공무원의 어촌지도 사업 수행에 대한 만족도와 지도업무의 개선 필요성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한다.

수산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촌지도 사업을 파악하여 단기 수행업무와 어촌지도 조직의 장기적 개편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관련 해양수산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한다.

이상의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어촌지도 사업의 발굴과 어촌지도 조직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도출한다.

제 2 장 해양수산사무소의 현황 및 기능

- 1. 해양수산사무소의 변천과정**
- 2. 해양수산사무소의 조직 및 인원**
- 3. 해양수산사무소의 역할**
- 4. 해양수산사무소 직무평가**

제 2 장 해양수산사무소의 현황 및 기능

제1절 해양수산사무소의 변천과정

1. 조직 변천과정

어촌지도사업은 1963년 12월 국립수산진흥원에 지도과가 설치되면서 태동되었다. 그러나 어촌지도사업이 최초로 수산정책의 대상이 된 것은 한일합방 이듬해인 1911년 일제가 수탈의 목적으로 각 항구에 수산기술원을 설치한 것을 그 효시로 보고 있다.¹⁾ 해방이후 수산부문은 소관부처의 잦은 변경으로 어촌지도에 관한 업무가 중시되지 못하였는데 1963년 12월 16일 제8차 직제 개정을 통하여 농림부내 수산국 어정과 '단체계'에 어촌교도관계 업무를 분장하고, 같은 날 제정된 「수산진흥법」에서 수산시험장의 설립근거를 규정함과 동시에 수산시험장을 국립수산진흥원으로 승격시키고, 동기관내에 '지도과'를 설치함으로써 본격적인 어촌지도 업무가 재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업무가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요원이 확보되지 않아 실제 지도업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록 소규모이지만 전담부서와 전담요원에 의하여 어촌지도사업이 시행된 것은 1966년 수산청 발족 이후이다. 동년 10월 제1차 직제개정을 통하여 최초로 전담공무원제도를 도입하여 수산지도직 40명을 채용하였다. 이후 1976년 6월 11일 대통령령으로 수산진흥원 직제를 개정하고 정규직 4급과 5급등 82명을 확보하여 일선의 수산진흥원 지원에 배치함으로써 독립된 어촌지도기관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일선지도업무가 부분적이거나 현장에서 실시되었다.

<표 2-1> 해양수산사무소의 변천과정

일 시	변천과정
1963.12.	국립수산진흥원 지도과 설치
1976. 6.	1976. 6. 어촌지도공무원 82명(수산직) 신규 확보
1981. 12.	남해 등 8개 어촌지도소 설치
1984.	화성 어촌지도소 등 6개 어촌지도소 증설(농수산부령 제912호)
1985. 12.	어촌지도직렬 신설(수산직→어촌지도직으로 일괄전직)
1989. 8.	동해어촌지도소 등 7개 어촌지도소 증설(대통령령 제12784호)
1989. 9.	태안 어촌지도소 등 3개 어촌지도소 증설(농수산부령 제1036호)
1991.	인천 어촌지도소 등 5개 어촌지도소 증설(농수산부령 제1079호)
1995. 4.	동·서·남해수산연구소로 소속 변경
1997. 5	수산기술보급업무 이관(국립수산과학원⇒지방해양수산청)
1998. 2.	어업인 육성과의 통합⇒어업진흥국 지도육성과로 변경
1999. 5.	정부조직 경영진단 후 소속·명칭 및 정원 감축(272⇒260명)
1999.12.	『연구관·지도관 직위표』 개정에 따라 4급 상당 지도관 직위 5명 확보
2003. 1.	어업생산통계업무 이관에 따른 통계직 29명 확보
2003. 7.	평택청 신설로 인한 수산관리과 신설(기존 화성수산기술관리소) 수산직·어촌지도직 복수직렬화 직제개정(수산물품질검사원은 제외)
2004. 2	수산기술관리소에서 해양수산사무소로 명칭 변경

1) 최정윤, 「어촌지도사업에 관한 연구」, 한국수산경영론집 제10권 2호. p32, 1979.

1981년에 남해 등 8개의 어촌지도소가 일선에 설치됨으로써 본격적인 어촌지도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시작하였다. 이후 1984년 화성어촌지도소 등 7개 어촌지도소가 증설되었고, 1989년에는 태안어촌지도소 등 3개소, 1991년에는 인천어촌지도소 등 5개 어촌지도소가 설치 운영되었다. 한편 1985년 12월에는 어촌지도직렬이 신설됨으로써 어촌지도요원들은 일괄적으로 직렬이 변경되었다. 1995년 동·서·남해수산연구소가 설립됨에 따라 어촌지도소의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1996년 해양수산부의 설립됨으로써 1997년 수산기술보급업무가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1999년도에 실시한 정부의 경영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정원이 272명에서 260명으로 감축되었다. 2003년 1월 어업생산통계업무가 통계청으로부터 해양수산부로 이관되고 수산기술관리소가 이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통계직 29명이 일선 수산기술관리소에 배치되었다.

2. 어촌지도업무의 변천과정

지도사업의 이념과 목적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시대적인 흐름이나 수산환경변화에 따라 적절히 변화되어 왔다. 어촌지도사업이 최초로 규정된 1963년 수산진흥원의 지도과 업무내용은 ①수산에 관한 기술 보급 ② 어촌청소년, 부녀자 지도를 위한 조직 육성 ③ 협동조합의 육성 ④ 어촌부업지도 ⑤ 자연자원 보존·이용 ⑥ 홍보교양 ⑦ 어촌지도자 육성 및 훈련 ⑧ 수산기술자 양성과 수산관계공무원 훈련 등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에는 본격적인 지도업무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1970년대까지 ① 생산기술지도 ② 기술홍보활동 ③ 어민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어촌지도사업이 본격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한 1980년대에 ① 소득증대기술지도 ② 후계자사업 ③ 어민교육 ④ 기술홍보활동 ⑤ 양식어장관리지도 ⑥ 어촌지도기반조성 중심의 사업을 펼쳤다. 특히 이 시기에는 주요 양식품목의 기술이 일반화됨으로써 양식어장의 범위가 확대됨과 동시에 이들 어장이 상습적인 재해 피해를 입게 되어 양식어장관리지도 사업이 중요시되었다. 1990년대 들어와서는 어업경영지도부문이 어촌지도사업 내용에 포함됨으로써 종래의 기술지도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사회과학부문도 어촌지도에 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²⁾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대내외 수산환경 변화와 수산자원의 감소에 따라 자원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총 허용어획량(TAC)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어업생산통계 조사, 수산물안전관리, 어업인정보화사업과 WTO체제 출범 이후 수산정책 입안에 따른 양식어업관측제 등이 신규 업무내용에 포함되었다.

2) 박성쾌외 3인, 「어촌지도사업의 평가와 발전방안」, 1993.

<표 2-2> 어촌지도관리 업무의 변천

구 분		내 용
1970년대		① 생산기술지도 ② 기술홍보활동 ③ 어민교육
1980년대	초기	① 생산기술지도 ② 주산단지집중지도 ③ 소득개발 기술지도 ④ 기술 홍보활동 ⑤ 어촌지도효율제고
	후기	① 소득증대기술지도 ② 후계자사업 ③어민교육 ④ 기술홍보활동 ⑤ 양식어장 관리지도 ⑥ 어촌지도기반조성
1990년대		① 소득증대기술지도 ② 후계자사업 ③어민교육 ④ 기술홍보활동 ⑤ 양식어장 관리지도 ⑥ 어촌지도기반조성 ⑦ 어업경영지도
2000년대		① 수산기술의 보급 및 어업경영지도 ② 어업인 및 어업인 후계자에 대한 수산 기술의 지도·교육 ③ 기술지도선 및 어촌지도장비의 관리·운영 ④ 복합영어 및 어촌생활 개선을 위한 지도 ⑤ 수산자원 조성에 관한 사항 ⑥ 총허용어획량 (TAC)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어업생산통계 조사의 실시

자료 : 박성쾌외 3인, 「어촌지도사업의 평가와 발전방안」, 1993 수정 보완

이상과 같은 어촌지도업무의 변화를 종합해 볼 때 1980년대 이전까지는 홍보위주의 기술지도였으며, 1980년대 전반에는 지역어업개발 중심의 지도였고, 1980년대 후반에는 양식기술 개발과 보급의 증대로 양식어장 관리 중심의 지도였다. 1990년대에는 어업기술 지도의 다양화와 함께 경영지도가 주요 지도사업에 포함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와서 급격한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한 자원관리 차원에서의 지도업무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절 해양수산사무소의 조직 및 인원

1. 해양수산사무소의 조직체계

해양수산사무소의 조직은 크게 해양수산부(수산경영과), 지방해양수산청(수산관리과), 해양수산사무소 등으로 구분된다. <그림 2-1>과 같이 해양수산사무소는 서해안과 남해안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내 어촌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각 지역 수산관리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수산경영과이다. 수산경영과는 어촌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시달, 관리감독, 관련 제도 제정 및 개정, 예산편성 및 배정, 직제 개편 등 조직관리, 수산행정의 기획·조정·집행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해양수산청내 어촌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수산관리과이다. 수산관리과는 수산정책 업무의 총괄조정 및 수행, 국책사업의 관리·감독 및 수산 관련 업무조정,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정보제공 및 신기술의 개발·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12개 지방청에 총 107명의 어촌지도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다.

해양수산사무소는 직제상 지방해양수산청 수산관리과 소속으로 가장 말단에 위치한 조직이다. 해양수산사무소는 대부분 지방해양수산청과의 거리가 먼 지역의 어촌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해양수산사무소는 어업인들의 각종 현안사항 의견수렴 및 해소방안 강구,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브랜드 및 소득원 확대개발,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정보제공 및 신기술의 개발·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17개 해양수산사무소에 약 144명의 어촌지도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립수산과학원에도 2명의 어촌지도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표 2-3> 해양수산사무소의 기관별 업무

구분	인원	업무
해양수산부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지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달 ○ 관리감독, 관련제도 제정 및 개정 ○ 예산편성 및 배정 ○ 직제개편 등 조직관리 ○ 수산행정의 기획·조정·집행 ○ 어업생산량 통계 생산
지방해양수산청 (수산기술관리과)	1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정책업무의 총괄조정 및 수행 ○ 국책사업의 관리·감독 및 수산관련 업무조정 ○ 어업인경영안정을 위한 정보제공 및 신기술의 개발 보급
해양수산사무소	1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인들의 각종 현안사항 의견수렴 및 해소방안 강구 ○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브랜드 및 소득원 확대개발 ○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정보제공 및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국립수산과학원	2	-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2003년 6월말 현재).



<그림 2-1> 어촌지도 담당업무 조직의 위치도

2. 해양수산사무소의 인원 현황

가. 인원현황

해양수산사무소 또는 수산관리과에 근무하는 인원 336명 중 지도관은 31명으로 9.2%, 지도사는 230명으로 68.5%를 차지한다. 그리고 통계직은 29명으로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무직은 20명으로 6.0%, 그리고 승선원은 28명으로 8.3%를 차지하고 있다. 수산관리소 또는 수산관리과에 배정된 직원은 최소 5명, 최대 20명으로 인원분포가 다양하며, 어촌지도사도 3명에서 16명으로 지도사 정원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4> 어촌지도직 공무원 현황

(단위: 명)

과소별	합계		지도관		지도사		통계직		사무원		승선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합 계	336	336	31	31	230	229	29	29	20	19	26	28
본부	6	6	1	1	3	3	2	2	-	-	-	-
부산	12	12	1	1	9	9	1	1	1	1	-	-
인천	13	12	1	1	10	10	1	1	1	-	-	-
평택	7	7	1	1	5	5	1	1	-	-	-	-
대산	10	10	1	1	7	7	1	1	1	1	-	-
군산	10	10	1	1	7	7	1	1	1	1	-	-
목포	18	18	1	1	13	13	1	1	1	1	2	2
여수	20	20	1	1	16	16	1	1	-	-	2	2
마산	14	14	1	1	9	9	1	1	1	1	2	2
울산	6	6	1	1	4	4	1	1	-	-	-	-
포항	14	14	1	1	9	9	1	1	1	1	2	2
동해	10	10	1	1	8	8	-	-	1	1	-	-
제주	12	12	1	1	9	9	1	1	1	1	-	-
고흥	15	15	1	1	10	10	1	1	1	1	2	2
장흥	12	12	1	1	7	7	1	1	1	1	2	2
남해	13	13	1	1	8	8	1	1	1	1	2	2
사천	10	10	1	1	5	5	1	1	1	1	2	2
통영	15	15	1	1	11	11	1	1	-	-	2	2
거제	12	12	1	1	7	7	1	1	1	1	2	2
고성	7	9	1	1	5	5	1	1	-	-	-	2
속초	10	10	1	1	7	7	1	1	1	1	-	-
부안	7	7	1	1	5	5	1	1	-	-	-	-
고창	6	6	1	1	4	4	1	1	-	-	-	-
영광	7	7	1	1	4	4	1	1	1	1	-	-
진도	12	12	1	1	7	7	1	1	1	1	2	2
해남	11	11	1	1	8	8	1	1	1	1	-	-
완도	19	19	1	1	14	14	1	1	1	1	2	2
영덕	8	8	1	1	6	6	1	1	-	-	-	-
울릉	5	5	1	1	3	3	-	-	1	1	-	-
보령	13	12	1	1	9	8	1	1	-	-	2	2
과학원	2	2	1	1	1	1	-	-	-	-	-	-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2003년 6월말 현재).

나. 어촌지도관 현황

(1) 연령별 구성

권역별 어촌지도의 책임자인 어촌지도관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50세 이상이 18명으로 58.1%를 차지하고 있으며, 40세~50세 까지가 13명으로 41.9%를 차지하고 있으며, 40세 이하의 어촌지도관은 전무하다. 이와 같이 다른 직렬보다 어촌지도직의 담당관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5> 어촌지도관 연령 분포

(단위: 명)

과소별	계	30세 미만	30~35세	35~40세	40~45세	45~50세	50~55세	55세 이상
계	31	0	0	0	3	10	8	10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2003년 6월말 현재).

(2) 전공별 구성분포

권역별 어촌지도의 책임자인 어촌지도관의 전공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전공은 양식학으로 전체의 41.9%인 13명이다. 가공학과 어업학을 전공한 지도관이 각각 6명으로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다. 어촌지도사업의 특성상 어촌지도관의 전공이 거의 자연과학임을 알 수 있다.

<표 2-6> 어촌지도관 전공 현황

(단위: 명)

과소별	계	양식	가공	어업	어병	기관	기타
계	31	13	6	6	0	0	6

※ 기타 : 수산공학 1, 해양자원육성학 2, 미생물공학 1, 기타 2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2003년 6월말 현재).

다. 어촌지도사 현황

(1) 연령별 구성

해양수산사무소 또는 수산관리과에 근무하는 어촌지도사 중 35세 미만인 지도사의 비중은 22.7%이며, 45세 이상의 어촌지도사는 46.3%로서 어촌지도사의 연령분포가 다른 직렬의 연령분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2-7> 어촌지도사 연령 분포

(단위: 명)

과소별	계	30세 미만	30~35세	35~40세	40~45세	45~50세	50~55세	55세 이상
계	229	11	41	31	40	75	23	8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2003년 6월말 현재).

(2) 전공별 구성

해양수산사무소 또는 수산관리과에 근무하는 어촌지도사 중 양식학을 전공한 자는 128명으로 전체 지도사중 55.8%에 달한다. 다음으로 어업학과 가공학을 전공한 지도사가 각각 32명과 31명이며, 어병학 및 기관학을 전공한 지도사는 각각 18명과 6명에 불과하다. 한편 경영학과 수산교육학을 전공한 어촌지도사는 각각 1명으로 사회과학을 전공한 자는 0.9%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2-8> 어촌지도사 전공 현황

(단위: 명)

과소별	계	양식	가공	어업	어병	기관	기타
계	229	128	31	32	18	6	24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2003년 6월말 현재).

(3) 자격증 보유 현황

해양수산사무소 또는 수산관리과에 근무하는 어촌지도사 229명 중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전체 지도사의 75%인 172명이다. 이중 양식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111명으로 전체 자격증 소지자의 64.5%에 이르고 있다. 이외에 제조기사 20명, 어병기사 19명, 어로기사 3명, 항해사 1명, 수질관리사 4명, 정교사 1명 등이다.

<표 2-9> 어촌지도사 자격증 소지 현황

(단위: 명)

과소별	계	기술사	양식기사	제조기사	어병기사	어로기사	기타
계	172	13	111	20	19	3	6

※ 기술사 : 수산양식기술사 13

기 타 : 항해사1, 수질관리 4, 정교사 1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2003년 6월말 현재).

라. 학력 및 학위 현황

어촌지도관 및 어촌지도사의 학력 및 학위 현황을 살펴보면 대졸이 전체의 52.1%인 135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석사 76명, 고졸 32명, 박사 16명 등이다.

<표 2-10> 어촌지도관 및 어촌지도사 학력 및 학위 현황

(단위: 명)

과소별	계	박사	석사	대졸	고졸
계	259	16	76	135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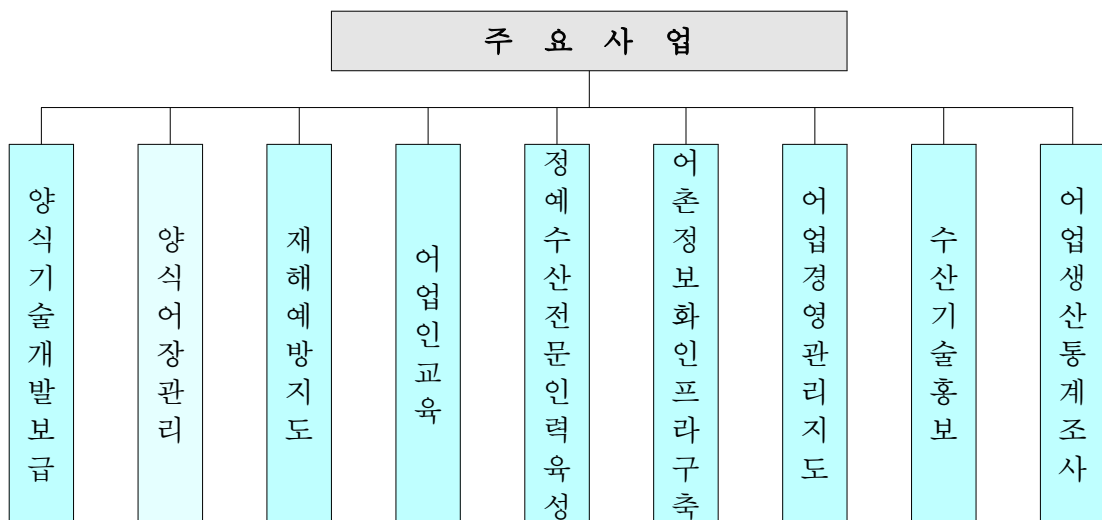
제3절 해양수산사무소의 역할

1. 해양수산사무소의 주요 사업

해양수산사무소의 사업내용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장 지방해양수산청의 과단위 기구 중 제29조(지방해양수산청의 과단위 기구) 제⑭항에 규정되어 있다. 해양수산사무소의 업무는 수산기술의 보급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업경영지도, 어촌생활개선을 위한 지도, 수산자원조성과 어업생산통계조사 등 매우 다양하다. 현재 규정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현장 애로기술보급
 - 시험어장을 통한 신규기술 적용 시험·보급
- 어류질병치료 및 재해에 의한 피해최소화 지도
 - 질병진단 치료 및 적조 등 재해예방
- 수산물 위생 및 안전 관리
 - HACCP, 비브리오패혈증, 패류독소 등
- 수산자원 관리업무 추진
 - TAC, 인공어초 투하, 어패류방류사업 입회
- 어어생산통계조사
- 어촌정보화사업
- 어촌후계인력 육성지도
 - 어업인후계자, 전업어가, 산업기능요원, 신지식어업인
- 해운항만 민원 업무

이러한 업무분장속에 해양수산사무소가 주로 수행하는 주요사업은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해양수산사무소의 주요 사업

2. 주요 업무 실적

가. 양식기술개발 및 어장 관리

해양수산사무소는 산업사회 발달과 함께 수산물 소비성향에 부합된 고부가가치 신품종을 개발함과 동시에 이를 보급시킴으로써 양식어가의 고소득 창출에 일조하였다. 즉 해양수산사무소는 연대별 시대변화에 대응한 전략품종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에 기여하고 있다. 해양수산사무소는 1970년대에는 패류와 해조류의 양식개발을 중점적으로 하여 피조개와 김의 양식기술을 개발·보급시켰으며, 1980년대에는 넙치, 조피볼락 등 어류 양식을, 1990년대에는 대하, 참게 등 갑각류의 양식기술을 개발 보급시켰다.

<표 2-11> 해양수산사무소의 시대별 중점 양식 기술 개발 분야

연 대 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분 야 별	패·해조류	어 류	갑각류 등 기타
주요품종	피조개·김	넙치·조피볼락 등	대하·참게 등

또한 연구·교습어장 운영 및 지자체의 수탁사업 등 지역별 현안사업 해소를 위한 연구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2002년에는 전복 등 27개 과제에 3억 8천여 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가리비 등 24개 과제에 약 4억원의 자금을 투입하였다.

또한 국제적 사회변화에 부응한 수출전략품종을 개발·보급하여 일부품종의 외화획득에 기여하였는데 대표적인 어종은 넙치, 전복, 피조개, 미역과 다시마 등이다.

수산자원의 감소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기르는 어업분야를 중점 육성하는 시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해양수산사무소도 2000년도에 넙치, 전복 등 54개 품목의 인공종묘의 기술 개발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참돔, 황복 등 90개 품종의 인공종묘를 생산하여 보급시켰다.

나. 어업인 교육 및 정예수산전문인력 양성

해양수산사무소는 어촌후계인력의 육성사업 및 최신 기술정보를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어촌의 고급인력 기반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수산전문기술 교육대상은 산업기능요원, 어업인후계자, 선발된 전업어업인등이다.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에 대한 영어기술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은 742명이 배정되었지만 이중 727명을 선정하였으며, 현재 복무중인 인원은 232명이다. 한편 청·장년을 대상으로 한 어업인 후계자 교육은 2003년까지 약 12,898명을 교육하였는데 이중 어선어업자는 전체 54%인 7,004명, 증양식업자는 43%인 5,556명, 수산물 가공업자는 3%인 338명 등이다. 이와 함께 기존 어업 기반시설을 갖춘 생산잠재력이 있는 어가

를 전업어가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1,939명을 교육시켰다. 이중 어선어업인은 42%인 805명, 증양식어업인인 51%인 991명, 수산물가공 어업인은 7%인 143명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사무소는 2000년도까지 경쟁력을 갖춘 어업경영체 42가구를 선도경영체로 선정·운영해왔다.

다. 어업인 정보화 교육

정보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해양수산사무소의 주요한 업무로 떠오른 것이 어업인대상 정보화 교육이다.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직업간 도시/농어촌간 정보격차가 심화되어 정보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첨단 수산업 육성과 전자상거래 개설 등 수산업 발전의 필요성도 정보화교육을 촉진시킨 주요한 요인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사무소는 어업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먼저 원격영상교육시스템을 구축으로 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정예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를 위하여 2000년도에는 10억원을 들여 4개소에 원격영상교육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18억원을 들여 6개소에, 2002년도에는 31억원을 들여 13개소에 원격영상시스템을 설치하였다.

이와 함께 어업인 평생 교육기반 구축을 위하여 기초교육 및 경영 정보화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정보화 개념이해, 인터넷 정보검색 등 각종 수산정보 활용 등이다.

해양수산사무소는 또한 어업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수어촌계를 선정하여 어업인 신지식공유시스템과 연계되는 사랑방을 개설·운영하고 있는데 2003년까지 약 273개소의 어촌계를 선정하였다.

라. 어업생산통계 조사

해양수산사무소의 중요한 업무중 하나가 어업생산통계 조사이다. 우리나라의 어업생산량 통계수치의 부정확성은 한일어업협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어업생산량 통계 조사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그 대책의 하나로 기존의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것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도에 해양수산부 수산기술관리소에서 동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수산기술관리소가 담당하는 경우 어촌지도직 공무원들이 조사를 직접 하게 됨으로써 조사상에 발생될 수 있는 비표본 오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사무소는 주요양식품종별·어가별 소득을 규모별로 조사·분석하여 어업경영 진단·설계 및 경영개선과 수산정책 수립시 반영하고 있다. 대상어종은 넙치, 전복, 김 등 10개 품종이며, 대상어가는 262가구이다. 집계결과는 매년 해양수산부 관련부서, 시·도청, 지방청 국립수산과학원 등에 배부함으로써 수산정책 수립에 이용하고 있다.

제4절 해양수산사무소 직무평가

1. 지도직 공무원 직무평가

가. 설문조사 목적

본 설문조사는 어촌 지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재의 직무 만족도 및 직무평가에 대한 의견과 함께 개선방향을 파악하여 어촌지도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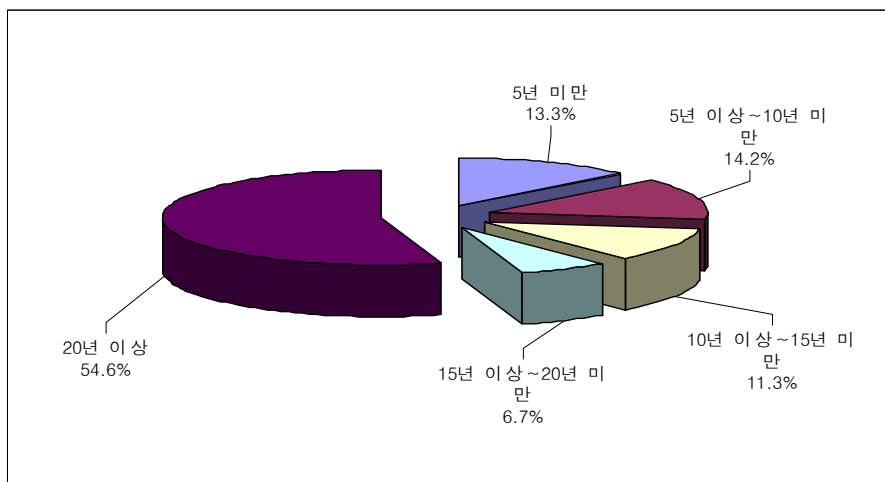
나. 설문조사 개요

본 설문조사는 어촌지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보다 객관적 의견의 수렴을 위하여 전체 어촌지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전국 해양수산사무소에 근무하는 어촌지도직 공무원에게 우편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이들이 설문내용에 대하여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설문조사 응답률을 살펴보면 전체 지도직 공무원 정원 261명(지도사 정원 230명, 지도관 정원 31명) 중 93.4%에 해당하는 244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지도직 공무원은 현재 교육중이거나 다른 기관 파견 등의 사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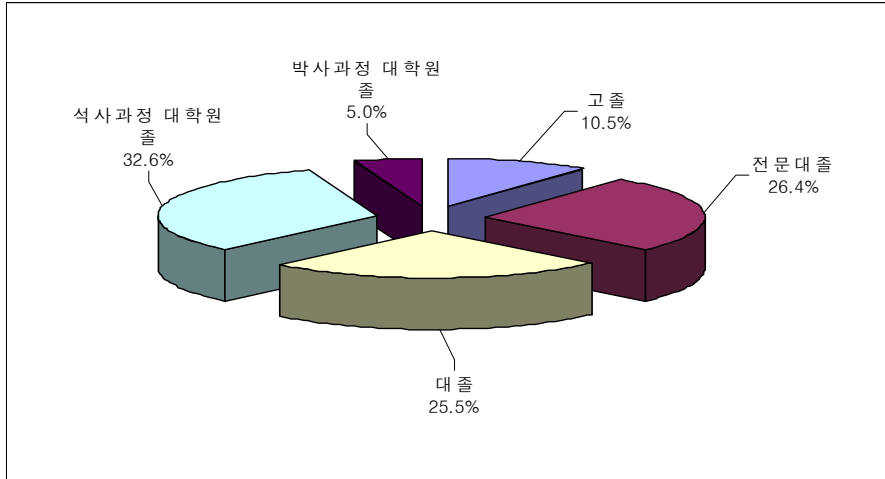
다. 지도직 공무원 응답자 일반사항

설문에 응답한 지도직 공무원들의 일반사항에 대한 것으로 우선 근무기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54.6%가 20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5년 이상 ~ 20년 미만이 6.7%, 10년 이상 ~ 15년 미만이 11.3%, 5년 이상 ~ 10년 미만이 14.2%, 5년 미만이 13.3%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15년 이상 근무한 지도직 공무원이 61.3%에 이를 정도로 근무연수가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3> 지도직 공무원 복무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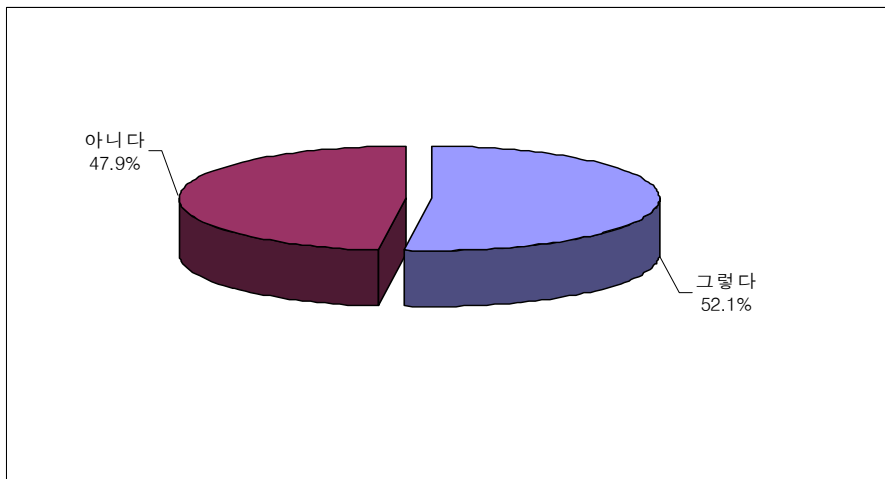
한편 지도직 공무원의 학력분포를 살펴보면 석사과정을 마친 지도직공무원이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대졸 25.5%, 박사과정 5.0%, 전문대졸 26.4%, 고졸 10.5%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림 2-4> 지도직공무원 학력분포

라. 설문조사 결과분석

어촌지도사업의 도입 및 효율적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결과, 설문조사에 응답한 239명 중 직무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52.1%,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47.9%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상호 대립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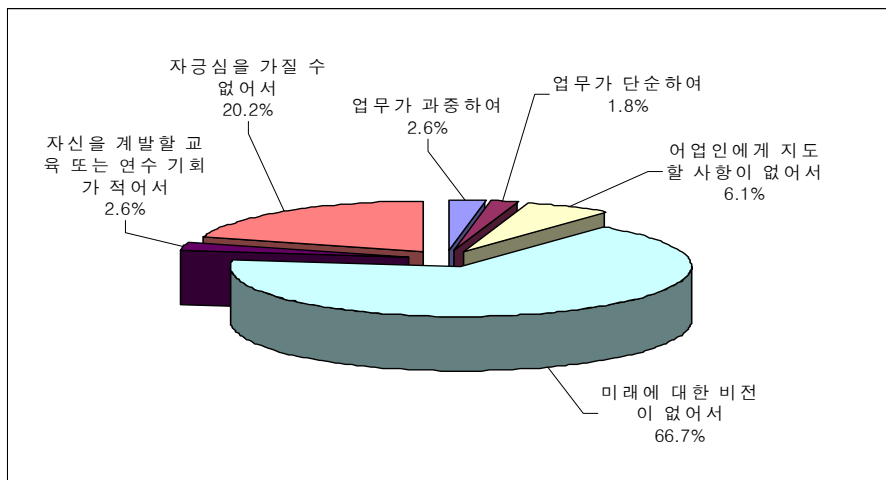
<그림 2-5> 어촌지도직 공무원 근무 만족도

한편, 직무만족도와 관련하여 근무만족도가 어촌지도직 근무기간과의 상호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계층은 5년 미만 근무한 계층으로 68.8%가 만족하며,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계층은 20년 이상 근무한 계층으로 43.8%만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20년 이상 근무한 계층 중 만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낮은 것은 승진적체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2> 어촌지도직 근무기간별 직무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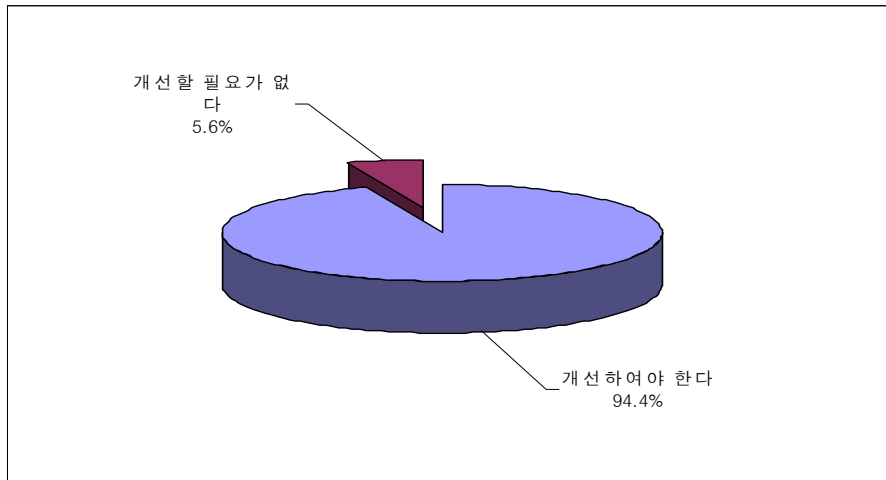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합계
만족(명)	22	20	15	10	57	124
구성비(%)	17.7	16.1	12.1	8.1	46.0	100.0
불만족(명)	10	14	12	6	73	115
구성비(%)	8.7	12.2	10.4	5.2	63.5	100.0
합계(명)	32	34	27	16	130	239
구성비(%)	13.4	14.2	11.3	6.7	54.4	100.0

어촌지도직 근무에 대하여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불만족 사유를 조사한 결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의견이 전체의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없다는 의견이 20.2%로 나타났으며 이 두 가지 의견이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어촌지도직의 사기저하가 조직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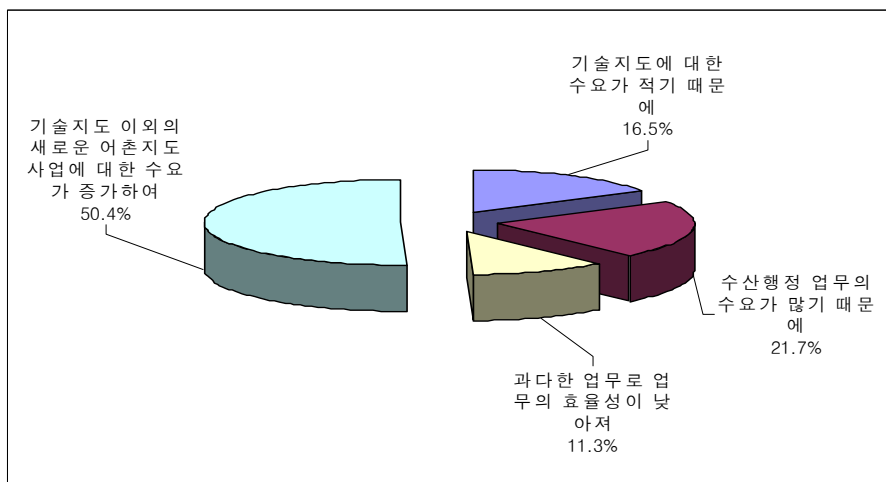
<그림 2-6> 어촌지도직 근무 불만족 사유

해양수산사무소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내용의 개선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94.4%가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내용 및 체계에 대하여 변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7> 해양수산사무소의 업무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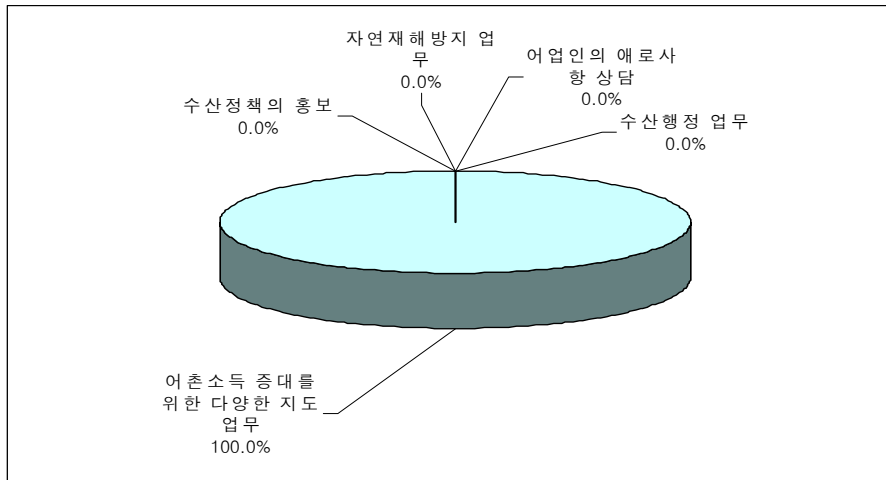
그리고 업무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개선해야 하는 사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2-8> 수산관리소 업무 개선사유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50.4%는 기술지도 이외의 새로운 어촌지도 사업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개선사유로 제기하였으며 이와 함께 수산행정업무의 수요가 과다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21.7%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기술지도에 대한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16.5%로 나타났으며 업무가 과다하다는 의견 또한 11.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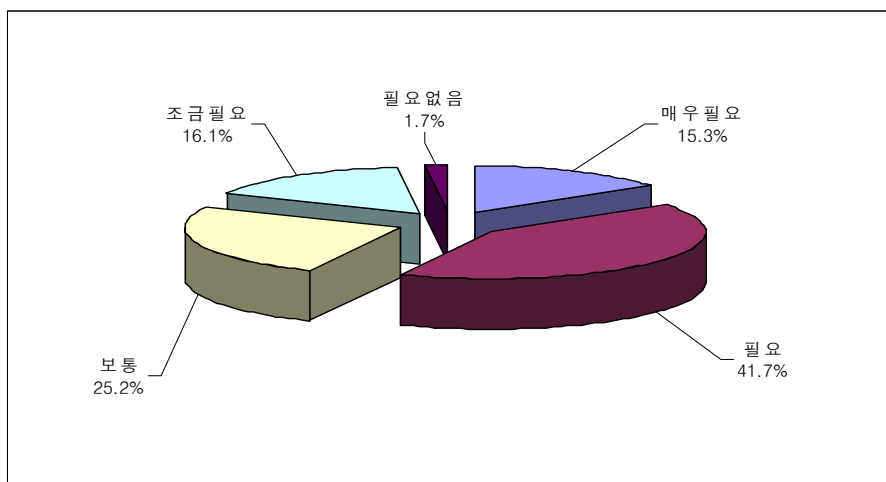
개선사유를 종합해볼 때 어촌지도직 공무원들은 현재의 수산행정업무에 대한 조정과 함께 기술지도 업무 이외에 어촌 및 수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9> 해양수산사무소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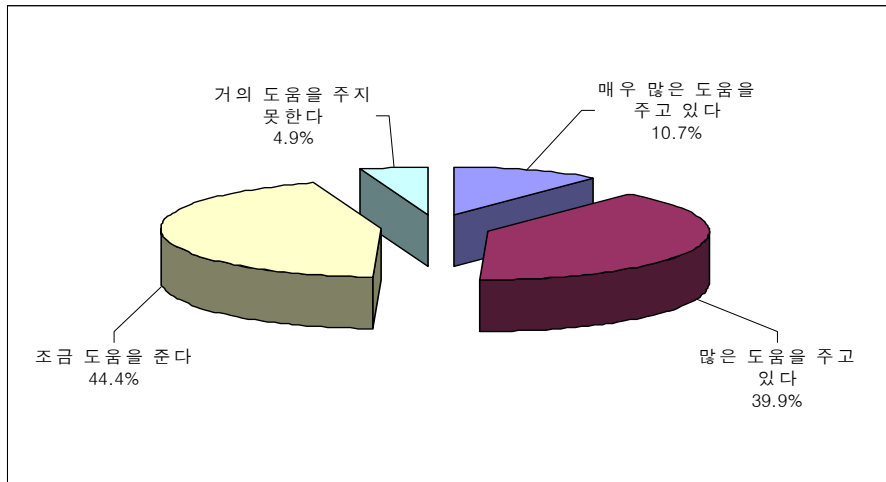
해양수산사무소 업무와 관련하여 기술관리소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모두 어촌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지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 수산행정이나 수산정책홍보, 자연재해방지 업무 등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제시되지 않아 시대변화에 따른 해양수산사무소의 새로운 역할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해양수산사무소의 역할 중 기술지도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15.3%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41.7%는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기술지도업무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제기되었다.



<그림 2-10> 해양수산사무소 기술지도사업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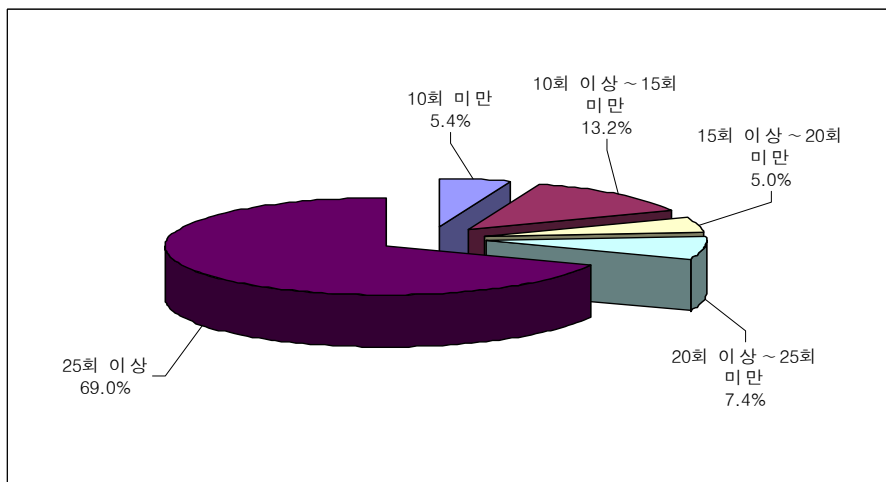
그리고 기술지도업무의 성과와 관련하여 기술지도가 어업인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11> 기술지도업무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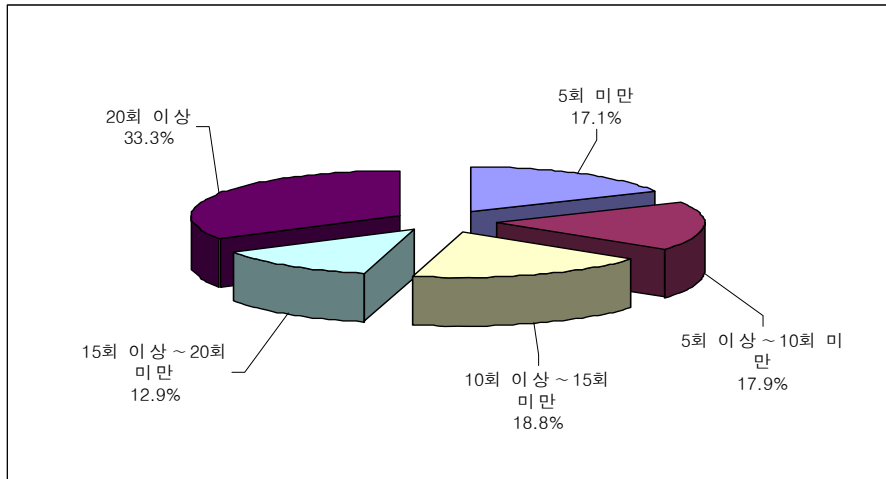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39.9%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4.4%는 조금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하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기술지도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술지도 업무의 실태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기술지도업무를 수행한 실적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9%가 연간 25회 이상 기술지도를 했다고 응답하여 월 2회 이상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한 지도직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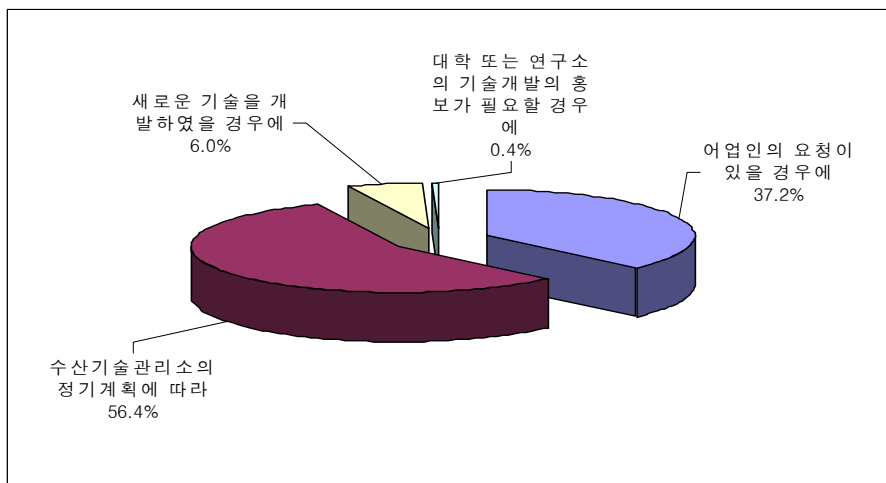
<그림 2-12> 최근 1년간 기술지도 횟수

다음으로 최근 1년간 경영지도 횟수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어업경영지도의 경우 연간 20회 이상이 33.3%, 15회 이상~20회 미만이 12.9%, 10회 이상~15회 미만이 18.8%로 나타나 최소 월 1회 이상의 어업경영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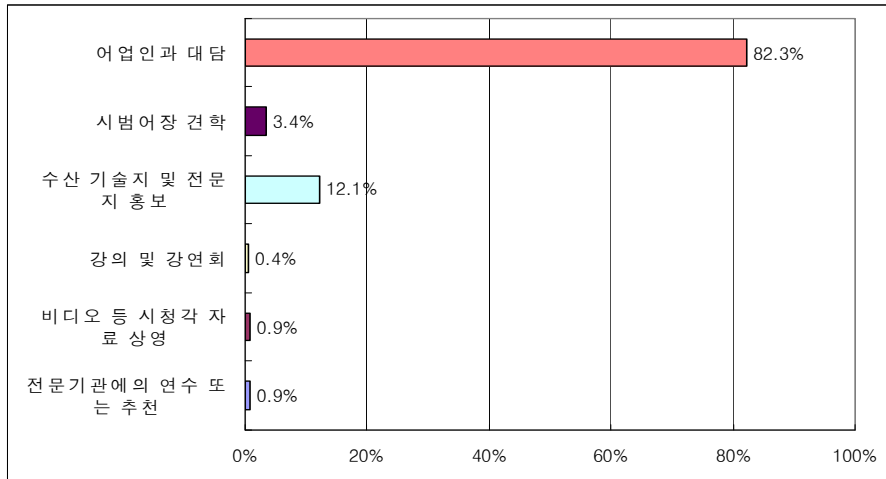
<그림 2-13> 최근 1년간 어업경영지도 횟수

어촌지도사들이 기술업무를 지도하는 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56.4%는 해양수산사무소의 정기계획에 따라 지도한다고 응답하였으나 37.2%는 어업인의 요청에 따라 지도한다고 응답하였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할 때 대부분의 지도업무는 기술관리소의 연간계획과 함께 어업인의 민원요청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14> 기술지도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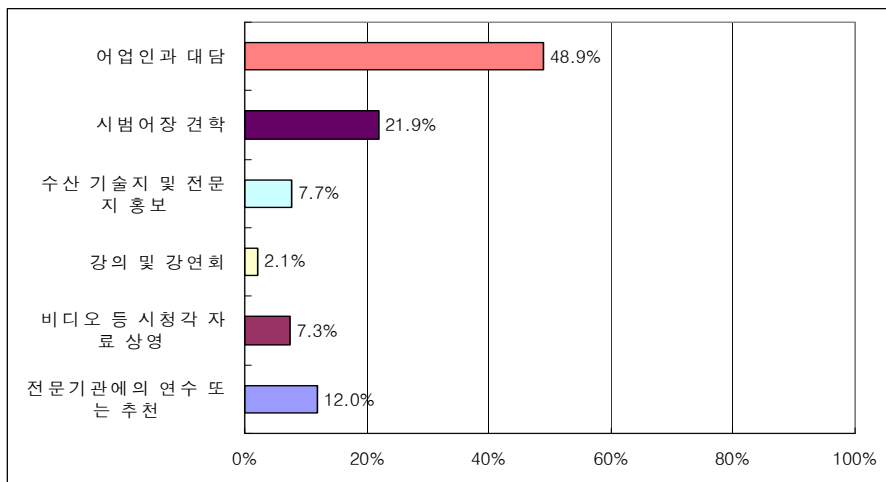
어촌지도업무에 사용되는 기술지도수단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도사는 어업인과의 대담(82.3%)을 통하여 지도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함께 전문지 홍보나 견학을 지도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응답도 일부 차지하고 있다.



<그림 2-15> 기술지도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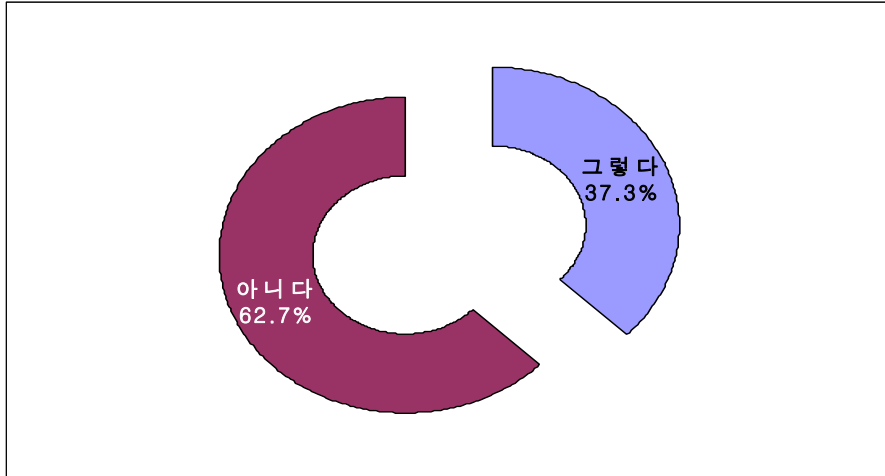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현지방문과 대인면접을 주로 하는 어촌 지도직 공무원들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과중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어촌지도사들은 어업인과의 대담을 기술지도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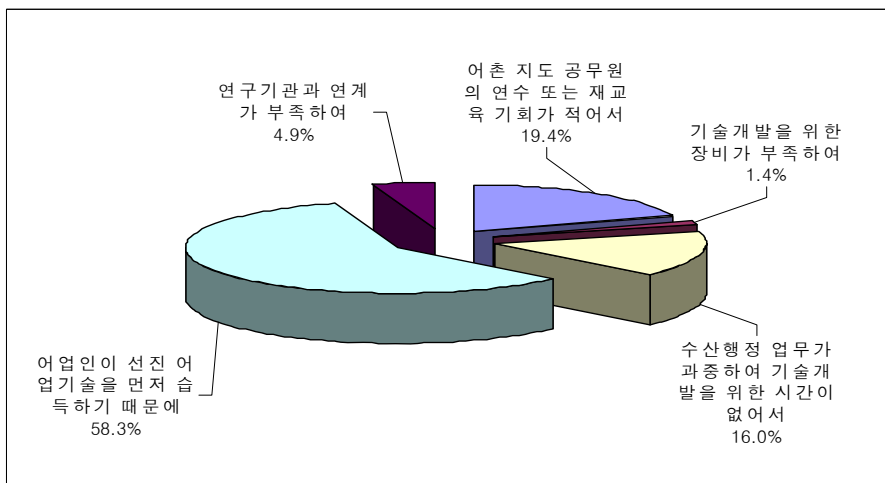
<그림 2-16> 효과적 기술지도 수단

한편,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기술지도가 어업인의 요구수준을 만족하는가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62.7%가 요구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응답하여 현재의 기술지도 내용이나 수준에는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17> 기술지도 업무의 어업인 요구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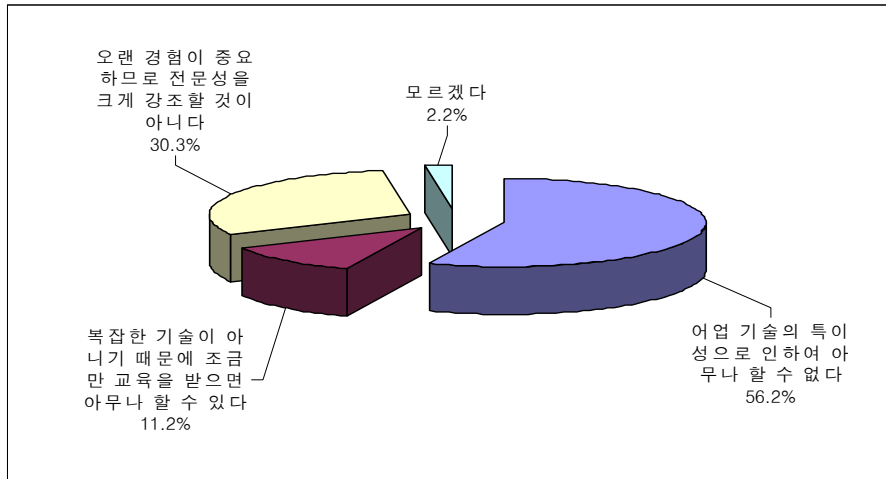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기술지도 업무가 어업인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림 2-18>과 같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58.3%는 어업인이 선진 어업기술을 먼저 습득하였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9.4%는 지도직 공무원의 연수나 재교육 기회가 적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수산행정 업무가 과다하다는 의견 또한 16.0%로 나타났다.



<그림 2-18> 기술지도 업무의 불만족사유

이상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할 때 기술지도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지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진교육과 재교육이 요구되며, 수산행정업무의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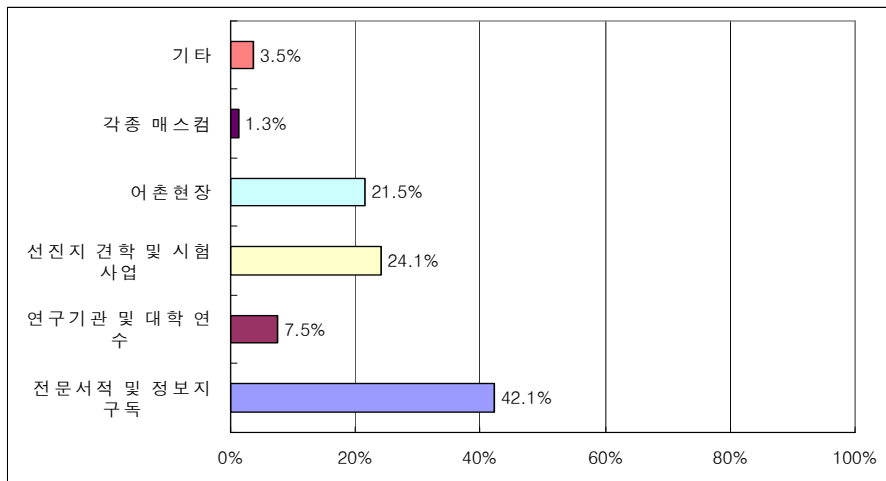
한편 어촌지도업무의 특성과약을 위하여 지도업무의 전문성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2%는 전문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20.3%는 오랜 경험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어업기술은 수산관련 전문지식과 함께 경험 또한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19> 어촌지도업무의 전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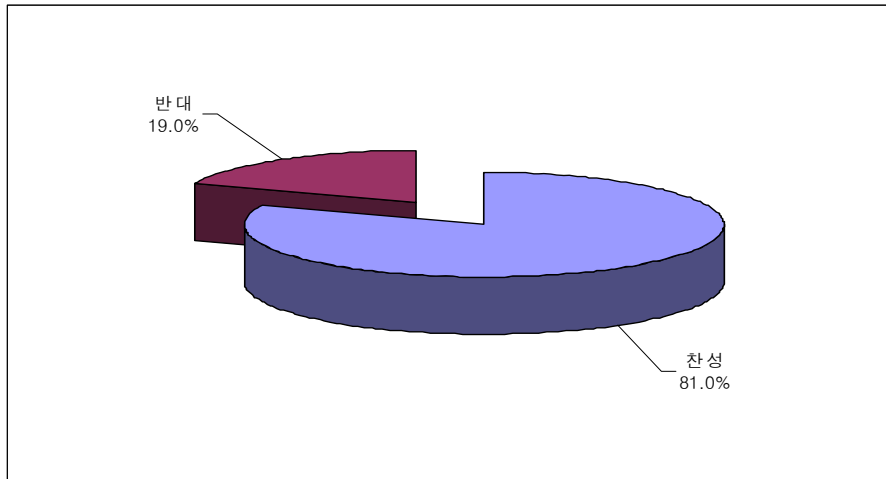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정보습득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응답자의 42.1%는 전문서적이거나 정보지 구독으로 지식을 습득하며 24.1%는 선진견학을 통하여, 21.5%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지식을 얻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할 때 재교육 및 연수를 통한 정보습득이 다소 낮게 나타나 지도직 업무의 기술향상 및 전문화(신기술 습득)에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2-20> 어촌지도 업무관련 정보습득 방법

다음으로 수산직과 지도직의 단일화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81%가 단일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였고 19.0%가 반대한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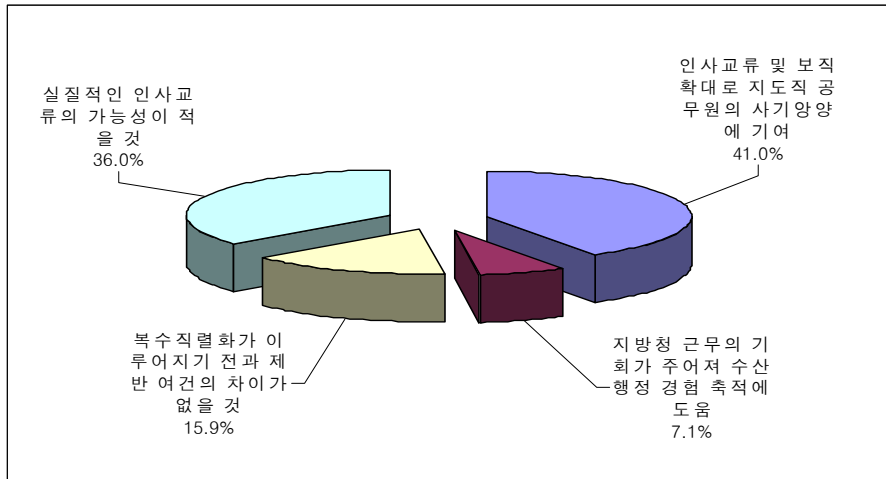
<그림 2-21> 수산직 · 지도직의 단일화

수산직과 지도직의 단일화에 대한 의견을 근무연수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표 2-13>과 같으며 지도직 근무연수와 단일화와는 별다른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20년 이상 근무자의 찬성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13> 어촌지도직 근무기간별 수산직 · 지도직 단일화 의견차이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합계
찬성(명)	25	26	25	13	105	194
구성비(%)	78.1	76.5	92.6	81.3	80.8	81.2
반대(명)	7	8	2	3	25	45
구성비(%)	21.9	23.5	7.4	18.8	19.2	18.8
합계(명)	32	34	27	16	130	239
구성비(%)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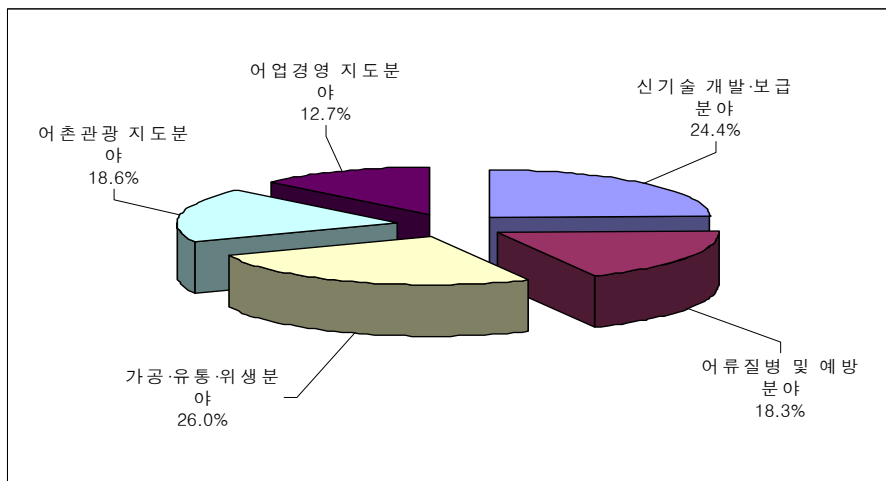
그리고 수산직과 지도직의 복수직렬화에 대한 의견에서는 인사교류 및 보직확대로 지도직 공무원의 사기양양에 기여한다는 의견(41.0%)과 실질적인 인사교류의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는 의견(36.0%)이 대립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복수직렬화가 이루어지기 전과 제반 여건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15.9%를 차지하고 있어 복수직렬화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 견해가 상대적으로 높게 제시되고 있다.



<그림 2-22> 수산직·지도직간 복수직렬화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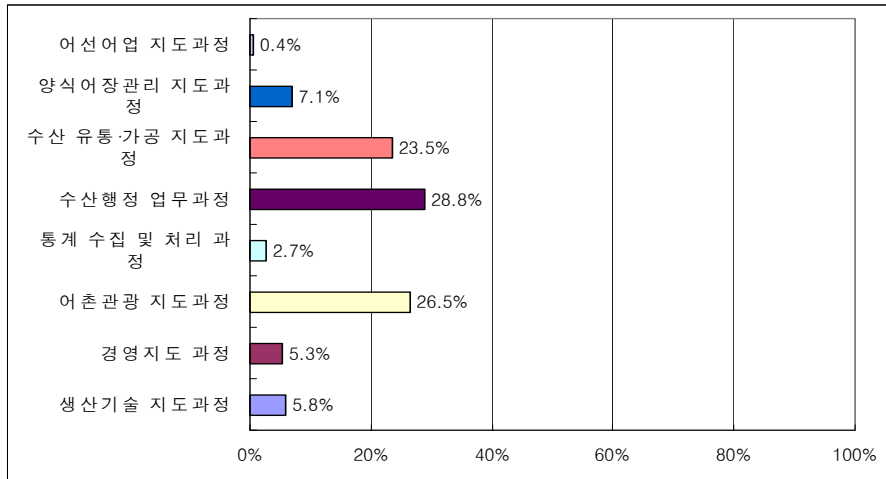
한편 수산관리소가 최일선 종합행정기관으로 전환될 경우에 어업인의 수요가 예상되는 지도업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공·유통·위생분야가 26.0%, 신기술 개발·보급 분야가 24.4%, 어촌관광 지도분야가 18.6%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할 때 어촌지도사들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단순 기술지도에서 벗어나 유통 및 가공분야, 어촌관광분야 등에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2-23> 종합행정기관 전환 후 새로운 지도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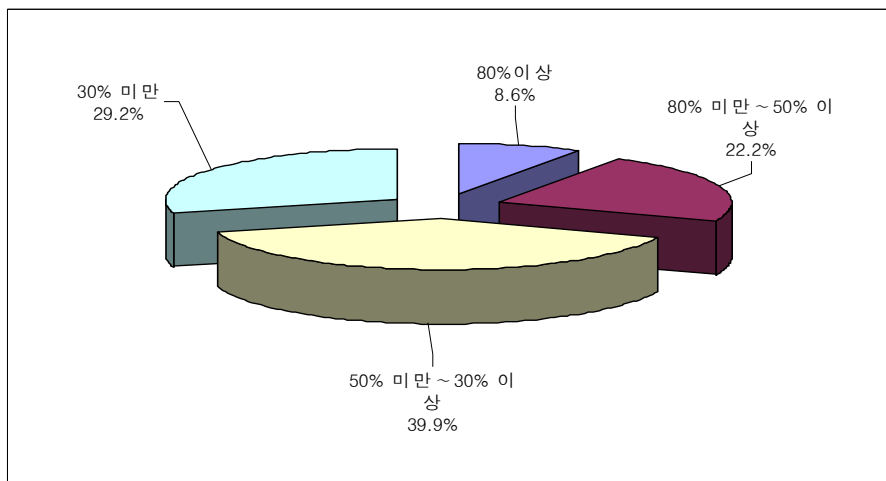
어업인의 업무수요와 함께 지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교육 및 연수과정에 새롭게 포함되길 바라는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수산행정 업무과정(28.8%), 어촌관광 지도과정(26.5%), 수산·유통·가공 지도과정(2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24> 장기교육·연수교육에 포함되길 바라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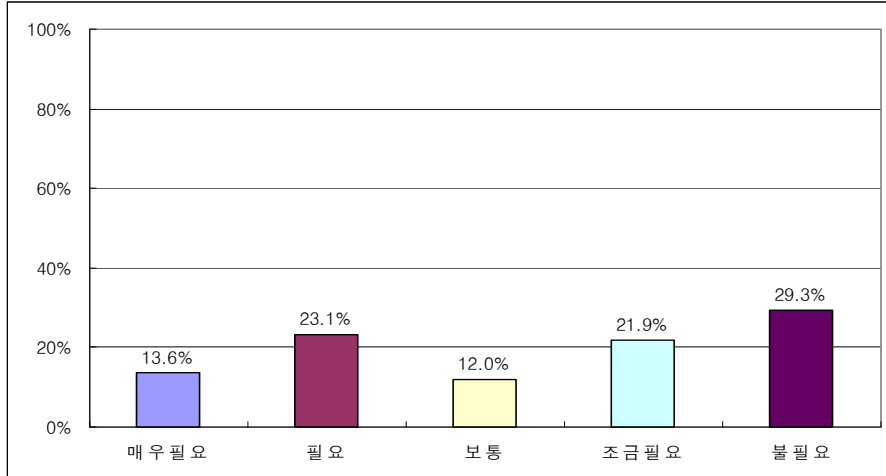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지도직 공무원 또한 새로운 수산업환경의 변화와 어업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교육과정에 포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현재의 직무내용과 관련하여 전체 업무중 기술지도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30%~50%정도를 차지한다는 의견이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나 기술지도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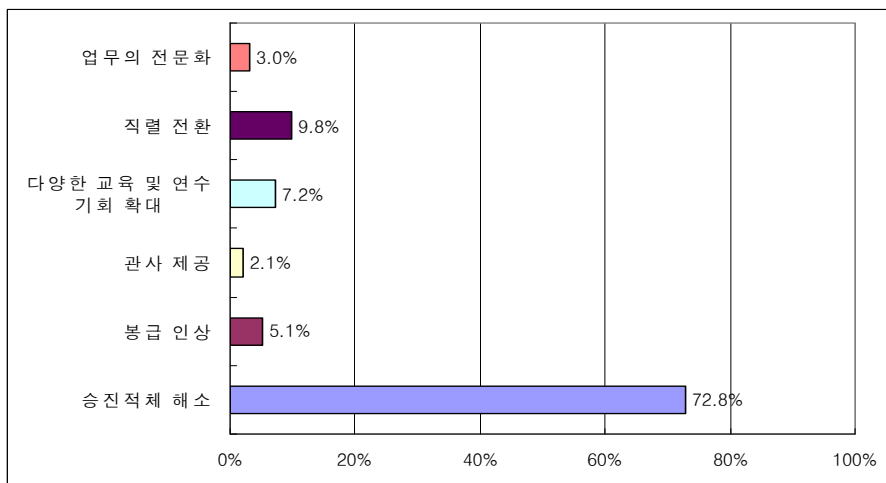
<그림 2-25> 기술지도업무의 비중

업무내용에 관한 설문조사와 함께 인사부문과 관련된 사항으로 어촌지도사들의 지방청 간 인사이동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조사결과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29.3%로 나타났으며 이와 반대로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은 13.6%로 제기되었다. 조사결과, 지도직 공무원들은 타 지역으로의 인사이동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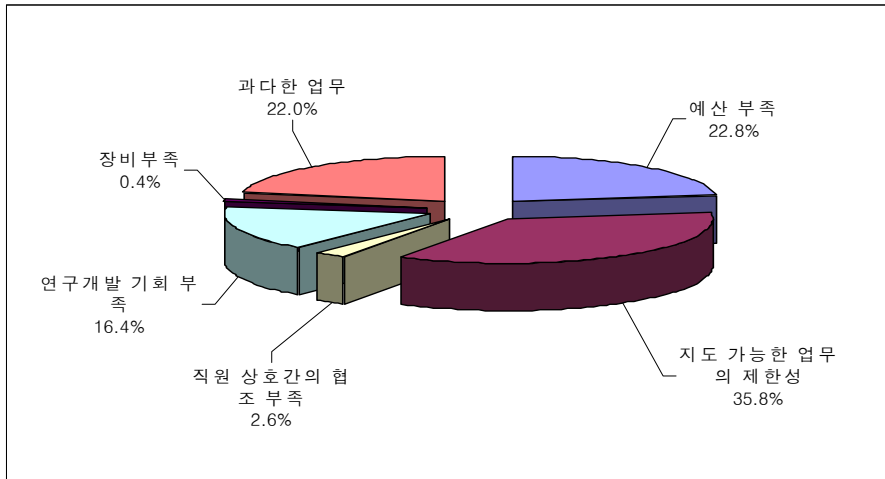
<그림 2-26> 어촌지도사들의 지방청간 인사이동

그리고 지도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72.8%가 승진적체의 해소라고 응답하여 지도직공무원의 승진적체가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직렬전환이라는 응답이 9.8%, 다양한 교육 및 연수기회 확대 7.2%, 봉급인상 5.1%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2-27> 지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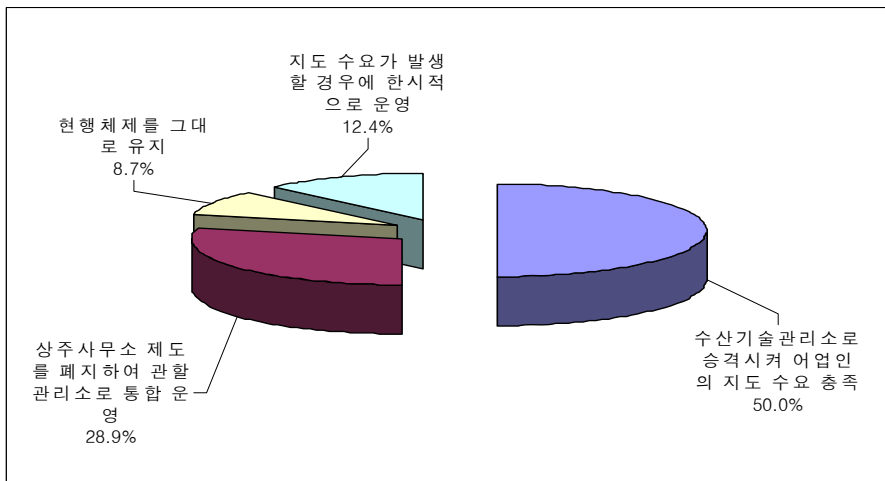
한편 현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업무의 제한성이 35.8%, 과도한 업무 22.0%, 예산부족 22.8%, 연구개발 기회부족 16.4%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2-28> 업무 수행시 장애요인

설문결과를 토대로 할 때 시도직 공무원들의 업무 범위에 대한 조정과 함께 내용 또한 새로운 방향으로 개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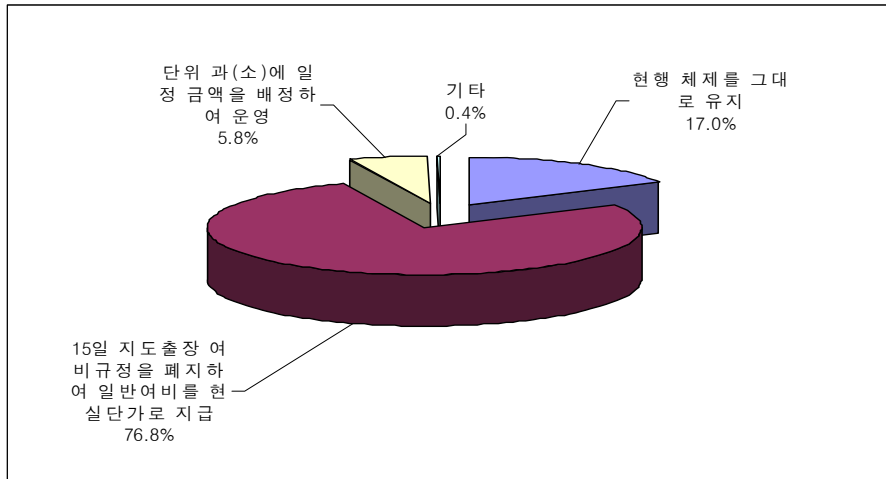
상주사무소제도에 관한 의견을 살펴보면 해양수산사무소로 승격시켜 어업인의 지도수요를 충족시키자는 의견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상주사무소제도를 폐지하고 관할 관리소로 통합하여 운영하자는 의견이 28.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29> 상주사무소 제도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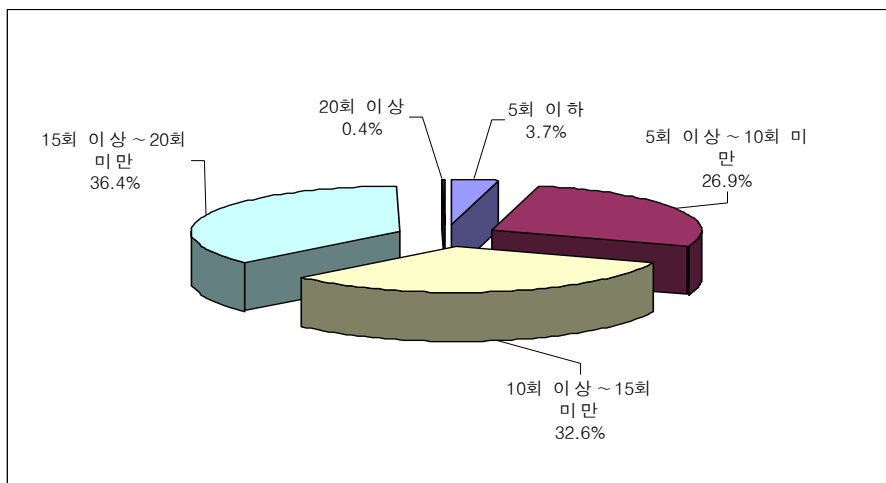
반면, 현행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8.7%를 차지하여 현행 상주사무소제도는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월액 여비제도에 대한 의견수렴에서는 15일 지도출장 여비규정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전체의 76.8%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시도직 공무원들이 여비제도를 개선하고 일반여비를 현실단가로 지급하자는 의견을 높게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여비제도에 대한 개선 또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30> 월액 여비제도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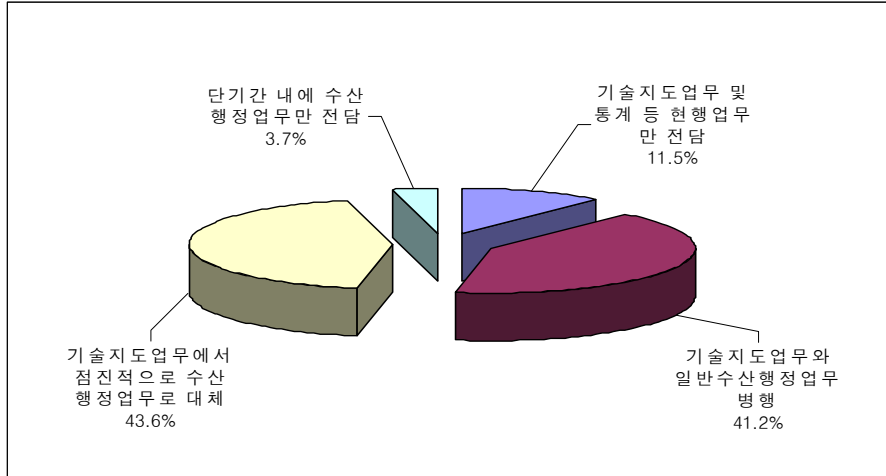
여비제도와 관련하여 지도사들의 월간 현지출장 횟수를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36.4%는 15회 이상~20회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2.6%는 10회 이상~15회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2-31> 월간 현지 출장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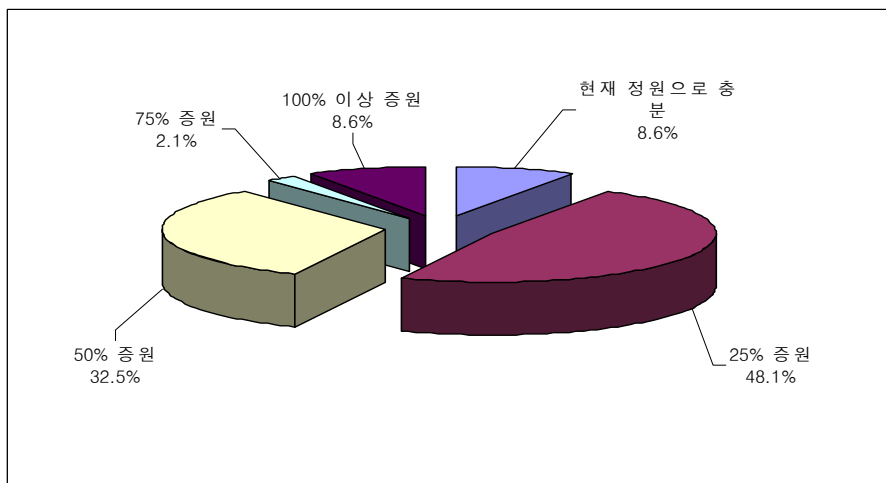
조사결과를 토대로 할 때 전체의 70%정도가 2일~3일에 한번씩 현지 출장을 가는 것으로 나타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비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32>는 해양수산사무소의 업무구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것으로 응답자들은 기술지도업무에서 점진적으로 수산행정업무로 대체하자는 의견(43.6%)과 기술지도업무와 일반수산행정업무를 병행하자는 의견(41.2%)을 주로 제시하였다.



<그림 2-32> 해양수산사무소의 업무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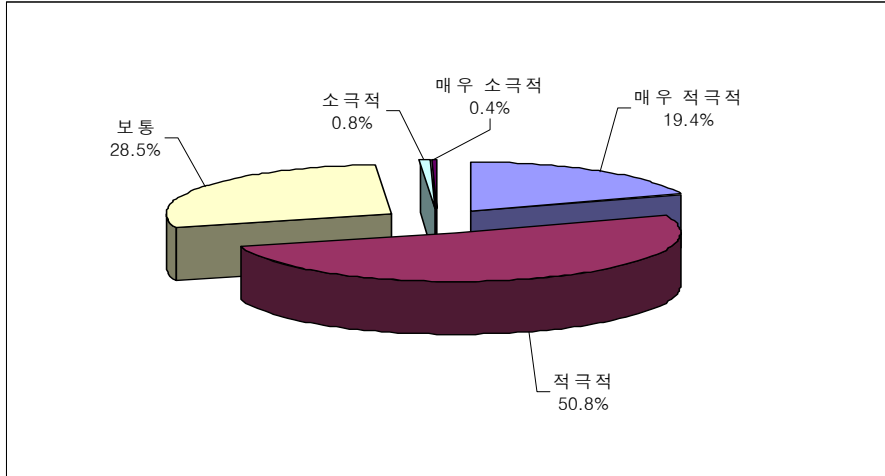
한편 현행 해양수산사무소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력충원의 범위 대하여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현행 인력의 25%를 증원시키자는 의견(48.1%)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50%를 증원시키자는 의견이(32.5%) 상당히 높게 제기되었다.



<그림 2-33> 해양수산사무소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충원범위

따라서 대부분의 지도직 공무원들은 현재 업무인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업무수행을 위해 증원에 대한 목소리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기술관리소의 인력증원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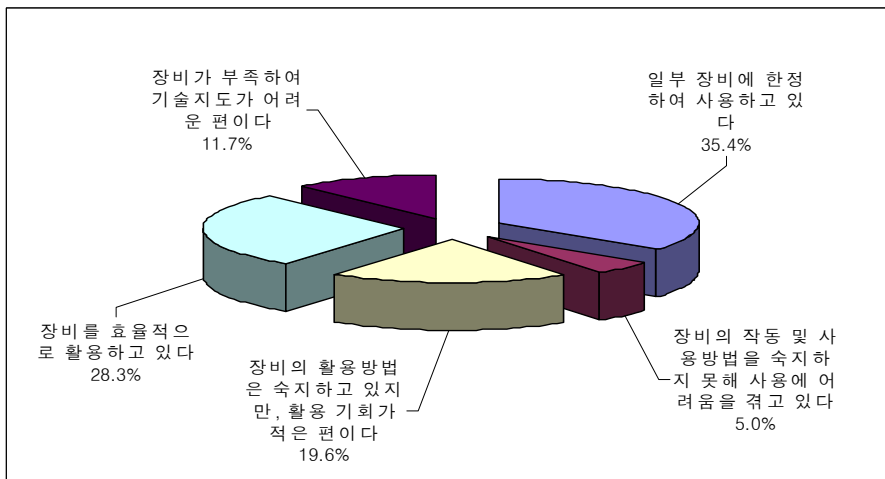
지도업무의 추진과 함께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매우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의견이 19.4%,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는 의견이 50.8%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통이라는 의견은 28.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34> 지도업무 수행태도

반면,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의견은 매우 미미하게 나타나 대부분의 지도직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수행태도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들의 업무수행태도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할 때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를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지도직 공무원들의 기술지도장비 활용실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35.4%는 일부장비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8.3%를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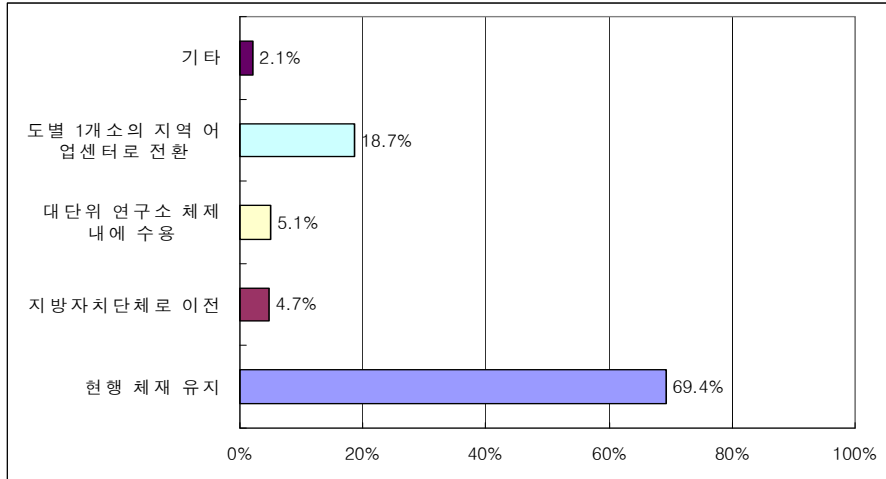


<그림 2-35> 기술지도장비 활용실태

한편 장비의 활용기회가 적다는 의견(19.6%)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의견(11.7%)도 일부 제기되고 있어 새로운 장비의 보급과 함께 장비 활용방안의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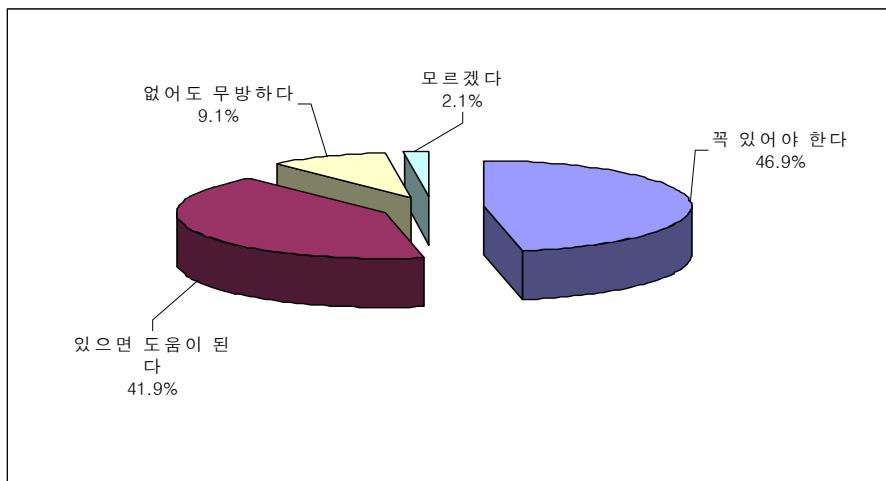
다음으로 조직제도와 관련하여 해양수산사무소 조직체제의 변경과 관련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69.4%가 현행 체제를 유지하자고 응답하여 조직제도의 변경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일부 응답자들은 도별 1개소의 지역 어업센터로 전환하자는 의견(18.7%)과 대단위 연구소 체제내에 수용되자는 의견(5.1%),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자는 의견(4.7%) 등을 제기하였다.



<그림 2-36> 해양수산사무소 조직체계의 변경

해양수산사무소 및 지도직 공무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2-37>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46.9%는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41.9%는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37> 해양수산사무소와 지도직공무원의 존속여부

반면 없어도 무방하다는 의견은 9.1%를 차지하고 있어 응답자들은 해양수산사무소 및 지도직 공무원의 존속에 대한 필요성을 상당히 높게 제기하고 있다.

마. 분석결과의 종합

어촌 지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 만족도 및 직무평가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표 2-14>와 같다.

<표 2-14>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 및 직무평가에 대한 조사결과

구분	평가항목	평가결과
직무현황	직무만족도	직무만족(52.1%) 직무불만족(47.9%)
	직무불만족사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음(66.7%) 자긍심을 가질 수 없음(20.2%)
	업무평가	개선해야 함(94.4%) 개선할 필요 없음(5.6%)
	업무개선 사유	기술지도 이외에 새로운 어촌지도사업 수요 증가(50.4%) 수산행정 업무의 수요 과다(21.7%)
	해양수산사무소의 역할	어촌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도업무(100%)
기술지도 업무	기술지도사업의 필요성	기술지도 업무의 필요성이 존재(매우필요:15.3%, 필요:41.7%)
	지도업무의 성과	매우 많은 도움(10.7%), 많은 도움(39.9%), 조금 도움(44.4%)
	기술지도 수단	어업인과의 대담(82.3%)
	어업인 요구만족도	만족(37.3%), 불만족(62.7%)
	불만족 사유	어업인이 기술을 먼저 습득(58.3%), 수산행정 업무의 과다(16.0%)
	기술지도 업무의 비중	대체적으로 전체 업무의 40% 이상을 차지
	신규 지도업무 수요	가공·유통·위생분야(26.0%) 신기술개발·보급분야(24.4%) 어촌관광 지도분야(18.6%)
직제개편 및 업무 여건개선	수산직·지도직 단일화	찬성(81.0%), 반대(19.0%)
	복수직렬화	인사교류 등으로 지도직 공무원 사기진작(41.0%) 실질적 인사교류가능성 적음(36.0%) 복수직렬화 전과 차이 없음(15.9%)
	지방청간의 이동	선호도가 낮은 편임(불필요 :29.3%, 다소 불필요 : 21.9%)
	사기진작 방안	승진적체 해소(72.8%) 직렬전환(9.8%) 다양한 교육 및 연수기회 확대(7.2%)
	업무수행시 장애요인	지도가능 업무의 제한성(35.8%) 예산부족(22.8%) 과다한 업무(22.0%)
	인력충원	25%정도의 증원요망(48.1%) 50% 증원(32.5%)
	조직체계 변경	현행 체재 유지(69.4%) 도별 1개소의 지역어업센터로 전환(18.7%) 지방자치단체로 이전(4.7%)
	존속여부	꼭 있어야 함(46.9%) 있으면 어업인에게 도움이 됨(41.9%)

지도직 공무원들의 직무 만족도는 개인에 따라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고 매우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불만족 사유로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의견이 높게 제기되었다. 그리고 해양수산사무소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개선해야 할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며 개선사유로는 기술지도 이외에 새로운 어촌지도 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향후 해양수산사무소의 역할 정립과 관련하여 어촌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술지도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성은 높은 편이지만 어업인의 요구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교육의 습득 및 재교육의 기회가 많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산직과 지도직과의 단일화에 대한 의견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산직과 지도직의 복수직렬화에 대한 의견에서는 인사교류 및 보직확대로 지도직 공무원의 사기양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지도직 공무원의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청간의 인사이동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며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승진적체 문제의 해소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공무원 및 어업인의 어촌지도사업 평가

가. 사업평가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직 공무원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촌지도사업의 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다. 사업평가와 관련된 조사개요 및 분석결과 등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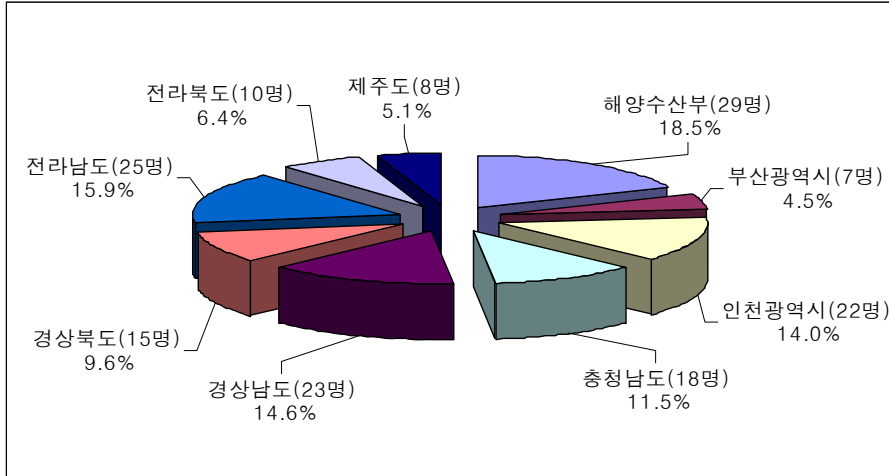
나. 설문조사 개요

본 설문조사는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수산직 공무원 및 어업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해양수산부 및 각 시·군 담당자, 어업인에게 우편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이들이 설문내용에 대하여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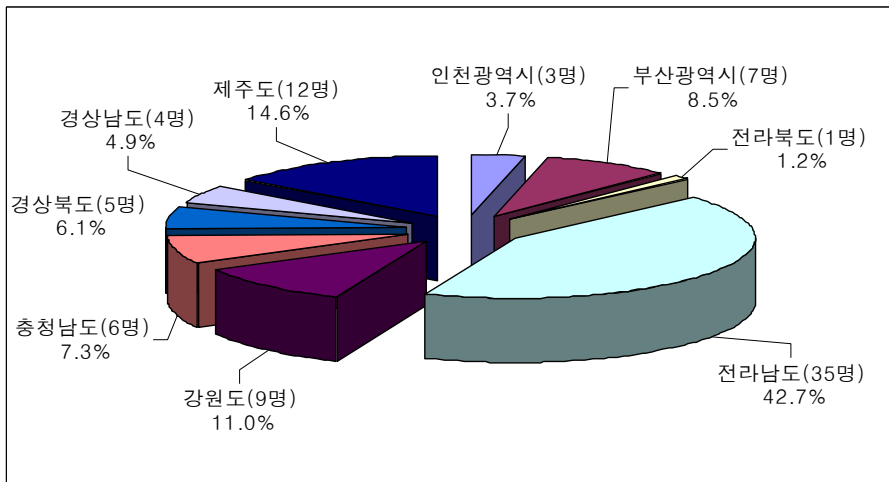
조사대상지역은 전국을 조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설문조사의 응답률 제고를 위하여 설문지 발송 후 1, 2, 3차에 걸친 전화로 참여를 독려하였으며 비 응답자에게는 2회에 걸쳐 추가로 설문지 발송 및 참여독려 전화로 응답률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조사결과, 공무원의 경우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포함하여 157명이 응답하였으며 어업인 경우 82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분석은 우선 어촌지도사업의 평가에 대하여 공무원 및 어업인의 의견을 상호 비교하는 항목과 공무원에게 해당하는 항목, 어업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공무원과 어업인 응답자의 지역분포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림 2-38>과 같다.



<그림 2-38> 공무원 응답자 지역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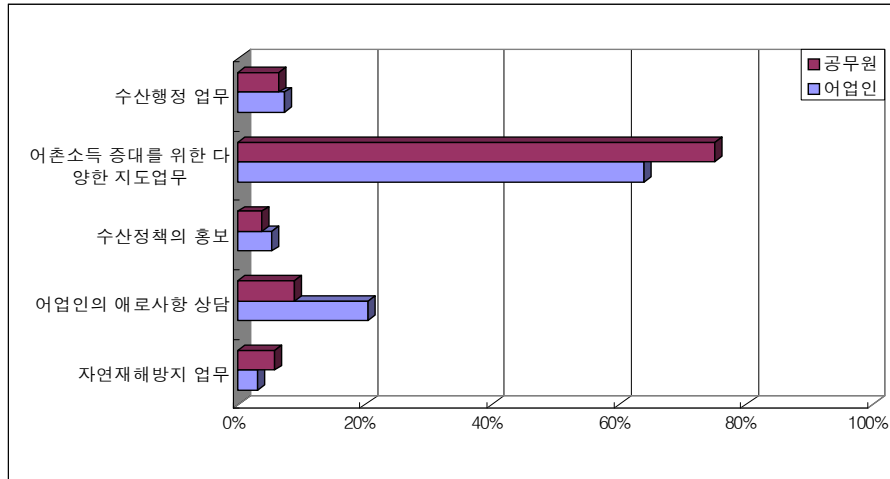


<그림 2-39> 어업인 응답자 지역분포

3. 조사결과 분석

가. 어촌지도사업에 대한 평가(공무원, 어업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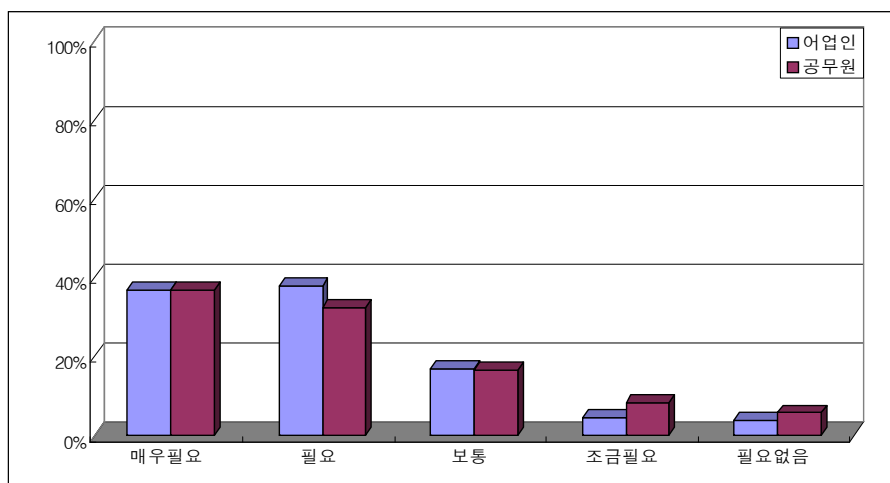
공무원과 어업인에게 공통적인 질문으로 우선 해양수산사무소의 역할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공무원과 어업인 모두 '어촌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도업무'가 해양수산사무소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40> 해양수산사무소의 중요 역할

이와 함께 어업인의 애로사항 상담, 수산행정 업무 등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어업인과 공무원간의 의견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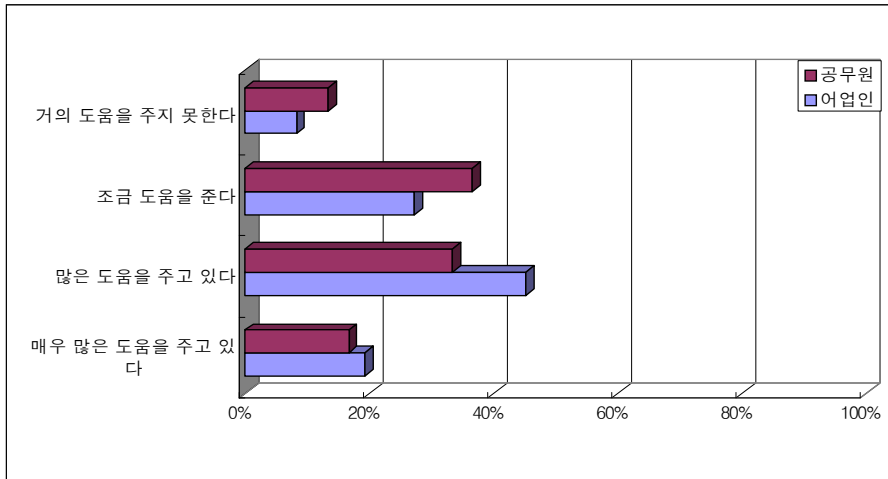
해양수산사무소 기술지도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서는 어업인 공무원 모두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기타의 항목에서도 의견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1> 해양수산사무소 기술지도사업의 필요성

설문결과를 토대로 할 때 어업인이나 공무원 모두 해양수산사무소 기술지도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중요성 또한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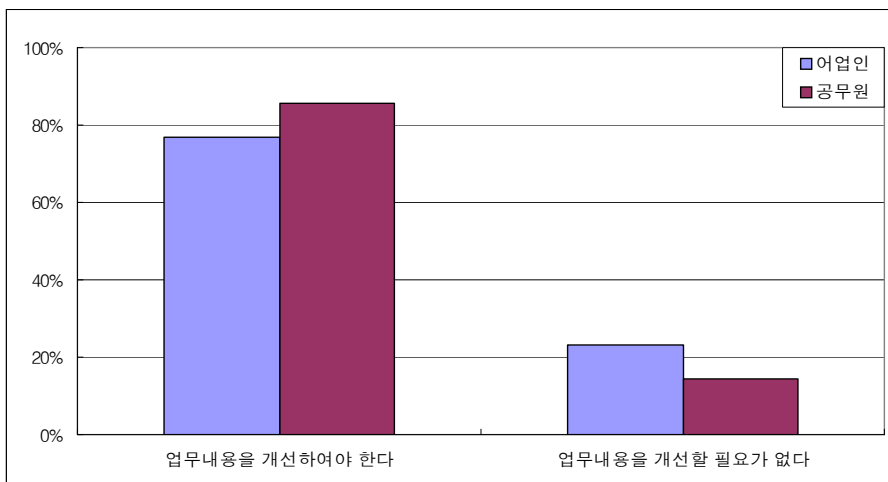
그리고 기술지도업무가 어업인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고있는가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공무원의 경우 조금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업인의 경우에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42> 기술지도업무의 실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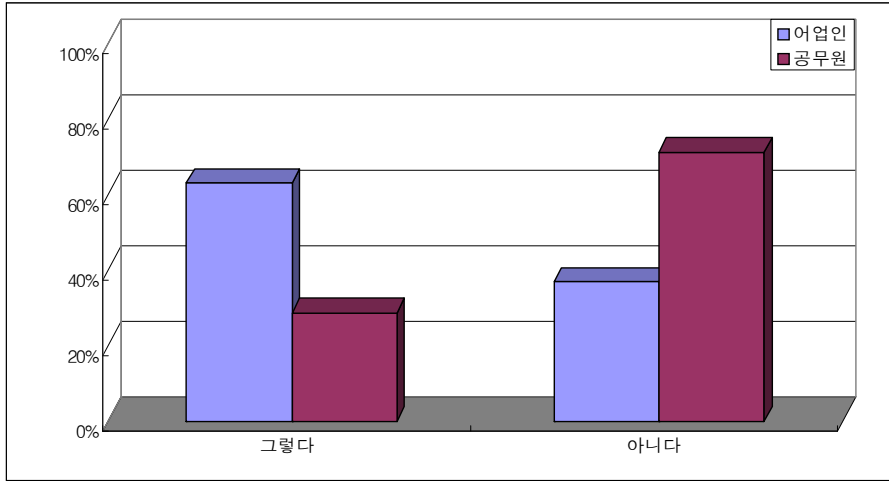
반면,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의견은 10% 내외로 나타나 어업인과 공무원 모두 기술지도업무가 어업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사무소의 업무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살펴보면 어업인과 공무원 모두 업무내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현행 업무내용에 대한 개선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43> 해양수산사무소의 업무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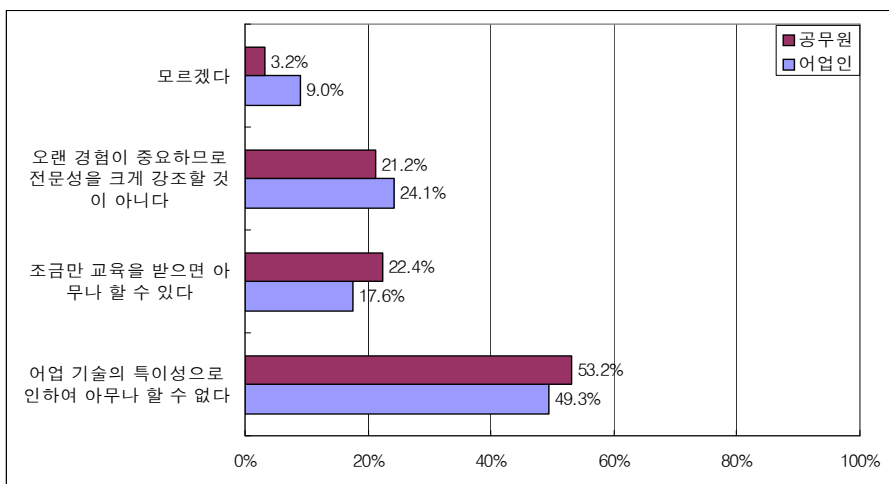
기술지도 업무의 만족도 측면에서 어업인의 경우 만족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공무원의 경우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의견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44> 기술지도업무의 어업인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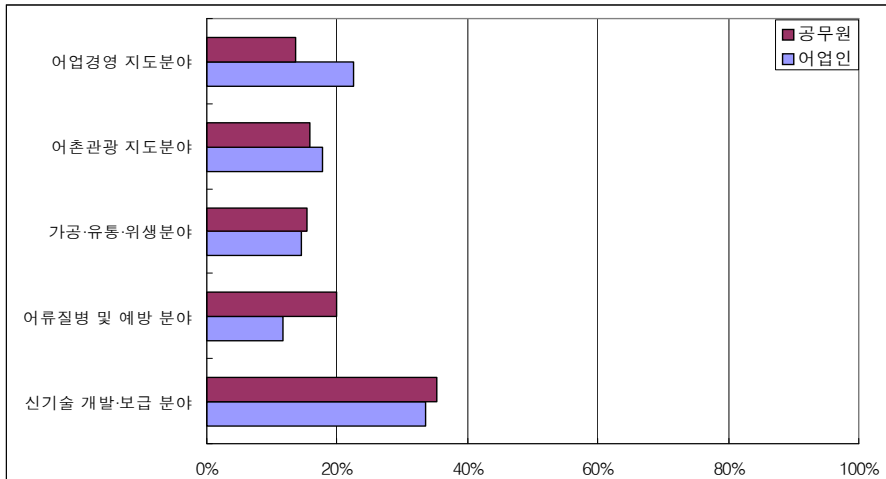
기술지도업무의 실효성 및 업무개선, 어업인 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해양수산사무소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어업인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현행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불만족 요인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업무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어촌지도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어업인과 공무원 모두 어업기술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아무나 지도를 할 수 없다고 평가하여 어촌지도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림 2-45> 어촌지도업무의 전문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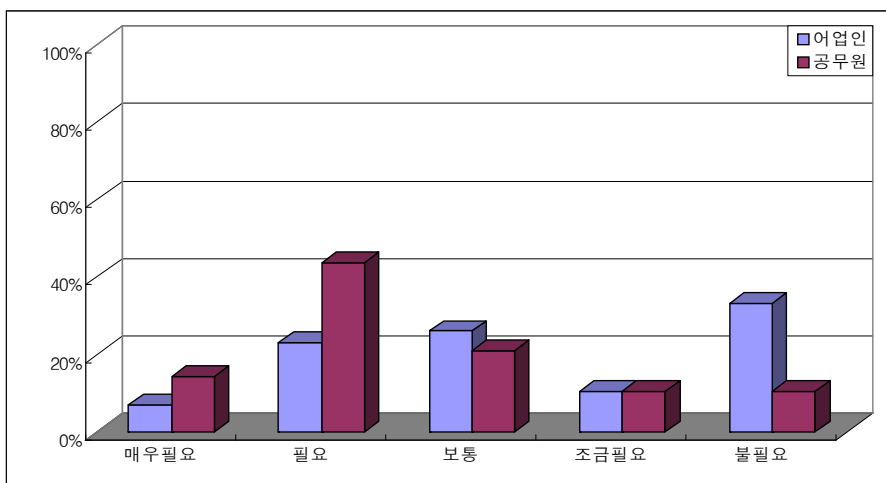
그리고 해양수산사무소를 통하여 새롭게 지도를 받고 싶은 업무분야에 대하여 살펴보면, 어업인과 공무원 모두 신기술 개발·보급분야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46> 새로운 지도업무 수요

조사결과, 어업인들은 어류질병 및 예방분야 등 과거 해양수산사무소의 업무에 대한 수요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함께 어업경영, 어촌관광 등 새로운 지도업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어촌지도직 공무원들의 지방청간 인사이동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공무원은 지방청간의 인사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제기된 반면에, 어업인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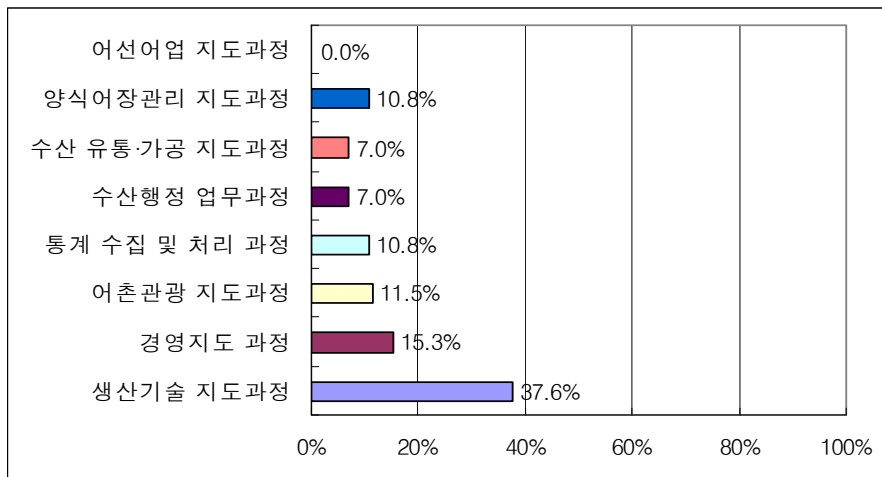
<그림 2-47> 어촌지도사들의 지방청간 인사이동

해양수산사무소의 역할에 대한 이상의 설문결과를 종합해 보면 공무원과 어업인 모두 해양수산사무소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양수산사무소의 역할에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술관리소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지도업무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어촌지도사업에 발전방향에 대한 공무원 의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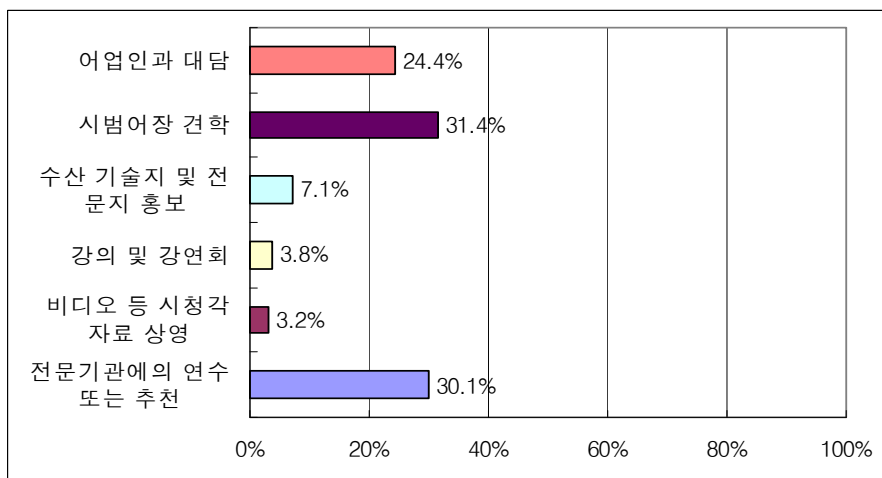
공무원과 어업인에 대한 공통적 조사항목과 함께 공무원에게 어촌지도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항목을 별도로 조사하였다. 우선 어촌지도직 공무원 대상 장기교육 및 연구과정 중 새롭게 필요한 과정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2-48>과 같다.

조사결과 생산기술 지도과정(37.6%)과 경영지도과정(15.3%)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필요성이 나타났으며, 기타 어촌관광(11.5%), 양식어장관리(10.8%), 통계수집 및 처리(10.8%) 등의 순으로 교육필요성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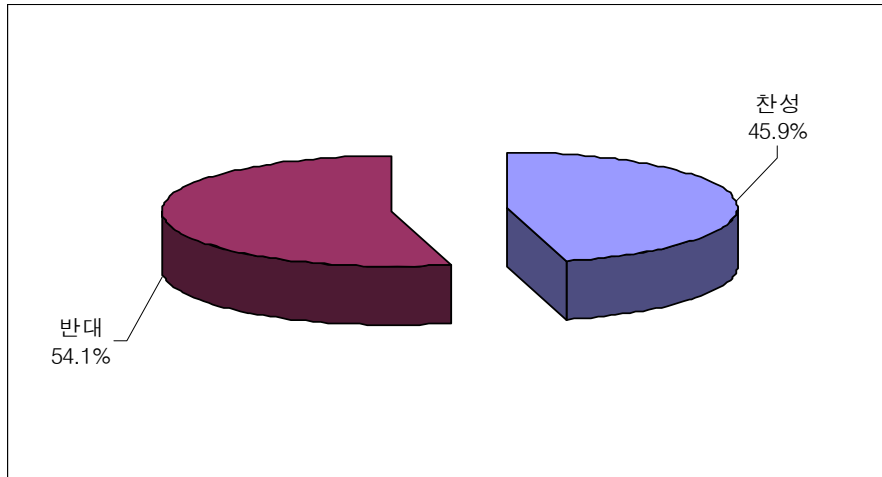
<그림 2-48>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연수과정

그리고 기술지도 수단 중 가장 효과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시범어장 견학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3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문기관의 연수에 대한 의견이 30.1%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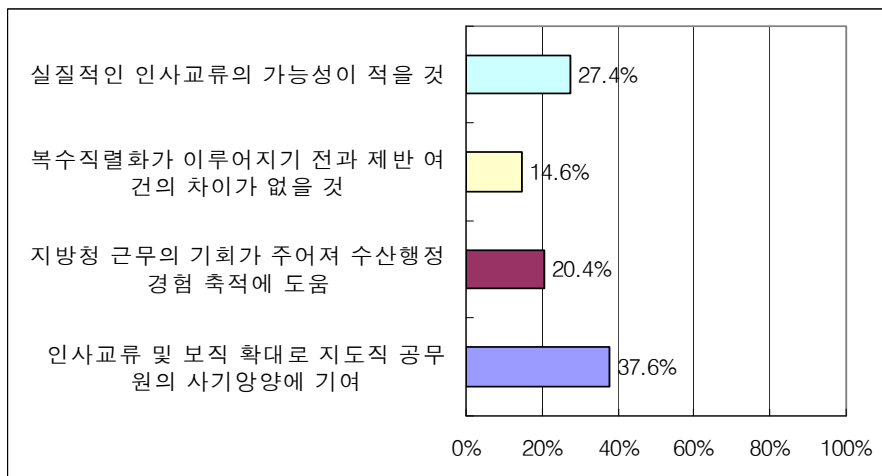
<그림 2-49> 어업인에게 효과적 기술지도수단

한편 어촌지도사업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수산직과 지도직의 단일화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4.1%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며 45.9%는 찬성이라는 의견을 보여 반대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50> 수산직 · 지도직의 단일화

그리고 수산직과 지도직간의 복수직렬화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37.6%는 인사교류 및 보직확대로 지도직 공무원의 사기양양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7.6%는 실질적인 인사교류의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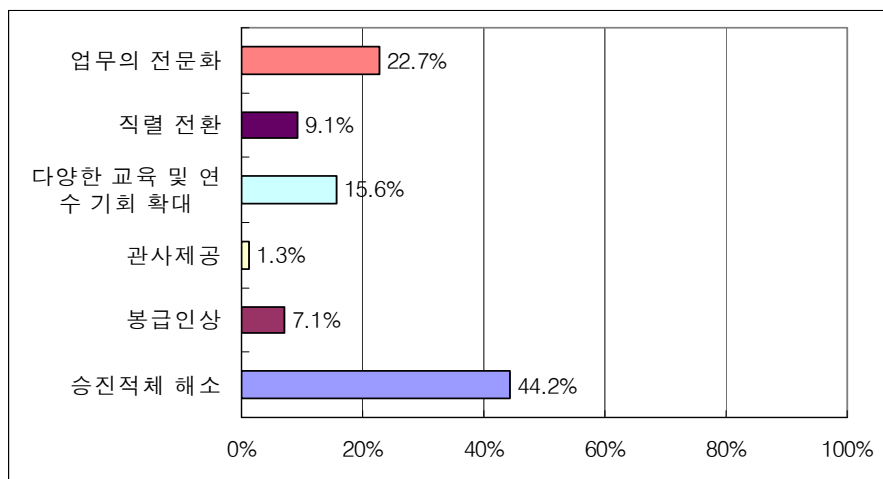


<그림 2-51> 수산직 · 지도직간 복수직렬화

이와 함께, 20.4%는 지방청간 근무의 기회가 주어져 수산행정경험 축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14.6%는 복수직렬화가 이루어지기 전과 제반 여건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설문결과를 종합해볼 때 복수 직렬화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큰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다. 즉 수산직과 지도직간의 단일화와 복수 직렬화에 대한 의견은 상호 대립적 견해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어촌지도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적체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44.2%로 가장 높게 제기하였으며 이와 함께 업무의 전문화가 22.7%, 다양한 교육 및 연수기회 확대가 15.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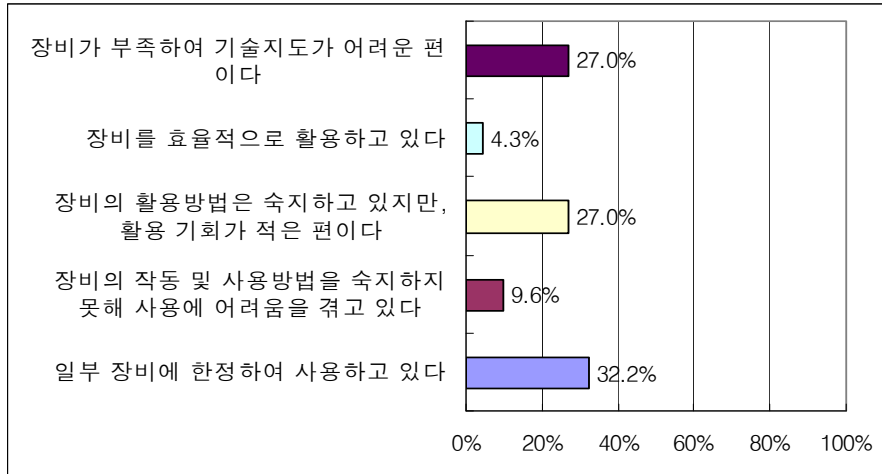


<그림 2-52> 어촌지도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

분석결과를 종합해볼 때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승진적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도 공감하고 있으며 어촌 지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승진적체 해소방안의 마련과 업무의 전문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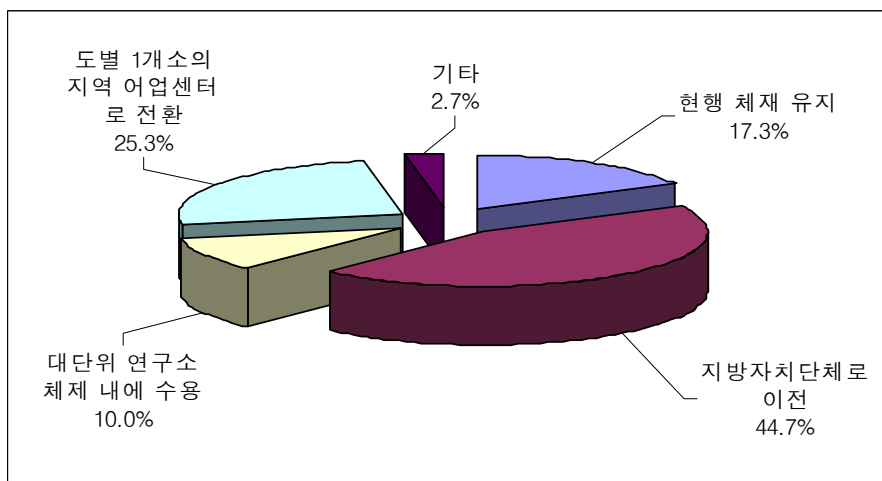
한편 어촌 지도직 공무원들의 기술지도와 관련하여 이들의 장비이용실태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그림 2-53>과 같다. 조사결과, 일부 장비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32.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장비가 부족하여 기술지도가 어려운 편이라는 의견(27.0%)과 장비의 활용방법은 숙지하고 있지만 활용기회가 적은 편이라는 의견(27.0%)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장비의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기술지도와 관련하여 모든 장비의 보급 및 이용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술지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변화된 수산업환경 및 기술여건과 부합되는 장비의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53> 어촌지도시 기술지도장비 이용실태

마지막으로 해양수산사무소의 조직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해양수산부 및 지방의 수산직 공무원들은 해양수산사무소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시키자는 의견(44.7%)을 비교적 높게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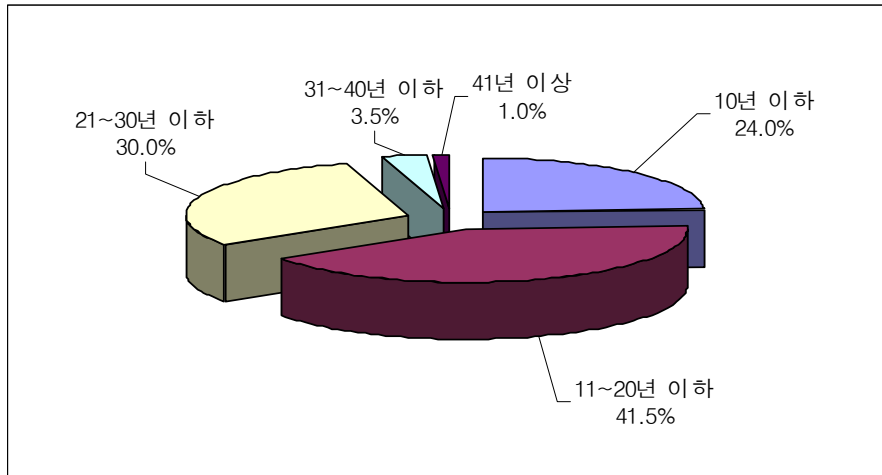
<그림 2-54> 산기술관리소의 조직체계 개편방안(공무원)

그리고 도별 1개소의 지역어업센터로 전환시키자는 의견(25.3%)과 대단위 연구소체제 내에 수용시키자는 의견(10.0%)을 제시하였다. 한편 현행 체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은 17.3%를 차지하고 있어 해양수산부 및 지방의 공무원들은 해양수산사무소의 체제를 변화시키자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 어촌지도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어업인 의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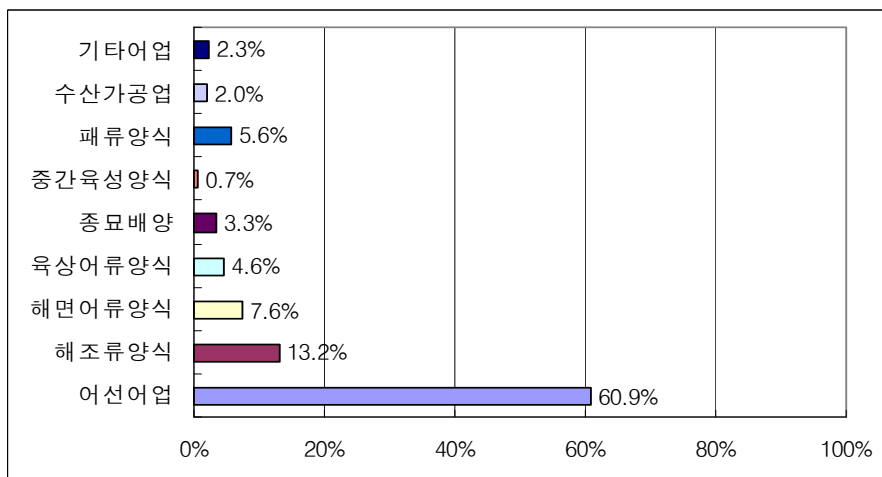
(1) 어업여건

어업종사 및 여건조사에서는 우선 어업인들의 어업종사기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11년~20년이 4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21년~30년이 30.0%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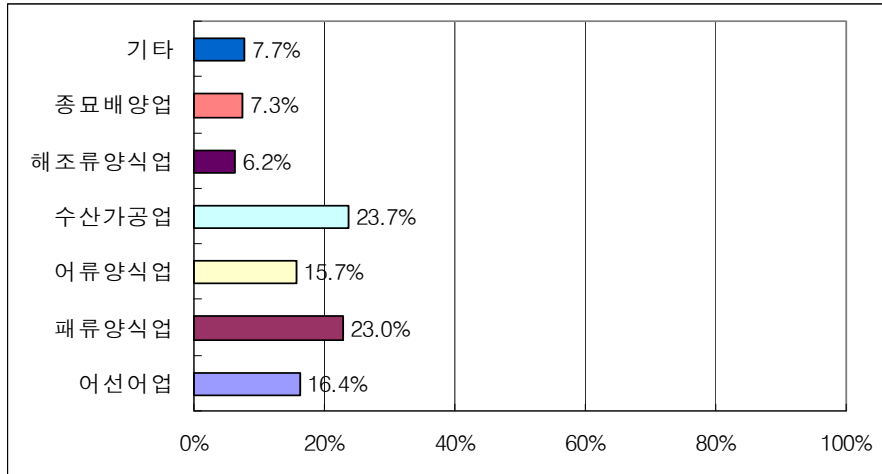
<그림 2-55> 어업종사기간

어업인들이 종사하고 있는 어업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어선어업이 60.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해조류 양식어업 13.2%, 해면어류양식어업이 7.6%로 나타났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5%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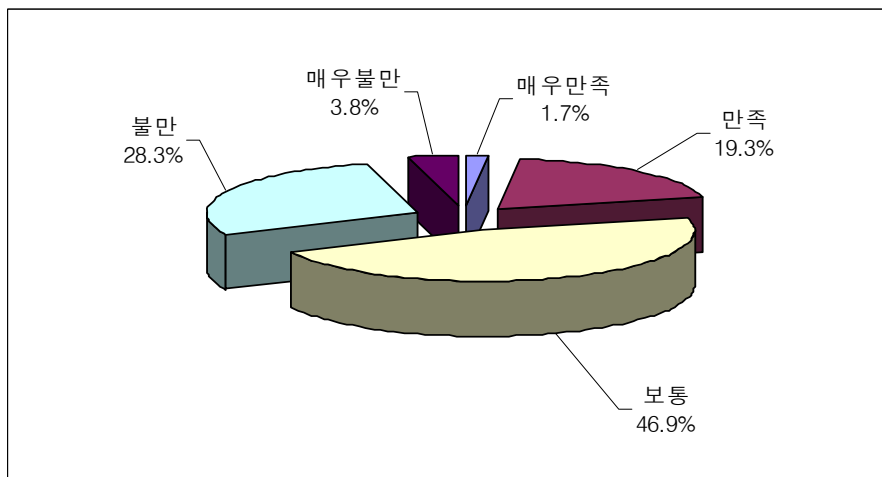
<그림 2-56> 참여 어업형태

한편 향후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어업활동으로는 어선어업이 16.4%로 나타나 어선어업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응답자가 약 45% 정도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수산가공업을 새로이 하고 싶어하는 어업인은 응답자의 23.7%에 달하고 있어 기존의 단순 생산에서 벗어나 가공을 통한 다양한 형태로 판매하려는 의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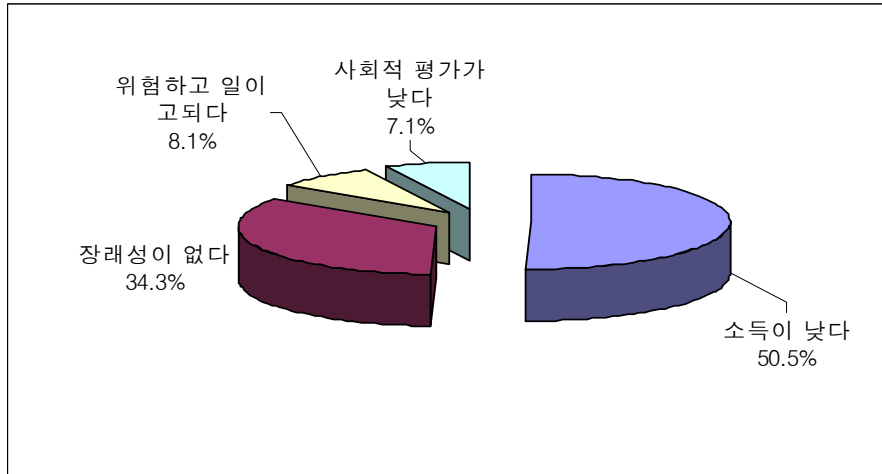
<그림 2-57> 향후 참여하고 싶은 어업활동 형태

어업인들의 생활만족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보통이라는 의견이 46.9%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만족과 불만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매우 불만과 불만의 의견이 32.1%를 차지하여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어업인들은 어업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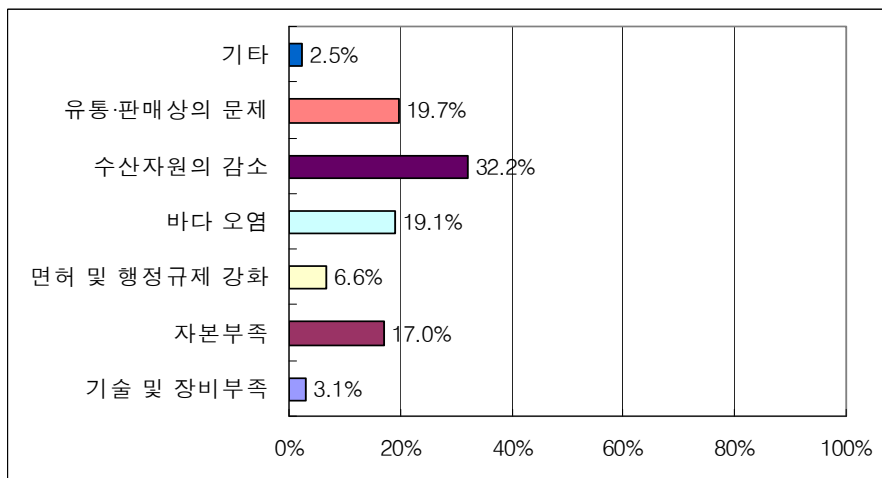
<그림 2-58> 어업생활 만족도

한편 어업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소득이 낮다'가 50.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장래성이 없다'가 34.3%를 차지하고 있다. 즉 어업인들은 어업여건 및 소득의 불확실성 때문에 어업활동에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59> 어업활동 불만족 사유

그리고 어업여건과 관련하여 악화원인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수산자원감소가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유통·판매상의 문제가 19.7%, 바다오염이 19.1%를 차지하고 있어 수산자원부족 및 해양환경오염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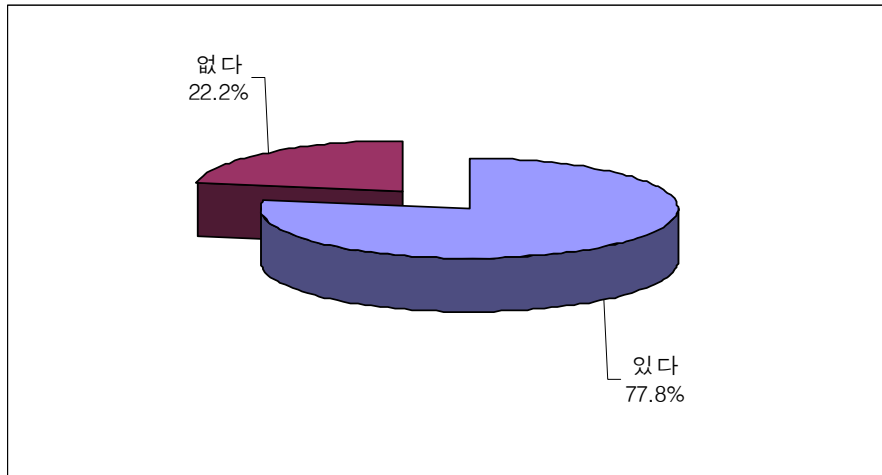


<그림 2-60> 어업경영여건 악화 원인

어업종사 및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어업인들은 대부분 현재의 어업활동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어족자원의 감소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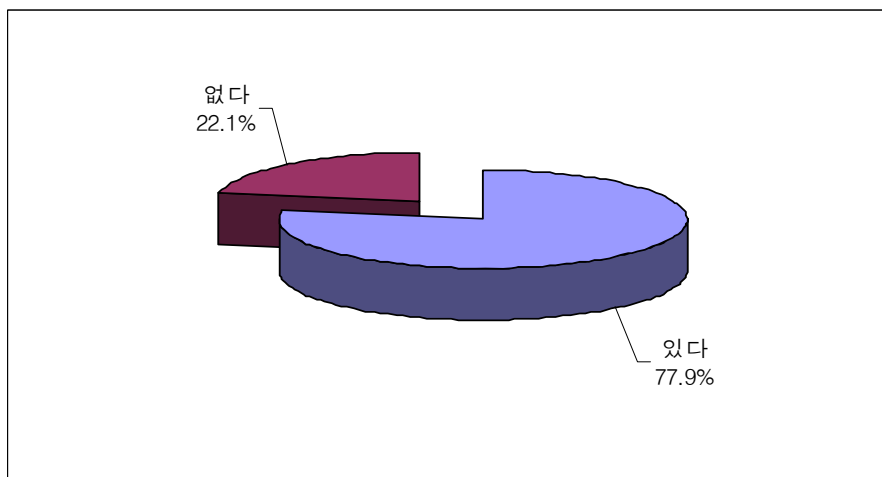
(2) 해양수산사무소의 활용실태

어업여건에 대한 파악과 함께 어업인들의 해양수산사무소 활용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해보면 <그림 2-61>과 같다. 우선 어업인들이 어촌지도직 공무원으로부터 기술지도(양식기술, 어병예방 및 치료 등)를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응답자의 77.8%는 기술지도를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22.2%는 기술지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61> 기술지도 전수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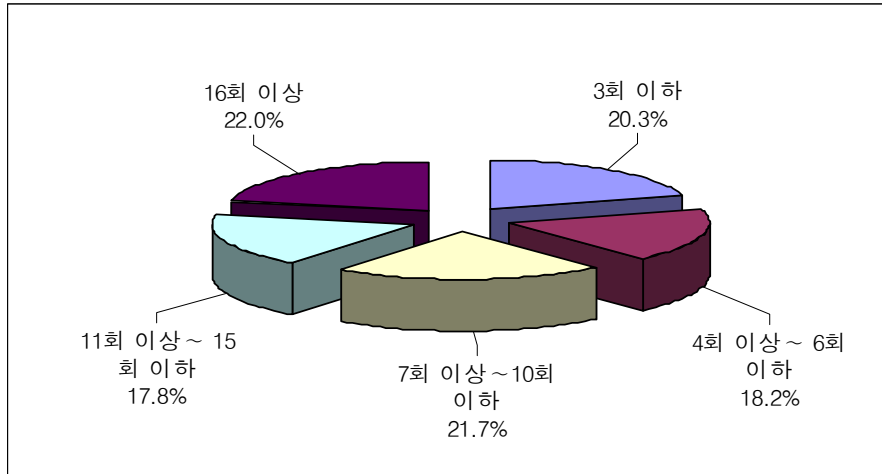
이와 함께 어업경영지도를 받은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는 <그림 2-62>와 같다.



<그림 2-62> 어업경영지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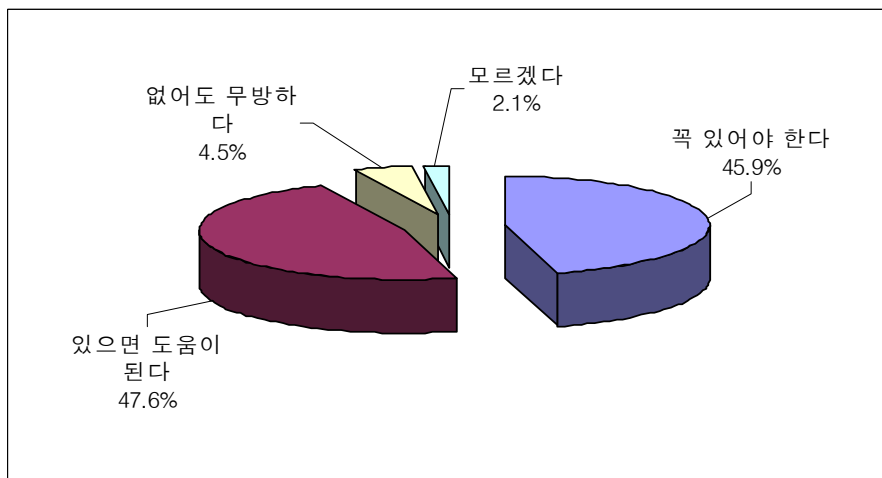
조사결과 응답자의 77.9%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2.1%는 어업경영지도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어촌지도직 공무원과의 면담 횟수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체 어업인의 22.0%가 연간 16회 이상 지도직 공무원과 면담을 해보았다고 응답하였으며, 21.7%는 7회~10회 정도, 18.2%는 4회~6회 정도 면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63> 연간 어촌지도직공무원 면담횟수

한편 어업인들에게 해양수산사무소의 존속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어업인의 47.6%는 있으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45.9%는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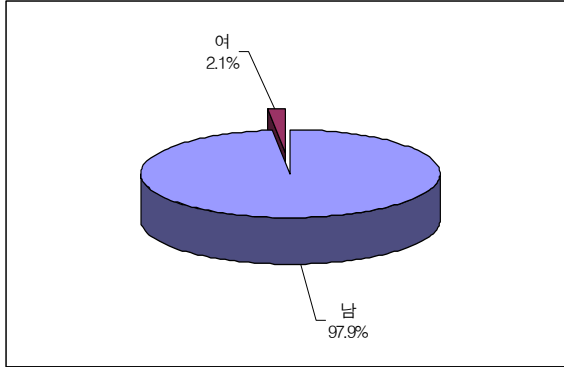
<그림 2-64> 해양수산사무소 존속여부

그리고 없어도 무방하다는 의견은 4.5%로 나타나 해양수산사무소의 필요성을 상당히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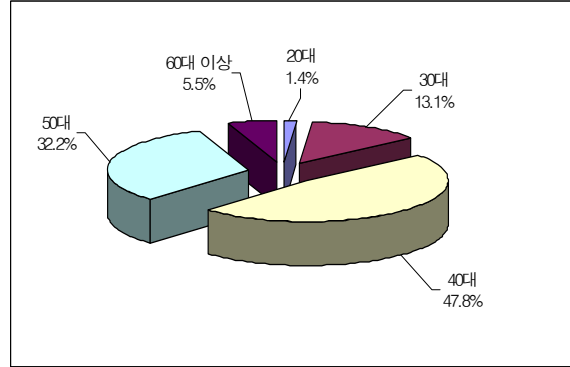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해양수산사무소의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어업인들은 정기적으로 해양수산사무소의 어촌지도직 공무원과 면담을 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부분적으로 기술지도와 어업경영지도를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조사결과에서는 기술지도 및 어업경영지도의 경험이 78%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해양수산사무소의 존속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해양수산사무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어업인 일반사항

설문조사에 참여한 어업인들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97.9%가 남성으로 나타나 어업인의 경우 남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65> 어업인 응답자 성별분포



<그림 2-66> 어업인응답자 연령분포

그리고 조사대상 어업인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50대가 30% 정도, 30대가 1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어업인의 연령분포를 고려할 때 향후 어촌지역의 노령화 및 어업인구의 부족현상이 심각할 것으로 예견되며 이에 대비한 방안의 마련 또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2-15> 수산직 공무원과 어업인의 어촌지도사업평가

구분	평가항목	평가결과
직무현황 및 기술지도 업무 (어업인, 수산직 공무원 공통)	해양수산사무소의 역할	어업인 : 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업무지도(63.9%), 어업인의 애로상담(20.5%)
		공무원 : 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업무지도(75.2%), 어업인의 애로상담(8.9%)
	기술지도사업의 필요성	어업인 : 필요함(74.8%) ↔ 필요 없음(8.3%)
		공무원 : 필요함(69.4%) ↔ 필요 없음(14.0%)
	업무내용개선의 필요성	어업인 : 필요함(77.0%) ↔ 필요 없음(23.0%)
		공무원 : 필요함(85.6%) ↔ 필요 없음(14.4%)
	어업인의 요구수준 만족도	어업인 : 만족시킴(63.2%) ↔ 만족시키지 못함(36.8%)
		공무원 : 만족시킴(28.8%) ↔ 만족시키지 못함(71.2%)
	어촌지도의 전문성	어업인 : 전문성 높음(49.3%) ↔ 아무나 할 수 있음(17.6%)
		공무원 : 전문성 높음(53.2%) ↔ 아무나 할 수 있음(22.4%)
신규 지도업무 수요	어업인 : 신기술 개발·보급(33.6%), 어업경영지도(22.4%), 어촌관광지도(17.7%), 가공·유통·위생(14.6%)	
	공무원 : 신기술 개발·보급(35.3%), 어류질병·예방(19.9%), 어촌관광지도(15.8%), 가공·유통·위생(15.4%)	
지방청간 인사이동	어업인 : 필요함(30.3%) ↔ 필요 없음(43.7%)	
	공무원 : 필요함(58.2%) ↔ 필요 없음(20.9%)	
직제개편 및 업무 여건개선 (수산직 공무원)	수산직·지도직 단일화	찬성(45.9%), 반대(54.1%)
	복수직렬화	인사교류 등으로 지도직 공무원 사기진작(37.6%) 실질적 인사교류가능성 적음(27.4%) 복수직렬화 전과 차이 없음(14.6%)
	사기진작 방안	승진적체 해소(44.2%) 업무의 전문화(22.7%) 다양한 교육 및 연수기회 확대(15.6%) 직렬전환(9.1%)
	조직체계 변경	지방자치단체로 이전(44.7%) 도별 1개소의 지역어업센터로 전환(25.3%) 현행 체재 유지(17.3%)
지도수요 (어업인)	기술 및 어업경영지도 여부	대부분 해양수산사무소로부터 지도를 받은 경험 있음(77.9%)
	면담횟수	연간 7회 이상 면담 경험을 가짐(61.5%)
	해양수산사무소 및 지도직공무원 존속여부	꼭 있어야 함(45.9%) 있으면 도움이 됨(47.6%) 없어도 무방함(4.5%)

제 3 장 해양수산사무소 사업의 평가

1. 사업 내용과 기본방향
2. 사업 평가
3. 면담조사 결과분석

제 3 장 해양수산사무소 사업의 평가

제1절 사업 내용과 기본방향

1. 사업 내용

<표 3-1>은 해양수산사무소의 사업내용을 요약하여 나타낸 것이다. 해양수산사무소의 사업은 크게 수산기술 보급사업, 어업생산통계 사업, 수산정책사업 지원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수산기술 보급사업은 수산기술 개발 및 보급, 양식장 관리, 수산유통질서 확립, 수산전문인력 육성, 어촌정보화 인프라 구축, 수산기술 홍보, 수산기술 보급기반 조성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업생산통계 사업은 해면 어업조사와 내수면 어업조사로 구성된다. 그리고 수산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지원사업은 면세유류 관리, 위해요소 중점관리, 어류양식카드 작성, 해운항만 분야의 비방문 민원처리와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수산기술보급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은 어촌지도소라는 기관 명칭을 사용하던 시절부터 수행되고 있는 것이지만, 어업생산 통계와 수산정책사업의 지원 사업은 수산기술관리소라는 기관 명칭을 사용한 이후에 수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와 같이 수산정책 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산기술관리소의 사업 영역이 최근에 확대되었다.

해양수산사무소의 사업 대분류에 속하는 수산기술보급사업을 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개발, 어장환경 보호 및 재해 방지, 교육을 통한 수산인력 육성, 수산기술의 홍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수산기술보급사업에 속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양식어업 혹은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양식 수산물의 생산과 재해방지 등에 의한 어업인 소득의 유지 측면에서 수산기술보급 업무가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어업생산통계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을 제외한 수산정책 지원사업 등은 해양수산부가 수산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양수산사무소가 수행할 필요가 있어 추가된 사업이다. 그러나 해양수산사무소 업무의 증가에 따른 조직 구성원의 사기가 비례하여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업무의 증가에 따른 인원의 증가 혹은 기관의 승격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양양시키기 보다 사기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수산자원조성 및 보호지도 사업으로 마을어업의 효율적 이용, 어업질서 확립 및 어선어업 지도와 자율관리어업의 시범사업 참여 등 마을어업과 어선어업까지 업무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해양수산사무소의 사업 영역확대를 통하여 어업인의 소득 향상이 이루어질 때 수산정책 목표달성에 있어서 해양수산사무소의 역할이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해양수산사무소의 사업확대는 어업인, 어촌지도직 공무원, 그리고 중앙정부의 수산정책 수립자가 만족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해양수산사무소의 지도업무의 확대뿐만 아니라 수산정책 사업의 지원업무의 확대는 수산정책의 효율적 달성에 기여하여야 하고 나아가 어촌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때 업무수행 효과가 커지는 것이다.

<표 3-1> 해양수산사무소의 사업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사항	근거법령	
수산기술보급 사업	수산기술개발 보급	시범어장 운영	시범어장 운영	연구교습어장운영지침	
			수특연구개발사업	수산특정연구기술개발사 업관리규정	
			수탁시험사업	수탁사업운영지침	
		지역 특산물 개발보급	지역 으뜸품종 개발 육성	수산업법	
			지역 특화 시험 사업	해양수산사업계획	
	양식장 관리	주산단지 어장 지도		고소득 및 양식기술 보편화	"
				품종의 적기 기술지원	"
				연안정지 관측	기술보급사업운영규정
				양식어장 예찰 및 평가	"
		재해 및 병충해 예방지도		양식어장 환경개선 지도	"
				적조 예찰반 운영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 직제
				어병 예찰진단반 운영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원조성 및 보호지도		재해예방 독려반 운영	"
				마을어업의 효율적 이용관리 지도	기술보급사업운영규정
				어업질서 확립대책 추진 및 어선 어업지도	어선법
		수산유통질서	어업경영 관리지도	자율관리어업 시범사업 참여	-
				양식업 표준소득조사	수산업법
	시장유통 정보제공 및 경영일지 기록 지도			"	
	수산전문인력 육성	어촌 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운영	활어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지도	수산물품질관리법 원산지단속지침
				어업인 현장 교육	기술보급사업운영규정
		어촌 후계인력 육성지도		연찬회 개최	"
				어촌 청소년 수산교실 운영	"
				일반 후계자 및 전업어가 육성	농어촌특별조치법4조
	어촌정보화 인프라 구축		산업기능요원 어업인 후계자 지도	병역법 36조	
			원격 영상 정보화 교육	기술보급사업운영규정	
			어업인 정보화 교육 훈련	"	
	수산기술홍보	수산기술 홍보		어촌정보 사랑방 운영	"
				간행물 발간	"
				매스컴 활용 홍보	"
	수산기술보급 기반 조성	수산기술 보급 기반조성		어업인 상담실 운영	"
				기술보급 기반 조성	"
				어촌지도 공무원 능력 계발	공무원 복무규정
				명예 어촌지도자 운영	명예어촌지도자운영지침
			수산기술 보급사업 평가	기술보급사업운영규정	

<표 3-1> 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사항	근거법령	
어업생산통계	해면어업조사	보고통계	전수조사	통계법	
		조사통계	표본 및 전수 조사	"	
	내수면어업조사	조사통계	표본조사(어로)	"	
			전수조사(양식)	"	
수산정책사업 지원	면세유류관리			조세특례제한법	
	위해요소 중점관리			수산물품질관리법	
	어류양식카드작성			본부 내부자료	
	해운항만분야 비방문 민원처리			선원법 선박직원법	
	지방자치제 협조사항	해양수산사업 사업성 검토			해양수산부와 그소속기관직제
		자원조성사업 지원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
인공어초 시설사업				"	

2. 사업의 기본방향

<표 3-2>는 해양수산사무소 주요사업의 기본방향을 나타낸다. 주요사업은 해양수산사무소 업무의 특성인 수산기술개발, 양식어장 관리 및 재해예방지도, 수산전문인력 육성 및 어촌 정보화 인프라 구축과 수산기술 홍보 등이며, 이들 주요 사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은 지역 특산품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양식품종의 적정생산 및 자연재해 최소화로 양식어업인 소득의 안정화, 정보화의 이용과 교육을 통한 수산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의 홍보를 통한 어업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양수산사무소의 사업수행을 통하여 어업소득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어촌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때 어업인과 함께 하는 해양수산사무소가 될 수 있다. 해양수산사무소 주요사업의 기본방향은 대내외적 수산여건과 변화에 따라 어촌의 다양한 소득원 발굴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표 3-2>에서 제시된 기본방향대로 주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기존 사업의 효과 등을 평가를 통한 사업의 재정립과 효율적인 추진방향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3-2> 주요 사업의 기본방향

사업내용	기본방향
수산기술 개발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어장 운영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중심의 기술개발 보급 ○ 지역별 특화 기술개발 및 특산품 발굴로 소득원 다양화 유도 ○ 수탁사업을 통한 기술개발과 현안 해결
양식어장 관리 및 재해예방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득 및 양식기술 보편화 품종의 적기 기술지원 및 적정 생산 유도 ○ 주요 양식단지 어장예찰 및 병·재해예방 활동강화로 수산피해 최소화 및 안전양식 도모 ○ 불법어업 근절 등 자율관리어업 실시로 어업인의 주인의식 고취 및 자립심 함양 ○ 어업경영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진단·분석 제도화로 선진어업 경영기반 구축 ○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정착 유도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수산전문인력 육성 및 어촌 정보화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어업 시기별 지역특성에 맞는 품목별 신기술 집중교육 실시로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 영어중사의육과 사업추진능력이 강한 청·장년층의 어촌정착 유도로 전문 어업경영인력의 체계적 육성 ○ 수산업경영인의 자립능력제고를 위하여 영어기술지도 및 사후관리 강화 ○ 정보화 마인드를 갖춘 정예어업인력육성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어촌정보화 인프라구축 운영
수산기술 홍보 및 관리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신 수산기술의 신속전달과 간행물 적기발간으로 대어업인 실증적 기술보급 ○ 전문화·특기화된 정예 수산기술보급전담 인력육성을 위한 지도 공무원 능력 계발로 자생력 제고 ○ 지도장비 현대화 등 기반 확충으로 수산기술보급사업 내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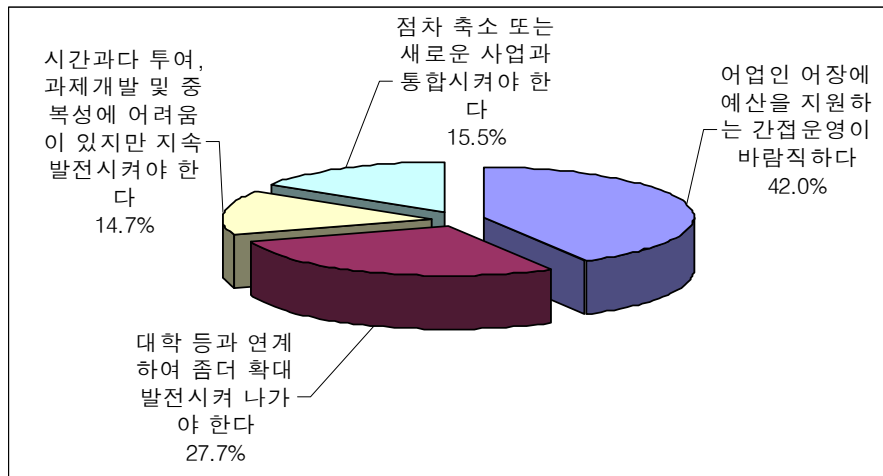
제2절 사업 평가

해양수산사무소의 사업평가와 관련하여 양식기술개발의 보급, 양식어장관리 및 병·재해예방제도 업무, 어업인교육 및 정예수산전문인력 육성, 어촌정보화 인프라구축 운영 및 어업경영관리지도, 수산기술홍보 및 관리기반조성의 5가지 업무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업무의 실태분석과 함께 대상업무 중 통합이나 축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기존 업무의 분석과 함께 새로운 해양수산사업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신규 업무의 평가 및 향후 필요한 업무를 조사하였다.

1. 양식기술개발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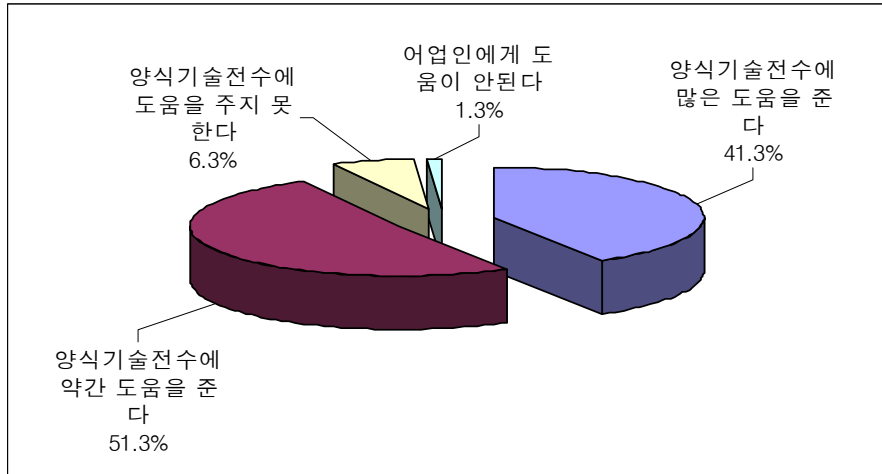
양식기술개발 보급 업무와 관련하여 연구교습어장의 운영실태 및 운영효과, 운영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우선 연구교습어장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42.0%가 관리소에서 직업 운영하는 방식보다 어업인 어장에 예산을 지원하는 간접운영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고 27.7%는 대학 등과 연계하여 좀더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3-1> 연구교습어장의 운영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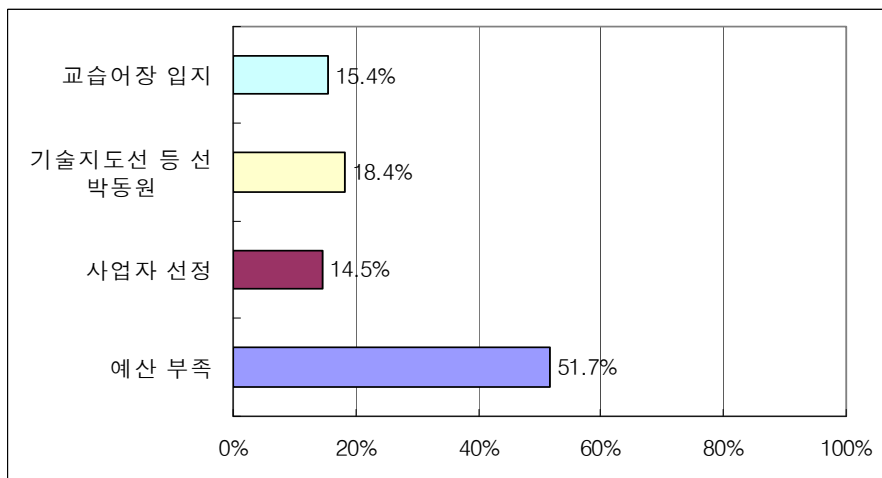
이밖에 사업의 축소 및 신규사업과 통합하자는 의견이 15.9%,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견이 14.7%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양식기술개발의 보급을 위한 업무자체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만 예산의 절감 및 기술보급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어업인 및 학계와 연계시키는 새로운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교습어장의 운영효과에 대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3% 정도가 양식기술전수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하여 운영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 연구교습어장의 운영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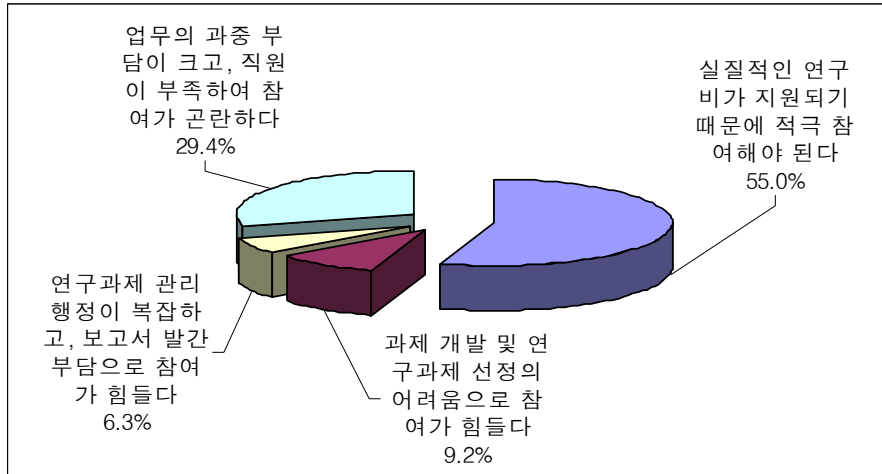
그리고 연구교습어장 운영상의 애로사항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기술지도선 등 선박동원이 어렵다는 의견이 18.4%, 교습어장의 입지에 대한 문제가 15.4%, 사업자 선정문제가 14.5%로 나타났다.



<그림 3-3> 연구교습어장 운영상의 애로사항

조사결과를 토대로 할 때 운영실태에서 파악한 것처럼 연구교습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어업인 및 학계와 연계방안, 예산배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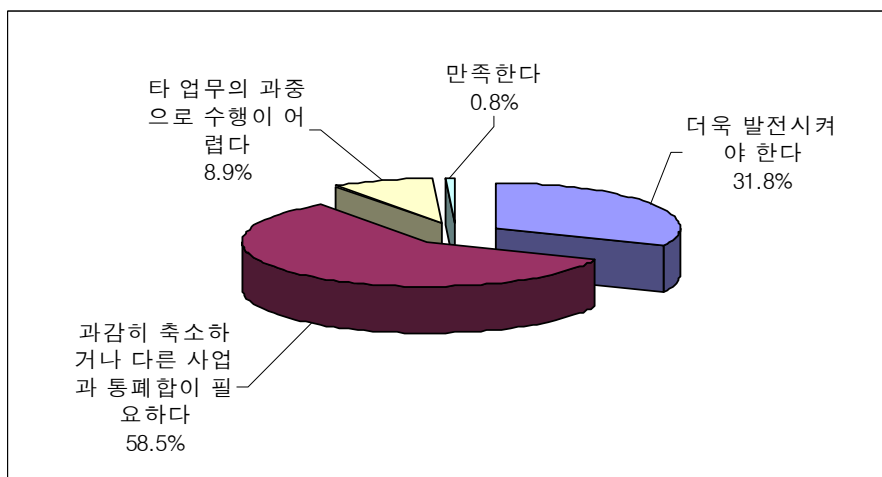
현재 해양수산사무소가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및 수탁시험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연구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55.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업무의 부담이 크고, 직원이 부족하여 참여가 곤란하다는 의견(29.4%)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림 3-4> 해양수산사무소의 과제 참여 방안

즉 해양수산사무소의 양식개발기술과 관련된 과제참여에 대하여 과제를 통한 연구비 지원 및 기술적용가능성 때문에 긍정적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업무의 과중 및 인력부족이 문제점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술보급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과 함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의 개편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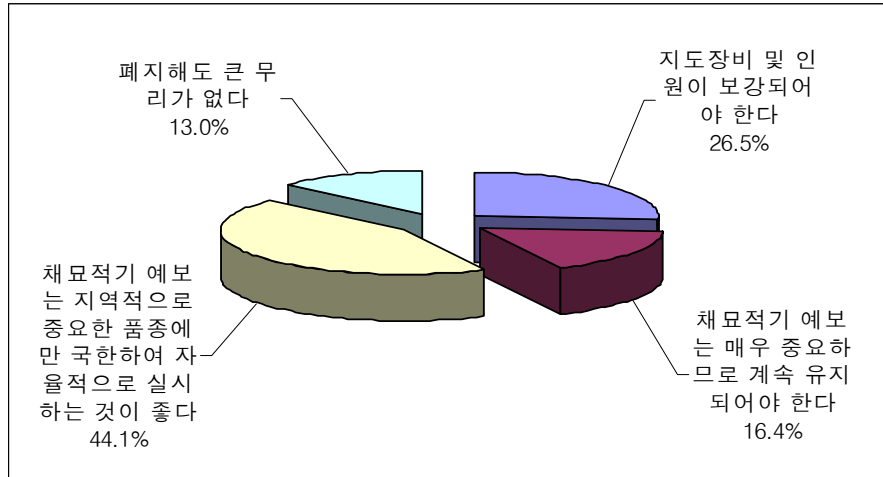
그리고 지역특산품 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으뜸 품종개발과 지역특화사업의 운영 및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축소하거나 타 사업과 통폐합하자는 의견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5> 지역특산품 개발사업의 추진방향

설문결과를 토대로 할 때 지역특산품 개발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현행체제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자연채묘 어장의 개발에 대한 의견을 분석해보면 전체 응답자의 44.1%는 현재 채묘적기 예보를 지역적으로 중요한 품종에만 국한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26.5%는 지도장비 및 인원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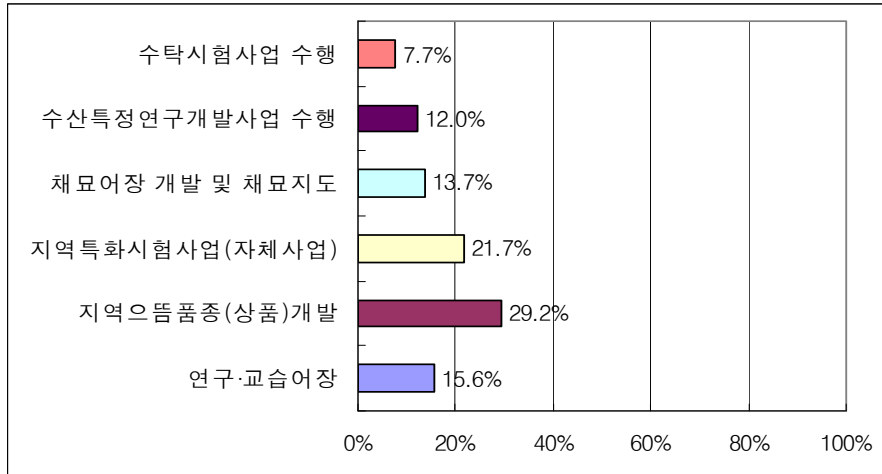
<그림 3-6> 자연채묘 어장개발

이와 함께 현행 업무체제를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16.4%를 차지하고 있어 자연채묘 어장개발 및 예보와 관련된 업무의 필요성은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의 지속 및 발전을 위한 인력 및 지도장비의 도입과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양식기술개발 및 보급업무와 관련하여 통합이 필요하거나 혹은 축소가 필요한 업무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3-7>과 같다.

조사결과 지역어촌진흥(상품)개발 업무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29.2%로 가장 높게 제기되었으며 다음으로 지역특화사업(자치사업)이 21.7%, 연구·교습어장이 15.6%, 채묘어장 개발 및 지도가 13.7% 등으로 나타났다.

설문분석결과를 앞서 살펴본 지역특산물 개발사업의 개선방향 및 연구교습어장 운영상시 애로사항과 함께 비교해 보면 지역특산물 개발사업의 경우 개편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은 편으로 형식적 운영체제의 개선과 함께 실질적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연구교습어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어업인 및 학계와 연계방안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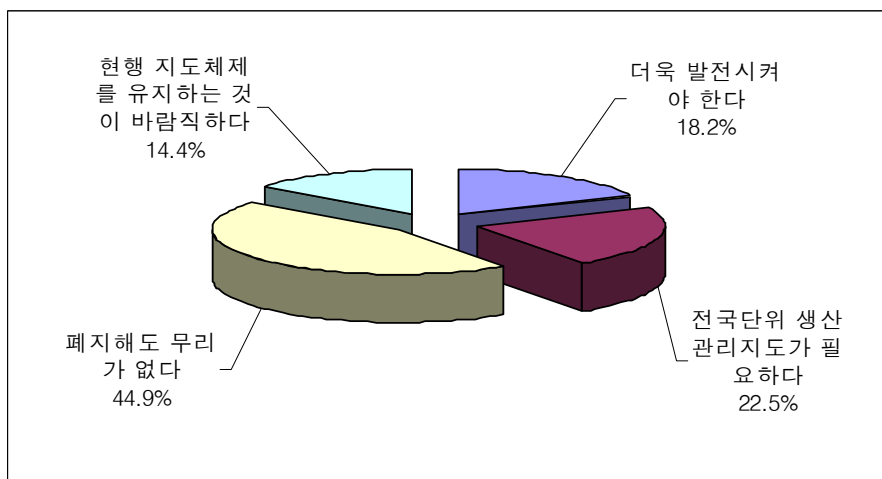


<그림 3-7> 양식기술개발업무의 관련 통합·축소 방향

2. 양식어장관리 및 병·재해예방지도

양식어장의 관리 및 병·재해예방업무와 관련하여 양식기술의 지원, 연안정지 관측업무, 양식어장 예찰 및 평가, 양식어장 환경개선 지도, 적조 예찰, 어병예찰 진단반 운영, 어업질서 및 자율어업관리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우선 어촌지도직 공무원에게 고소득 및 양식기술 보편화 품종의 적기기술지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4.9%는 생산기술의 보편화에 따른 형식적 운영으로 이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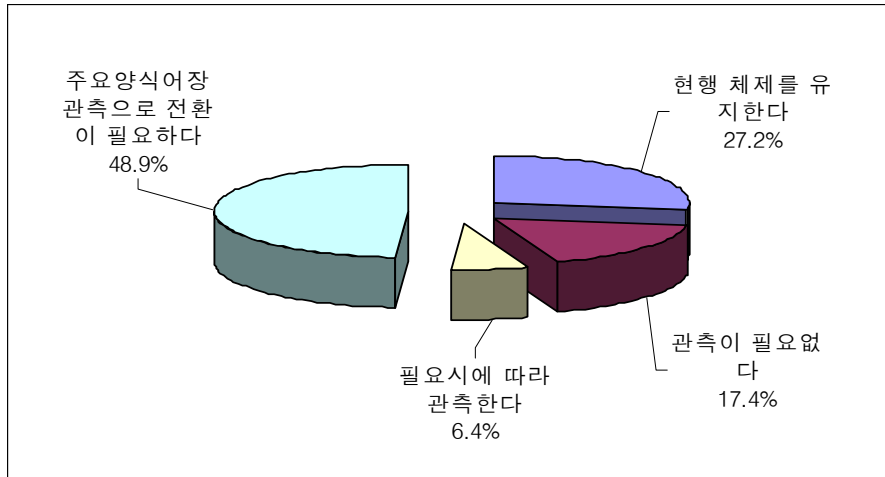


<그림 3-8> 양식기술 보편화 품종의 적기기술지원

그리고 전국단위 생산관리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2.5%,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18.2%,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행 지도체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14.4%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현재의 형식적 운영 등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지적하는 의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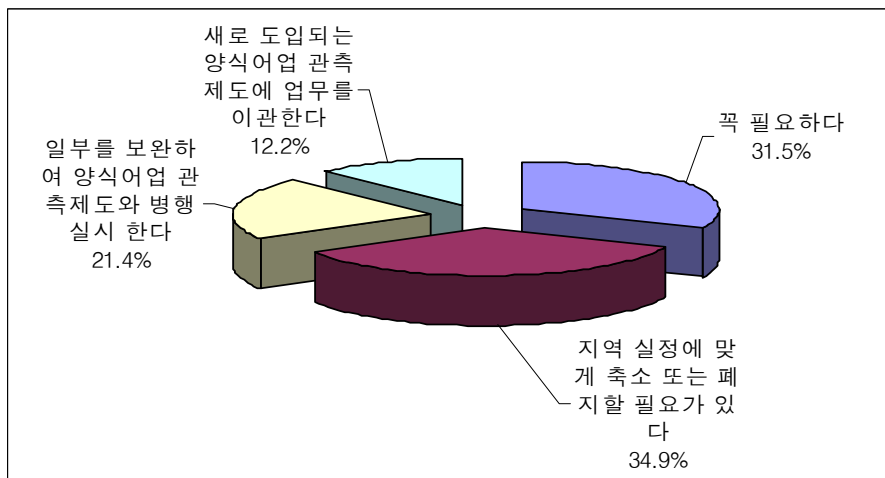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업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개선을 위해서는 형식적 업무내용에 대한 개선과 함께 품목별 특화 등 업무방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안정지 관측업무에 대한 조사에서 연안관측보다는 주요양식어장 관측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반정도를 차지하였으며 현행 체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27.2%, 관측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17.4%로 나타났다.



<그림 3-9> 연안정지 관측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현행체제의 유지보다는 주요 양식어장에 대한 관측이나 필요시 관측 등 새로운 형태로의 전환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양식어장 관리와 관련하여 예찰 및 평가업무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3-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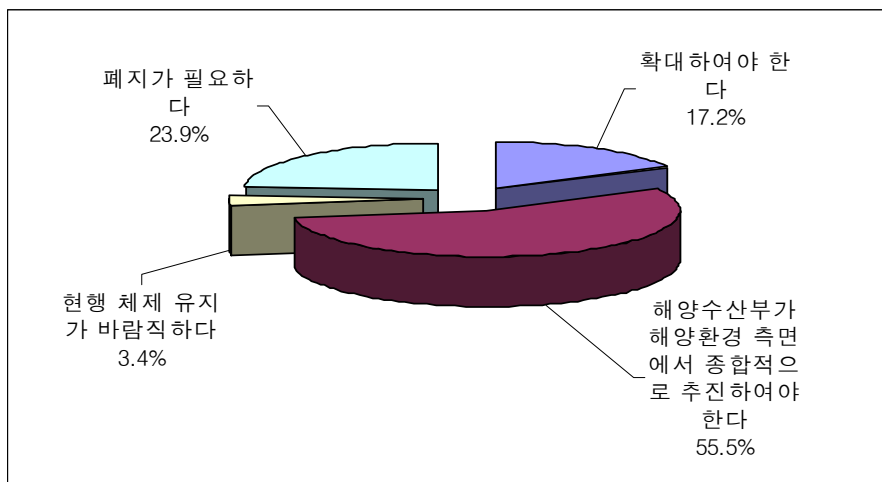


<그림 3-10> 양식어장 예찰 및 평가

어촌지도사들은 예찰 및 평가업무를 지역실정에 맞게 축소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34.9%)을 가장 높게 나타냈으며 이와 함께 꼭 필요한 업무라는 의견(31.5%), 양식어업 관측제도와 병행하자는 의견(2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양식어장 예찰 및 평가업무 자체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실질적인 예찰 및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조절하거나 양식어업 관측제도와 연계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양식어장 환경개선 지도업무에 대한 조사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5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3.9%,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17.2%로 조사된 반면 현행 체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은 3.4%에 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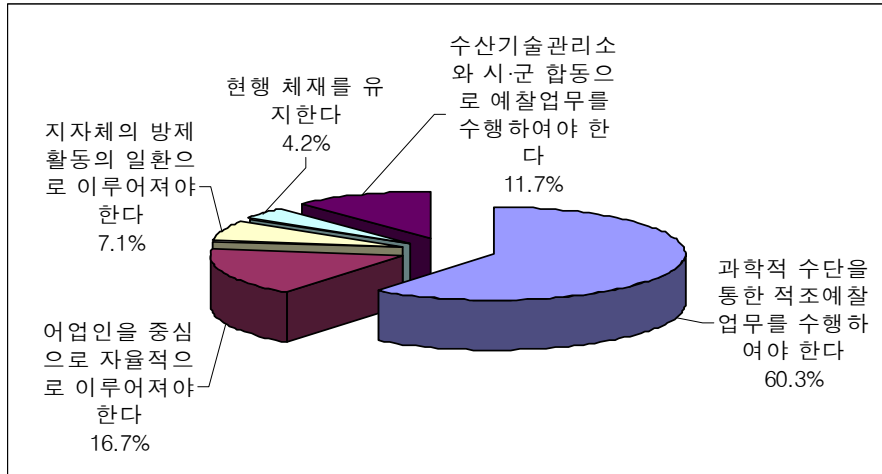


<그림 3-11> 양식어장 환경개선 지도

즉, 양식어장 환경개선지도 업무의 경우, 현재의 추진방식을 대부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해양환경의 개선이 어느 특정지역만의 노력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해양수산부가 종합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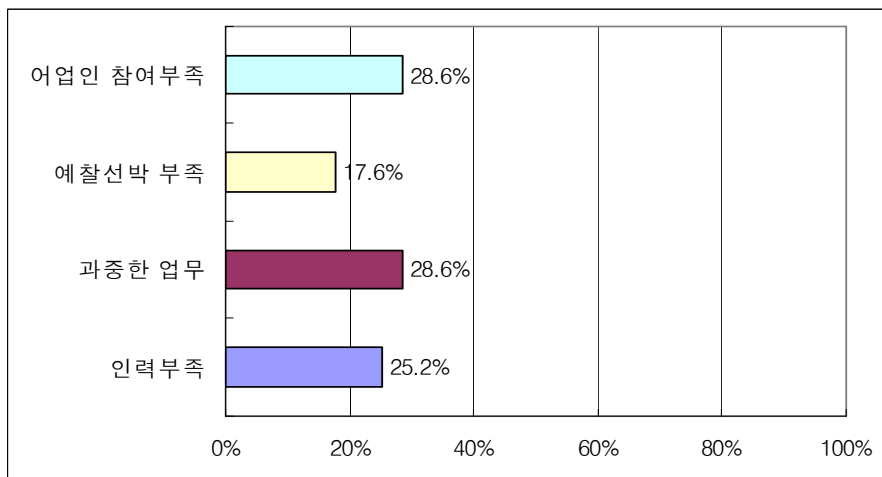
한편 적조예찰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과학적 수단을 활용하여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60.3%로 나타났으며, 어업인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16.7%, 해양수산사무소 및 시·군 합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11.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현행체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은 4.2%로 나타나 적조예찰업무 또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적조예찰업무 자체는 현재의 해양환경여건 및 어업인의 피해를 감안할 때 상당히 중요한 사안으로 해양수산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인력이나 장비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어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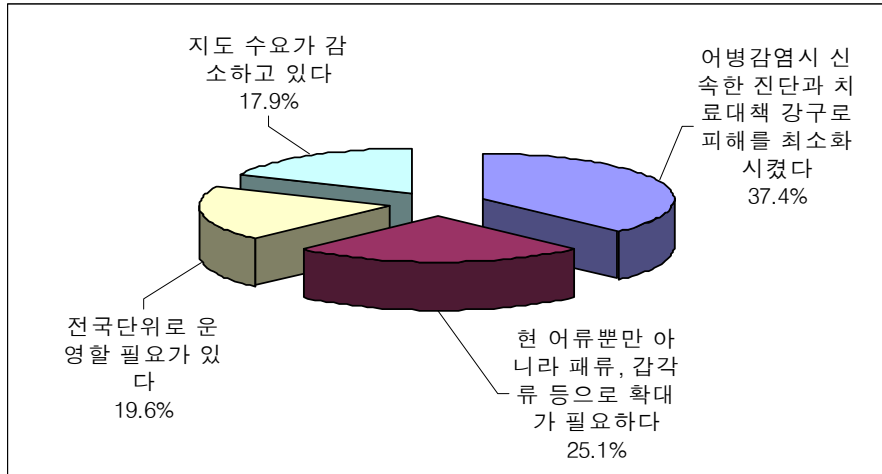
<그림 3-12> 적조예찰업무

그리고 적조예찰업무 추진상의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에서도 어업인의 참여부족(28.6%), 과중한 업무(28.6%), 인력부족(25.2%), 예찰선박 부족(17.6%)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적조예찰업무의 합리적 추진을 위해서는 어업인 및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의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13> 적조예찰 업무추진의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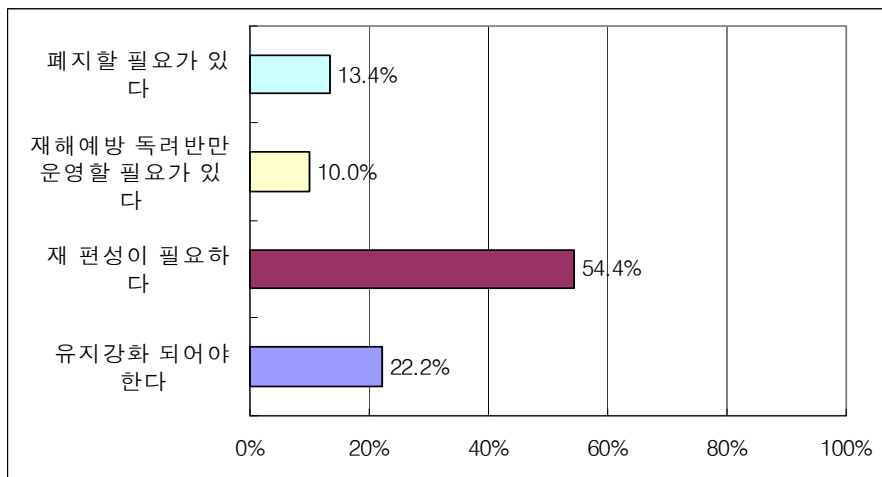
다음으로 어병예찰 진단반 운영과 관련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지도직 공무원들은 어병감염시 신속한 진단과 치료대책 강구로 피해를 대부분 최소화 시켰다는 의견을(37.4%)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어류뿐만 아니라 패류, 갑각류 등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5.1%, 전국단위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19.6%로 나타났다.



<그림 3-14> 어병예찰 진단반 운영

어병지도업무에 대하여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응답자가 약 82%에 이를 정도로 어병지도업무는 지도업무에서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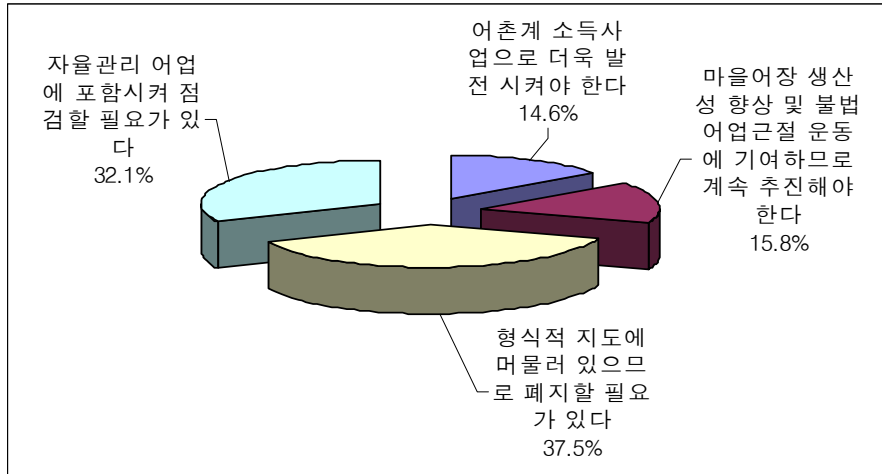
재해예방 독려반 편성과 관련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재편성하자는 의견이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유지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22.2%로 나타난 반면 이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13.4%로 나타났다.



<그림 3-15> 패류독소 어병예찰/재해예방 독려반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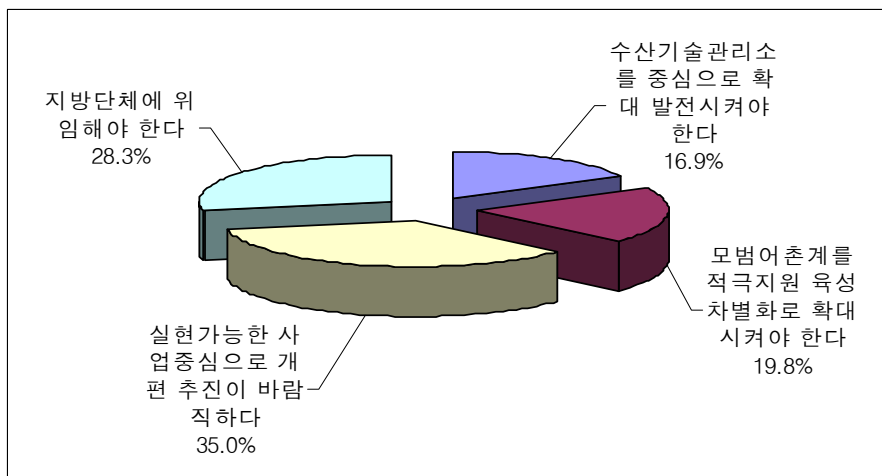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업무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연중 운영보다는 지역여건 및 시기에 따른 탄력적 운영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을어업 이용관리 지도 및 어업질서 확립대책 추진과 관련된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형식적 지도에 머물러 있으므로 폐지하자는 의견이 37.5%로 나타났으며 자율관리 어업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32.1%로 나타났다. 반면 더욱 발전시키거나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16> 어업질서 확립대책 추진

어촌지도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상대적으로 높게 제기하고 있으며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자율관리 어업추진과 연계시키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자율관리어업 추진과 관련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3-1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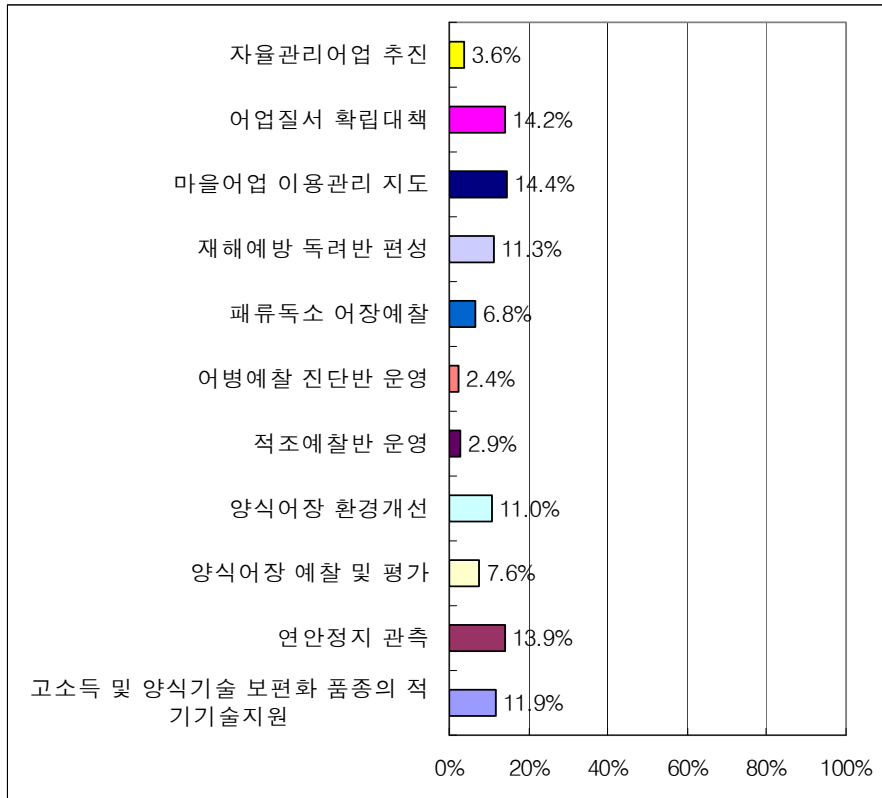


<그림 3-17> 자율관리어업 추진

조사결과, 추진주체의 단일화나 어선어업을 제외한 마을어업중심의 자율관리 등 실현 가능한 사업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의 과다소요, 핵심사업의 부재, 어업인의 무관심 등 단순히 어촌계 지원사업으로 전락하여 실질적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28.3%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범 어촌계를 적극 육성하자는 의견이 19.8%, 해양수산사무소를 중심으로 확대 발전시키자는 의견이 16.9%를 차지하고 있다.

자율관리어업의 추진과 관련된 의견을 종합해보면 해양수산사무소의 총괄적 추진보다는 실현 가능한 사업 중심의 개편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양식어장 관리 및 병·재해 예방지도 업무중에서 통합 또는 축소가 필요한 업무를 살펴보면 <그림 3-18>과 같으며 조사대상 11개 업무중 마을어업 이용관리 지도 (14.4%), 어업질서 확립대책(14.2%) 업무에 대한 개선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연안정지 관측(13.9%), 고소득 및 양식기술보편화 품종의 적기 기술지원 (11.9%), 재해예방 독려반 편성(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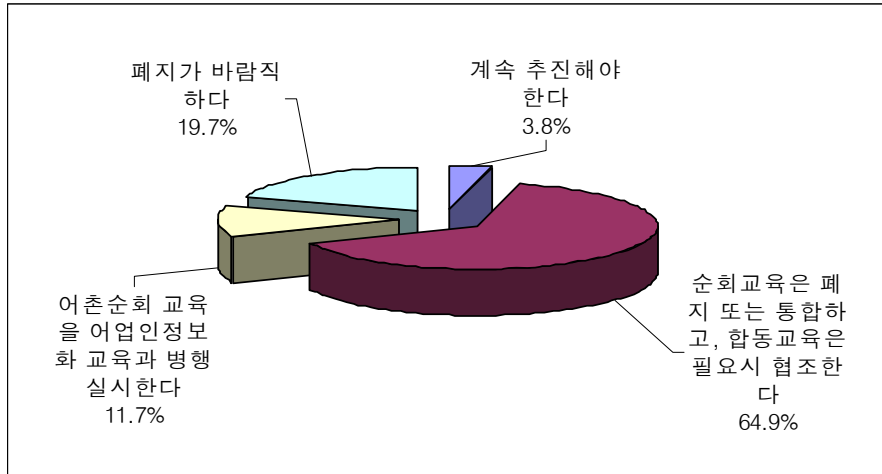
<그림 3-18> 양식어장 관리 및 예방업무 관련 통합축소대상 업무

통합 및 축소대상 업무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업무범위가 현 실정과 다소 맞지 않다는 의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마을어업 이용관리 지도 및 어업질서 확립대책업무의 경우 자율관리어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기타의 업무 또한 현 실정에 맞게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어업인 교육 및 정예수산전문인력 양성

어업인 교육업무 및 수산인력 양성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어촌순회기술교육, 지역 연찬회 개최, 청소년 수산교실 운영, 어촌후계인력양성 등의 업무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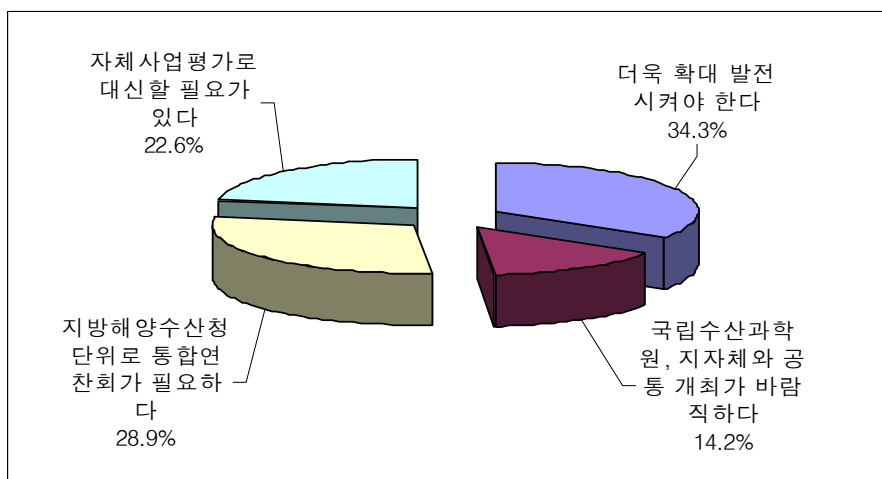
어촌순회기술교육 및 유관기관 합동교육에 대한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의견을 살펴보면 순회교육은 폐지 또는 통합하고 합동교육은 필요시 협조한다는 의견이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도수요 감소로 폐지하자는 의견이 20% 정도, 어촌순회교육을 어업인정보화 교육과 병행 실시하자는 의견이 12% 정도로 나타났다.



<그림 3-19> 어촌순회기술교육 및 합동교육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어촌순회교육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개선방안으로 단순생산기술지도업무 등 수요가 미미한 교육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방안의 마련과 함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교육과 병행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 또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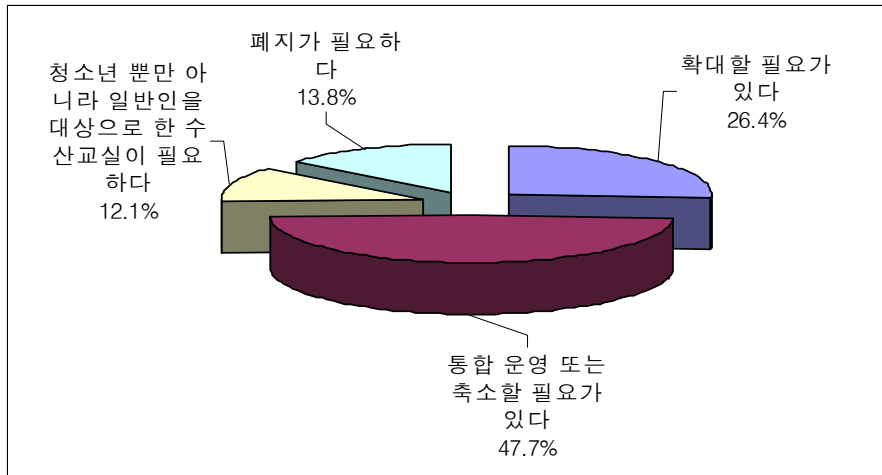
지역연찬회와 관련하여 수산기술보급 성과 및 대어업인 홍보 등 긍정적 성과가 높으므로 이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관리소 단위보다는 지방해양수산청 단위로 통합하여 개최하자는 의견이 28.9%로 나타났다. 반면 어업인의 참여가 저조하므로 자체사업평가로 대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22.6%로 나타났다.



<그림 3-20> 지역연찬회

이상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지역 연찬회의 개최자체는 어업인 교육 및 홍보에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지속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활성화를 위하여 부분적 통합과 함께 관련 단체와의 연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어업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 또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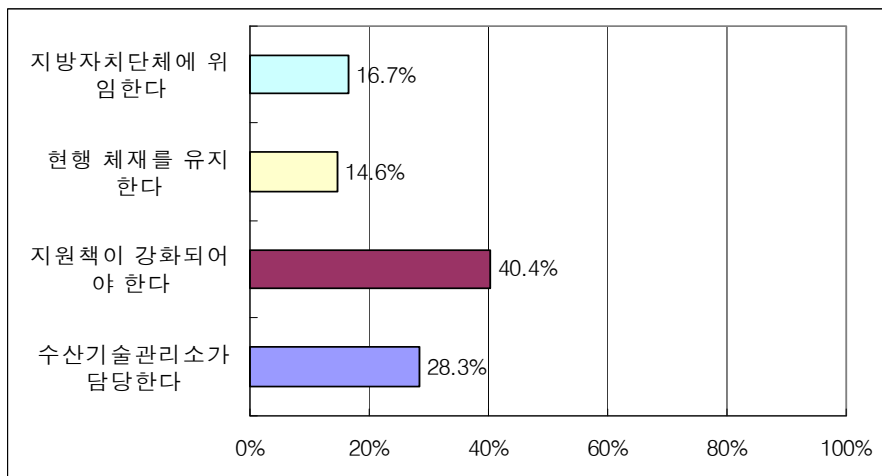
청소년 수산교실의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 해양교실과 통합운영 또는 축소하자는 의견이 47.7%, 청소년 인식제고를 위하여 확대시키자는 의견이 26.4%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업무과중, 강의내용부실, 학생호응 저조 등으로 폐지하자는 의견은 13.8%로 나타났으며 청소년과 더불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수산교실을 운영하자는 의견 또한 12.1%로 나타났다.



<그림 3-21> 청소년 수산교실 운영

설문결과를 종합해보면, 청소년 수산교실의 운영성과 및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올바른 교육효과를 얻고 해양수산사무소의 업무과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사교실과의 통합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교육횟수 및 교육내용에 대한 조정 또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어촌후계인력양성 업무와 관련된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3-22>에서 보는바와 같이 자금규모를 확대하고 금리인하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40.4%로 나타났으며 선정 및 관리업무까지 해양수산사무소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28.3%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자는 의견 또한 16.7%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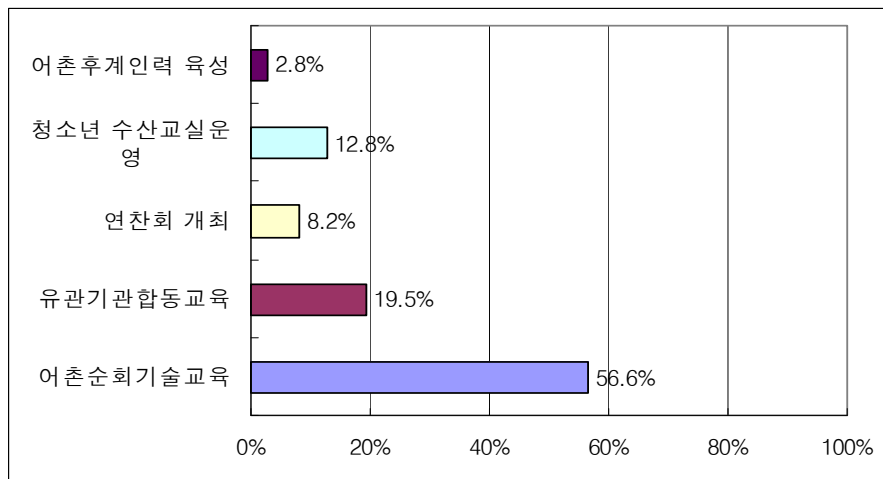


<그림 3-22> 어촌후계인력 양성

즉 어촌후계인력 양성업무와 관련된 의견을 종합해보면 우선 어업인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자금과 금리 등의 지원책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그리고 어촌후계자의 선정 및 관리업무에 대한 평가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해양수산사무소로 이원화된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높으며 해양수산사무소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수신기술관리소가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방안 또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해양수산사무소의 어업인교육 및 정예수산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업무중에서 통합 또는 축소가 필요한 업무를 살펴보면 <그림 3-23>과 같다. 조사결과, 어촌순회 기술교육 업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유관기관 합동교육이 19.5%, 청소년 수산교실운영이 12.8%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앞서 살펴보면 내용과 종합해보면 수요가 미미한 교육에 대해서는 폐지하거나 유사 교육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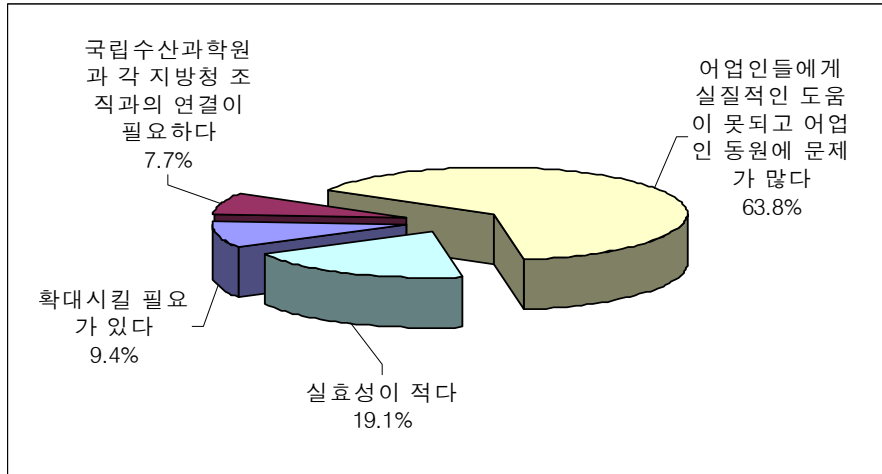


<그림 3-23> 어업인 교육관련 통합 축소대상 업무

4. 어촌정보화 인프라 구축 운영 및 어업경영지도 관리

어촌정보화 및 어업경영지도 관리업무를 구성하는 어업인 정보화 교육훈련, 어촌정보사랑방 운영, 수산양식업 표준소득 조사, 경영일지 기록지도 등의 업무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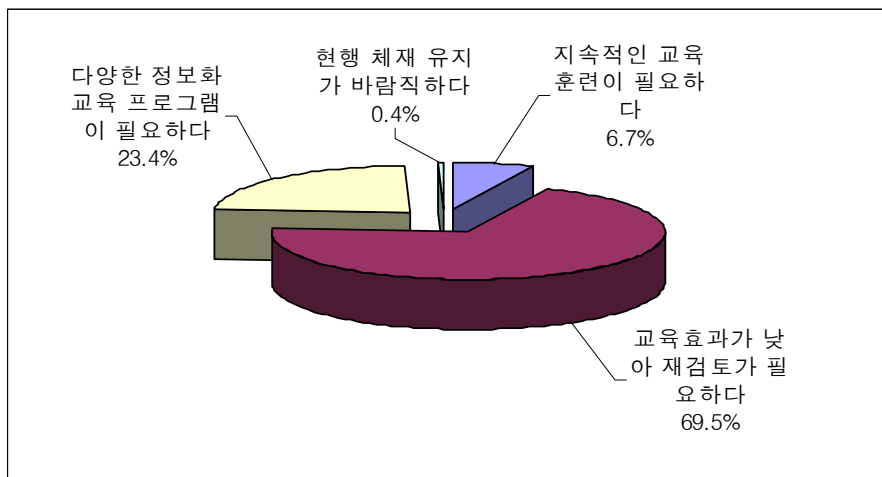
어촌정보화 인프라 구축운영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어촌지도직 공무원들은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못되고 어업인 동원에 문제가 많다는 의견(63.8%)을 가장 많이 제시하였으며 예산투자에 비하여 실효성이 적다는 의견 또한 19.1%를 차지하였다.



<그림 3-24> 정보화 교육 인프라 구축운영

정보화교육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보면, 현재의 운영체제는 다소의 문제점이 있으며 실효성 또한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과 함께 콘텐츠 또한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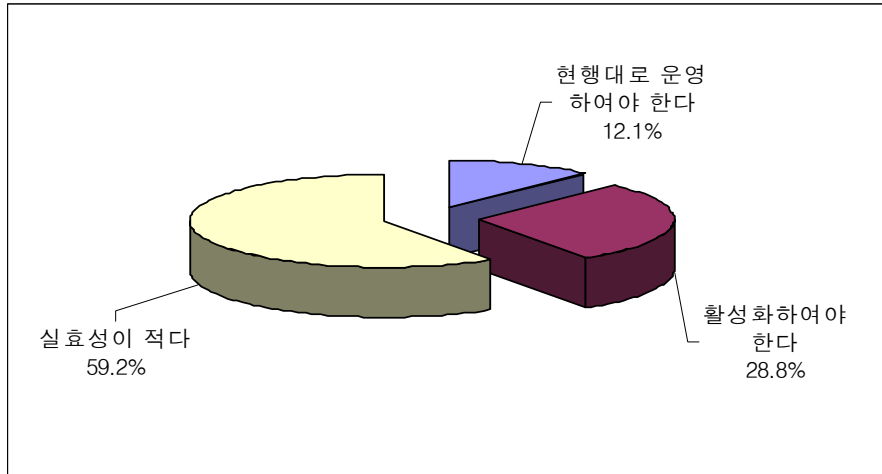
어업인 정보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교육효과가 낮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분야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3.4%로 나타났다.



<그림 3-25> 어업인 정보화 교육훈련

어촌지도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어업인 정보화 교육훈련과 관련된 현재의 운영체제는 개선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교육내용에 대한 조정과 함께 어업인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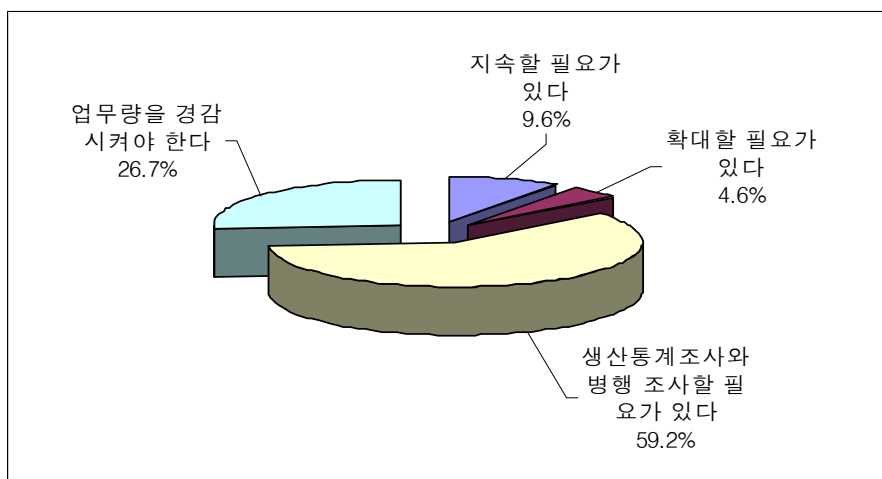
그리고 어촌정보화 사랑방 운영에 대한 평가에서도 어촌계의 활용능력이 저조하여 실효성이 적다는 의견이 6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는 예산지원을 확대하여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의견(28.8%)을 제시하였다.



<그림 3-26> 어촌정보사랑방 운영

어촌정보화와 관련된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정보화시대의 추세를 반영하여 어촌지역에서의 정보화정책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행 운영체제는 어업인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어업인 정보화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체제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어업인 경영관리지도와 관련하여 수산양식업 표준소득 조사업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도직 공무원들은 이 업무를 생산통계조사와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59.2%)을 가장 높게 제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조사방법의 개선을 통해 업무량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의견 또한 26.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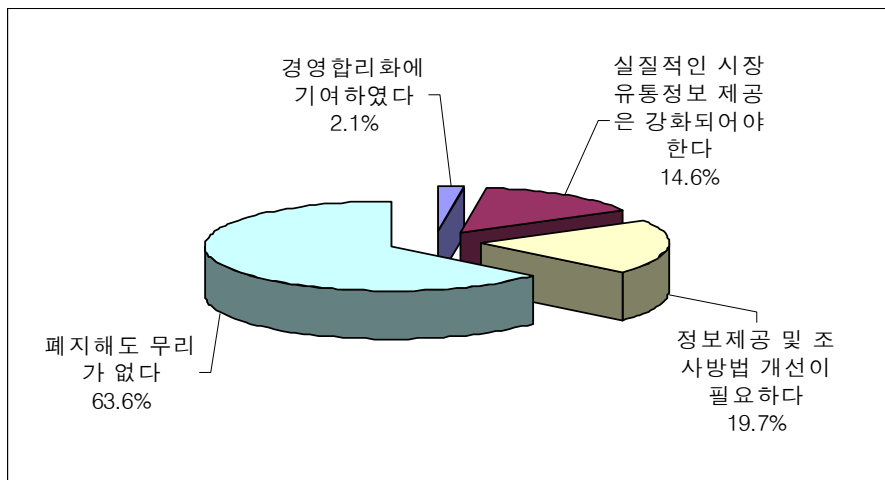


<그림 3-27> 수산양식업 표준소득 조사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수산양식업 표준소득 조사업무 자체에 대한 필요성은 높은 편이며 이를 지속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효율적 업무추진 및 지도직 공무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조사방법의 개선 및 유관업무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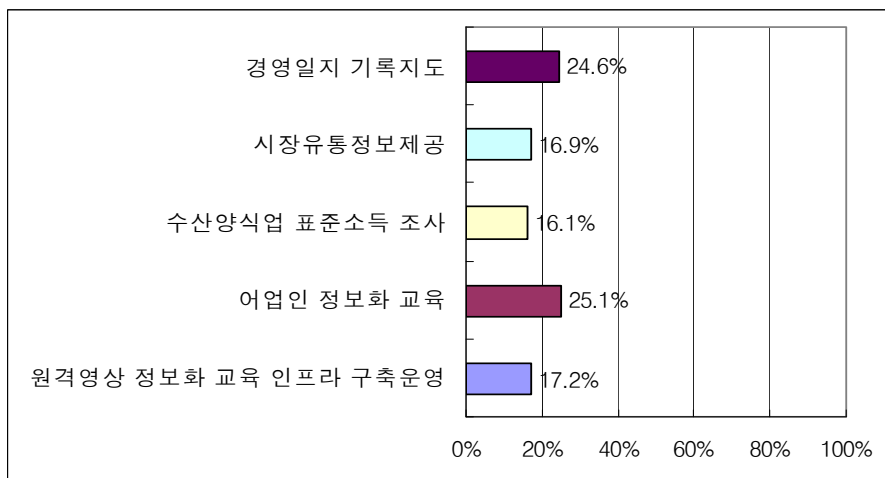
그리고 시장유통정보제공 및 경영일지 기록지도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경영일지의 기록저조와 함께 각종 정보수단 발달 등으로 폐지해도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63.6%로 나타났으며 정보제공 및 조사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9.7%, 실질적인 시장유통정보의 제공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14.6%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결과 현재의 경영일지 기록방식은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시장유통정보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업무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산업과 관련된 정보화 업무와 연계시켜 시장유통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의 마련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28> 시장유통정보제공 및 경영일지 기록지도

어촌정보화 인프라구축 운영 및 어업경영관리지도와 관련된 업무중에서 통합 또는 축소가 필요한 업무를 살펴보면 <그림 3-29>와 같이 어업인정보화 교육업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제기되었으며 이와 함께 경영일지 기록지도(24.6%), 원격영상 정보화 교육 인프라 구축운영(1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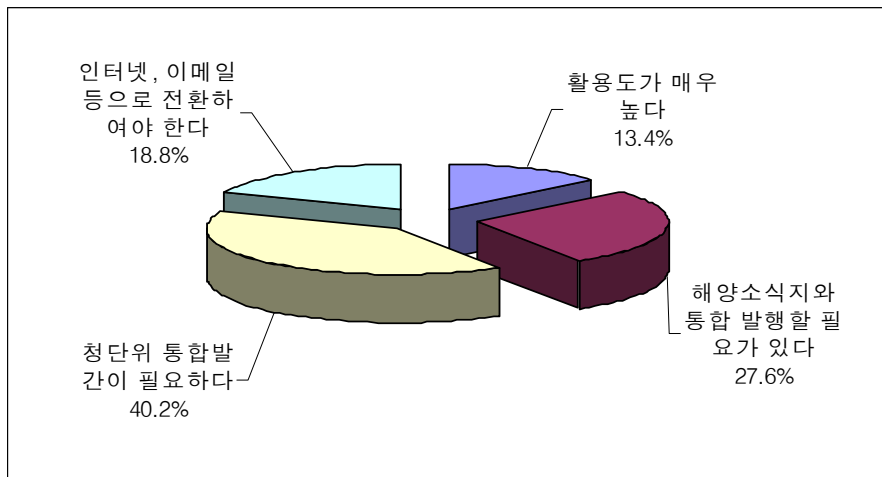
<그림 3-29> 정보화교육관련 통합축소 대상업무

조사결과를, 앞서 살펴본 어촌지도직 공무원들의 의견과 종합해보면 어촌지역의 정보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어업인 정보화 교육은 추진상의 제약요인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며 경영일지 기록지도 또한 형식적 업무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내용의 보급 및 프로그램의 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5. 수산기술홍보 및 관리기반 조성

수산기술의 홍보 및 관리업무를 구성하는 수산소식지 발간, 어업인상담실 운영, 기술지도선 운영 및 지도장비 활용, 선진지 견학, 명예 어촌지도사 운영, 어업생산통계 관련 업무의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재 발간되고 있는 이 달의 수산소식지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과(소) 단위보다는 청단위 통합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0.2%로 나타났으며 해양소식지와 통합하여 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27.6%, 인터넷이나 이메일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18.8%등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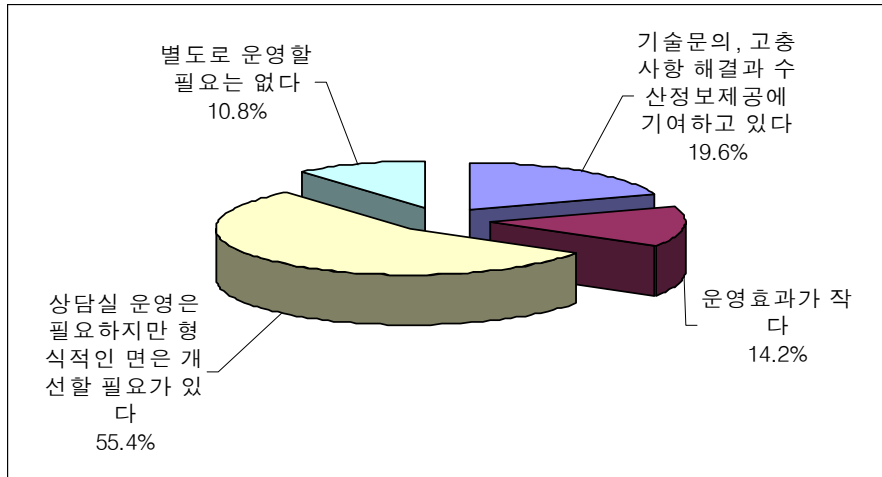


<그림 3-30> 수산소식지 발간

수산소식지 발간과 관련된 의견을 종합해보면 양식작황, 각종수산정보 제공 등 소식지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업무의 효율성 및 업무과중을 방지하고 효과적 정보제공을 위한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며 청단위로 통합하여 발간하거나 해양소식지와 통합하여 발행하는 방안 또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어업인 상담실의 운영과 관련하여 상담실의 운영은 필요하지만 일지 작성 등 형식적인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55.4%)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기술문의, 고충사항 해결, 수산정보제공에 기여한다는 의견이 19.6%로 나타난 반면 운영효과가 작다는 의견이 14.2%로 나타났으며 상담실공간을 별도로 조성할 필요 없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10.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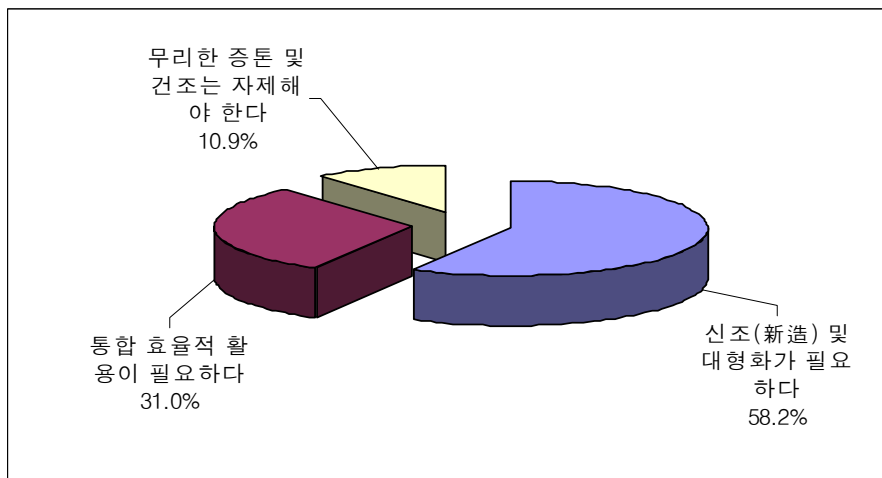
조사결과, 어촌 지도직 공무원들은 어업인 상담실의 운영이 어업인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필요성 또한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운영방식의 변화와 함께 실질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상담실의 설치는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31> 어업인 상담실 운영

다음으로 기술지도선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분석해보면 선박의 안정성 및 효율적 지도 활동을 위해 새로운 지도선의 보급과 함께 이를 대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5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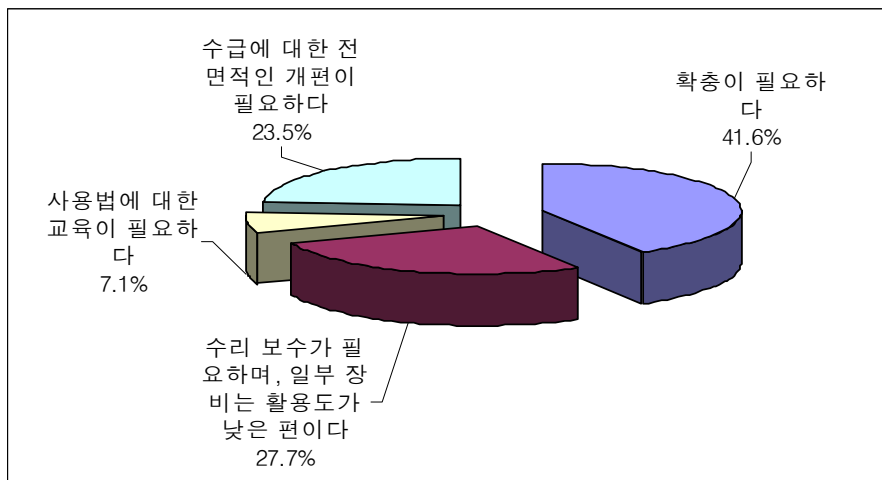
이와 함께 지도선 및 출장소 선박 등을 통합하여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1.0%로 나타났으며 지도선의 활용도가 낮고 특정시기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무리한 증톤 및 건조는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10.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32> 기술지도선 운영

기술지도선의 운영과 관련된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정부 예산의 합리적 집행 및 효율적 활용에 대한 의견이 비교적 높은 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도선의 건조는 지역실정에 맞게 보급하거나 타 선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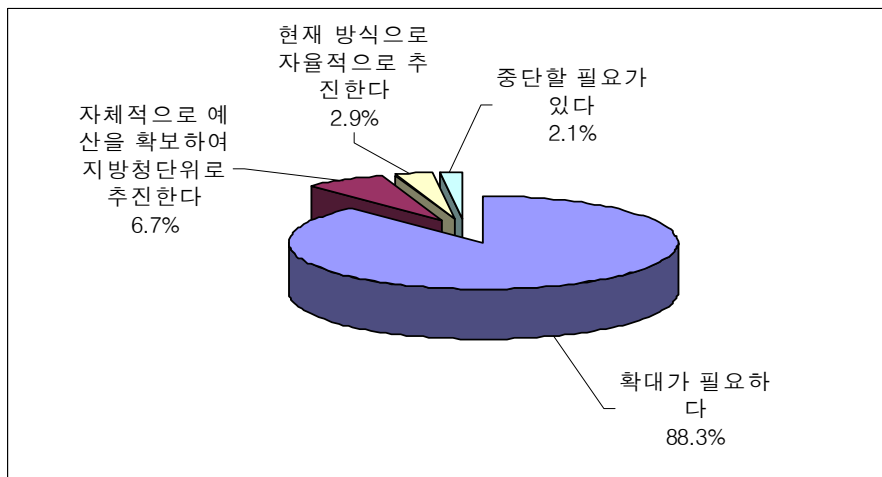
기술지도와 관련하여 기술지도장비의 확보 및 활용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지도장비의 활용도가 높으므로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41.6%, 장비확충보다는 수리 보수가 필요하며 일부 장비는 활용도가 낮은 편이라는 의견이 27.7%, 수급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3.5%로 나타났다.



<그림 3-33> 기술지도장비 확보 및 활용

기술지도 장비와 관련된 의견을 종합해보면, 활용도가 높은 장비에 대한 확충과 함께 수리 및 보수체제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해 지도장비의 운영 및 수급 방식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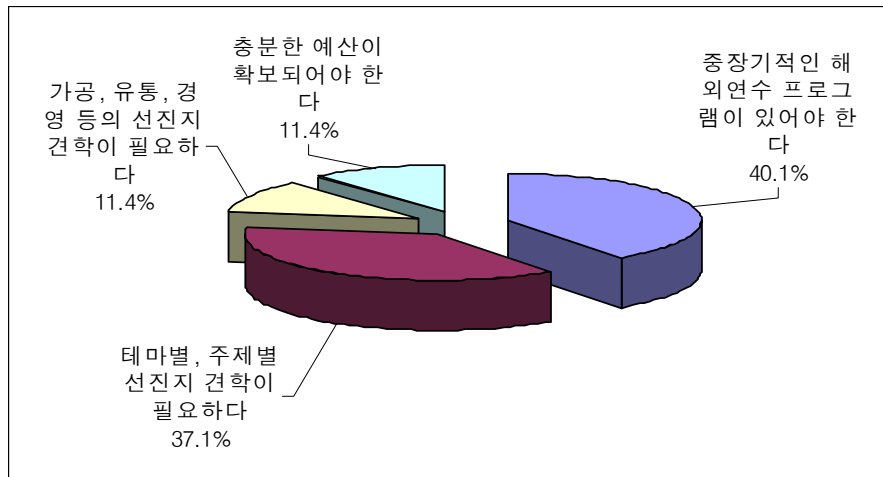
견학업무와 관련하여 선진지 견학프로그램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34> 선진지 견학

조사결과, 대부분의 어촌지도직 공무원들은 장·단기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88.3%) 상당히 높게 제기하였으며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방청 단위로 추진하자는 의견(6.7%), 자율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진지 견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에서 중장기적인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40.1%로 가장 높게 제기되었으며 이와 함께 테마별, 주제별 견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7.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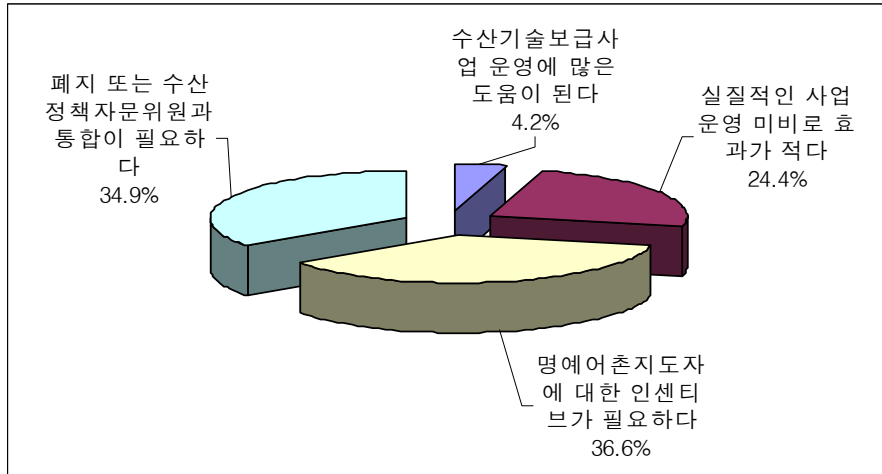


<그림 3-35> 선진지 견학시 필요사항

한편 선진지 견학과 관련된 어촌지도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연수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상당히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회성 행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와 함께 중장기적인 운영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며 대상 프로그램의 성격이나 방문지역에 따라 차별성을 부여하는 방안 또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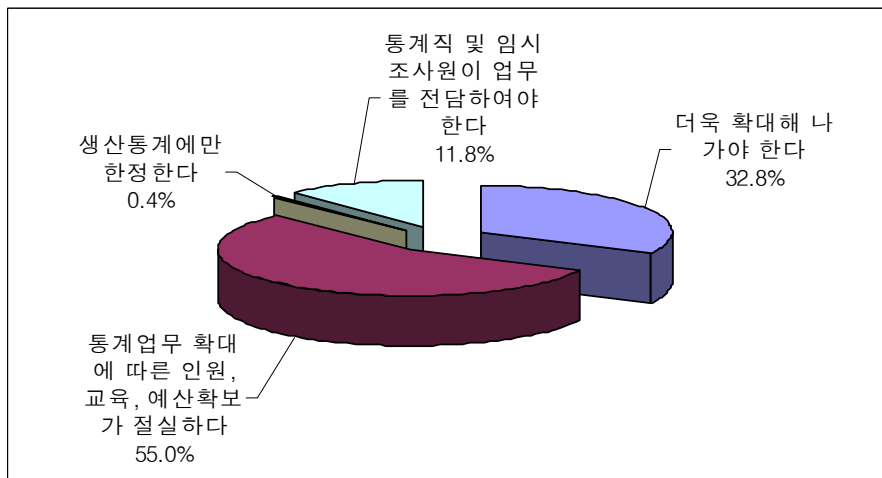
그리고 명예 어촌지도자 운영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명예 어촌지도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폐지 또는 수산정책자문위원과 통합하자는 의견이 34.9%, 실질적인 사업운영 미비로 효과가 적다는 의견이 24.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수산기술보급사업 운영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의견은 4.2%에 그쳐 명예 어촌지도자의 운영방식에는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서는 명예 어촌지도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거나 이를 개선하여 수산정책자문위원과 병행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36> 명예 어촌지도자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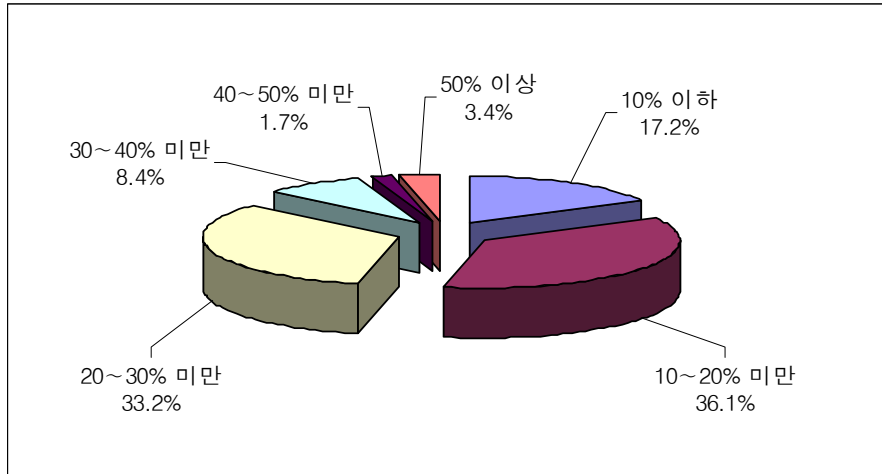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업무중 어업생산통계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현황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55.0%는 통계업무 확대에 따른 인원, 교육, 예산확보가 절실하다고 응답하였으며 32.8%는 생산통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림 3-37> 어업생산통계 업무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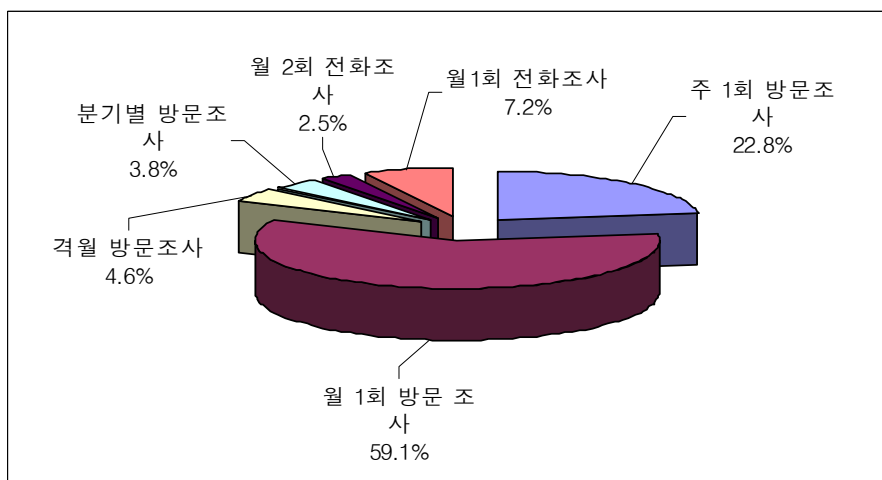
조사결과, 어촌지도직 공무원들은 어업생산통계업무의 중요성은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추가적 업무부여에 따른 인원 및 예산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어업생산통계 업무가 차지하고 있는 업무비중에 대하여 살펴보면 10~20% 정도라는 의견이(36.1%) 가장 높게 제기되었으며 20~30%정도라는 의견이 33.2%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어업생산통계업무의 비중은 전체 업무의 25%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효율적 업무추진 및 업무과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계 업무를 위한 인원의 확충과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38> 어업생산통계의 업무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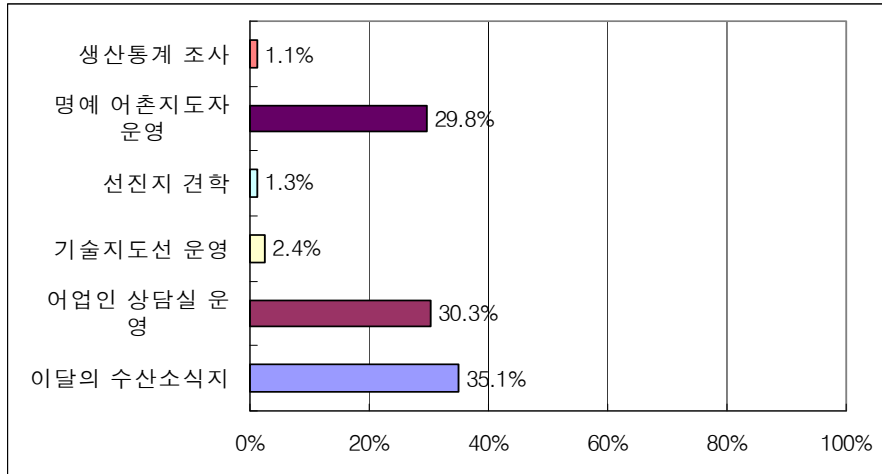
한편, 어업생산통계 조사방식과 관련하여 효율적 조사방법에 대한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59.1%가 월 1회 방문조사방식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2.8%는 주 1회 방문조사 방식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3-39> 어업생산통계 조사방법

설문결과를 종합해보면, 어업생산통계의 조사방법은 전화조사보다는 방문조사가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되며 통계자료의 확보를 위해서는 월 1회 이상의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수산기술홍보 및 관리기반조성, 생산통계업무와 관련하여 통합 또는 축소가 필요한 업무를 조사한 것이다. 조사결과 이들의 수산소식지에 대한 개선 의견이 35.1%로 가장 높게 제기되었으며 이와 함께 어업인 상담실 운영(30.36%), 명예 어촌지도자 운영(2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40> 수산기술홍보/관리기반조성 중 통합 또는 축소대상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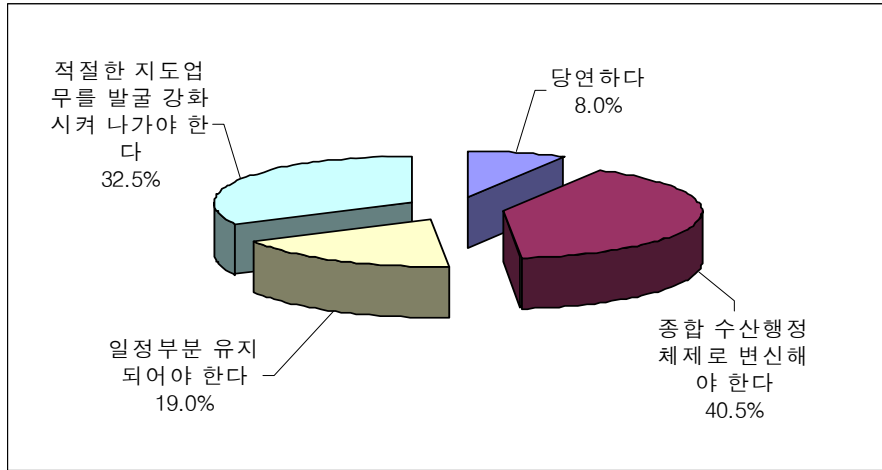
통합 또는 축소대상 업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수산 소식지의 경우 발간방식의 변경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어업인 상담실의 경우 운영방식의 개선으로 실질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6. 새로운 해양수산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수산기술보급사업의 업무 분석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어촌지도직 공무원들에게 새롭게 추진되는 해양수산사업에 대한 평가와 대안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우선 어촌지도 업무의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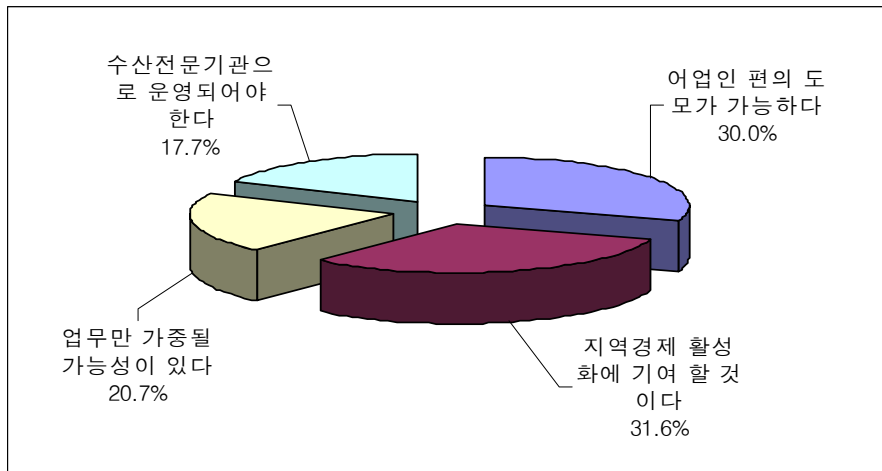
조사결과 지도직 공무원들은 지도업무를 탈피하여 종합 수산행정체제로 변신해야 한다는 의견이 40.5%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지도가 필요한 분야가 생산지도분야에서 가공·유통·관광분야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지도업무를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이 32.5%로 나타났으며 어촌소득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사업은 일정부분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19.0%로 나타났다.

어촌지도업무의 비중 축소와 관련된 지도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기술지도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촌지도업무의 비중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으며 수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지도업무를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41> 어촌지도업무 비중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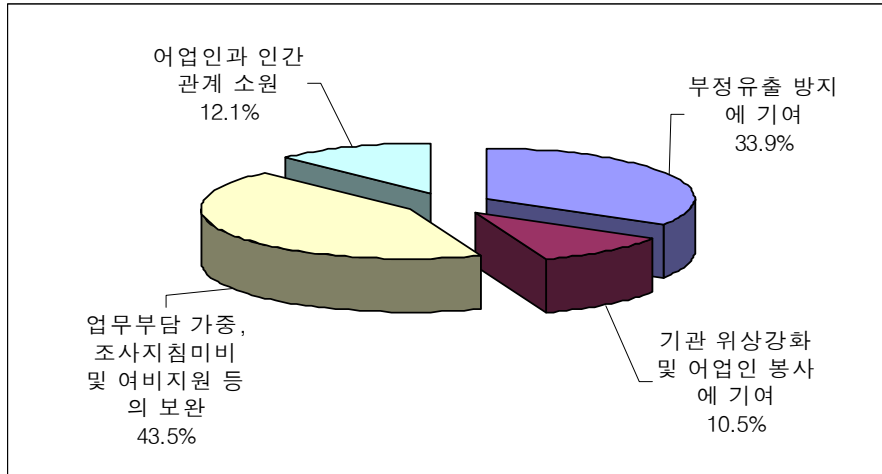
한편 종합 수산행정체제로 변신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해양수산사무소가 최일선 종합행정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지도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수산 및 해운항만행정의 적절한 조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31.6%로 나타났으며 One-Stop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어업인의 편의 도모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30.0%로 나타났다.



<그림 3-42> 해양수산사무소의 최일선 행정기관 전환

반면 고유 업무 및 영역파괴로 전문성보다는 업무만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20.7%, 종합행정기관보다는 수산전문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17.7%로 나타났다. 지도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해양수산사무소가 최일선 행정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우려의 목소리 또한 일부를 차지하고 있어 대립적 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의 사후관리업무에 대한 지도직 공무원의 의견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43.5%는 업무부담 가중, 조사지침미비 및 여비지원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으며 33.9%는 면세유류 점검을 통하여 부정유출방지에 기여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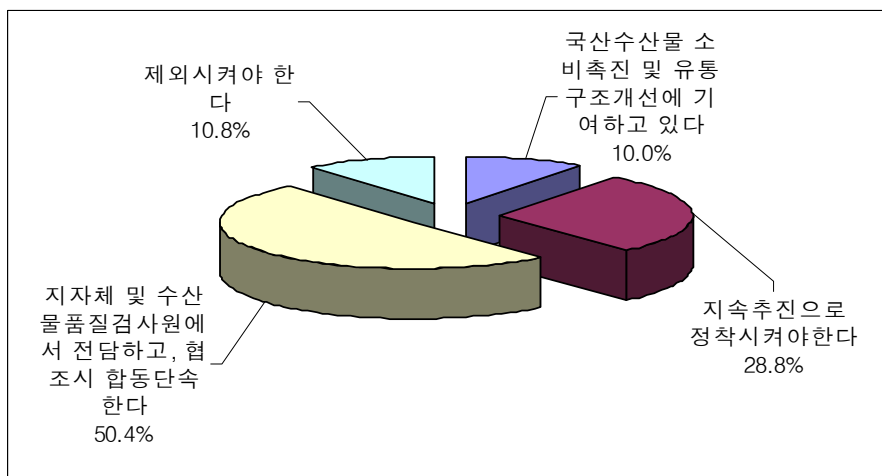


<그림 3-43> 어업용 면세유류 관리업무

설문결과를 종합해보면 어업용 면세유류 관리업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현재 수행하고 있는 타 업무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업무가 가중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 안의 마련과 업무추진과 관련된 지침 또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산지 표지 조사·확인사업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50.4%는 지자체 및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전담하고 협조시 합동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28.8%는 지속적 추진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10.0%는 국산수산물 소비촉진 및 유통구조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10.8%는 업무과중 및 단속업무의 한계가 있으므로 제외시켜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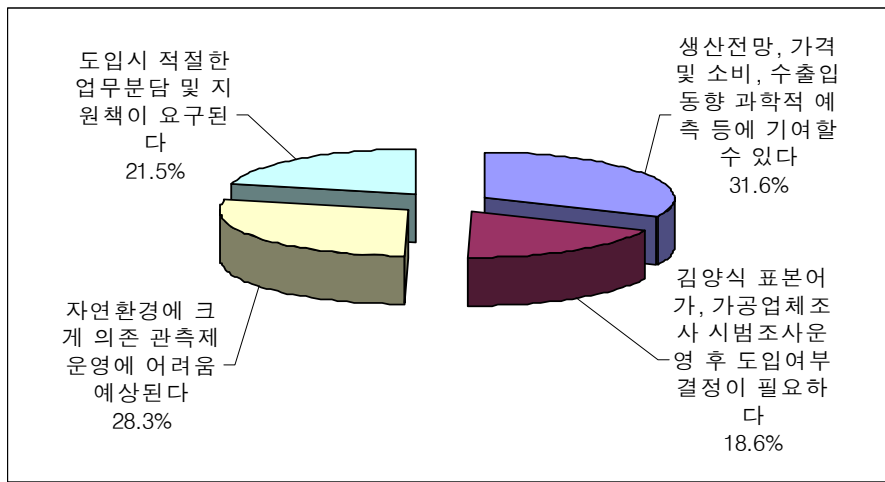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원산지 표지 조사 및 확인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지도직 공무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존 업무량의 과다 및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업무내용의 개편이나 관련기관과의 연계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44> 원산지 표지 조사·확인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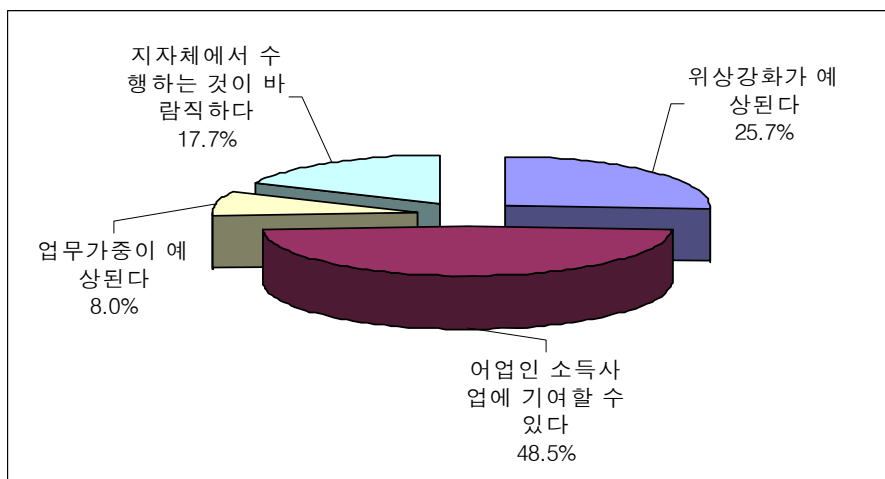
양식어업관측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지도직 공무원의 의견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31.6%는 과학적 예측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며 28.3%는 양식업이 자연환경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21.5%는 도입과 관련하여 업무분담 및 지원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양식어업관측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긍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 수산업의 여건 및 현행체제를 고려할 때 도입에 따른 제반 여건의 검토와 사전준비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이 비교적 높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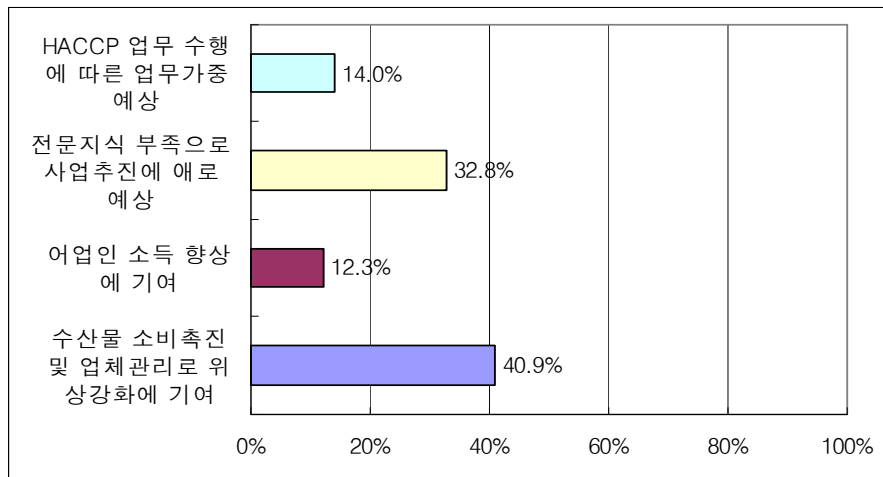
<그림 3-45> 양식어업관측제 도입운영

다음으로 수산물 직매장 사업과 관련하여 지도직 공무원의 의견을 살펴보면 어업인 소득사업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4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전문매장 설립사업 추진으로 위상강화가 예상된다는 의견이 25.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업무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정보보다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17.7%, 사업자 선정 및 감독 등 업무가중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46> 수산물 직매장 사업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어업인 소득증대 등을 고려할 때 수산물 직매장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견해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현 업무의 가중 및 인력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한편 HACCP업무와 관련된 의견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림 3-4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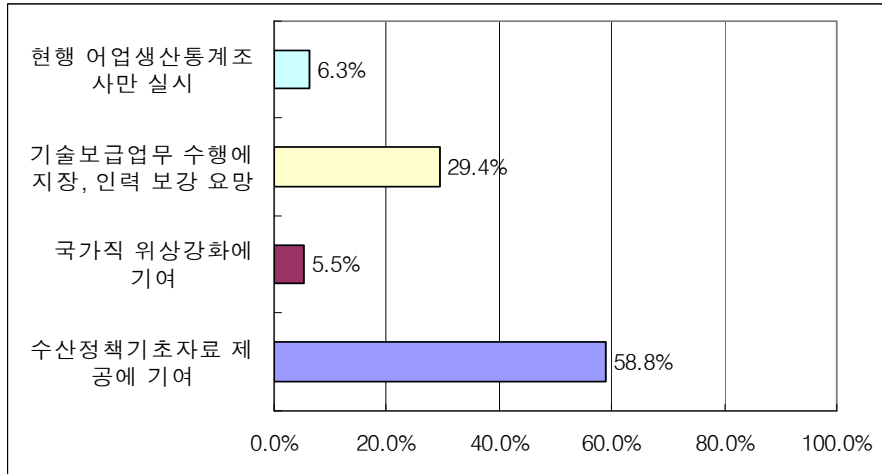


<그림 3-47> 생산단계 HACCP 관리업무

조사결과 수산물 안정성 확보로 수산물 소비촉진 및 업체관리를 통하여 위상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40.9%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애로가 예상된다는 의견이 32.8%를 차지하고 있으며 HACCP업무의 수행으로 업무가중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14.0%를 차지하고 있다.

HACCP 관리업무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도직 공무원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수산물 위생 및 소비촉진을 위해 업무의 당위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의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의 마련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며 기존 업무의 가중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 또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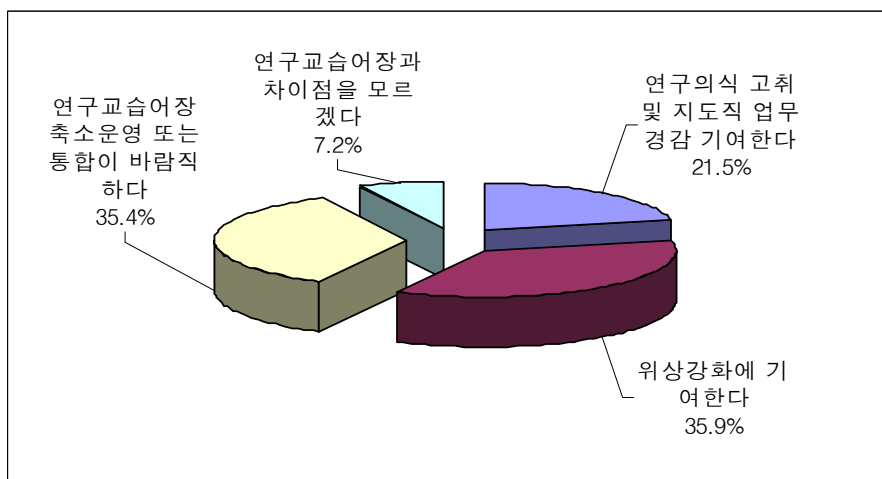
다음으로 어업생산통계조사를 수산통계 업무로 확대시킨 것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수산통계에 대한 단계적 도입으로 수산정책 기초자료 제공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5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통계업무의 추가로 기술보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으며 이에 대비한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9.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48> 수산통계 전환업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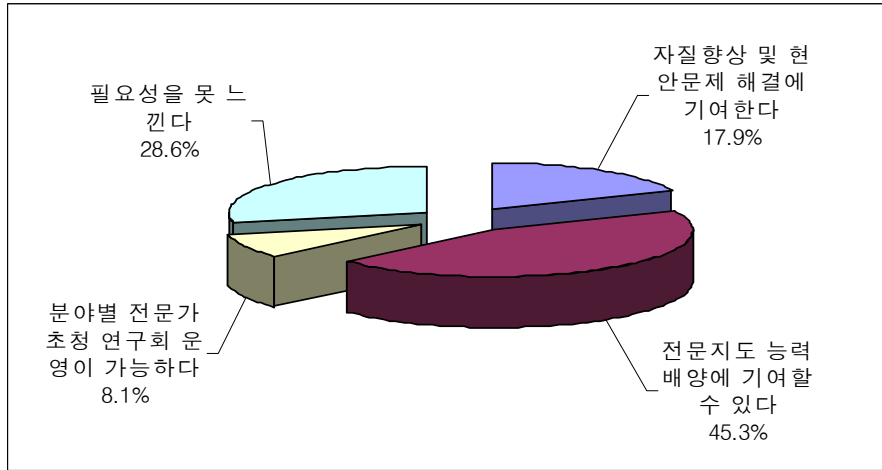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수산통계 업무 추진은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해양수산사무소의 기존 업무에 추가되는 업무과중에 대한 대비책의 마련과 함께 사업의 점진적 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업인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지도직 공무원들은 현장어로 기술을 어업인 스스로 해결하는 연구관리업무로 위상강화에 기여한다는 의견이(35.9%) 가장 많았으며, 이와 함께 연구교습어장 축소운영 또는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35.4%)도 비교적 높다. 조사결과 어업인 기술개발 과제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이 다소 많았으며 합리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사업과의 연계나 통합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49> 어업인 기술개발 과제

다음으로 지도직 공무원의 전문지도연구회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전문지도 능력 배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45.3%로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업무의 부담가중, 자체 연구성과 미비 등으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의견이 28.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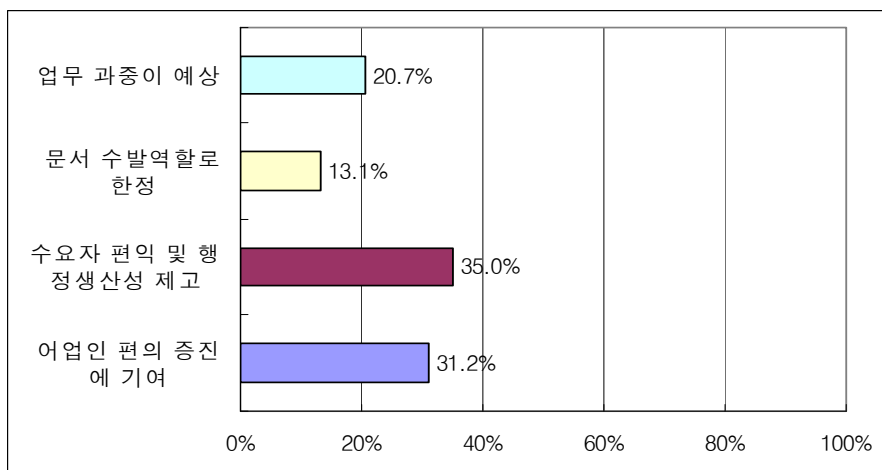


<그림 3-50> 전문지도연구회

전문지도연구회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지도회를 통한 성과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지도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형식운영에 따른 대책의 마련과 함께 기존 업무에 가중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조정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해운·항만 관련 민원사무 26개 업무의 이관과 관련된 지도직 공무원의 의견을 분석해보면, One-Stop 민원처리로 수요자 편의 및 행정생산성을 제고한다는 의견이 35.0%, 원거리에 있는 출장소 사무를 대행함으로써 어업인 편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의견이 31.2%로 나타났다.

반면 수산고유 업무 이외의 사업으로 업무 과중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20.7%, 전문지식 부족에 따른 단순 업무 수행에 한정된다는 의견이 13.2%를 차지하고 있다. 즉 업무이관과 관련하여 행정간소화 및 어업인 편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기존 업무 이외의 추가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과중과 신규 업무에 대한 업무지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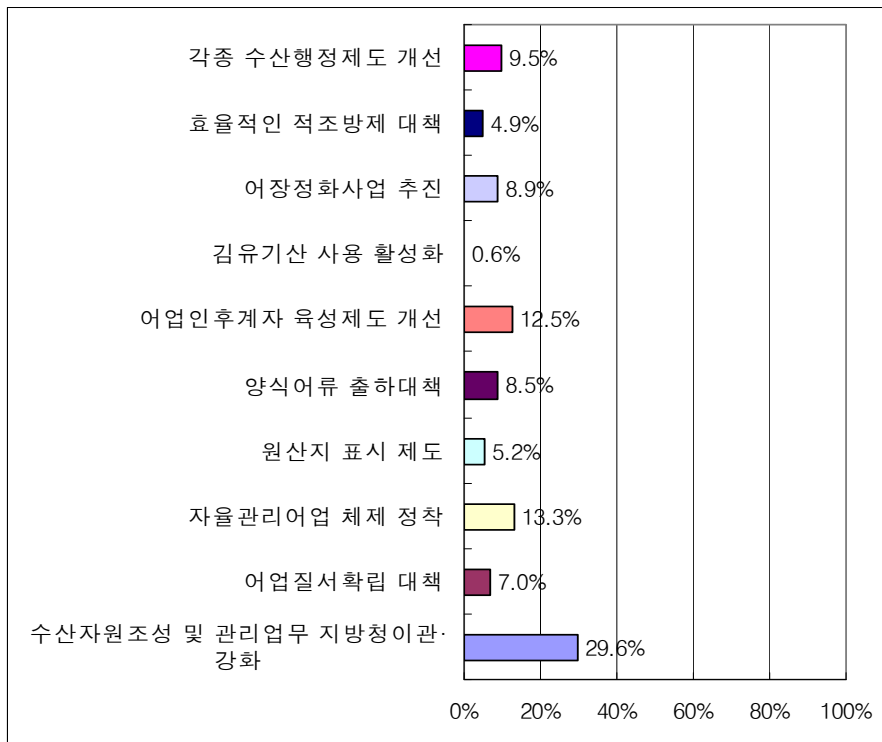


<그림 3-51> 해운·항만관련 민원업무 이관

다음으로 지도직 공무원의 수행 업무 중 지방청 해양수산분야 위상 및 역할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를 중요도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살펴보면, 수산자원조성 및 관리업무 지방청이관·강화(사업주체·내용, 사업비 배정 등)라는 의견이 29.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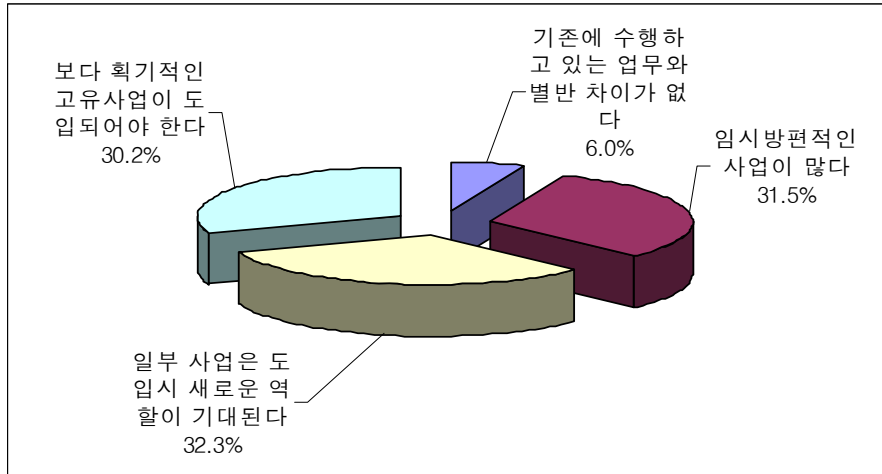
이와 함께 자율관리어업체제 정착이 13.3%, 어업인후계자 육성제도 개선(사업주체 일원화, 전국대회 체제 개선 등)이 12.5%, 각종 수산행정제도 개선(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 개선,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 어업권 이용실태 조사 등)이 9.5%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지도직 공무원들은 해양환경의 여건 및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자원의 조성에 대한 업무 및 자율관리어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52> 해양수산분야 위상 강화를 위한 주요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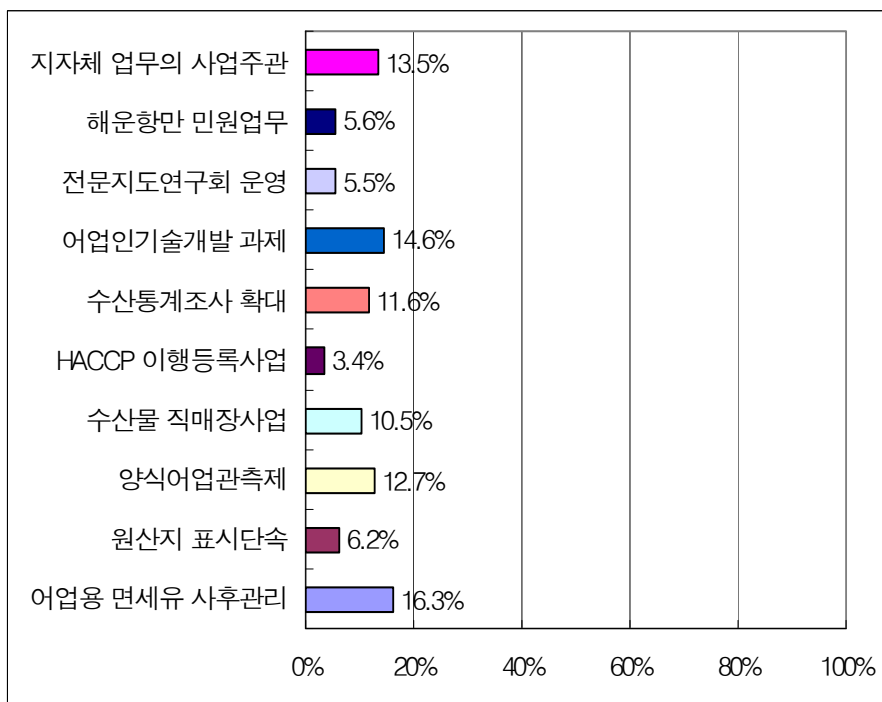
한편 현재 새로운 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직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부 사업은 도입시 새로운 역할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3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시방편적 사업이 많다는 의견 또한 3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53> 새로운 사업으로 검토되는 업무

즉, 지도직 공무원들은 현재 새로운 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는 업무가 모두 혁신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양이며 보다 획기적인 사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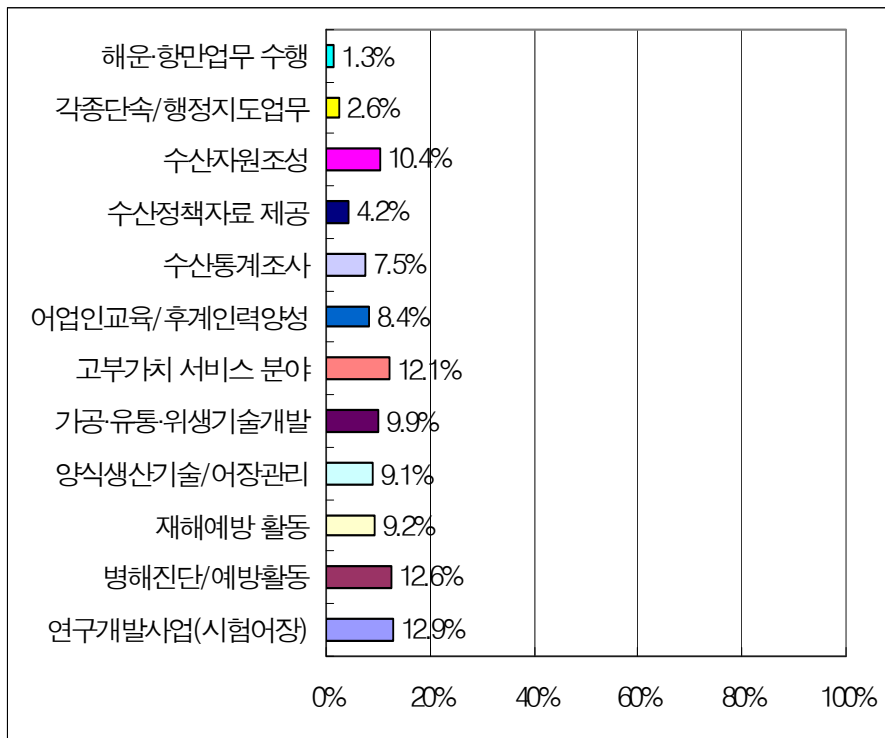
한편, 새롭게 검토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의 도입에 따라 성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것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어업용 면세유 사후관리 업무가 1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어업인기술개발과제(14.6%), 지자체 업무의 사업주관(13.5%), 양식어업 관측제(12.7%), 수산통계조사 확대(11.6%), 수산물 직매장 사업(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54> 신규도입 업무중 성과가 큰 대상

그리고 해양수산사무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시도직 공무원들은 시험어장을 통한 연구개발사업(12.9%)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병해진단 및 예방활동 업무(12.6%), 어촌관광·갯벌체험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분야(12.1%), 수산자원조성(10.4%),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유통·위생기술개발(9.9%) 등 5개 업무를 중요 업무로 평가하고 있다.

시도직 공무원의 평가결과를 종합해보면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병해진단 및 예방활동 등 해양수산사무소의 기본업무를 중요 업무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수산업환경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어촌관광 및 수산물의 가치제고를 위한 가공·유통·위생기술 등 부가가치 제고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55> 해양수산사무소 업무 중 중요성이 높은 업무

7. 설문결과 종합분석

수산기술보급 사업과 관련된 업무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표 3-3>과 같다.

<표 3-3> 설문조사 종합분석

구분	업무내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양식 기술 개발 보급 업무	연구·교습어장 운영 및 운영효과, 애로사항	· 양식기술전수에 도움을 주어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예산이 부족함 → 간접운영방식이나 대학 등과 연계방안 모색
	지역어촌특산물(상품)개발 및 지역특화시험사업	· 사업축소 내지는 타사업과의 통합방안 모색 →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형식적 지원체제 개선
	채묘어장 개발 및 채묘지도	· 자연채묘 어장개발 및 예보업무의 필요성은 인식 → 지역에 따른 주요품종 선별 및 인력과 지도장비 도입이 필요함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수행 수탁시험사업 수행	· 연구비 지원 및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습득의 기회가 됨 → 연구참여에 따른 업무과중 및 인력부족이 제약요인으로 업무개편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어업인 교육 및 정예 수산 전문 인력 육성	어촌순회기술교육 및 유관기관 합동교육	· 어촌순회 교육은 폐지 또는 통합하고 합동교육은 필요시 협조하도록 함 → 단순생산기술지도업무 등 수요가 미미한 교육은 폐지하고 정보화교육과 병행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함
	지역 연찬회 개최	· 수산기술보급 성과 및 어업인 홍보에 긍정적 기능의 성과가 높은 편임 → 활성화를 위해 지방청단위의 통합이나 관련단체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청소년 수산교실 운영	· 통합 또는 축소할 필요가 있음 → 수산홍보 등 운영성과에 긍정적 기능이 있으나 업무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교실 등과 통합하거나 교육횟수 및 내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어촌후계인력 육성	· 어업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함께 업무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어촌후계인력의 양성을 위해 자금 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와 이원화된 체계를 개선하여 해양수산사무소가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함

<표 3-3> 계속

구분	업무내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양식 어장 관리 및 병· 재해 예방 지도	고소득 및 양식기술 보편화 품종의 적기 기술지원	· 생산기술의 보편화에 따른 형식적 운영으로 폐지하여도 큰 무리가 없음 → 업무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형식적 운영에 대한 문제점 보완 및 품목별 특화방안의 마련이 요구됨
	연안정지 관측	· 주요양식어장 관측으로 전환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주요 양식어장 관측 및 필요시 관측하는 방안을 마련하도 록 함
	양식어장 예찰 및 평가	· 지역실정에 맞게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업무의 중요성이 있으므로 지역여건에 따라 실질적인 예 찰 및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범위 조절하거나 양식어업 관측제도와의 연계 방안 검토
	양식어장 환경개선 지도	· 현행 추진방식의 변경이 요망됨 → 해양환경의 개선이 전국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감 안할 때 해양수산부가 종합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것 이 효과적임
	적조예찰업무	· 과학적 수단을 통한 적조예찰업무의 추진이 필요함 → 해양수산사무소의 독자추진에는 인력이나 장비측면에서 한계점이 있으며 어업인 및 지자체와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함
	어병예찰 진단반 운영	· 어병예찰 진단반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킴 → 어류와 함께 패류, 갑각류 등도 예찰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의 검토와 함께 어업인의 무분별한 약제 남용에 대 한 교육이 필요함
	패류독소 어장예찰 및 재해예방 독려반 편성	· 지역실정에 맞게 재편성할 필요성이 있음 → 연중 운영보다는 지역여건 및 시기에 따른 탄력적 운영방 안의 마련이 요구됨
	마을어업 이용관리지도 및 어업질서확립대책 추진	· 형식적 지도에 머무르는 경향이 많음 → 업무자체는 어느 정도 중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자율관리 어업추진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함
	자율관리어업 추진	· 실현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 해양수산사무소의 총괄적 추진보다는 실현 가능한 사업중 심의 개편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연계 방안을 마련 하도록 함

<표 3-3> 계속

구분	업무내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수산 기술 홍보 및 관리 기반 조성	수산소식지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청 단위의 통합발간이 요구됨 → 수산정보의 제공 등 소식지의 필요성은 높지만 업무과중 방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청 단위 발간 혹은 해양소식지와 통합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함
	어업인 상담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인 상담실의 운영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일지작성 등 형식적 절차의 개선으로 실질적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상담실 공간을 탄력적으로 마련하도록 검토함
	기술지도선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도선의 필요성과 함께 신조 및 대형화도 필요함 → 정부예산의 합리적 집행을 고려하여 지도선의 건조는 지역실정에 맞게 보급하거나 타 선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
	기술지도장비 확보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장비의 활용도가 높으므로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편임 → 활용도가 높은 장비를 중심으로 확충하며 수리 및 보수체계의 정비와 함께 장비의 운영 및 수급방식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선진지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연수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높음 → 일회성행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확보와 대상 프로그램의 성격이나 방문지역에 따라 차별성을 부여하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됨
	명예 어촌지도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 어촌지도자 운영업무의 경우 운영방식에 대한 변경이 필요함 → 수산정책자문위원과 병행시키는 방안의 검토와 함께 명예 어촌지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생산통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업무의 확대 및 예산확보가 필요함 → 어업생산통계가 차지하는 업무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인원의 추가 및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생산통계 조사방법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회 방문조사방식에서의 전환이 요구됨 → 조사방법의 변경으로 방문조사방식이 보다 효과적이며 지속적인 통계자료의 확보를 위해서는 월 1회 이상의 조사가 요구됨

<표 3-3> 계속

구분	업무내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어촌 정보화 인프라 구축 운영 및 어업 경영 관리 지도	원격영상 정보화 교육 인프라 구축운영	·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못되고 어업인 동원에 어려움이 있음 → 어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의 구성과 교육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함
	어업인 정보화 교육 훈련	· 교육효과가 낮아 재검토가 요구됨 → 교육내용에 대한 조정 및 어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함
	어촌정보사랑방 운영	· 어촌계의 활용능력이 저조하여 실효성이 적음 → 어촌정보화정책 상 필요성이 높으므로 교육프로그램의 개선과 함께 실질적 도움이 되는 운영체제의 정비방안을 검토해야 함
	수산양식업 표준소득 조사	· 생산통계조사와 병행할 필요성이 있음 → 조사업무 자체에 대한 필요성이 높으나 지도직 공무원의 업무가중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유관업무와의 연계방안을 검토해야 함
	시장유통정보제공 및 경영일지 기록지도	· 경영일지 기록저조 및 각종 정보수단 발달로 폐지해도 무리가 없음 → 시장유통정보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업무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며 수산업과 관련된 정보화와 연계시켜 유통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수산기술보급사업의 업무분석내용을 살펴보면 업무의 성격상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업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업무의 경우 형식적 운영에 치우쳐 실질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거나 유사업무와의 통합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며 신규업무의 과중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인원의 확보와 예산의 지원방안 또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새로운 해양수산사업의 업무내용에 대한 평가를 종합해보면 우선 해운·항만 관련 민원사무 26개 업무의 이관으로 행정간소화 및 어업인 편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수산고유 업무 이외의 사업으로 업무 과중이 예상된다는 의견과 전문지식 부족에 따른 단순 업무 수행에 한정된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신규도입 업무중 성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업무는 어업용 면세유 사후관리 업무, 어업인 기술개발과제, 지자체 업무의 사업주관, 양식어업 관측제, 수산통계조사 확대, 수산물 직매장 사업 등 5개 업무로 평가되었다. 또한 수산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업무로는 시험어장을 통한 연구개발사업, 병해진단 및 예방활동 업무, 어촌관광·갯벌체험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분야, 수산자원조성,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유통·위생기술개발 등을 중요 업무로 평가하고 있다.

제3절 면담조사 결과분석

우편 설문조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4년 5월 6일부터 24일까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3-4>는 동·서·남해에 위치한 12개 해양수산사무소와 수산관리과를 직접 방문하여 면담조사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어촌직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분야는 업무분야와 인사·조직분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사무소의 업무와 관련된 의견은 구체적이고 고유한 업무설정, 전문성을 고려한 수산행정과 지도업무의 분리,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 수행, 권한과 책임을 수반한 수산행정 업무의 수용, 명확한 업무 근거 법령의 마련, 지방자치단체와 수산행정 업무의 차별화, 정보화 관련 업무의 전산담당으로 이양, 어촌순회교육의 개선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의 폐지 등이다. 업무분야에 대한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수산사무소의 업무는 장기적 목표를 기초로 한 법령을 근거로 구체적인 업무를 설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둘째, 수산여건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도사업을 도입함과 동시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도사업을 수행하여 어촌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셋째, 수산행정업무와 지도업무를 수산관리소에서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 수산업무와 지도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업무의 독립을 지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산행정업무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업무의 조정을 기대하고 있다.

인사·조직과 관련된 의견은 인사적체 해소, 인원증원, 직렬전환, 업무평가 시정, 지역 특성에 맞는 지도사 임용 및 배치, 임시 통계요원의 정규직화와 조직체계 보완 등이다. 인사·조직 분야에 대한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일 호봉제에서 5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적으므로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업무 증가에 따른 인원부족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의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둘째, 새로운 수산행정업무의 추가로 해양수산부의 어업자원국과 수산정책국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가 점점 증가되기 때문에 수산행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도업무의 수행을 통해 어촌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지역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어촌지도직의 임용과 배치를 기대하고 있다.

업무분야와 인사·조직분야 외에 어촌지도직 공무원들은 조직평가 요소의 재조정과 최신장비의 확보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표 3-4> 면담조사 결과

면담대상 면담내용	부산청 수산 관리과	마산청 사천 사무소	마산청 청남 사무소	목포청 수산 관리과	목포청 해남 사무소	목포청 완도 사무소	대산청 수산 관리과	군산청 수산 관리과	제주청 수산 관리과	여수청 수산 관리과	포항청 수산 관리과	동해청 수산 관리과
구체적 고유 업무설정	○	○		○			○			○		○
수산행정과 지도 분리				○								
지역특성 반영사업 수행				○			○			○		
새로운 지도사업 도입					○	○	○			○		
수산행정업무의 선별적 수용						○						
명확한 업무 근거 법령								○				
수산통계 업무확대									○			
수산행정업무 지자체와 차별화										○		
정보화 업무개선 및 전산직으로 이관											○	○
어촌순회 교육개선											○	○
예산 수반없는 사업폐지												○
인사적체해소	○								○			
인원증원		○			○	○						○
직렬전환			○									
업무평가 시정					○							
지역 특성에 맞는 지도사 임용 및 배치							○			○		
월액여비 현실화									○			○
임시 통계요원의 정규직											○	○
조직체계보완					○	○		○				
최신장비 확보									○			

제 4 장 새로운 해양수산사무소 사업의 도입방안

1. 수산업과 어촌여건의 변화
2. 새로운 업무의 도입방안

제 4 장 새로운 해양수산사무소 사업의 도입방안

제1절 수산업과 어촌여건의 변화

1. 국제수산업 여건 변화

가. 새로운 어업질서의 도래³⁾

UN해양법 협약이 1994년에 발효됨에 따라 동북아시아 3국인 한국, 중국과 일본은 1996년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여 우리나라의 원양어업과 근해어업의 어장이 축소되었다. 즉, 세계 주요어장의 90%가 연안국의 관할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은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이 허용한 어획량만 어획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과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근해어업 조업구역이 축소되어 어업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1982년 12월에 마련된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이 2001년 12월 11일에 최종 발효됨에 따라 원양어업의 조업구역 축소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동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공해어장에서 실질적인 '어장주인'이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지역수산기구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는 조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공해상의 어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어업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역어업기구(Regional Fisheries Organization)가 공해어업자원(경계왕래어족 혹은 고도회유성어족)을 관리하도록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세계 각 수역에서는 기존 지역수산기구 이외에도 새로운 기구가 다수 설립되어 해당지역 어업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양적인 확대만이 아니라 관리의 실효성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금어기·금어구역 등 지역수산기구에 의해 채택되는 어업관리수단도 크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수산기구는 특히 관할수역에서 조업 중인 소속국가를 회원국으로 가입시켜 어업관리규범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업관리수단의 준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 어업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무역규제 조치를 통해 비회원국 어선이 어획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비회원국 어선의 조업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수산기구의 어업관리 권한은 향후 더욱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제어장에서의 안정적인 조업권 확보가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안정적인 조업권 확보를 위하여 지역수산기구의 어업정책 변화를 주시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3) 김도훈, "지역수산기구의 어업정책 변화와 전망", 「월간 해양수산 2004. 2월호」, 2004.

나. 시장화 개방화의 급속한 진전4)

(1) APEC의 무역조기 자유화

1998년 2월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개최된 수산분야 전문가회의에서 수산물 관련제품의 관세를 2005년말까지 무관세화하고, 보조금과 위생 및 검역조치(SPS) 등 비관세조치도 2007년말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1998년 11월에 개최된 APEC의 분야별 조기 자유화 협상 (EVSL)에서 한국 정부는 수산물, 임산물을 수출국 수준, 즉 수산물 82%, 임산물 87%개방을 선언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내 수산물 시장의 타격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OECD

OECD 수산위원회는 1995년 10월 “책임있는 어업규범(The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을 채택하여 각국의 수용을 권고하였으며, 1997년부터 2년에 걸쳐 “책임있는 어업의 전환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어업자원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어업생산이 많은 나라들이 잠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책임을 지면서 생산해야 한다는 책임있는 어업규범이 채택됨에 따라 기존의 어법을 변경하거나 어업규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책임있는 어업”은 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앞으로 OECD 국가들 간에 맺어질 협정에 대한 하나의 방향제시이므로 우리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3) WTO/DDA

1995년 1월에 종전의 GATT를 승계한 세계무역기구(WTO)는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각료회의에서 수산업을 계속적으로 정부의 보호아래 둘 수 없도록 한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이하 DDA)를 채택하였다. DDA는 선언에 불과하여 수산업에 대한 개방화·자유화 정도는 향후 실무 협상에 의해 좌우되겠지만 어쨌든 피해 갈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DDA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산업과 관련된 주요 논제는 규범협상분야와 그리고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에 관한 사항이다. 규범협상은 무역과 환경분야에서 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무역자유화를 왜곡시키는 수산보조금의 철폐 및 감축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부문 협상그룹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SCM의 철폐와 수산보조금에 대한 접근 방법을 여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다루느냐(general approach) 아니면 별도로 다루느냐 (sectoral approach) 하는 것이다. 한편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의 협상은 관세·비관세 장벽의 제거 또는 완화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제는 각 국이 처한 입장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향후 협상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수산보조금의 허용여부를 다루는 규범협상의 경우 수산물 수출국가인 FFG(Fish Friend Group)와 대표적인 수입국가라 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FFG는 수산보조금은 무역왜

4) 한광석, “수산업 교역환경의 변화와 전망”, 「월간 해양수산 2004. 2월호」, 2004.

곡과 수산자원의 고갈을 야기하므로 유해한 수산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한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수산보조금이 무역을 왜곡하거나 자원을 고갈시킨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현행 체제대로 제조업, 임업 등 기타산업의 보조금과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차이는 2003년 9월 10일부터 5일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재확인되었다(<표 4-1> 참조). 이 회의에서 FFG는 기초연설시 수산보조금의 규제강화성의 필요성을 내세우면서 당초 초안의 수산보조금에 관한 내용을 강화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강력한 반발로 인하여 초안문안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당초 "Other issue"로 분류되었던 수산보조금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수산물관세와 관련하여 당초 수산물을 무세화대상으로 지목한 Girard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그룹 의장의 초안이 협상의 기초(basis)가 아닌 참조(reference)로 격하되고, 무세화 및 관세조화 대상품목을 추후 결정기로 함에 따라 일단 수산물을 무세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요구한 관세인하공식 적용시 민감품목의 신축성 부여는 반영되지 않았다.

WTO의 DDA는 향후 회원국간의 협상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인 토대인 수산보조금의 철폐 내지는 감축,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 내지 철폐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 수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수산보조금이 금지될 경우 어업비용이 상승하여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관세 비관세 장벽이 완화될 경우 외국산수산물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산업도 대외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결과를 찾도록 해야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개방화 시대를 대비하여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 제5차 WTO 각료회의 내용

일시 및 장소	2003. 9. 10 ~ 14, 멕시코 칸쿤
참석자	WTO 148개국 통상장관, Observers, 국제기구 등
회의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DA 협상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평가 ○ 향후 협상진행에 필요한 정치적 지침 부여 및 필요시 관련결정 채택
회의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함 ○ 각료선언문(Ministerial Text) 대신 각료성명서(Ministerial Statement)를 채택 ○ 차기회의는 홍콩에서 개최
수산부문 협상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범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FG 그룹은 수산보조금 규제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한국, 일본 등이 강력반발 Ministerial Text 초안 “이슈과악단계에서 해결방법 모색단계로 전환”을 변경하지 않음 - 반덤핑, 보조금, 수산보조금 등 “규범” 협상분야는 서비스, 환경, 지적재산권 등과 함께 각료회의 기간 중 “Other issue”로 논의됨 - 의장은 수산보조금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 ○ 수산물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을 무세화 대상으로 지목한 Girard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그룹 의장 초안이 협상의 기초(basis)가 아닌 참조(reference)로 격하 - 무세화 및 관세조화 대상품목을 추후 결정기로 함에 따라 수산물을 무세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 관세인하공식 적용시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 부여는 미반영

자료: 한광석, “수산업 교역환경의 변화와 전망”, 「월간 해양수산 2004. 2월호」, 2004.

(4)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

FTA(Free Trade Agreement)는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 역내 회원국간의 관세 및 기타 제한적 통상규제를 완화 내지는 철폐하여 회원국간의 무역자유화를 추구함으로써 상호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국가간 협정을 말한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220개의 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WTO에 보고되고 있으며, 이중 172개가 실제로 체결,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2월 16일 한·칠레 FTA 협정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본격적인 FTA체제로 접어들었다. 한·칠레 FTA는 1998년 11월에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키로 공식화한 이후 2002년 10월 한·칠레 FTA협정이 타결된 이후 1년 4개월만에 국회에서 비준을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본, 중국, 싱가포르, 멕시코, 미국간의 FTA의 체결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각 국가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수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이와 함께 일본, 싱가포르, 멕시코, 아세안 국가와 FTA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상당부분 진전되었으며, 싱가포르, 아세안 국가들은 지난해 APEC + 3 정상회담을 계기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FTA가 모두 성사되면 우리나라 수산업은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세안 국가의 경우 수산물 생산량이 전세계 생산량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수산자원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에서 우리보다 우위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수산업 정책이 지금까지의 가격지지정책만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FTA가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라면 각 국과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 수산업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FTA체제에 걸 맞는 새로운 수산업 패러다임을 마련하고 제도개편 및 경쟁력 있는 수산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표 4-2> 한국과 기타국과의 FTA 추진현황과 파급효과

대상국	추진상황	파급효과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98.11. 민간차원 공동연구 시행 합의 ○'02.7. 최종보고서 채택 ○'03.10. 협상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인하로 인한 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증가 > 수입증가 - 활돔, 활농어 등 고가 어종 수입이 증가 전망 ○ 일본 수입제한 완화 또는 철폐되는 경우 김, 방어, 고등어, 전갱이 수출 증가 예상 ○ 일본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승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02.11 공동연구회 발족 ○'03.10 협상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교역량이 많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 ○ 가공무역 또는 중계무역을 통한 제 3국 수산물 유입가능성 대두
멕시코	'02.7 양국경제공동위에서 타당성 검토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수산물 중심으로 수입증가 예상 ○ 멕시코를 기반으로 NAFTA 지역에 수산물 수출 증대 예상
아세안 (10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97년 이후 ASEAN측 지속적으로 FTA 체결 희망 ○'03.11 협의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새우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급증 예상 ○ 아세안 국가 싼 노동력으로 가격경쟁력 우위

자료: 한광석, "수산업 교역환경의 변화와 전망", 「월간 해양수산 2004. 2월호」, 2004.

다. 수산물 위생안전관리제도 강화동향과 전망

WTO 뉴라운드 전개로 국가 간 수산물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점차 수산물의 식품 안전성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수산물의 수출경쟁력 확보와 자국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위생관리제도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들어와 미국, EU, 일본 등이 잇따라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자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수산물을 통관시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아세안 국가, 중국 등 수산물 수출국가도 위생검사를 강화시키는 등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국의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표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것은 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제(HACCP)와 생산이력시스템(Traceability System)이다. HACCP은 이미 오래 전부터 미국, 일본, EU 등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미 자국으로 들어오는 일부 수산물에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생산이력시스템은 최근 들어 HACCP의 보완장치로 도입되고 있다. EU는 2003년 9월 식품안전 및 생산이력 추적시스템을 전담하는 비영리단체 ESSTO(The European Seafood Safety and Traceability Organization)를 설립하고 2005년부터 이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였으며, 일본은 이미 양식 굴 등 7개 식품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에 이 제도를 도입·촉진시키기 위하여 3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한편 수산물 안전성문제는 향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WTO체제하에서는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Agreement)협정⁵⁾이 별도로 체결되어 있어, 위원회가 연간 3~4차례 열리고 있어 이러한 안전관리체제가 무역장벽으로 등장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은 자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앞 다퉈 수산물 위생안전관리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표 4-3> 주요 국가의 수산물 위생 안전관리 정책 동향(2003년)

국가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정책(2003년)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7월 식품위생법 개정. 필요시 특정국에서 생산 제조된 수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하지 않고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음 ○ 2003년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식품안전위원회 설치 ○ 중국산 및 대만산 장어에 대한 항생제 물질 검사 강화 ○ 2004년 중소수산가공업자에 대한 HACCP 도입 촉진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식품안전 보안관련 예산 9,600만달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검사요원 655명으로 증대, 검사요원이 주재하는 항만 수를 40개소 90개소로 증가시킴 ○ 2003년 FDA의 검역 강화로 수산물 통관거부 급증 (5월까지 전년대비 48% 증가) ○ 2003년 8월 FDA 수산물 항생물질 잔류검사를 엄격히 하기 위해 새로운 표본조사 방안 도입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에 대한 항생물질 안전기준 및 검사제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산 장어, 동남아시아 산 새우에 대하여 잇따라 통관금지 조치 실시 ○ 식품안전 및 생산이력시스템을 전담하는 비영리단체 ESSTO 설립 (2003.9) ○ 주요 수입국가에 대한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실사와 컨설팅 실시
중국 및 아세안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양식어장의 안전관리를 새로운 규제 입법화(2003.9) ○ 태국 푸켓지역 어항관리당국, 수산물의 화학첨가물 검사제도 실시 (2003. 10) ○ 파키스탄, 인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 EU와 미국의 잇따른 통관거부로 수산물에 대한 자체 검사 강화(2003)

자료 : 한광석, “수산업 교역환경의 변화와 전망”, 「월간 해양수산 2004. 2월호」, 2004.

5) GATT의 일반적인 예외규정의 하나로서,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국경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조치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WTO의 DDA 협상과 FTA 협상에 따라 시장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외국수산물과의 무한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수산물의 위생·안전관리 체계 강화는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출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외국 수산물 안전관리제도 동향을 긴밀히 파악함과 동시에 국내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국내 수산업 여건 변화

가. 자원감소로 인한 생산감소

2002년 국내 수산물 총생산량은 2,476천 톤으로 1980년 대비 2.7% 증가하였지만, 전년 대비 7.1% 감소하였다. 이는 생산수준이 가장 높았던 1994년에 비해 28.8% 감소한 결과로 1990년 중반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90년 대비 28.3% 감소한 1,105천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44.6%를 차지하고 있고, 천해양식어업의 경우 전체의 31.2%인 773천톤으로 90년대 중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2002년도에는 다시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원양어업 생산량은 1990년대 초 1,000천톤 규모에서 2002년에 전체의 23.4%인 580천여 톤이 생산되어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내수면어업 생산량도 18천여톤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4> 어업별 생산량

(단위: 천M/T)

연 도	일반해면어업	천해양식어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계
1980	1,372	541	458	39	2,410
1990	1,542	773	925	35	3,275
1995	1,425	997	897	29	3,348
1996	1,624	875	715	30	3,244
1997	1,367	1,015	830	32	3,244
1998	1,308	777	722	27	2,834
1999	1,336	765	791	18	2,910
2000	1,189	653	651	21	2,514
2001	1,252	656	739	18	2,665
2002	1,105	773	580	18	2,476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2003) 및 수산행정기본자료(2002)

어류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반면에 패류 및 해조류는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류의 경우 1990년 1,888천톤의 생산량에서 2001년에는 1,467천톤으로 22.3%의 대폭적인 감소가 있었는데 반해 패류는 동기대비 12.2% 감소, 해조류는 12.2%의 감소를 보여 전체 수산물 감소율인 18.6%에 비해 감소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조류의 경우 생산량이 최고에 달했던 1990년대 중반에 비해 2001년에는 40%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표 4-5> 품목별 생산량

(단위: 천M/T)

연도	어류	패류	해조류	기타	계
1990	1,888	784	442	161	3,275
1995	1,695	827	671	155	3,348
1996	1,696	841	562	145	3,244
1997	1,550	877	671	146	3,244
1998	1,578	632	482	142	2,834
1999	1,403	887	486	134	2,910
2000	1,280	728	388	118	2,514
2001	1,467	697	388	113	2,665
2002	1,360	521	508	87	2,476

주 : 패류에는 연체동물이 포함, 기타는 갑각류와 기타수산물의 합계임.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행정기본자료, 2002.

이러한 수산물 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는 자급률의 하락을 재촉하고 있다. 그 동안 수산물 자급률은 1980년 138%, 1990년 127%, 2001년 82%로 계속 하락하여 왔다.

<표 4-6> 수산물 자급률 변화

구분	1970	1980	1990	2001
수산물생산(천톤)	935	2,410	3,275	2,665
국내소비량(천톤)	776	1,746	2,583	3,260
자급률(%)	120	138	127	82

나. 수산물 소비에 대한 꾸준한 증가

수산물도 비브리오, 패독 등 계절적인 위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납꽃게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 중 건강 및 안전지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안전한 식품에 대한 선호 추세는 세계적인 것으로 각종 국제박람회도 건강과 기능성을 강화한 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표 4-7> 1인당 수산물 소비량 및 단백질 섭취량

년도	1인당 수산물 소비량(kg)	1인 1일당 단백질섭취량(g)				
		육류	수산물	식물성	소계	
1970	17.30	4.40 (5.95)	7.70 (10.42)	61.80 (83.63)	73.90 (100.00)	
1980	27.00	9.49 (12.89)	10.66 (14.48)	53.46 (72.63)	73.61 (100.00)	
1990	36.20	17.25 (19.33)	15.88 (17.79)	56.12 (62.88)	89.25 (100.00)	
1995	45.10	22.87 (23.60)	16.41 (16.93)	57.62 (59.46)	96.90 (100.00)	
2000	36.80	26.27 (27.20)	14.92 (15.45)	55.39 (57.35)	96.58 (100.00)	
2001	42.90	27.54 (28.14)	17.67 (18.05)	52.66 (53.81)	97.87 (100.00)	
연평균 증가율	'70~'01 '90~'01	2.97 1.56	6.09 4.34	2.72 0.98	-0.51 -0.58	0.91 0.84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부문 총량모형 구축을 위한 기반연구」, 2002.

이와 함께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건강식품으로 인식된 수산물의 소비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특히 수산물은 항암물질을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EPA(eicosapentaenoic acid), 머리가 좋아지는 DHA(docosahexaenoic acid) 성분을 다량 함유한 고단백·저칼로리 식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건강식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산물을 통한 단백질 섭취량도 증가하고 있는데, 1970년도 수산물을 통한 1인 1일당 단백질 섭취량은 7.7g으로 전체 단백질 섭취량에 10.42%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도에 약 17.67g의 단백질을 섭취하여 전체 단백질 18.5%를 수산물을 통해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수산물에 대한 영양학적 인식이 점차 높아지면서 수산물을 통한 단백질 섭취량도 증가하고 있다.

3. 어촌을 둘러싼 여건 변화

가. 어촌경제의 낙후성

어가소득의 정체 및 정주여건의 악화로 어촌의 자생력과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어왔다. 어촌의 생산성 저하와 정주환경의 악화는 어가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를 가속화시켰다.

어가인구는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0년 496천명에서 2001년 234천명으로 53% 감소하였다. 그리고 어가소득의 증가폭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1991년 11,309천원에서 2001년 22,252천원으로 96.7% 증가율을 보였으나, 같은 기간의 도시근로자 소득은 126.6% 증가하였다.

2001년 어가소득은 농가소득의 93.1%, 도시근로자소득의 70.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더욱이 가구당 어가부채는 '90년 5,925천원에서 2001년 15,466천원으로 2.6배가 증가하여 어가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

<표 4-8> 어가소득 추이

(단위: 천원)

구 분	1991	1995	1998	1999	2000	2001	증감(2001/2000)	
							금액	%
어가소득	11,309 (12.8)	18,780 (9.8)	16,794 (-17.4)	18,428 (9.7)	18,875 (2.4)	22,252 (17.9)	3,376 (-)	17.9 (-)
어업소득	5,285	9,437	9,254	10,323	10,078	11,087	1,009	10.0
어업외소득	3,776	6,075	5,201	4,882	5,313	6,504	1,191	22.4
이전수입	2,248	3,268	2,339	3,23	3,484	4,661	1,177	33.8

주 : ()는 전년비임

나. 어촌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여건 변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촌이라는 단어로부터 '생선을 잡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떠올린다. 그리고 어업인 중에도 부족한 생활기반과 도시민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으로 어촌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어촌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다. 이와 같이 과거와 현재의 상황만을 고려하면 어촌은 정말 매력이 없는 지역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최근 들어와 어촌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여 어촌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어 보다 높은 욕구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어촌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욕구의 종류와 수준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무형 상품의 창출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서 바다를 끼고 있는 어촌이 그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어촌 관광자원에 대한 수요는 어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어촌 관광자원을 이용한 유·무형 관광상품 개발을 통하여 도시민이 어촌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하여 어촌에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에게 생활공간의 재정립과 소득원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어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변화를 약속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민 관광욕구의 증가로 인한 어촌의 기회 증대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소득은 증가하지만 틀에 박힌 도시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생활로부터 일탈의 욕구가 커짐에 따라 자연과의 접촉을 중시하는 자연지향성이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어촌은 다양한 생태자원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민이 여가를 보내는 장소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의 장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욕구수준은 단계적으로 상승한다고 하는 욕구 단계설에 비추어 보면 더욱 뚜렷하다. 어촌의 주거환경과 관련한 욕구는 기초적인 생활환경에 관한 정비욕구에서 시작하여 편리성을 추구하는 욕구의 단계를 거쳐 쾌적하고 문화적인 욕구충족을 추구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이며, 도시인의 욕구도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생리적 욕구와 소속감의 욕구가 충족되면 궁극적으로 자아실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생활에 있어서 경제적 풍요로움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문화적인 풍요로움이 인간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때문이다.

향후 국민의 의식과 가치관이 더욱 다양화되고 개성화되어 소비자가 유·무형의 상품을 선택할 때 상품의 기능만 아니라 상품의 색채와 디자인 등 감성을 자극하는 요인도 상품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이 고차적 욕구인 자아실현의 욕구와 창조성을 지향함에 따라 여가활동에 있어서 '자신이 만든 기쁨을 충족시키는 여가'에 대한 욕구도 커질 것이다. 이와 같은 소비자의 의식변화에 따른 다양한 유·무형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진 어촌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지역으로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2) 고도의 정보화 시대의 도래를 통한 도시와 교류 증대가능성 대두

급속한 정보화로 정보 수요자들간의 정보의 불균형이 줄어들고 정보 접근시간과 거리의 제약이 감소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정보공급과 수요에 있어서 전달거리나 지리적 이동에 따른 제약이 극복되게 되며, 이에 따라 거주지, 직장, 의료시설과 교육시설에 대한 선택 대상이 다양해지고 정보혜택의 지역간 격차는 점차 해소될 것이다. 정보화에 의하여 어촌의 정주환경 조건이 도시와 격차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도시가 가지지 않은 자연과 문화의 풍요로움 등을 지닌 어촌은 거주지 또는 도시인의 방문지로서 도시인에게 매력적인 대상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정보화는 인간은 물론이고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정보화의 체계와 수준은 미래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또한 정보화는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보화를 통한 어촌지역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뉴 미디어·커뮤니티 구상의 추진, 지역에 있어서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정보관련 기술자 등 인재의 육성에 의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산업활동의 형성·발전을 위한 정보화 기반정비가 필요하다. 다행히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도의 정보화 시대의 도래는 어촌지역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크게 열어 놓고 있다.

(3) 지속 가능한 개발의 추진

1987년 유엔 주도하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필요성이 언급된 이후 이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발을 의미하므로 아무 것도 해서는 안 된다거나 변화를 무한정 인정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속 가능한 개발은 자원을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창조적인 방식의 도출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따라 각 국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순환형 자원이용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국토를 차세대와 공유하는 자산으로 계승하기 위한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어촌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중요한 대상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도시와 상이한 생활환경의 질, 자연과 문화의 풍요로움 등 다면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어촌을 지속 가능하게 개발함은 현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쾌적함과 풍요로움을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촌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의 대상으로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4) 어촌의 역할에 대한 관심 증대

최근 들어 도시민들에게 어촌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도시에서 찾기 힘든 자연환경과 귀중한 전통·문화를 어촌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설과 의료시설 등 각종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하여 도시에 비교하여 낙후된 생활공간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최근 지식기반 정보화로 다양한 교육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어촌은 좋은 생활공간으로서 역할을 함과 동시에 도시인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욕구충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노동시간의 감소, 인간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으로 여가활동을 중시함에 따라 도시인이 도시 밖에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상을 어촌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민들이 어촌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향후 어촌에서 1차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2차 산업과 3차산업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어촌에서 산업의 다원화현상은 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여 어촌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이와 같이 정보화와 신기술 등에 의한 개선된 생활환경과 쾌적하고 풍요로운 자연환경, 문화와 역사를 지닌 어촌은 양호한 생활공간의 역할을 할 것이며 점차 도시민들에 의해 관심이 증대될 것임에 틀림없다.

제2절 새로운 업무의 도입방안

1. 필요성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다윈의 진화법칙은 생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조직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에 조직의 성과는 점점 낮아져 소멸할 수도 있다.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 변화를 극복하거나 적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최고 경영자는 끊임없이 연구개발에 투자한다. 왜냐하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에 기업은 파산으로 접어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조직의 책임자는 조직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조직의 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체계, 조직 구성원, 조직의 목표, 조직의 전략 등을 적절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직의 책임자는 환경 변화의 대부분은 미미하지만 징후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가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치기 전에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해양수산부의 조직 중에 해양수산사무소는 어업인과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많은 조직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어촌지도조직인 해양수산사무소는 어촌이 직면하는 환경변화를 인지하여 어업인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경우에 조직의 효율성은 커질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수산업과 어촌은 대외적으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이러한 변화가 수산업과 어촌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악화시켜 1차 산업인 수산업의 성장은커녕 유지조차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수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악화는 어업인의 소득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소득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어촌경제를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앞의 어촌지도관리 업무의 변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3년 국립수산과학원의 지도과 업무내용은 ①수산에 관한 기술 보급 ② 어촌청소년, 부녀자 지도를 위한 조직 육성 ③ 협동조합의 육성 ④ 어촌부업지도 ⑤ 자연자원 보존·이용 ⑥ 홍보교양 ⑦ 어촌지도자 육성 및 훈련 ⑧ 수산기술자 양성과 수산관계공무원 훈련 등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업무의 근간은 1990년대까지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와서 1990년대 이후 급격한 대내외 수산환경 변화로 인하여 자원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총허용어획량(TAC)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어업생산통계 조사 등을 새로운 업무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수산업과 어촌의 환경변화에 어업인이 대응할 수 있는 지도업무의 도입이 부족한 편이다.

즉 일본의 농림수산성은 농어업 중심정책에서 농어촌 활성화 및 안심·안전 식품제공을 중요한 정책으로 포함시켜 농어업과 농어촌을 정책의 중심 축에 둬고 동시에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사무소의 업무 내용은 생산분야에 거의 집중되어 있어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수산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어촌지도직 공무원이 다양한 바다와 어촌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어업인에게 지도하고, 또한 수산물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수산물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지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업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업무의 중요도 평가

<표 4-9>는 어촌지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평가에 대한 설문문항 중에 해양수산사무소의 업무 중요도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즉 양식기술개발업무, 양식어장 관리 및 예방업무, 어업인 교육업무, 정보화 교육업무, 수산기술 홍보 및 관리기반 조성업무와 최근에 도입한 업무 등을 구성하는 세부 업무에 대한 어촌지도직 공무원이 생각하는 중요도를 나타낸 표이다.⁶⁾ 중요도가 “상”으로 표시된 세부 업무는 해양수산사무소의 중요업무로서 계속 수행되어야 할 업무로 분류할 수 있지만, “하”로 표시된 세부 업무는 수산과 어촌여건의 변화에 따른 해양수산사무소의 새로운 업무 도입시 인원의 증가를 수반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통합 또는 폐지하여야 할 대상에 포함되는 업무이다.

그러나 대면조사보다 응답자의 심층조사가 어려운 우편조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중요도가 “상”으로 평가된 업무는 무조건 수행되어야 할 업무이고, “하”로 평가된 업무는 폐지하여야 할 업무라고 단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중요도 평가결과는 해양수산사무소 업무조정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해양수산사무소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업무 조정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식기술개발업무는 예산을 수반하는 지역특화사업 중심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이 수반되는 수탁사업 수행의 중요도가 “상”으로 평가됨과 동시에 자체 사업인 지역특화시험사업이 “中上”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을 살린 지역특화시험사업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자긍심과 지역 사랑의 마음을 토대로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양식어장 관리 및 예방업무는 양식어업 경영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어병과 적조 등에 대한 예찰업무는 강화하고, 동시에 어업인의 의식변화를 통하여 성공할 수 있는 자율관리어업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역할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어업질서확립대책과 관련된 업무는 사법권이 있는 해양경찰서가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안정지관측은 국립수산물과학원이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셋째, 어업인 교육 업무 중 어촌후계인력 육성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는 교육을 담당하는 해양수산사무소가 통합관리하고, 어업인의 발상의 전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연찬회는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촌 미래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6) 세부업무의 통합 또는 폐지에 대한 빈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후, 평균 ±표준편차의 범위 한에 해당하는 세부업무는 중(중상과 중하)으로 평가하고, 평균+표준편차보다 큰 값을 가지는 하으로 평가하고, 평균-표준편차보다 작은 세부항목은 상으로 평가하였다.

기를 수 있는 선진지 견학을 하게 함으로써 어업인이 어촌지역의 혁신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어업인 교육은 자체 강사보다 각 분야의 외부 강사를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어촌지역의 혁신은 수산 관련 시설 투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어업인이 비전을 갖고 무엇을 해야하는 지를 인식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넷째, 어촌과 도시의 정보격차 해소는 어촌지역 혁신과 국토균형발전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어업인 정보화 교육은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촌지도직 공무원이 직접 정보화 교육을 하기 보다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원격영상 정보화 교육 인프라 구축은 정보화 담당관실이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식적인 경영일지 기록지도보다 수산양식업의 표준소득조사를 통한 경영개선 방향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수산기술 홍보업무 중 이달의 수산소식지의 발간은 지방해양수산청이 주관하고, 그 내용도 어촌의 기술홍보는 물론이고 어촌의 전반적 홍보를 포함하여 어업인에게 정보원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식적인 어업인 상담실 운영에서 탈피하여 정보화를 통한 상담운영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여섯째, 해양수산사무소의 업무로 최근에 도입된 업무 중에 타 기관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업무로서 단지 타기관의 인원부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업무는 해양수산사무소의 업무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9> 해양수산사무소 업무의 중요도

업 무 명		중 요 도			비 고
		상	중	하	
양식기술개발업무	수탁시험사업 수행	○			실질적인 연구비지원으로 적극 참여(55.0%)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수행		△		"
	채묘어장 개발 및 채묘지도		△		지역적으로 중요한 품종에 국한(44.1%)
	지역특화시험사업(자체사업)		□		과감히 축소(58.5%)
	지역 으뜸품종(상품)개발			○	"
	연구·교습어장		△		어업인 어장에 예산지원(42.0%) 점차 축소(15.5%)
양식어장관리 및 예방업무	자율관리어업 추진	○			실현가능한 사업중심으로 개편추진(35.0%)
	어업질서 확립대책			○	형식적 시도로 폐지(37.5%)
	마을어업 이용관리 지도			○	
	재해예방 독려반 편성		△		
	패류독소 어장예찰		□		재편성이 필요(54.4%)
	어병예찰 진단반 운영	○			어병피해 최소화에 기여(37.4%) 패류와 갑각류로 확대(25.1%)
	적조예찰반 운영	○			과학적 수단을 통한 적조예찰(60.3%)
	양식어장 환경개선		△		해양수산부가 종합적으로 추진(55.5%)
	양식어장 예찰 및 평가		□		지역실정에 맞게 축소 또는 폐지(34.9%)
	연안정지 관측			○	주요 양식어장만 관측(48.9%)
고소득 및 양식기술 보편화 품종의 적기기술지원		△		폐지해도 무리가 없음(44.9%)	
어업인교육업무	어촌후계인력 육성	○			지원책 강화(40.4%)
	청소년 수산교실운영		□		통합운영 또는 축소(47.7%)
	연찬회 개최		□		더욱 확대발전(34.3%)
	유관기관합동교육		□		필요시에만(64.9%)
	어촌순회기술교육			○	폐지 또는 통합(64.9%)
정보화교육업무	경영일지 기록지도			○	폐지해도 무방(63.6%)
	시장유통정보제공		□		"
	수산양식업 표준소득 조사		□		생산통계와 병행조사(59.2%)
	어업인 정보화 교육			○	교육효과가 낮아 재검토(69.5%)
	원격영상 정보화 교육 인프라 구축운영		□		어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함(63.8%)

<표 4-9> 계속

업 무 명		중 요 도			비 고
		상	중	하	
수산 기술 홍보 / 관리 기반 조성	생산통계 조사	○			인원, 교육, 예산 확보(55.0%)
	명예 어촌지도자 운영		△		명예 어촌지도자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36.6%)
	선진지 견학	○			확대 필요(88.3%)
	기술지도선 운영	○			신소 및 대형화(58.2%)
	어업인 상담실 운영			○	형식적인 면 개선(55.4%)
	이달의 수산소식지			○	청단위 통합 발간(40.2%)
신 규 도 입 업 무	지자체 업무의 사업주관		□		
	해운항만 민원업무			○	행정 생산성 제고(35.0%)
	전문지도연구회 운영			○	전문지도 능력 배양에 기여(45.3%)
	어업인기술개발 과제	○			위상강화에 기여(35.9%)
	수산통계조사 확대		□		수산정책기초자료 제공(58.8%)
	HACCP 이행등록사업			○	소비촉진 및 위상강화(40.9%)
	수산물 직매장사업			○	어업인 소득사업에 도움(48.5%)
	양식어업관측제		□		과학적 예측에 도움(31.6%)
	월산지 표시단속			△	지자체 및 수산물품질관리원 전담(50.4%)
	어업용 면세유 사후관리	○			업무부담 가중, 조사지침 비미 및 여비 지원 보완(43.5%)

□: 中上, △:中下

3. 새로운 업무의 도입

가. 개요

조직 업무는 조직의 목표에 의하여 결정된다. 조직 목표란 조직이 실현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이다. 조직 목표에는 외부로 표방하는 공언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제 추구하는 운영목표가 있다. 그러나 공언목표가 반드시 운영목표와 일치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특히 조직내 여러 목표가 동시에 있을 경우에 더욱 갈등관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명확한 목표 설정은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⁷⁾

조직 목표를 조직 업무의 영향변수로 보는 이유는 조직목표가 조직의 존재 및 조직 정당성의 표현이면서 구성원의 행동계약 및 지침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며 의사결정의 지침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조직 목표에 따라 조직 업무가 영향을 받게

7) 홍용기, 「조직론」, 형설출판사, 2001, p.95

되는 것이다. 새로운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직 업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수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1960년대 어촌지도 업무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해양수산사무소의 업무인 기술지도의 중요성이 낮아졌다. 따라서 수산기술지도 업무의 비중이 낮아짐에 따라 어업인이 해양수산사무소를 찾는 빈도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자긍심이 예전보다 훨씬 떨어졌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사무소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지도업무 위주의 해양수산사무소 업무에 수산행정 업무를 추가하여 종합수산행정 조직으로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해양수산사무소를 종합수산행정기관으로 전환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산행정업무와 중복성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해양수산사무소는 해양수산부의 산하기관이지만, 지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한 수산행정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산행정업무와 중복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와 해양수산사무소 사이에 업무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업무갈등이 발생할 경우에 수산행정의 중복성으로 해양수산사무소의 지방이전에 불을 붙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산행정의 업무추가는 해양수산사무소의 명확한 목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해양수산사무소의 지도업무는 어촌과 어업인에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이다. 농업기술관리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에 통합된 후에 고유 업무인 농촌지도 업무보다 농업행정 업무에 치우쳐 효율적인 농촌지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지도의 경우에 농촌진흥청 내 농업지원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지도 업무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 그러나 수산업의 경우에 해양수산사무소가 지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지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 없기 때문에 어촌지도 업무는 수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

어촌과 바다 자원은 지역별 특성을 살린 상품화가 매우 중요하다. 수산자원, 어촌문화자원과 자연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촌과 바다 자원의 특성은 지역의 큰 자산이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활용방법을 어업인이 인지하여 상품화할 경우에 어촌의 가치는 커질 것이다. 특히 각 자원의 특성을 조합하여 상품화할 경우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잠재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 어촌지도직 공무원은 자원간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실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사무소의 목표를 '다양한 어촌과 바다 자원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라는 해양수산사무소의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다양한 어촌과 바다자원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는 어촌지도 업무와 수산행정 업무로 크게 분류된다. 어촌지도 분야는 자원의 성격과 부가가치 창출과정에 따라 생산지도, 경영지도, 어촌관광지도 등으로 나뉘고, 수산행정 분야는 어촌과 바다 자원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무로 구성되어야 한다.

생산지도 업무를 생산기술지도에 국한하지 않고, 안심·안전한 수산물의 생산지도, 얼굴 있는 수산물을 만들기 위한 지역 또는 생산자 구분 지도 등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그리고 생산비용과 매출액의 장부기장에 한정된 경영지도는 투자지도, 유통·가공 지도 및 마케팅 지도를 포함한 명실상부한 경영지도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어촌관광의 수요 증가는 어촌을 새로운 모습으로 바꿀 것이다. 어촌관광의 수요 증가를 어업인의 소득 증가의 원동력으로 전환시킴에 있어서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나. 신규 도입 업무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에 조직은 소멸하게 된다. 유사한 조직이더라도 조직의 수명주기는 조직이 환경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조직의 업무는 조직이 유지 혹은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조직의 책임자가 조직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존 업무를 삭제하거나 새로운 업무의 도입에 적극적일 때 조직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

해양수산사무소 역시 수산 및 어촌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업무의 도입은 필연적이다. 앞에서 기술한 설문조사의 결과와 수산 및 어촌의 여건변화를 토대로 해양수산사무소가 새로이 도입해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산업의 수입자유화와 수산자원 감소로 인한 어업소득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어업인들은 어가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어촌관광의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어촌을 찾는 관광객에게 무엇을, 왜, 어떻게, 언제 제공하여야 하는지 거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촌관광이 외지인의 부의 창출 수단으로 전략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어촌지도직 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는 어촌관광지도 업무를 해양수산사무소의 업무로서 도입하여야 한다.

둘째, 수산물 수입자유화 이전에는 어업소득은 수산물의 생산량이 중요한 변수이었다. 그러나 수산물의 수입이 자유로워진 이후에 수산물 시장에서 외국산 수산물이 가격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수산물의 특성상 수입산 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의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수입산 수산물이 국내 수산물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내 수산물과 수입산 수산물의 구별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지만, 기대한 것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원산지 표시는 국내 수산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소극적 행위이다. 국내 수산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적극적 수단은 얼굴 있는 수산물을 만드는 것이다. 얼굴 있는 수산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업무를 해양수산사무소가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도시에 비하여 적어 어촌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어촌의 복지수준은 도시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다. 특히 어촌 노령화의 급격한 진전으로 인한 노인복지수준은 도시보다 열악하다. 노인복지 개선은 어촌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동시에 어촌문화의 발굴, 보전 및 이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해양수산사무소가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면서 어촌문화유산의 발굴,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업무를 도입함으로써 지역적인 것을 세계화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제 5 장 해양수산사무소의 효율적 운영방안

1. 효율적 인적 자원관리
2. 조직 활성화 방안
3. 어촌지도 사업의 장기적 운영방향
4. 해양수산사무소의 효율적 운영방향

제 5 장 해양수산사무소의 효율적 운영방안

제1절 효율적 인적 자원관리

1. 개념

인적자원관리는 “인적자원의 확보·개발·활용·평가·보상·유지 등에 관련된 계획적인 의사결정 및 관행의 체계로서,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⁸⁾ 따라서 인적자원관리는 인적자원의 확보·개발·활용·평가·보상·유지 등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양한 의사결정과 관행의 체계이고,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인적자원관리는 인사관리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에도 두 개념은 호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적자원관리라고 할 때에는 인사관리라고 할 때 보다 인적자원의 전략적 중요성과 인적자원의 개발가능성을 강조하며, 인적자원관리 기능을 실무관리자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기능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인적자원관리라는 개념은 보다 현대적인 인사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그러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원인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조직의 구성원들이며 인적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조직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인식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활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조직이 생존·번영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유입하여 활용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수요건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같이 인적자원관리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리요소이다. 해양수산사무소의 구성원인 어촌지도직 공무원은 인적자원으로서 해양수산사무소의 목표달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수산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어촌지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해양수산사무소의 효율적 인적자원관리프로그램의 운영은 어촌의 지도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매우 필요하다.

2. 조직 목표 수행에 부응한 인적 구성

인적자원관리에 있어서 첫 단계가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구성원의 확보이다. 해양수산사무소의 인적자원의 확보와 운용은 일반 기업보다 경직되어 있다. 즉 해양수산사무소의 정원과 모집 등은 국가 공무원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의 증원과 자격조건의 변경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편이지만, 기술직 공무원과 행정직 공무원보다 전문적 지식의 활용 기회가 많이 주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직 목표를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해양수산사무소는 기술중심의 지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도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할 경우에 인적자원의 확보가 가능하다.

8) <http://knusun.kangnung.ac.kr/-biznet>

결원으로 인한 인원 충원은 수산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지도분야의 선정은 어촌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양수산사무소의 역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어류 질병에 의한 양식 어류의 집단 폐사가 문제가 되었을 때 어류질병학을 전공한 지도사를 확보하여 양식어업인에게 호응을 받았다.

이와 같이 해양수산사무소는 어촌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현장에 투입할 경우에 해양수산사무소의 존재 의의는 커질 것이다. 따라서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감소된 시점에서 어촌이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지도분야를 발굴하여 인적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어촌의 당면 문제는 어장환경 악화와 자원감소로 인한 어획량 감소, 수입 수산물 증가로 인한 어가하락, 유류비 등 어업비용의 증가, 어촌의 노령화 등이다. 이러한 당면 문제를 요약하면 어촌소득의 감소이다. 해양수산사무소가 어촌소득의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면, 해양수산사무소의 존재 의의는 더욱 커질 것이다.

어촌소득은 어업소득과 어업외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수산사무소의 기술지도는 어업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수산물의 생산에만 집중되어 있다. 어촌과 바다에는 수산자원인 수산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원이 있기 때문에 수산물의 생산에만 집중된 기술지도는 이러한 자원의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를 일부만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촌 지도를 생산 이외의 가공·유통, 마케팅과 어촌의 문화체험 및 어업체험 등의 지도로 확산하면 어업소득은 물론이고 어업외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촌지도직 공무원 임용에 대한 규정 중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의 전공자로 확대시켜, 인원 충원시 마케팅학 전공자 및 관광학 전공자 등을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3.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

변화에 대한 일반적 관심에 앞서서 오래 전부터 기업들은 급변하는 시장과 국제정세 속에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에 비하면 공공부문 특히 정부가 변화를 인식하고 적응하려는 노력을 시작한 것은 매우 뒤늦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 혁신이라는 주제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변화를 무시하려는 사람들-스펜스 존슨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에서 원망만 할 뿐 새로운 치즈를 찾으러 떠나지 않는 '햄'과 같은 유형의 조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조직이 변화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조직 구성원의 신념과 행동이 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양수산사무소는 기술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업무의 조정이 필요하다. 단 순히 기술지도의 기회가 적다는 이유로 대체업무를 부여하는 것만으로 해양수산사무소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 해양수산사무소의 변화는 조직의 목표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져야 조직 구성원의 변화에 대한 신념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효과적인 교육·훈련방법을 선택하고, 그에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의 연수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1주일 단위의 교육 프로그램은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변화 대응에 있어서 신념을 이끌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산환경의 변화에 어업인이 대응할 수 있는 어촌지도활동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기술지도 중심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어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한다. 수산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어촌지도직 공무원에게 전문교육기관에서 어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지도 이외의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을 기회를 줄 경우에 어촌지도직 공무원은 변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교육을 국립수산과학원의 연수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한정시키지 않고, 전문 교육기관에서 장기 연수가 가능하게 하여 기술지도 이외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도업무의 영역을 확대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제2절 조직 활성화 방안

1. 명확한 어촌지도 목표의 정립

1970년대와 1980년대에도 어촌지도사업의 목표와 수산정책의 목표가 일치하여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기술지도에 대한 어업인의 수요가 많았다.

그러나 어업인의 생산기술 습득과 새로운 품종개발의 부진으로 인하여 어촌지도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었다.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기술지도업무의 비중이 낮아지게 됨에 따라 새로운 업무의 개발이 매우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업무개발은 수산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어촌지도직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영역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할 때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수산업의 경쟁력은 수산업의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때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수산업의 환경변화 요인이 너무 많아 예측하기가 쉽지 않지만 수산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어촌지도사업이 기여할 수 있는 방향과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정립해야 할 것이다.

2. 어촌지도와 수산행정의 전문화

어촌지도 공무원의 정원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지만, 업무는 증가하였다. 즉 업무분장에서 어촌지도업무는 변화하지 않은 반면에 수산행정에 필요한 업무가 업무분장에 추가되거나 지침으로 규정되어 업무의 수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업무의 증가는 실제 업무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어촌지도직 공무원에게 업무의 증가에 따른 보상 없이 업무가 증가된 것으로 인식되어 불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어촌여건과 수산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지도업무 중 불필요한 업무는 업무분장에서 제외시키고,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부여되지 않는 업무를 추가시키지 않음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해양수산사무소의 업무 중 지도업무는 전문화가 이루어질 때 효과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직위와 직급이 상응하는 과단위 혹은 계단위로 어촌 지도와 수산행정을 분리하여 어촌지도직 공무원이 지도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어촌지도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어촌지도 공무원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촌지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 어촌지도의 수준에 따라 어업인의 만족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지도의 성공여부가 어업인의 경영성과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전공에 따라 어촌지도 공무원을 임용하지만, 수산여건과 어촌여건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식의 습득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어촌지도직 공무원이 새로운 지식의 습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도 현재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충분한 성과를 얻을 수 없는 실정이다.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 어촌지도 공무원의 전문성은 떨어지고, 백화점식 지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어촌지도는 어업인에게 외면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어촌지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혁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즉 하향식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서 벗어나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수요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재교육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수부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 습득에 적절한 교육기관 혹은 연수기관의 선택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산 및 어촌여건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의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교육기관과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어촌지도 범위의 확장

어촌지도의 성공은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어촌지도직 공무원과 어업인 사이의 교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즉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지도업무가 어업인의 요구사항과 일치할 경우에 어촌지도직 공무원과 어업인의 교류는 활발하여 어촌지도의 효과는 커질 것이다.

최근 어촌지도직 공무원과 어업인의 교류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교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데 이것은 어촌지도 업무의 중심인 기술지도의 수준이 어업인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업인의 기술수준이 향상된 반면에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수산기술 수준이 향상되지 않아 어업인이 어촌지도직 공무원으로부터 기술지도를 요청하는 경우가 줄어든 것이다.

이와 같이 어촌지도의 범위를 기술지도 및 보급에 한정하는 것은 어촌과 바다의 다양한 자원의 활용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어촌과 바다의 자원은 인간의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다. 그러나 기술지도는 먹는 즐거움의 일부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산물의 증산이 중요한 목적이었다. 수산물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수산물의 증산만으로 어업인의 소득을 증가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어업인이 어촌과 바다의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자원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어촌지도의 범위를 확장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어업인 중 일부는 어촌으로 몰려드는 도시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면 어촌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5. 어촌지도 방법의 전환

기술지도는 대부분 개별 접촉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술지도의 요청이 있거나 장래의 기술수요에 대한 예측을 통하여 어업인이 거주하는 어촌을 관할하는 해양수산사무소의 지도직 공무원에 의하여 대부분의 기술지도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지도시스템은 전문적인 지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지도업무에 필요한 지식 습득에 대한 동기부여가 크지 않다.

어촌의 부가가치 창출에 필요한 부문별 전문지도회를 구성하여 이를 통하여 새로운 지도분야와 지도방법을 발굴하고 전문지식의 습득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도업무에 활용한다. 즉 생산지도부문, 가공·유통부문, 어촌관광부문, 지역 특산품부문과 어촌생활 개선부문 등으로 전문연구회를 구성하고, 구성원은 어촌지도 공무원,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연구기관의 연구원, 교육기관 연구원 및 교수, 관련 수산직 공무원과 어업인 등으로 구성하여 분기별 모임을 통한 현안문제의 해결방안과 장래의 지도분야 발굴 등으로 어촌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다.

6. 승진과 보수체계의 수정

기술지도의 전문성이 있는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약 75%가 수산직으로 전환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종의 전문적인 어촌지도직 공무원이 수산직으로 전환을 원하고 있는 원인은 기술지도 수요의 감소, 장기 근속자의 상대적 보수 열위, 열악한 승진기회 등이다. 어촌지도직의 13.5%가 지도관이고, 나머지 86.5%가 지도사이기 때문에 연구직의 연구관 비율인 31.2%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승진기회가 적다. 어촌지도직의 경우에 지도관으로 승진을 하지 못할 경우에 장기근속자의 대부분은 보수가 수산직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 직급이 낮아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어촌지도직과 유사한 단일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연구직의 직급세분화를 참고로 하여 어촌지도직도 근무경력과 능력에 따라 직급세분화를 시행하여 현행 승진과 보수체제로 인한 사기저하를 개선하여 전문직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시켜야 한다.

제3절 어촌지도 사업의 장기적 운영방향

일본의 농림수산성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수산정책 목표를 새롭게 정립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도사업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1999년 7월에 제정된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은 ① 식료의 안전공급의 확보 ② 다면적 기능의 충분한 발휘 ③ 농업의 지속적 발전과 농촌진흥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바, 이후 이를 중점적으로 실현해 가기 위하여 사회와 공생하면서 스스로 기술·경영의 개선과 농업 농촌의 활성화에 참여하려는 농업자들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서서 직접 지원 조성해 가는 보급사업의 역할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1차산업의 생산적 측면뿐만 아니라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한 유통·가공, 농어촌과 농어업의 다면적 기능의 발휘를 위한 현장의 기술지도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지도·보급 업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농림수산성은 2001년 1월부터 정부 조직 개편과 행정개혁 정책에 따라 중앙 기구를 개편하여 농림수산성 농산원예국을 경영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농림수산성 소속기관이던 중앙단위 14개 중 12개 농업분야 시험장·연구소를 특수 법인체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지도사업을 기술중심에서 사람과 경영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가의 일률적인 통제에서 자율적 지도·보급을 위하여 시험장과 연구소 등 국가기관을 법인체로 전환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업보급 사업과 농민의 자조활동 조성 지원을 위하여 일본농회(농업계 유지, 대형 농업기업가, 학계, 농업인 단체 대표로 구성된 법인체)를 구성하여 상향식 의사결정을 위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농산어촌의 생활과 사회 환경의 개선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사·연구 개발을 위한 농촌생활 종합연구 센터와 농촌청소년의 농업 및 농가생활의 실천적 학습을 조장하여 농업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연수시키기 위한 농촌 전국농촌청소년교육진흥회 등 민간기구들이 농촌의 다양한 기능의 수행을 위한 보완활동을 하고 있다.

독일의 연방식량농업부는 지도사업의 지침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감독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도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도사업에 관한 농민연맹(Bauernverband)과 협력관계를 갖고 있다.

실제로 지도사업에 대한 정책결정은 州단계에서 한다. 이 때문에 지도계획이나 우선 순위는 州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즉 남부 州에서는 州정부 혹은 지방행정기관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비하여, 북부 州에서는 농업회의소 지도사업 감독관의 지휘를 받으며, 주정부의 보조금(지도사업에 대해서는 50%, 농업교육사업에 대해서는 100%)을 받고 있다. 그리고 중부州에서는 양쪽 시스템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1980년 초까지 정부의 지도사업, 농업회의소의 지도사업 등 공적 지도 사업이 중심이 되었으나, 서서히 공적 지도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지고 있다. 현재 지도원의 55%는 공적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공적 지도사업의 60% 정도를 농업회의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농업회의소의 직원 중 50%가 지도활동과 기술지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지도사업은 생산성을 높이는 농업기술 지도에서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는 지도, 자연보호 경관유지 지도로 옮겨가고 있다. 지도활동도 종래의 개별지도,

강연회, 강습회 방식에 집단대상지도, 텔레비전이나 정보기기를 활용한 정보제공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모델카운슬링"(Model Counseling)이라는 새로운 상담기구가 활동하고 있다. 이것은 같은 규모, 같은 과제를 안고 있는 농가 40~50호가 집단을 조직하여 민간의 전문상담원을 고용하여 지도를 받는 것이다. 상담원의 인건비 50%는 농가의 회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인건비는 州정부가 보조한다. 현재 이와 같은 조직은 21개가 있고, 분야별로 원예 9개, 전작 1개, 양돈 4개, 낙농 4개, 생태 3개의 조직이 있다. 이 방식은 농가가 원하는 고도의 특수한 기술을 습득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상담원간의 경쟁에 의하여 상담의 질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다.

네덜란드의 농촌지도는 각종 연구의 성과물을 끊임없이 농가에 연수시키거나, 농가들이 문제에 부딪치면 상담을 하도록 전국의 망을 지원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농림부는 농가들에게 가격보조금의 정책을 쓰기보다 교육에 집중투자하여 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와흐닝혼 대학·연구센터이다. 이 센터는 네덜란드 최대의 와흐닝혼농업대학과 정부연구소인 DLO를 합쳐 무수한 민간 연구기관과 농업컨설팅 기관들을 통합시켜 만든 것이다. 농가에서 전국에 퍼져있는 민간 연구회사에 문제를 상담하면 응용분야의 경우 이 회사들이 직접 해결하고, 전략적이나 기초과학에 해당하는 것은 이 센터에서 연구해 문제를 풀어 농촌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즉 농업인들이 실제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는 농촌과 농업 혁신의 기초가 되어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도사업은 국가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다. 지도사업은 1차 사업의 근거지인 농어촌의 환경에 따라 구성되고 지도·보급되어야 효과가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 국의 지도사업의 공통점은 기술지도에 국한하지 않고 농어촌의 다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사업의 구성이 변화되고 있는 것과 보다 전문적 지식을 가진 지도인원에 의하여 지도사업이 수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어촌지도사업도 이러한 추세를 거슬릴 수가 없는 실정이다. 어촌지도사업이 1960년대에 도입될 때의 어촌과 수산업의 여러 가지 환경과 지식기반사회인 21세기의 어촌과 수산업의 환경은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 가장 큰 변화는 1997년 이전에는 수산물이 닫힌 시장체제에서 거래되었으나 지금은 열린 시장체제 하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수산물에 대한 선택의 폭이 커져 우리나라 수산물의 생산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산물의 뚜렷한 가격의 상승이 없고, 수산자원의 감소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량이 줄어들어 어업소득은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업인의 양식기술은 해양수산사무소의 지도 덕분에 크게 향상되어 유전자 등 특정분야를 제외하고 보편화되어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어업기술지도에 대한 어업인의 수요가 많이 줄었다.

반면에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어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어촌은 도시주민과 어촌주민의 교류공간으로의 역할이 증가하고, 소득증가에 따른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인 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어촌지도 사업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지도사업의 수요자인 어업인이 컨설팅 비용을 전문 컨설팅회사에 지급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도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어촌

현실상 현재 지도사업을 정부가 포기하고 민간 컨설팅회사를 통한 어촌지도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박사와 석사가 전체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37.6%를 차지하고 있는 해양수산사무소가 어촌지도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어촌지도직 공무원은 수산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대한 새로운 지도업무 습득에 있어서 긴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교육을 통한 어촌지도사업의 효과를 창출할 때 어촌지도에 대한 어업인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어업인이 찾아오게 하는 어촌지도사업이 될 경우에 어업인은 어촌지도에 대한 비용을 지출할 용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어촌지도사업을 민간컨설팅회사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어업인의 다양한 지도업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미래에 어촌지도가 민간 컨설팅회사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해양수산사무소가 종합수산행정기관으로 변화되는 시점에 정부가 일정 부분의 예산을 보조하는 법인형태의 어촌지도 컨설팅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어업인이 자신의 컨설팅에 대한 비용을 흔쾌히 지출할 수 있는 시점에서 민간 경영컨설팅회사가 어촌지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절 해양수산사무소의 효율적 운영방향

1. 해양수산사무소의 개요

1945년 해방이후에 수산분야의 소관부처가 자주 변경됨에 따라 어촌지도업무에 대한 관심이 적어 어촌지도 업무가 수산분야에 도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1963년 12월 16일 제8차 정부직제 개정을 통하여 농림부내 수산국 어정과 '단체계'에 어촌교도관계 업무를 분장함과 동시에 제정된 「수산진흥법」에서 수산시험장의 설립근거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수산시험장을 국립수산진흥원으로 승격시키고, 동기관내에 '지도과'를 설치함으로써 어촌지도 업무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도과가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촌지도 전문요원 충원되지 않아 어촌지도 업무의 효과는 미미하였다. 1966년 수산청이 발족한 후에 전담부서와 전담요원이 소규모이지만 충원되어 어촌지도사업이 시행되었다. 즉 동년 10월 제1차 직제개정을 통하여 최초로 어촌지도 전담공무원제도를 도입하여 수산지도직 40명을 채용하였다. 1976년 6월 11일 대통령령으로 국립수산진흥원 직제를 개정하고 정규직 4급과 5급등 82명을 확보하여 일선의 국립수산진흥원 지원에 배치함으로써 독립된 어촌지도기관은 아니었지만 일선지도업무가 부분적이거나 현장에서 실시되었다.

1981년에 남해 등 8개의 어촌지도소가 일선에 설치됨으로써 본격적인 어촌지도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한편 1985년 12월에는 어촌지도직렬이 신설됨으로써 어촌지도요원들은 일괄적으로 직렬이 변경되었다. 1995년 동·서·남해수산연구소가 설립됨에 따라 어촌지도소의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1996년 해양수산부의 설립됨으로써 1997년 수산기술보급업무가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이관되었다.

정부조직의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1999년 5월에 어촌지도소의 명칭이 수산기술관리소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2004년 2월에 수산기술관리소의 명칭이 해양수산사무소로 개편하였다. 해양수산사무소로 명칭을 바꾼 이유는 변화하는 해양수산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민원인에게 해양수산관련 종합행정 서비스를 제공(One-Stop)함으로써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지방청의 최일선 조직인 수산기술관리소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2. 해양수산사무소 중장기 발전방안 검토

해양수산부는 어촌기술지도 수요의 감소에 따른 수산기술관리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03년 7월에 수산기술관리소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한 내용은 수산업의 현 위치와 여건변화, 수산기술관리소 평가와 반성, 추진목표와 세부과제별 추진목표 등이다.

어촌지도분야 중장기발전방안에서 수산기술관리소의 지도업무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불특정 다수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 주도의 일방적인 사업시행으로 시대변화에 대응한 지도체제가 미흡하다. 지도체제 미흡의 구체적 내용은 실시간으로 다변화한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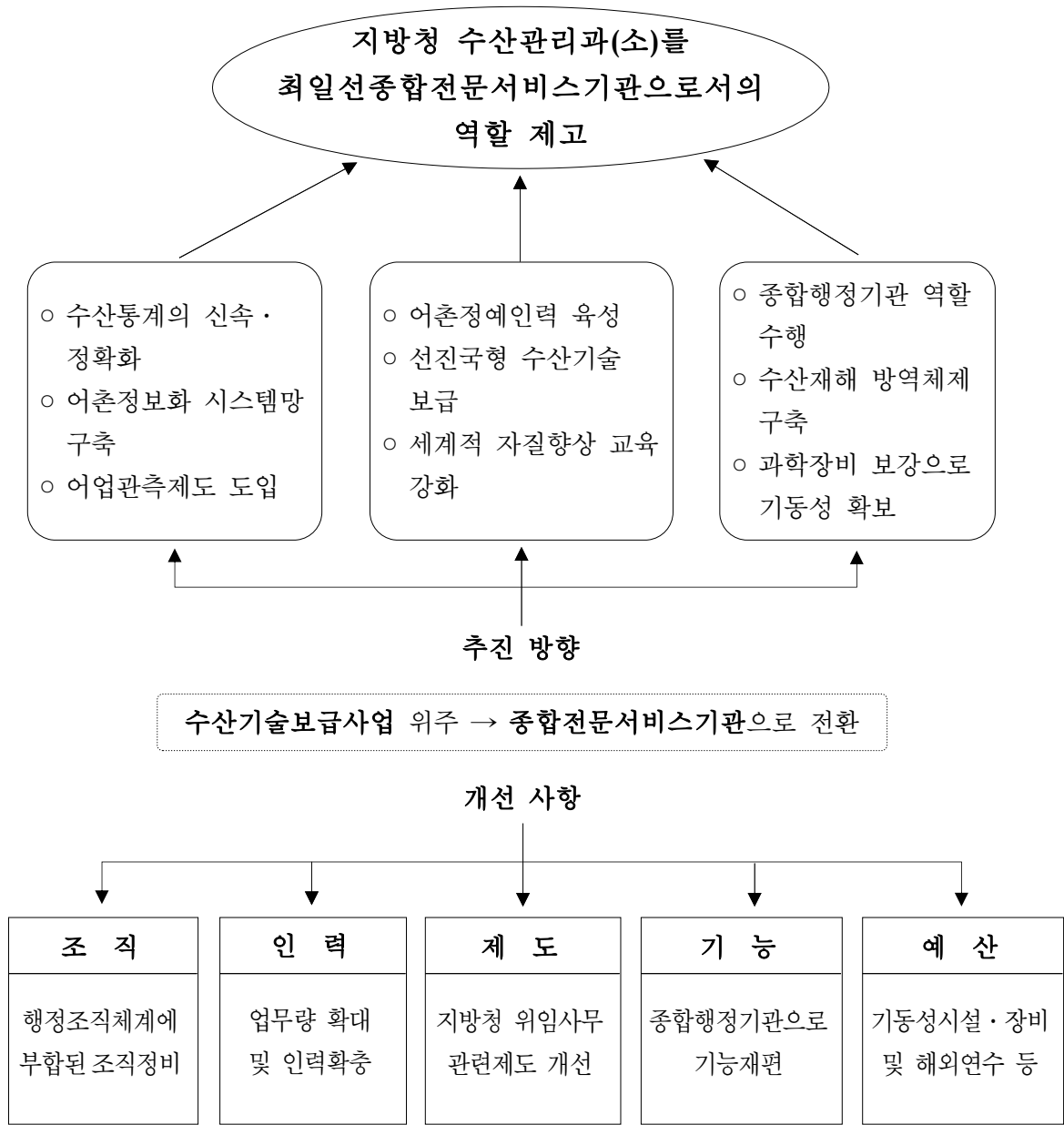
제사회 구제에 대처할 수 있는 수산기술행정과 정책사업 지원시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 미흡, 수산기술 보급사업의 발전방향 등 행정수요에 부응한 어업인들의 의견수렴 등 자문기구 운영 미흡, 국제적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현실에 부합된 기술수요에 적절한 어촌지도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화·특기화 등이다.

둘째, 유통, 가공과 어선어업 분야의 전문 지도사 미배치로 수산물 소비문화에 적절한 브랜드 개발이 미흡하다. 즉 어선어업 분야의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도인력 미배치로 어선어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소비자의 수요에 적절한 포장단위로 규격화된 지역브랜드 개발의 지도가 미흡하고, 어업인들의 영어기반 영세화로 생산된 수산물의 대부분이 유통업자에 의존하고 있어 수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수산기술 보급기반의 전반적인 취약으로 효율적인 대 어업인 기술지도 행정서비스의 수행이 곤란하다. 신제품을 개발한 경우에 불특정 다수 어업인에게 기술을 이전하고 홍보함으로써 공급초과 현상을 초래하고, 대부분의 정책사업이 어업인들의 요구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요구사업에 대한 경제성 등 과학적인 검토과정이 부실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이 큰 실정이다.

<그림 5-1>은 이상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산기술관리소의 추진목표와 추진방향, 그리고 개선사항을 요약하여 나타낸 것이다.

수산기술관리소의 추진목표는 '지방청 수산관리과(소)를 최일선 종합행정기관으로서 역할 제고'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방향은 수산통계의 신속·정확화, 어촌정보화 시스템망 구축, 어업관측제도 도입, 어촌 정예인력 육성, 선진국형 수산기술 보급, 세계적 자질향상 교육 강화, 종합행정기관 역할 수행, 수산재해 방역체제 구축과 과학장비 보강으로 기동성 확보 등이다. 이와 같은 추진방향은 정보화, 과학화와 어업인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자질 향상, 그리고 수산행정기관 역할 수행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개선사항은 조직, 인력, 제도, 기능과 예산 분야의 개선사항의 주요 내용은 행정조직체계에 부합한 조직 정비, 업무량 확대 및 인력확충, 지방청 위임사무 관련제도 개선, 종합행정기관으로 기능 재편, 기동성 시설·장비 및 해외 연수 등이다.



<그림 5-1> 해양수산사무소의 중장기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조직을 개선하기 위한 향후계획은 수산세력과 업무량 등을 감안한 수산관리과(소)의 정원조정,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출장소와 수산기술관리소 등을 연차적으로 통합 또는 개편과 어촌지도직 공무원 승진기회 확대 등이다. 즉 지역별 업무량을 기초로 수산기술관리소의 정원을 조정하고, 항만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소와 수산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수산기술관리소를 통합 또는 개편 등이 조직의 개선사항이다.

인력분야의 향후 계획은 4급 상당 어촌지도관이 배치된 부산해양수산청과 인천해양수산청의 관리과 및 고흥 수산기술관리소와 완도 수산기술관리소에 5급 상당 어촌지도관을 배치하는 것과 수산기술관리과(소) 정원조정 및 적정 인력 재배치 등의 인적자원 확보와 중·장기 전문기관 교육기회 부여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제도분야의 향후 계획은 지방해양수산청 위임사무와 수산기술보급 사업과 관련한 제도 개선에 관한 것이다. 즉 지방해양수산청을 최일선 종합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위임사무 근거 마련, 국가보조사업 중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와 관련한 관리·감독 등 의무 부여를 위한 근거 마련, 국가보조 중요 사업을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하여 지역 개발에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제도 마련과 신규 개발사업 및 수산업협동조합 등 산하단체 위임사업 집행 및 관리·감독 등 주요한 사업의 주체로서 지방해양수산청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제도분야 개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해양수산청 및 수산기술관리소별 해역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수산기술보급사업 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향을 설정하도록 하며, 우수 어업인 발굴 및 지원 등으로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수산기술보급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또한 제도분야에 있어서 향후 개선할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일선 종합행정기관으로서 기능 개편을 위한 새로운 수산행정 업무이양 및 지역수산의 중심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 HACCP 이행시설 등록·관리업무 등 수산행정업무를 수산기술관리소로 이관, 어촌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및 어업인 정보화 교육 추진, 어업생산 통계업무 추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보급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진목표는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인식되어 온 수산기술관리소를 종합행정기관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방향은 '수산기술보급 사업 위주'에서 종합행정기관으로 전환이며, 그 세부사항에 종합행정기관 역할 수행이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수산기술관리소의 장기적 발전방안인 수산기술관리소의 추진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한 <그림 5-1>에는 추진목표, 추진방향 및 추진방향의 세부사항, 그리고 개선사항에 종합행정기관으로 전환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3. 해양수산사무소의 당면과제

제2장의 <표 2-2> 어촌지도관리 업무의 변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대 주요 업무는 생산기술지도, 기술홍보활동과 어민교육이며, 1980년대 주요 업무는 소득증대기술지도, 후계자사업, 어민교육, 기술홍보활동, 양식어장관리지도와 어촌지도기반조성 등이다. 그리고 1990년대 주요 업무는 소득증대기술지도, 후계자사업, 어민교육, 기술홍보활동, 양식어장관리지도, 어촌지도기반조성과 어업경영지도 등이며, 2000년대 주요업무는 수산기술 보급 및 어업경영지도, 어업인 및 어업인후계자에 대한 수산기술의 지도·교육, 기술지도선 및 어촌지도장비의 관리·운영, 복합영어 및 어촌생활개선을 위한 지도, 수산자원조성에 관한 사항, 총허용어획량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어업생산통계 조사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어촌지도 업무는 시대적 여건에 따라 증가하였지만, 기존 업무에 새로운 업무가 추가될 뿐 업무평가를 기초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업무를 제외시키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새로이 추가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적합한 어촌지도직 공무원을 임용하지 않아 새로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면 1990년대 새로이 도입된 어업경영지도는 어업인의 경영 마인드를 혁신시키고, 어업을 경영대상으로 인식하도록 지도하는데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학을 전공한 어촌지도직 공무원을 업무도입 시기에 임용하지 않아 깊이 있는 어업경영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2000년대에 새로이 도입한 어촌생활개선을 위한 지도업무도 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어촌지도직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및 쇠퇴기 등의 순서로 수명주기를 가진다. 이러한 수명주기의 장·단의 원인 중 상품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이 주요한 원인이다. 이와 같이 어촌과 바다 등과 관련이 있는 국내외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어촌지도 업무도 수명주기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촌지도 업무의 변천에서 본 바와 같이 어촌지도업무는 확대되어 왔다. 따라서 어촌지도 업무 중 중요한 업무와 폐지하여야 할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밖에 없는 어촌지도직 공무원은 새로운 업무개발에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고, 기존 업무의 수행에 열중하여 어업인이 원하고, 어업소득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는 업무를 개발·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해양수산사무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당면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식적 조직은 물론이고 비공식 조직도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직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그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산기술관리소의 추진목표는 '최일선 행정종합기관으로서 역할'이다. 그러나 수산기술관리소의 추진목표가 명확하지 않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추진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없다.

둘째, <표 4-9>와 같이 해양수산사무소의 업무인 양식기술개발, 양식어장 관리 및 예방, 어업인 교육, 정보화 교육, 수산기술 홍보 및 관리기반 조성 및 신규도입 업무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업무를 조정하여야 한다. 해양수산사무소 업무의 다양화는 당 기관이 수행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의 확대를 의미하지만, 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의 전문화를 수반하지 못할 경우에 업무 부실화를 초래하여 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해양수산사무소 업무를 평가한 결과를 통하여 조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업무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조직의 효율성은 조직의 특성에 따른 조직 형태에 따라 상이하다. 예를 들면 조직 구성원의 상하가 명확한 경우에는 라인조직(line organization)이 효율적인 반면에 최고 경영자에게 조언하는 조직의 경우에는 스태프조직(staff organization)이 효율적이다. 이와 같이 계절에 따라 의복이 상이하듯이 조직도 그 특성에 따라 적합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사무소의 업무조정을 통하여 업무가 설정되면 업무의 특성에 따라 해양수산사무소의 조직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조직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이다. 즉 조직의 형태가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인적자원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어렵다. 인적자원관리는 채용, 교육과 보상 등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인적자원관리의 구성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인적자원 가치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성장하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인적자원관리를 위하여 우수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채용후 일정기간이 흐른 후에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적자원의 가치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해양수산사무소의 업무에 적합한 직원의 채용은 기본이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수산사무소 구성원의 사기를 돋울 수 있는 보상시스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즉 국가 공무원이지만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방에 근무한다는 이유 혹은 승진시스템의 부적합 등으로 인하여 승진할 가능성이 적을 경우에 사기가 떨어져 업무성과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승진과 보수 등 보상시스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4. 해양수산사무소의 효율적 운영방향

가. 목표 및 추진방향

해양수산사무소는 해양수산관련 국가조직 중 어업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해양수산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해양수산정책 집행에 있어서 어업인과 접촉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따라서 해양수산 정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과 제도적 수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해양수산사무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해양수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해양수산정책의 집행에 해양수산사무소가 모두 관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양수산사무소가 해양수산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하위 목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양수산사무소가 달성하여야 할 목표는 해양수산 여건과 해양수산 정책 목표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양수산사무소는 해양수산부의 조직 중 어촌 및 어촌주민과 상대적으로 근접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어촌 및 어촌주민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할 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어촌소득의 감소, 수산자원의 감소 및 어촌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국토의 중요한 일부분인 어촌은 성장엔지니어링 유지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뿐만 아니라 어촌에서 자자손손 거주하고 있는 어촌 주민이 어촌 비전을 가지게 함에 있어서 해양수산사무소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양수산사무소의 목표를 「어촌의 유지·성장에 기여」라고 설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해양수산부는 바다, 어촌과 어항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사무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바다, 어촌과 어항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해양수산사무소의 조직 구성원의 특성, 조직의 연혁과 인력규모 등을 고려할 때 바다, 어촌과 어항과 관련된 업무 중에 어촌소득 증대와 어촌생활 수준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국토의 일부분인 어촌의 부가가치치를 증가시켜 어촌을 유지시키고 나아가 성장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림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양수산사무소가 조직목표인 「어촌의 유지·성장에 기여」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추진 방향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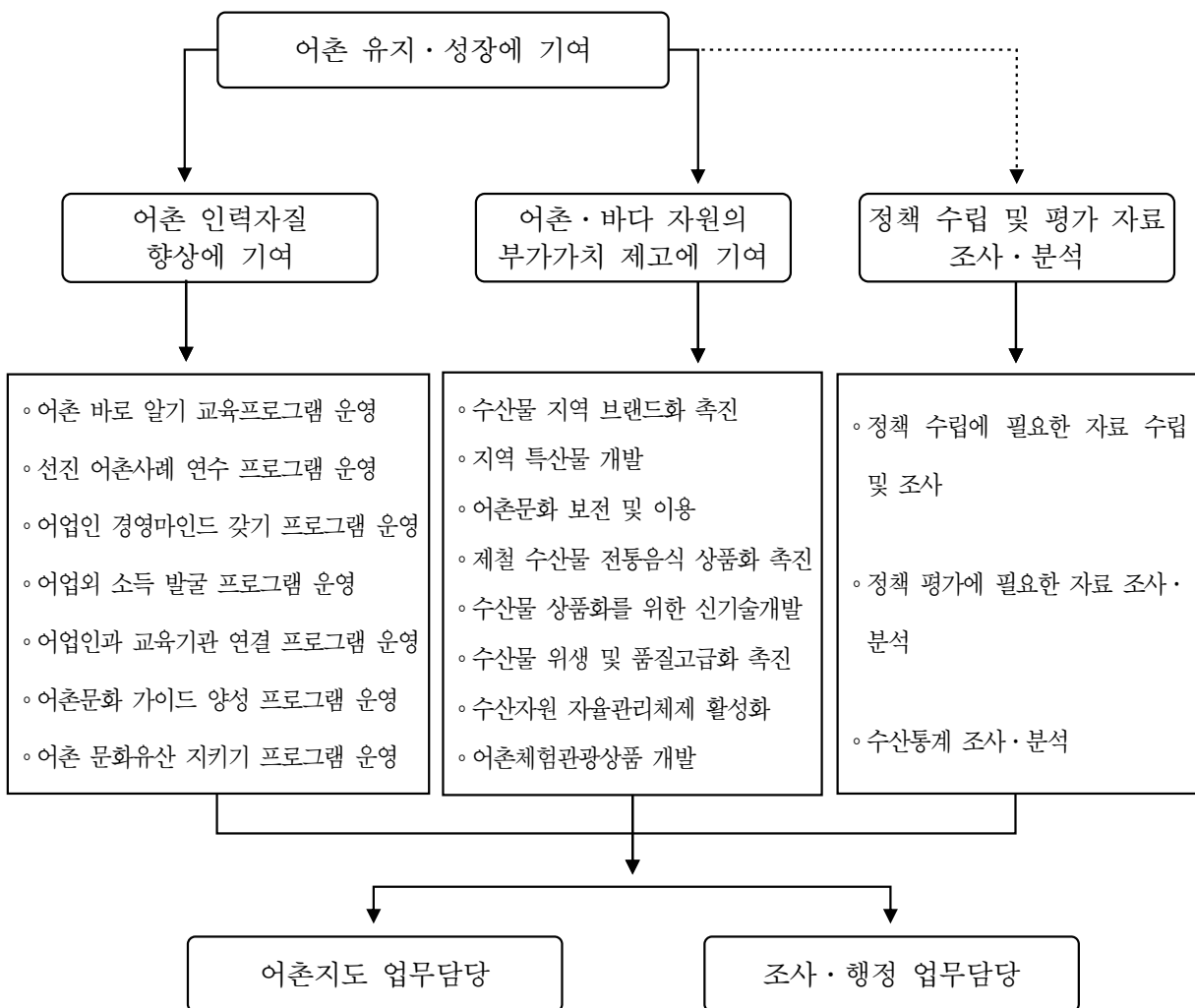
첫째, 어촌의 젊은이들이 산업화의 진전으로 어촌을 떠나 도시로 이동하였고, 또한 어촌소득의 감소와 어촌 생활복지 수준의 상대적 열위는 이들의 도시 이동을 가속화시켰다. 따라서 어촌의 노령화는 도시의 노령화보다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자본의 추가적 투자를 꺼리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어촌인구 노령화 현상은 어촌의 활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어촌의 잠재적 가치를 발굴하고 실현시키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촌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어촌인구 노령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촌인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령층은 어촌의 문화와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자원이다. 이러한 자원은 시간적 유한성이 매우 큰 자원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 어촌의 리더를 선정하고 육성하는 임무를 수행할 국가기관으로서 적합한 것 중의 하나가 해양수산사무소이다. 리더의 조건은 조직의 특성과 조직의 내적 및 외적 환경에 따라 다르다. 어촌 리더의 조건 중 중요한 것은 어촌 구성원을 화합시킬 수 있는 능력과 어촌 비전에 대한 확신 등이다. 어촌 구성원을 화합시킬 수 있는 능력은 리더에 대한 어촌 구성원의 믿음이 있을 때 주어진다. 그리고 어촌비전에 대한 확신은 어촌의 장점을 활용하고 어촌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주어진다. 해양수산사무소가 어촌 리더를 선정할 때 어촌 구성원들 중에 어촌 구성원을 화합시킬 수 있는 능력과 어촌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을 선정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해양사무소가 어촌 리더에게 직접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선진 사례 혹은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어촌 리더가 어촌 주민에게 전달할 때 어촌인적자원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어촌 인적자원 향상에 기여」를 통하여 어촌의 유지·성장에 해양수산사무소가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어촌과 바다에는 여러 가지 자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바다에 있는 수산자원 조성, 수산물의 포획 및 채취를 중심으로 수산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수산정책 하에서는 수산자원 증가를 통한 어업소득 증대방안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산물은 물론이고 바다와 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대안을 포함하여 수산정책이 수립·집행될 경우

에 어촌의 가치가 증가될 것이다. 어촌 부가가치 창출은 기존 자원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것과 어촌과 바다 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실현화시키는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것은 수산자원의 조성과 자율적 관리를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며, 후자는 현재 생산대상이 아니거나 이용되지 않고 있는 자원을 상품으로 생산하는 것이다.

어촌과 바다에 부존한 다양한 자원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의한 일원화된 부가가치 창출 방안보다 지방에 위치한 기관별로 부가가치 창출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으로 전환시키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양수산사무소는 「어촌과 바다 자원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셋째, 해양수산사무소가 어촌의 유지·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앞에 설명한 두 가지-어촌인력 자질 향상에 기여와 어촌·바다 자원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 외에도 수산 및 어촌과 관련된 정확한 자료의 수집과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현실을 반영한 정책의 수립에 기여함과 동시에 수립·집행된 정책의 피이드 백에 의한 정책의 수정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조사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림 5-2> 해양수산사무소의 목표 및 추진방향

나. 효율적 운영방향

<그림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양수산사무소의 업무를 결정할 때 기초인 세부추진 방향은 어촌인력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것과 어촌·바다 자원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어촌을 유지시키고, 나아가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하드웨어(hardware), 소프트웨어(software), 그리고 휴먼웨어(humanware)의 조화가 필요하다. 하드웨어인 생활 및 생산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의 투자는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투자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일선 기관인 해양수산사무소의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은 편이다.

그러나 어촌과 바다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인적자원의 활용 또는 개발에 의한 휴먼웨어는 어촌지역 혁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즉 혁신의 바탕이 되는 창조력과 상상력은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가 갖추어질 때 가능하기 때문에 어촌의 미래를 보장하는데 두 요소의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 개발은 사람과 사람의 접촉, 사람과 대상의 접촉 등이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크다. 즉 어촌주민과 해양수산사무소 직원과의 빈번한 접촉이 이루어질 때 서로 신뢰도가 높아지고, 어촌주민의 의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실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할지역 어촌과 바다를 가까이 접할 때 어촌 가치 향상에 필요한 해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듯이 어촌이 당면한 문제에도 해답이 있다. 어촌문제의 해답은 어촌과 바다, 그리고 어촌주민을 가까운 곳에서 접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할 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구할 수 있는 적합한 기관은 어촌과 어촌 주민과의 거리가 가까운 해양수산사무소일 것이다.

해양수산사무소가 어촌 인력자질 향상에 기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촌주민이 어촌을 바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과 같이 어촌주민이 자신과 어촌을 알고, 어촌으로부터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수요자에 대하여 알 때 어촌의 유지는 물론이고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주 5일제 근무의 확산으로 어촌을 찾는 사람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어촌주민의 대부분은 어촌의 미래에 대하여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어촌에 대한 수요를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촌이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 공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거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어촌에 대한 수요는 1차 산업의 생산물인 수산물, 2차 산업의 생산물인 가공품, 그리고 3차 산업의 생산물인 서비스 등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의 생산물인 수산물의 생산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온 어촌주민의 의식전환을 통한 어촌지역의 혁신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어촌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해양수산사무소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사무소가 운영되어야 한다. 어촌주민이 어촌의 무한한 잠재력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어촌 바로 알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어업인과 전문교육기관 연결 프로그램 운영'과 '선진 어촌 사례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다. 어촌주민 스스로 다양한 소득원을 발굴하고, 경영체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업인 경영마인드 갖기 프로그램 운영'과 '어업외 소득 발굴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어촌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촌주민이 어촌을 자랑하고 안내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도록 '어촌문화 가이드 양성 프로그램 운영'과 '어촌 문화유산 지키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어촌이 어촌주민과 도시주민의 교류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어촌과 바다에 산재하는 자원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 그것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어촌주민은 눈뜨면 항상 접하는 어촌과 바다 자원은 그들에게 자원 자체로서 인식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어촌과 바다에 있는 다양한 자원을 보배로 만들기 위한 사람 혹은 기관이 필요하다.

국가간의 벽은 허물어짐에 따라 '국제화'란 용어 보다 '세계화'란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무역자유화로 대표되는 세계화는 비교우위에 있는 유형상품 또는 무형상품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아 상품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즉 다른 상품이 가지지 않은 품질과 고유성이 없는 상품은 상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어촌과 바다의 다양한 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유의 특성을 가진 유형 또는 무형상품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지역적 특성을 가진 유형 또는 무형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형상품과 무형상품의 재료를 보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양수산사무소는 '어촌문화 및 경관의 보전·이용'과 '수산자원 자율관리체제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어촌지역의 다양한 자원 중 단지 '구슬'수준에 머물고 있는 자원을 '보배'로 만드는 일에 해양수산사무소가 앞장서야 한다. 즉 해양수산사무소는 '수산물 고유 브랜드화 촉진', '지역 특산물 개발', '수산물 위생 및 품질 고급화 촉진', '제철 수산물 전통 음식화와 민박 연계 사업 추진' 및 '어촌체험상품 개발'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 어촌과 바다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분야로 구성된 추진 세부사항에 따른 업무의 특성에 따라 해양수산사무소의 조직을 크게 '어촌지도 업무담당'과 '조사·행정 업무'로 나누어 업무를 전문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

조직의 업무의 효율성은 조직의 인적구성, 업무의 적합성, 업무의 명확성과 조직 구성원의 사기 등에 좌우된다. 앞에서 살펴본 해양수산사무소의 조직과 업무 등을 토대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업인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업무는 사법기관에 일임하여야 한다. 해양수산사무소의 주요한 업무는 규제업무가 아니라 어업인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어촌 자원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기여하는 업무이다. 따라서 해양수산사무소와 어업인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어촌의 유지·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업인과 해양수산사무소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어업인의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업무는 제외시켜야 한다.

둘째, 피교육생의 적극적 학습의욕과 우수한 강사에 의한 강의가 전제될 때 교육의 효과는 커진다. 전자는 교과과정과 교육 내용에 따라 다르며, 후자는 전문적 강사의 확보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해양수산사무소가 수행하고 있는 어업인 교육 중 어업인의 학습의욕

을 저하시키거나 해양수산사무소 구성원이 전문적 강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교육 업무는 전문기관에 위양하여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의 구성원의 업무에 대한 불만요인의 하나는 권한이 배제되고 책임만 있는 업무가 부여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수산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중에 권한과 책임이 함께 주어지는 업무만 해양수산사무소의 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

넷째, 해양수산사무소가 수행하는 재해예방 관련 업무 중에 과학적 장비를 활용할 경우에 재해방지효과가 큰 업무는 연구기관에 위양하여 과학적 장비를 이용한 재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섯째, 어장의 자연환경, 소비자의 선호도와 자연과학 수준 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어업인의 소득원 중의 하나인 양식품종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양식어업이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효율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새로운 품종에 대한 기술적 가능성과 경제적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연구기관에 일임하고, 해양수산사무소는 새로운 품종의 개발의 필요성을 연구기관에 제시함과 동시에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의 현지 적용 가능성을 시험어장을 통하여 시험하고, 또한 양식 품종으로 적합할 경우에 어업인에게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여섯째, 해양수산사무소의 업무 중에 양식어업인의 수요가 많은 업무가 어류질병 예방 및 치료업무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의 병리연구팀에서도 어류질병 예방과 치료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어류질병의 확산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질병치료 업무는 시간을 다투는 업무이다. 따라서 해양수산사무소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어류질병 치료 업무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어류질병의 예방에 필요한 사전적 연구와 원인 규명 등은 국립수산과학원의 병리연구팀이 담당함으로써 어류질병 예방 및 치료 업무를 상호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품질이 우수하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가공·유통은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수산물의 구매기준이 가격에서 품질 및 위생 요인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산물의 생산자와 유통·가공업자는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수산물의 품질과 위생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거나 자본이 부족하여 위생과 품질개선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위생적이고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의 생산과 유통·가공을 위한 지도업무는 해양수산사무소의 중요한 업무로 자리잡아야 한다. 그러나 이 업무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고유한 업무이기 때문에 해양수산사무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할 위임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덟째, 해양수산사무소와 지방자치단체 업무 중 수산관련 업무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있는 반면에 서로 교집합에 속하는 업무가 있을 수 있다. 교집합에 속하는 업무 중에 업무의 중복성으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업무는 조정하여야 한다. 전문성이 요구되며,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해양수산사무소가 담당하고, 일상적이고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여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제 6 장 요약 및 결론

제 6 장 요약 및 결론

해양수산사무소는 양식어업의 도입기에 어업인에게 양식기술의 지도 및 보급에 앞장서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였다. 1960년대의 해조류 양식업, 1970년대의 패류양식어업 및 1980년대의 어류 양식어업의 도입과 육성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양식어업이 도입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어 따라 어업인의 양식기술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어 해양수산사무소의 양식기술의 보급 및 지도에 대한 어업인의 수요가 많이 감소하게 되었다.

국내외 수산업의 여건변화는 새로운 수산정책의 목표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즉 종래의 생산자 중심의 수산정책에서 생산자 및 소비자 지향의 수산정책의 수립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바다의 수산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먹거리 생산정책뿐만 아니라 바다와 어촌의 다양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따른 어촌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수산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수산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수산정책 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은 정부의 경제적 수단 및 제도적 수단도 중요하지만, 어업인이 수산여건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어업인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국가기관인면서 지도 업무 및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사무소의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어촌지도에 대한 어업인, 수산관련 공무원 및 어촌지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결과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직무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며 직무에 대한 미래 비전이 없는 것이 불만족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의 사기진작방안으로는 승진적체해소와 함께 기술지도업무 이외에 새로운 업무 수행을 위한 선진교육습득 및 재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수산직과 지도직의 단일화에 대한 의견에서는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복수직렬화에 대한 의견에서는 인사교류 및 보직확대로 지도직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수산직공무원 및 어업인에 대한 조사에서는 해양수산사무소의 역할 및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제기되었으며 기술지도를 통한 어업인 만족도는 보통정도로 나타나 새로운 기술수요에 대비한 지도직공무원의 재교육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산직공무원들은 수산직과 지도직의 단일화에 대하여 반대의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의견이 상호 대립적인 상태를 보였으며 복수직렬화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함께 실질적 인사교류는 없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지도직공무원의 승진적체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여 지도직공무원의 인사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수산기술보급업무와 관련된 업무분석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통합되거나 개편되어야 할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 업무개편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신규도입 업무와 관련해서도 행정절차간소화가 이루어진다는 의견과 함께 업무과중 및 단순업무수행에 한정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었다.

새로운 어업질서의 도래, 급속한 수산물 시장의 개방과 수산물에 대한 위생관리제도의 강화 등의 국외 수산여건 변화와 수산물 생산감소에 의한 자급률 저하, 어가하락 등의 국내 수산여건의 변화는 수산업의 유지·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리고 어촌의 고령화와 어촌소득의 감소로 인한 어촌사회의 침체는 바다와 어촌의 다양한 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민 관광욕구의 증가로 인한 어촌의 기회 증대, 고도의 정보화 시대의 도래를 통한 도시와 교류 증대가능성, 지속 가능한 개발의 추진과 어촌의 역할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은 어촌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한 줄기의 빛이다. 따라서 어촌과 어업인에게 가까이 있는 해양수산사무소의 지도기능은 어촌의 활성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역 개발 혹은 발전의 지역 주민의 신념과 행동에 의하여 상이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촌과 바다의 자원 활용으로 어촌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활용 방안에 대한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지도·교육 기능은 어업인에게 어촌활성화에 대한 신념을 갖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지도 중심의 해양수산사무소의 지도기능을 수산물의 가공 및 유통, 상품화 및 홍보의 마케팅, 그리고 어촌관광으로 확산하여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는 것이 바로 수산업과 어촌의 가치를 증가시켜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뿐 아니라 어촌소득을 증가시켜 어촌사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해양수산사무소의 활성화는 크게 인적자원관리와 조직 활성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해양수산사무소의 목표에 부응한 인적구성과 지도분야의 확장에 따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한 효율적 인적자원관리를 통한 어업인의 수요에 맞는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해양수산사무소의 활성화는 조직 구성원의 사기양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명확한 어촌지도 목표의 정립, 어촌지도와 수산행정의 분리,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전문성제고, 어촌지도 방법의 전환 및 승진과 보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어촌지도직 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지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우리나라 수산업과 어촌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래, 「농촌지도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김상구, 「농촌지도직공무원 보수의 실태와 개선에 관한 연구」, 세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 김성수의 5인, 「농촌·농업교육의 방향」, 선진문화사, 1986.
- 김영수, 「농촌지도사의 동기유발관계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6.
- 김영아, 「공무원 보수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1998.
- 대한경제연구원, 「농업기술센터 경영평가모델 및 인센티브제도개발」, 2000.
- 박성쾌외 3인, 「어촌지도사업의 평가와 발전방안」, 1993.
- 송용섭, 「농촌지도요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
- _____, 「체계적 접근에 의한 농업연구와 지도 및 농민의 연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 신유근, 「조직행위론」, 다산출판사, 1990.
- 양승춘, 「한국농촌지도환경 변화에 따른 지도사업 특성과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4.
- 왕인근, 「농촌지도공무원의 지위와 역할」, 한국농촌개발연구, 1982.
- 조영철, 「농촌지도요원의 직업적 전문능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2.
- 최봉현,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촌지도사업의 과제와 대응방안」, 강릉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최상호, 「사회교육방법론」, 박영사, 1996.
- 한광석, “수산업 교역환경의 변화와 전망”, 「월간 해양수산 2004. 2월호」, 2004.
- 한국농촌지도학회, 「농업기술보급의 새로운 모델설정」, 2000.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부문 총량모형 구축을 위한 기반연구」, 2002.
- 해양수산부, 「수산행정기본자료」, 2002.
- _____, 「어촌지역 활성화와 어업인 복지 확충」, 2003.
- _____, 「해양수산통계연보」, 2003.

부 록

1. 수산기술보급사업 업무분석 및 효율화방안에 관한 설문
2. 새로운 어촌지도사업의 도입과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설문조사(어촌지도직)
3. 새로운 어촌지도사업의 도입과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설문조사(공무원)
4. 새로운 어촌지도사업의 도입과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설문조사(어업인)

수산기술보급사업 업무분석 및 효율화방안에 관한 설문

조사일자 : 월 일
직 급 :
성 명 :
대상기관 : () 수산기술관리과
 () 해양수산사무소

안녕하세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공동으로 「새로운 어촌
지도사업 도입 및 운영효율화 방안」이란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수산기술보급사업 업무내용을 전반적으로 재정립·
분석하여, 업무의 축소, 폐지 등을 통하여 업무를 개선하고, 새로운 업무 도입
및 운영효율화를 모색하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다른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리며, 개인에 관한 사항은 절대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지방청 수산관리 조직 및 지도업무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4. 02.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산관리과장(032-881-8826)

수산기술보급 사업 업무분석 및 효율화 방안

I. 경쟁력 있는 새로운 양식기술개발 보급

1. 귀하는 연구교습어장의 운영효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어업인의 양식기술전수에 많은 도움을 준다
 - ② 어업인의 양식기술전수에 약간 도움을 준다
 - ③ 어업인의 양식기술전수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 ④ 어업인에게 도움이 안된다

2. 귀하는 연구교습어장의 운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관리소에서 직접 운영하기 보다 어업인 어장에 예산을 지원하는 간접운영이 바람직하다
 - ② 실질적인 현장애로사업이므로 대학 등과 연계하여 좀더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③ 시간과다 투여, 과제개발 및 중복성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발전시켜야 한다
 - ④ 새로운 업무의 과중이 많으므로 점차 축소 또는 새로운 사업과 통합시켜야 한다

3. 귀하는 연구교습어장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산 부족 ② 사업자 선정 ③ 기술지도선 등 선박동원 ④ 교습어장 입지

4. 귀하는 수산기술관리소가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및 수탁시험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
 - ② 과제 개발 및 연구과제 선정의 어려움으로 참여가 힘들다
 - ③ 연구과제 관리 행정의 복잡하고, 보고서 발간 부담으로 참여가 힘들다
 - ④ 업무의 과중 부담이 크고, 직원이 부족하여 참여가 곤란하다

5. 귀하는 지역특산물 개발사업인 으뜸 품종개발과 지역특화사업(자체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지역 으뜸품종개발과 지역특화사업은 어촌특성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 ② 지역 으뜸품종개발 및 자체과제사업 모두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형식적으로 진행됨으로 과감히 축소하거나 다른 사업과 통합이 필요하다
- ③ 소득개발과 예비시험차원에서 타당하지만, 타 업무의 과중으로 수행이 어렵다
- ④ 지역 으뜸 품종개발사업과 지역특화사업에 만족한다

6. 귀하는 자연채묘 어장개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보다 과학적인 채묘를 위해 지도장비 및 인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 ② 주요패류에 대한 채묘적기 예보는 매우 중요하므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 ③ 채묘적기 예보는 지역적으로 중요한 품종에만 국한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
- ④ 많은 어업인들이 스스로 적기에 채묘를 하기 때문에 폐지해도 큰 무리가 없다

7. 귀하가 양식기술개발·보급과 관련한 다음 업무 중 통합 또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차례대로 3가지를 적어주십시오. (), (), ()

- ① 연구·교습어장
- ② 지역 으뜸품종(상품)개발
- ③ 지역특화시험사업(자체사업)
- ④ 채묘어장 개발 및 채묘지도
- ⑤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수행
- ⑥ 수탁시험사업 수행

II. 양식어장관리 및 병·재해예방지도

8. 귀하는 고소득 및 양식기술 보편화 품종의 적기기술지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주요품종에 대한 적기 기술지원 등 성과가 크므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 ② 품목별로 특기화하여 전국단위 생산관리지도가 필요하다
- ③ 주요품종에 대한 생산기술이 보편화 되어 적기기술지원의 운영이 형식에 치우치고 있어 폐지해도 무리가 없다
- ④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행 지도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귀하는 연안정지 관측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
- ② 인터넷상에 자세한 지역 해·어황 정보가 실시간 제공되기 때문에 관측이 필요없다
- ③ 매일 관측보다는 필요시에 따라 관측한다
- ④ 연안관측보다 주요양식어장 관측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10. 귀하는 양식어장 예찰 및 평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승선 순회예찰이 기초어장환경, 시설실태 및 작황을 파악하여 예찰결과를 종합분석 지도대책 수립 및 어업인에게 통보함으로 꼭 필요하다
- ② 일부 주요지역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예찰 및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지역 실정에 맞게 축소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
- ③ 일부를 보완하여 양식어업 관측제도와 병행 실시 한다
- ④ 새로 도입되는 양식어업 관측제도에 업무를 이관한다

11. 귀하는 양식어장 환경개선 지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양식어장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확대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가 해양환경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③ 현행 체제 유지가 바람직하다
- ④ 환경개선 지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폐지가 필요하다

12. 귀하는 적조예찰업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항공예찰 등 과학적 수단을 통한 적조예찰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어업인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지자체의 방제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④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
- ⑤ 수산기술관리소와 시·군 합동으로 예찰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3. 귀하는 적조예찰업무추진시 가장 큰 애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인력부족 ② 과중한 업무 ③ 예찰선박 부족 ④ 어업인 참여부족

14. 귀하는 어병예찰 진단반 운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어병감염시 신속한 진단과 치료대책 강구로 피해를 최소화 시켰다
- ② 현 어류뿐만 아니라 패류, 갑각류 등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 ③ 전국단위의 어병예찰 및 진단반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 ④ 어업인의 무분별한 약제 남용과 자가처방으로 지도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15. 귀하는 패류독소 어장예찰 및 재해예방 독려반 편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위생개념 및 재해예방에 대한 인식의 확대로 사업이 유지강화 되어야 한다
- ② 지역실정에 맞게 패류독소 및 재해예방에 대한 재 편성이 필요하다
- ③ 재해예방 독려반만 국가재난구호계획에 따라 운영할 필요가 있다
- ④ 일부지역 및 특정시기에 한정됨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

16. 귀하는 마을어업 이용관리 지도 및 어업질서 확립대책 추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어촌계 소득사업으로 더욱 발전 시켜야 한다
- ② 마을어장 생산성 향상 및 불법어업근절 운동에 기여하므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
- ③ 형식적 지도에 머물러 있으므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
- ④ 자율관리 어업에 포함시켜 점검할 필요가 있다

17. 귀하는 자율관리어업 추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주인의식고취 및 불법어업근절을 위해 수산기술관리소를 중심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 ② 모범어촌계를 적극지원 육성 차별화로 확대시켜야 한다
- ③ 추진주체의 단일화 또는 어선어업을 제외한 마을어업중심의 자율관리 등 실현가능한 사업중심으로 개편 추진이 바람직하다
- ④ 행정의 과다소요, 핵심사업부재, 어업인의 무관심 등 단순히 어촌계지원사업으로 전락하여 실질적 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지방단체에 위임해야 한다

18. 귀하가 양식어장 관리 및 병·재해 예방지도 업무 중 통합 또는 축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를 차례대로 3가지를 적어주십시오. (), (), ()

- ① 고소득 및 양식기술 보편화 품종의 적기기술지원
- ② 연안정지 관측
- ③ 양식어장 예찰 및 평가
- ④ 양식어장 환경개선
- ⑤ 적조예찰반 운영
- ⑥ 어병예찰 진단반 운영
- ⑦ 패류독소 어장예찰
- ⑧ 재해예방 독려반 편성
- ⑨ 마을어업 이용관리 지도
- ⑩ 어업질서 확립대책
- ⑪ 자율관리어업 추진

Ⅲ. 어업인교육 및 정예수산전문인력 육성

19. 귀하는 어촌순회기술교육 및 유관기관 합동교육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어업인 호응이 높으므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
- ② 순회교육은 폐지 또는 통합하고, 합동교육은 필요시 협조한다
- ③ 어촌순회 교육을 어업인정보화 교육과 병행 실시한다
- ④ 단순생산기술에 대한 지도수요 감소로 폐지가 바람직하다

20. 귀하는 지역연찬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수산기술보급 성과 및 대어업인 홍보에 있어 어업인의 호응이 높으므로 예산을 확보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 ②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와 공동 개최가 바람직하다
- ③ 관리소 단위보다는 지방해양수산청 단위로 통합연찬회가 필요하다
- ④ 어업인 소집 및 참여가 저조하므로 자체사업평가로 대신할 필요가 있다

21. 귀하는 청소년 수산교실 운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수산업과 바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다
- ② 청소년 해양교실과 통합 운영 또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
- ③ 청소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수산교실이 필요하다
- ④ 업무과중, 강의내용부실, 학생호응 저조 등으로 폐지가 필요하다

22. 귀하는 어촌후계인력 육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선정 및 관리까지 수산기술관리소가 담당한다
- ② 자금규모 확대 및 금리인하 등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 ③ 현행 체재를 유지한다
- ④ 선정 및 관리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23. 귀하가 어업인 교육 및 정예수산전문인력 육성 업무 중 통합 또는 축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를 차례대로 2가지를 적어주십시오. (), ()

- ① 어촌순회기술교육 ② 유관기관합동교육 ③ 연찬회 개최
- ④ 청소년 수산교실운영 ⑤ 어촌후계인력 육성

IV. 어촌정보화 인프라구축 운영 및 어업경영관리지도

24. 귀하는 원격영상 정보화 교육 인프라 구축운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어업인 동시교육 및 행정효율화에 크게 기여하므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 ② 국립수산과학원과 각 지방청 조직과의 연결이 필요하다
- ③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못되고 어업인 동원에 문제가 많다
- ④ 막대한 예산 투자에 비해 실효성이 적다

25. 귀하는 어업인 정보화 교육 훈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어업인 정보화 교육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 ② 기관간 교육내용 중복, 참여저조 등으로 교육효과가 낮아 재검토가 필요하다
- ③ 수산분야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④ 현행 체재 유지가 바람직하다

26. 귀하는 어촌정보사랑방 운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어촌정보사랑방을 현행대로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예산지원을 확대하여 활성화하여야 한다
- ③ 어촌계 활용능력이 저조하여 실효성이 적다

27. 귀하는 수산양식업 표준소득 조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양식품종별, 지역별 표준소득 분석 및 어업경영진단에 크게 기여하여 지속할 필요가 있다
- ② 양식어가 뿐만 아니라 어선어업, 자산과 부채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③ 향후 생산통계조사와 병행 조사할 필요가 있다
- ④ 소득조사 방법을 개선하여 업무량을 경감시켜야 한다

28. 귀하는 시장유통정보제공 및 경영일지 기록지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시장유통정보 및 경영일지 기록지도가 잘 이루어져 경영합리화에 기여하였다
- ② 실질적인 시장유통정보 제공은 강화되어야 한다
- ③ 정보제공 및 조사방법 개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아가야 한다.
- ④ 경영일지 기록저조, 각종 정보수단 발달 등으로 폐지해도 무리가 없다

29. 귀하가 어촌정보화 인프라 구축 운영 및 어업경영관리지도 업무 중 통합 또는 축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업무를 차례대로 2가지를 적어 주십시오. (), ()

- ① 원격영상 정보화 교육 인프라 구축운영
- ② 어업인 정보화 교육
- ③ 수산양식업 표준소득 조사
- ④ 시장유통정보제공
- ⑤ 경영일지 기록지도

V. 수산기술홍보 및 관리기반 조성

30. 귀하는 이달의 수산소식지 발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양식작황, 각종 수산정보, 시책홍보 등 활용도가 매우 높다
- ② 해양소식지와 통합 발행할 필요가 있다
- ③ 과(소) 단위보다는 청단위 통합발간이 필요하다
- ④ 소식지를 폐지하고 인터넷, 이메일 등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31. 귀하는 어업인 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기술문의, 고충사항 해결과 수산정보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 ② 상담실 이용 어업인이 적어 운영효과가 작다
- ③ 상담실 운영은 필요하지만 일지 작성 등 형식적인 면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 ④ 회의실 및 기타 공간 활용으로 상담실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는 없다

32. 귀하는 기술지도선 운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선박의 안전성과 효율적인 지도활동을 위하여 신조(新造) 및 대형화가 필요하다
- ② 지도선 및 출장소 선박 등을 통합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
- ③ 지도선 활용도가 낮고 특정시기에 편중되어 있어 무리한 증톤 및 건조는 자제해야 한다

33. 귀하는 기술 지도장비 확보 및 활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지도장비의 활용도가 높으므로 확충이 필요하다
- ② 장비확충보다 수리 보수가 필요하며, 일부 장비는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 ③ 기술지도장비의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④ 지도장비의 수급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34. 귀하는 선진지 견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장·단기 해외연수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
- ②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방청단위로 추진한다
- ③ 현재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 ④ 일회성 행사로 전략하여 중단할 필요가 있다

35. 귀하는 선진지 견학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중장기적인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 ② 테마별, 주제별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다
- ③ 가공, 유통, 경영 등의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다
- ④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36. 귀하는 명예 어촌지도자 운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수산기술보급사업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된다
- ② 실질적인 사업운영 미비로 효과가 적다
- ③ 명예어촌지도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 ④ 폐지 또는 수산정책자문위원회와 통합이 필요하다

37. 귀하는 생산통계 운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생산통계 조사는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 ② 통계업무 확대에 따른 인원, 교육, 예산확보가 절실하다
- ③ 생산통계에만 한정한다
- ④ 통계직 및 임시조사원이 업무를 전담하여야 한다

38. 귀하는 어업생산통계조사 업무가 차지하는 업무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10% 이하 ② 10~20% 미만 ③ 20~30% 미만
- ④ 30~40% 미만 ⑤ 40~50% 미만 ⑥ 50% 이상

39. 귀하는 어업생산통계 조사방법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주 1회 방문조사 ② 월 1회 방문 조사 ③ 격월 방문조사
- ④ 분기별 방문조사 ⑤ 월 2회 전화조사 ⑥ 월1회 전화조사

40. 귀하가 다음 업무 중 통합 또는 축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차례대로 2가지를 적어주십시오. (), ()

- ① 이달의 수산소식지 ② 어업인 상담실 운영 ③ 기술지도선 운영
- ④ 선진지 견학 ⑤ 명예 어촌지도자 운영 ⑥ 생산통계 조사

새로운 해양수산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1. 귀하는 어촌지도업무 비중축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어업인 기술지도수요가 줄어들어 당연하다
- ② 지도업무를 탈피하여 종합 수산행정체제로 변신해야 한다
- ③ 어촌소득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사업은 일정부분 유지되어야 한다
- ④ 지도가 필요한 분야가 생산지도분야에서 가공·유통·관광분야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지도업무를 발굴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2. 귀하는 수산기술관리소를 최일선 종합행정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One-Stop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어업인 편의 도모가 가능하다
- ② 수산 및 해운항만행정의 적절한 조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이다
- ③ 고유 업무 및 영역파괴로 전문성보다는 업무만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 ④ 종합행정기관보다 수산전문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 귀하는 어업용면세유류 공급 사후관리업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면세유류 점검을 통하여 부정유출 방지에 기여
- ② 기관 위상강화 및 어업인 봉사에 기여
- ③ 업무부담 가중, 조사지침미비 및 여비지원 등의 보완
- ④ 단속업무 수행 등으로 어업인과 인간관계 소원

4. 귀하는 원산지 표시 조사·확인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원산지 표시 단속으로 국산수산물 소비촉진 및 유통구조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 ② 단속과정중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추진으로 정착시켜야한다
- ③ 지자체 및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전담하고, 협조시 합동단속한다
- ④ 업무과중 및 단속업무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외시켜야 한다

5. 귀하는 양식어업관측제 도입운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생산부터 소비까지 생산전망, 가격 및 소비, 수출입동향 과학적 예측 등에 기여할 수 있다
- ② 김양식 표본어가, 가공업체조사 시범조사운영 후 도입여부 결정이 필요하다
- ③ 양식업이 해황 등 자연환경에 크게 의존 관측제 운영에 어려움 예상된다
- ④ 도입시 적절한 업무분담 및 지원책이 요구된다

6. 귀하는 수산물 직매장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전문매장 설립사업 추진으로 위상강화가 예상된다
- ②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판매사업을 통한 어업인 소득사업에 기여할 수 있다
- ③ 사업자 선정, 감독 등 업무가중이 예상된다
- ④ 지방청보다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귀하는 생산단계 HACCP 이행시설 등록·관리업무 수행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수산물 안정성 확보로 수산물 소비촉진 및 업체관리로 위상강화에 기여
- ②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으로 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
- ③ 가공·유통 및 위생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 예상
- ④ HACCP 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가중 예상

8. 귀하는 어업생산통계조사에서 수산통계로 전환한 업무확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수산통계에 대한 단계적 도입으로 수산정책기초자료 제공에 기여할 수 있다.
- ② 통계업무 수행으로 국가직 위상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 ③ 통계업무 과중으로 기술보급업무 수행에 지장, 인력 보강이 요망된다
- ④ 현행 어업생산통계조사만 실시할 필요가 있다

9. 귀하는 어업인 기술개발 과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어업인이 기술개발 주도로 연구의식 고취 및 지도직 업무경감 기여한다
- ② 현장애로기술을 어업인 스스로 해결하는 연구관리업무로 위상강화에 기여한다
- ③ 연구교습어장 축소운영 또는 통합이 바람직하다
- ④ 연구교습어장과 차이점을 모르겠다

10. 귀하는 전문지도연구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국단위 지도직 자체연구회 발족으로 자질향상 및 현안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 ② 품목별 현안별 연구모임 구성으로 전문지도 능력 배양에 기여할 수 있다
- ③ 연구직, 교수, 전업어가 등 분야별 전문가 초청 연구회 운영이 가능하다
- ④ 업무의 부담가중, 자체 연구성과미비 등으로 필요성을 못 느낀다

11. 귀하는 해운·항만관련 민원사무 26개 업무 이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원거리에 있는 출장소 사무를 대행함으로써 어업인 편의 증진에 기여
- ② 다양한 원스톱 민원처리로 수요자 편의 및 행정생산성 제고
- ③ 해운 항만 민원사무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문서 수발역할로 한정
- ④ 수산고유 업무 이외의 사업으로 업무 과중이 예상

12. 귀하가 지방청 해양수산분야 위상·역할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업무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 (), (), (), ()

- ① 수산자원조성 및 관리업무 지방청이관·강화(사업주체·내용, 사업비 배정 등)
- ② 어업질서확립 대책(어업감독권 부여 및 육상단속 병행실시 등)
- ③ 자율관리어업 체제 정착(사업주체, 사업자선정, 사업비지원 등)
- ④ 원산지 표시 제도(단속권 부여 등)
- ⑤ 양식어류 출하대책(마케팅전략, 홍보방안, 식품개발, 위생관리, 유통 등)
- ⑥ 어업인후계자 육성제도 개선(사업주체 일원화, 전국대회 체제 개선 등)
- ⑦ 김유기산 사용 활성화(사용실태설문조사, 무기산 근절대책 등)
- ⑧ 어장정화사업 추진(사업주체, 추진방법, 어장정화선 활용 및 형망어선·GRAB 준설·흡입시설 등 실제 정화방식 개선)
- ⑨ 효율적인 적조방제 대책(지역별 방제사례, 피해조사 등)
- ⑩ 각종 수산행정제도 개선(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 개정, 어장이용 개발 계획 수립, 어업권 이용실태 조사 등)

13. 귀하는 새로운 사업으로 검토되는 업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별반 차이가 없다
- ② 고유사업의 수행보다 임시방편적인 사업이 많다
- ③ 일부 사업은 도입시 새로운 역할이 기대된다
- ④ 보다 획기적인 고유사업이 도입되어야 한다

14. 귀하는 다음 업무 중 도입할 경우에 성과가 큰 순서대로 적어 주십시오.

(), (), ()

- ① 어업용 면세유 사후관리 ② 원산지 표시단속 ③ 양식어업관측제
- ④ 수산물 직매장사업 ⑤ HACCP 이행등록사업 ⑥ 수산통계조사 확대
- ⑦ 어업인기술개발 과제 ⑧ 전문지도연구회 운영 ⑨ 해운항만 민원업무
- ⑩ 지자체 업무의 사업주관

15. 귀하가 수산업무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순서대로 5개를 적어 주십시오.

(), (), (), (), ()

- | | |
|----------------------------|-----------------|
| ① 시험어장을 통한 연구개발사업 | ② 병해진단 및 예방활동 |
| ③ 적조 등 재해예방 활동 | ④ 양식생산기술 및 어장관리 |
| ⑤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유통·위생기술개발 | |
| ⑥ 어촌관광, 갯벌체험 등 고부가치 서비스 분야 | |
| ⑦ 어업인 교육 및 후계인력 양성 | ⑧ 수산통계조사 |
| ⑨ 수산정책자료 제공 | ⑩ 수산자원조성 |
| ⑪ 각종 단속 및 행정지도 업무 | ⑫ 해운·항만업무 수행 |

16.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	--

부록 II

새로운 어촌지도사업의 도입과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설문조사(어촌지도직)

안녕하십니까?

1963년 12월 국립수산물과학원에 지도과가 설립된 이후 어촌지도사업이 양식어업의 도입에 기술지도를 통하여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양식어업이 성숙기에 접어든 1990년대에 이르러 민간업체의 양식기술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수산기술관리소의 업무 중 기술지도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수산업의 국내외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산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산정책의 변화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어촌지도사업의 운영을 위한 방안의 도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수산기술관리소가 수산정책 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촌지도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어촌연구센터는 어촌의 현장에서 직접 어촌지도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는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고견을 조사하여 보다 나은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평가의 참고자료 이외에 어떠한 다른 용도로도 이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또한 개인에 관한 사항은 절대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발전적인 정부정책 수립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4. 01.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문의처: 02 - 2105 - 2866)

※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기타 난에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에 따라 한가지만 선택하시어 ‘○’ 또는 √를 해주십시오.

1. 귀하는 어촌지도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것에 만족합니까?

- ① 그렇다 → [3 문항으로 가시오]
- ② 아니다 → [2 문항으로 가시오]

2. 귀하가 어촌지도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업무가 과중하여
- ② 업무가 단순하여
- ③ 어업인에게 지도할 사항이 없어서
- ④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어서
- ⑤ 자신을 계발할 교육 또는 연수 기회가 적어서
- ⑥ 자긍심을 가질 수 없어서

3. 귀하는 현재 수행하는 수산기술관리소의 업무의 개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업무내용을 개선하여야 한다 → [4 문항으로 가시오]
- ② 업무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없다 → [5 문항으로 가시오]

4. 귀하는 수산기술관리소의 업무를 개선하여야 할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술지도에 대한 수요가 적기 때문에
- ② 수산행정 업무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 ③ 과도한 업무로 업무의 효율성이 낮아져
- ④ 기술지도 이외의 새로운 어촌지도 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5. 귀하는 수산기술관리소의 역할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연재해방지 업무
- ② 어업인의 애로사항 상담
- ③ 수산정책의 홍보
- ④ 어촌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도업무
- ⑤ 수산행정 업무

6. 귀하는 수산기술관리소의 업무 중 기술지도 사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 ② 필요 ③ 보통 ④ 조금 필요 ⑤ 필요 없음

7. 귀하는 장기 교육 및 연수과정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과정이 포함된다면 어느 과정을 선택 하시겠습니까?

- ① 생산기술 지도과정 ② 경영지도 과정
- ③ 어촌관광 지도과정 ④ 통계 수집 및 처리 과정
- ⑤ 수산행정 업무과정 ⑥ 수산 유통·가공 지도과정
- ⑦ 양식어장관리 지도과정 ⑧ 어선어업 지도과정

8. 귀하는 기술지도 업무가 어업인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 ②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 ③ 조금 도움을 준다
- ④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한다

9. 귀하는 최근 1년간 기술지도를 몇 회 정도 하였습니까?

- ① 10회 미만 ② 10회 이상 ~ 15회 미만
- ③ 15회 이상 ~ 20회 미만 ④ 20회 이상 ~ 25회 미만
- ⑤ 25회 이상

10. 귀하는 최근 1년간 어업경영지도를 몇 회 정도 하였습니까?

- ① 5회 미만
- ② 5회 이상 ~ 10회 미만
- ③ 10회 이상 ~ 15회 미만
- ④ 15회 이상 ~ 20회 이상
- ⑤ 20회 이상

11. 귀하는 기술지도를 주로 언제 합니까?

- ① 어업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 ② 수산기술관리소의 정기계획에 따라
- ③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였을 경우에
- ④ 대학 또는 연구소의 기술개발의 홍보가 필요할 경우에

12. 귀하는 어업인에 대한 기술지도시 어떤 지도수단을 주로 사용합니까?

- ① 전문기관에의 연수 또는 추천
- ② 비디오 등 시청각 자료 상영
- ③ 강의 및 강연회
- ④ 수산 기술지 및 전문지 홍보
- ⑤ 시범어장 견학
- ⑥ 어업인과 대담

13. 귀하는 어업인에 대한 기술지도 수단 중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문기관에의 연수 또는 추천
- ② 비디오 등 시청각 자료 상영
- ③ 강의 및 강연회
- ④ 수산 기술지 및 전문지 홍보
- ⑤ 시범어장 견학
- ⑥ 어업인과 대담

14. 귀하는 어촌 지도직 공무원의 기술지도가 어업인의 요구수준을 만족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 [16 문항으로 가시오]
- ② 아니다 → [15 문항으로 가시오]

15. 귀하는 어촌지도 공무원의 기술지도가 어업인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어촌 지도 공무원의 연수 또는 재교육 기회가 적어서
- ② 기술개발을 위한 장비가 부족하여
- ③ 수산행정 업무가 과중하여 기술개발을 위한 시간이 없어서
- ④ 어업인이 선진 어업기술을 먼저 습득하기 때문에
- ⑤ 연구기관과 연계가 부족하여

16. 귀하는 어촌지도의 전문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어업 기술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아무나 할 수 없다
- ② 복잡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교육을 받으면 아무나 할 수 있다
- ③ 오랜 경험이 중요하므로 전문성을 크게 강조할 것이 아니다
- ④ 모르겠다

17. 귀하는 어촌 지도와 관련된 지식은 주로 어떠한 방법으로 습득하십니까?

- ① 전문서적 및 정보지 구독
- ② 연구기관 및 대학 연수
- ③ 선진지 견학 및 시험사업
- ④ 어촌현장
- ⑤ 각종 매스컴
- ⑥ 기타

18. 귀하는 수산직·지도직의 단일화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
- ② 반대

19. 귀하는 수산직·지도직간 복수직렬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인사교류 및 보직 확대로 지도직 공무원의 사기양양에 기여
- ② 지방청 근무의 기회가 주어져 수산행정 경험 축적에 도움
- ③ 복수직렬화가 이루어지기 전과 제반 여건의 차이가 없을 것
- ④ 실질적인 인사교류의 가능성이 적을 것

32. 수산기술관리소의 조직체계를 바꾸고자 한다면 귀하께서는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 체재 유지
- ② 지방자치단체로 이전
- ③ 대단위 연구소 체제 내에 수용
- ④ 도별 1개소의 지역 어업센터로 전환
- ⑤ 기타()

33. 귀하는 수산기술관리소와 지도직 공무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꼭 있어야 한다
- ② 있으면 도움이 된다
- ③ 없어도 무방하다
- ④ 모르겠다

34. 귀하가 어촌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몇 년입니까?

- ① 5년 미만
- ② 5년 이상~10년 미만
- ③ 10년 이상~15년 미만
- ④ 15년 이상~20년 미만
- ⑤ 20년 이상

35. 귀하의 최종학력은?

- ① 고졸
- ② 전문대졸
- ③ 대졸
- ④ 석사과정 대학원졸
- ⑤ 박사과정 대학원 졸

--	--	--

부록 Ⅲ

**새로운 어촌지도사업의 도입과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설문조사(공무원)**

안녕하십니까?

1963년 12월 국립수산물과학원에 지도과가 설립된 이후 어촌지도사업이 양식어업의 도입기에 기술지도를 통하여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양식어업이 성숙기에 접어든 1990년대에 이르러 민간업체의 양식기술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수산기술관리소의 업무 중 기술지도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수산업의 국내외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산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산정책의 변화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어촌지도사업의 운영을 위한 방안의 도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수산기술관리소가 수산정책 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촌지도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어촌연구센터는 수산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공무원의 고견을 조사하여 보다 나은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평가의 참고자료 이외에 어떠한 다른 용도로도 이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또한 개인에 관한 사항은 절대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발전적인 정부정책 수립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4. 02.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문의처: 02 - 2105 - 2866)

※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기타 난에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 귀하의 소속과 성명을 기입해 주십시오.

소속 : _____

성명 : _____

※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에 따라 한가지만 선택하시어 ‘○’ 또는 √를 해주십시오.

1. 귀하는 현재 수행하는 수산기술관리소의 업무의 개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업무내용을 개선하여야 한다 ② 업무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없다

2. 귀하는 수산기술관리소의 역할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연재해방지 업무 ② 어업인의 애로사항 상담
③ 수산정책의 홍보 ④ 어촌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도업무
⑤ 수산행정 업무

3. 귀하는 수산기술관리소의 업무 중 기술지도 사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 ② 필요 ③ 보통 ④ 조금 필요 ⑤ 필요 없음

4. 귀하는 어촌지도직 공무원 대상 장기 교육 및 연수과정에 다음 중 어느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생산기술 지도과정 ② 경영지도 과정
③ 어촌관광 지도과정 ④ 통계 수집 및 처리 과정
⑤ 수산행정 업무과정 ⑥ 수산 유통·가공 지도과정
⑦ 양식어장관리 지도과정 ⑧ 어선어업 지도과정

5. 귀하는 기술지도 업무가 어업인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②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③ 조금 도움을 준다 ④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한다

6. 귀하는 어업인에 대한 기술지도 수단 중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문기관에의 연수 또는 추천
- ② 비디오 등 시청각 자료 상영
- ③ 강의 및 강연회
- ④ 수산 기술지 및 전문지 홍보
- ⑤ 시범어장 견학
- ⑥ 어업인과 대담

7. 귀하는 어촌 지도직 공무원의 기술지도가 어업인의 요구수준을 만족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8. 귀하는 어촌지도의 전문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어업 기술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아무나 할 수 없다
- ② 복잡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교육을 받으면 아무나 할 수 있다
- ③ 오랜 경험이 중요하므로 전문성을 크게 강조할 것이 아니다
- ④ 모르겠다

9. 귀하는 수산직·지도직의 단일화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
- ② 반대

10. 귀하는 수산직·지도직간 복수직렬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인사교류 및 보직 확대로 지도직 공무원의 사기양양에 기여
- ② 지방청 근무의 기회가 주어져 수산행정 경험 축적에 도움
- ③ 복수직렬화가 이루어지기 전과 제반 여건의 차이가 없을 것
- ④ 실질적인 인사교류의 가능성이 적을 것

11. 귀하는 장래에 어업인의 수요가 예상되는 지도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개 선택)

- ① 신기술 개발·보급 분야
- ② 어류질병 및 예방 분야
- ③ 가공·유통·위생분야
- ④ 어촌관광 지도분야
- ⑤ 어업경영 지도분야

--	--	--

부록 IV

새로운 어촌지도사업의 도입과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설문조사(어업인)

안녕하십니까?

1963년 12월 국립수산물과학원에 지도과가 설립된 이후 어촌지도사업이 양식어업의 도입에 기술지도를 통하여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양식어업이 성숙기에 접어든 1990년대에 이르러 민간업체의 양식기술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수산기술관리소의 업무 중 기술지도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수산업의 국내외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산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산정책의 변화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어촌지도사업의 운영을 위한 방안의 도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수산기술관리소가 수산정책 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촌지도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어촌연구센터는 수산기술관리소와 직·간접적으로 정보를 주고 받는 어업인의 고견을 조사하여 보다 나은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평가의 참고자료 이외에 어떠한 다른 용도로도 이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또한 개인에 관한 사항은 절대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발전적인 정부정책 수립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4. 02.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문의처: 02 - 2105 - 2866)

※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기타 난에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에 따라 한가지만 선택하시어 ‘○’ 또는 √를 해주십시오.

<어업여건>

1. 귀하께서 어업에 종사하신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_____년

2. 현재 귀하께서 종사하고 있는 어업의 종류를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 | | |
|----------|---------|-----------------------|
| ① 어선어업 | ② 해조류양식 | ③ 해면어류양식 |
| ④ 육상어류양식 | ⑤ 종묘배양 | ⑥ 중간육성양식 |
| ⑦ 패류양식 | ⑧ 수산가공업 | ⑨ 기타어업 () |

3. 앞으로 참여 해 보고 싶은 어업이 있다면 어느 것입니까?

- | | | |
|---------------------|----------|---------|
| ① 어선어업 | ② 패류양식업 | ③ 어류양식업 |
| ④ 수산가공업 | ⑤ 해조류양식업 | ⑥ 종묘배양업 |
| ⑦ 기타 (희망업종 : _____) | | |

4. 귀하는 현재의 어업활동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 | | | | |
|---------|------|----------|------|---------|
| ① 매우 만족 | ② 만족 | ③ 그저 그렇다 | ④ 불만 | ⑤ 매우 불만 |
|---------|------|----------|------|---------|

5. (4번 설문에서 ④, ⑤번 응답하신 분만) 불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 ① 소득이 낮다 | ② 장래성이 없다 | ③ 위험하고 일이 고되다 |
| ④ 사회적 평가가 낮다 | ⑤ 기타 () | |

6. 수산업의 경영여건이 나빠진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가지만 체크)

- ① 기술 및 장비부족 ② 자본부족 ③ 면허 및 행정규제 강화
- ④ 바다 오염 ⑤ 수산자원의 감소 ⑥ 유통·판매상의 문제
- ⑦ 기타 이유 ()

<수산기술관리소의 역할 및 발전방향>

7. 귀하는 수산기술관리소의 역할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연재해방지 업무 ② 어업인의 애로사항 상담
- ③ 수산정책의 홍보 ④ 어촌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도업무
- ⑤ 수산행정 업무

8. 귀하는 수산기술관리소의 업무 중 기술지도 사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 ② 필요 ③ 보통 ④ 조금 필요 ⑤ 필요 없음

9. 귀하는 기술지도 업무가 어업인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②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 ③ 조금 도움을 준다 ④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한다

10. 귀하는 현재 수행하는 수산기술관리소의 업무의 개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업무내용을 개선하여야 한다 ② 업무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없다

11. 귀하는 어촌지도직 공무원으로부터 기술지도(양식기술, 어병예방 및 치료 등)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8. 귀하는 수산기술관리소와 지도직 공무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꼭 있어야 한다
- ② 있으면 도움이 된다
- ③ 없어도 무방하다
- ④ 모르겠다

<일반사항>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 ② 여

귀하의 연령은?

- ① 20대
- ② 30대
- ③ 40대
- ④ 50대
- ⑤ 60대 이상

귀하의 거주지는?

- ① 인천
- ② 부산
- ③ 울산
- ④ 전북
- ⑤ 전남
- ⑥ 경기도
- ⑦ 강원도
- ⑧ 충남
- ⑨ 경북
- ⑩ 경남
- ⑪ 제주도

주 의

1. 이 보고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됩니다.